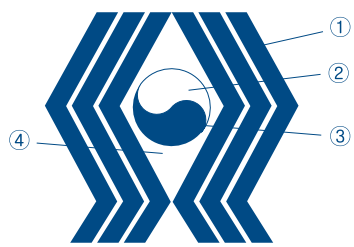
2018

사 업 보 고

REPORT ON ACTIVITIE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금속노련기에 대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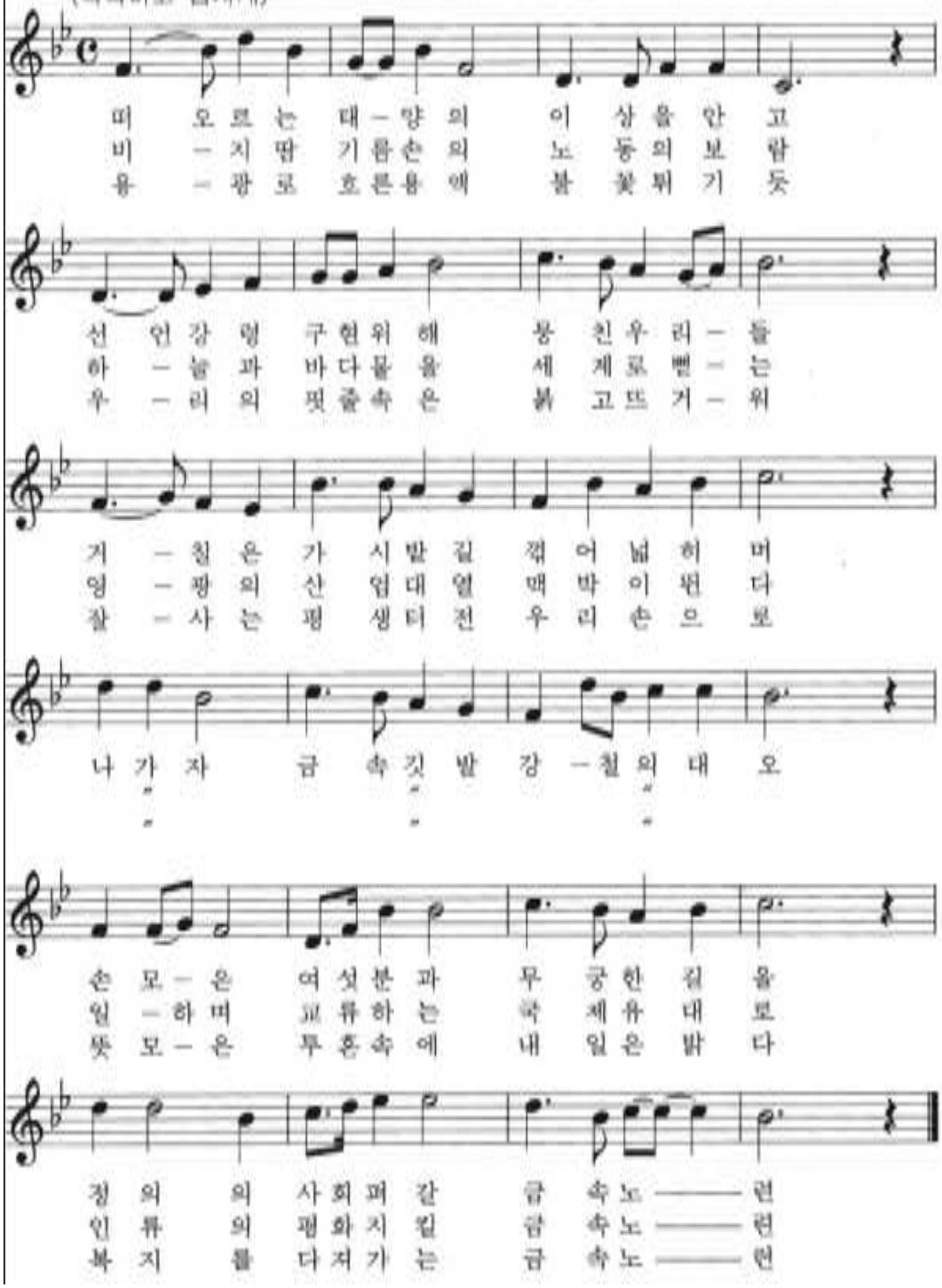
1. 손 : 즉 양손을 모았으며 그것이 6개가 됨으로써 금속연맹의 기계금속,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조선,비철금속의 업종별, 분과를 표상하고 다양한 가운데 통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어 합심단결을 과시하였으며 또 날카로운 직선은 금속의 무한한 창조성을 나타냄.
2. 태극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을 뜻함.
3. 원 : 공존공영의 번영을 나타냄.
4. 다이아몬드 : 금속의 빛과 정열, 견고함을 나타내고 정밀, 중화학공업의 중핵으로서의 가치와 불변함을 나타냄.

※ 색깔 : ①의 색은 영광으로서의 황금색 ⑤의 바탕은 남청색으로서 노동은 문화창조의 근원을 나타냄.

금 속 노 련 가

정태암 작사
나규호 작곡

(씩씩하고 힘차게)



위 원 장

김 만 재

지도위원

박 인 상

유 재 섭

이 병 균

장 석 춘

변 재 환

강 영 섭

최 웅 길

상근 임원

수석부위원장 김해광

사무처장 김준영

부위원장

강국모

권동섭

권윤미

김길섭

김동의

김동준

김수환

김영국

김용안

김종국

김태완

남재환

류재선

박칠규

박태우

방운제

배상호

배준호

석승희

신석곤

부위원장

안병철

어진호

오인상

윤동현

윤복현

윤자심

이남철

이상철

이준덕

이해관

장재성

정덕순

정란홍

정상준

최정열

최해경

한명선

허정우

황대선

회계감사

김 삼 두

송 해 광

이 가 현

최　철

황 성 원

사 무 처

조직강화본부장 김성수

정책본부장 김영미

노사대책실장 전종덕

총무실장 박선자

조직국장 노윤철

조직부장 최재원

정책부장 곽상욱

조직부장 정태교

노사대책부장 나병호

홍보부장 박강원

2018
사진으로보는
금속노련!

2018 정기대의원대회

▶201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과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을 위한 정기대의원대회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 (2018.5.15.한국노총 중앙교육원)

회의 및 행사

▶ 제18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2018 정기 대의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결의 (2018.5.3.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제18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임금인상 요구율 및 투쟁방향 심의 의결 (2019.2.21. 한국노총 6층)

▶ 금속노련 상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 (16개 지역본부와 진행함)

▶ 지역본부의장 회의 및 중집부서장 임명장 수여식(2018.7.26. 한국노총 13층)

▶ 금속노련 57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 (2018.8.24. 여의도 백화점)

회의 및 행사

▶ 하도급 거래질서확립과 연대임금실현 토론회(2018.4.30. 한국프레스센터)

▶ 남북노동자 산별지역별 상봉모임 (2018.8.11. 서울 워커힐 호텔)

▶ 금속노련 여성간부 간담회 (2018.12.03. 한국노총 회의실)

▶ 금속노련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 MOU체결(2019.2.18. 한국노총 6층)

▶ 3.1운동 100주년 강제징용노동자상 합동참배(2019.3.01. 용산역)

▶ 자동차산업 노사정포럼 출범식 (2019.1.24.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노총 제조연대활동

▶ 한국노총 제조연대 확대 출범식(2018.5.30. 한국노총 5층)

▶ 한국노총 제조연대 실무회의 (연중 수시)

국제교류 활동

▶ 한일 금속노조 교류회의(2018.10.29.~31, 일본)

▶ 베트남 산업통상노조 교류회의 (2018.8.27.~31. 한국)

▶ 일본 JCM 정기대의원대회 참석(2018.9.2.~5. 일본)

노동권 사수를 위한 연대활동

▶ 김만재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활동(연중)

▶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2018.7.13.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최저임금 개악 대통령 거부 촉구 및 최저임금 위원 탈퇴 기자회견(2018.5.29. 청와대 앞)

▶ 최저임금개악저지! 한국노총 결의대회 (2018.6.5. 광화문)

▶ 일방적 보건의료정책 강행 보건복지부 규탄! 한국노총 결의대회 (2018.7.3. 국민연금공단 서울지사)

▶ 제111주년 여성의 날 행사 한국노총 여성 노동자대회(2019.3.8.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

▶ 근로기준법 개악저지를 위한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2018.11.17. 여의도 국회 앞)

힘찬 투쟁활동

▶ 썬코어노조 고용생존권 사수 보고대회
(2018. 4.13 여의도 산업은행 앞)

▶ 남양공업노조 파업 출정식
(2018.5.24. 남양공업 내)

▶ 성암산업노조 상경집회
(2018.6.11. 서울 본사 앞)

▶ 한일제관노조 구조조정 반대집회
(2018.6.25. 경남 한일제관 앞)

▶ 아이아노조 총파업 투쟁 출정식
(2018.7.9. 안산 아이아 앞)

▶ 오토리브노조 파업출정식
(2018.10.01. 원주 오토리브 앞)

힘찬 투쟁활동

▶ 일본해사협회한국노조 파업 출정식
(2018.11.01. 부산 본사 앞)

▶ SNNC노조 총파업출정식
(2018.11.02. 포항공장 앞)

▶ 로얄앤컴퍼니 파업출정식
(2018.12.04. 화성공장 앞)

▶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외주화반대
스웨덴 대사관 앞 집회
(2018.12.6. 서울 중구 스웨덴 대사관)

▶ 로얄앤컴퍼니 총파업결의대회
(2018.12.26. 서울 사무소 앞)

▶ 태광산업지회 결의대회
(2018.12.26. 서울 본사 앞)

조직화활동

▶ 현대모비스충주협력사노조 조직화 캠페인
(2018.7.12. 현대모비스 진천공장 주위)

▶ 서울반도체노조 조직화 캠페인
(2018.7.23. 안산 서울반도체 앞)

▶ LG전자노조 서비스협력사 조직화
(2018.11.29. 전국)

▶ 포항지역 조직화 캠페인
(2018.6.19. 포항지역 전역)

▶ 포스코 광양공장 조직화 캠페인
(2018.10.02. 포스코 광양공장 앞)

▶ 포스코본사 앞 조직화 캠페인
(2018.10.23. 삼성동 포스코본사 앞)

교육활동

▶ 제조연대 선전선동교육(2018.4.9~11)

▶ 제조연대 법률학교 (2018.4.16.~18)

▶ 금속노련 여성간부 워크숍
(2018.6.20.~22)

▶ 제조연대 대표자 및 상근간부 기본교육
(2018.11.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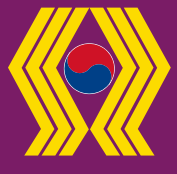
▶ 금속노련 홍보담당자교육
(2018.12.10.~11)

▶ 제조연대 제2차 산업안전보건교육
(2018.12.12.~14)

▶ 제조연대 교섭위원 1차 교육
(2019.3.18.~20)

▶ 금속노련 노동문화교육(2019.3.27.~29)

사진으로 보는 금속노련!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머리말

올해는 ILO 창립 100주년이다. 올해만큼은 ILO 기본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공감대가 주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현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의 여정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그곳에 함께 발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낙관했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비관적이다. 정권 초기부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ILO 기본협정 비준 등 친 노동자 정권임을 천명했던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은, 또 그 어느 때처럼, 죽어가는 경기·높아만 가는 청년 실업률·배를 곯는다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 등 밑도 끝도 없는 프레임들 때문에 또 어디인지 모를 곳을 헤매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 힘을 빌려,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산입범위에 상여금 및 복리후생수당을 포함시키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연장 및 휴일 중복 수당을 법으로 줄 필요가 없도록 만들고, 이제는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또는 1년으로 늘리려하고 있다. 그야말로 줬다 빼앗는 촌극이 아닐 수 없다. 노사정의 입장차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진작 비준되어야만 했던 ILO기본협정은 갑자기 경사노위의제가 되더니 어느새 누더기가 되어 버렸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만, 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 6월까지 기본협약이 비준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자본의 심장을 향해 창끝을 겨누고 그것을 날카롭게 연마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삶은 단연코 더 나아질 수 없거니와 위태롭기 그지없다는 진리 아닌 진리를 되 뇌이게 된다.

그래도 우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2018년은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할 수 있겠다. 포항지역과 광양지역의 포스코 노동자 6,500여명을 조직했고, LG전자 노동조합의 LG전자서비스 도급사원 직영화에 따른 4,000여명의 조직, ASE코리아 노동조합의 기존 미가입 직원

1,000여명 조직 등 큰 성과가 있었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에만 28개의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2,996명의 조합원이 금속노련號에 탑승했다.

한편 한국노총 산하 7개 제조산별이 뭉쳐서 한국노총 제조연대의 기치를 내걸고 여러 가지 성과 있는 사업도 벌였다. 모범단체협약집을 제작해서 전국사업장에 배포했고, 함께 교육사업을 기획·실행해서 예년의 2배에 가까운 교육생이 한국노총중앙교육원에 집결했다. 한국노총 제조연대 출범 1년 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2019년에도 한국노총 제조연대의 사업에 큰 기대를 걸어봄직하다.

통일 사업에 있어서도 그 어느 때보다 진전이 있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의 평화분위기 및 교류사업 활성화로 통일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남북노동자 산별 상봉모임에서 김만재 위원장이 대표발언을 했으며, 금강산에서 진행된 남북민화협연대모임에는 김해광 수석부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지금까지의 통일사업이 양대노총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금속노동자가 그 주축이 되어 통일사업에서 적극 활동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2019년은 우리 금속노동자들에게 결코 녹록치 않은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금속노련의 주력인 자동차와 반도체 사업장의 경기가 하강국면에 돌입함에 따라 올해 임단투 전선은 모든 곳이 빨간불이다. 그렇더라도 언제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핑크빛인 나날이 있었던가. 오직 금속노동자의 힘찬 단결과 연대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9.5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만재

목 차

선언,강령, 연혁 및 간부명단 ····· 21

총 론 ····· 35

정책기획활동 ····· 71

조사통계활동 ····· 165

교육활동 ····· 223

총무활동 ····· 235

조직활동 ····· 269

국제연대활동 ····· 311

법규활동 ····· 319

산업안전보건활동 ····· 345

대외협력활동 ····· 361

홍보선전활동 ····· 375

여성문화활동 ····· 443

선 언

역사 발전의 주역이며, 산업의 근간을 담당하는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깃발 아래 굳게 단결하여 자주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불평등한 사회제도 개혁에 앞장서는 사회중심 세력으로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 참된 민주·평등·복지·평화 통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강 령

1.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강화하여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중심이 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인 남북 평화 통일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자주·평화·민족 대 단결에 입각한 통일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3. 우리는 민주적인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하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4. 우리는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확보, 모성보호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남녀 차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데 적극 앞장선다.
5.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며, 노동운동의 도약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노동조합운동의 대통합을 실현한다.
6. 우리는 노사 대등의 원칙 아래 경영 참여를 확대하여 산업민주화와 경제 민주주의를 앞당겨 실현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투쟁한다.
7.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를 강화하여 초국적 자본의 횡포와 경쟁 만능의 신자유주의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전쟁을 막고 세계평화를 이룩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연 혁

서기 1959년 3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부산지구 철공노동조합을 주체로 하여 탄생하였으나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여 오던 중 서기 1960년 10월 대한조선공사를 주축으로 한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여 사실상 제2 노조로 등장하게 되어 긴요한 총단결 과제는 혼미상태에 이르게 되어 당시노련에서는 또다시 서기 1960년 10월에 인천중공업회사를 주축으로 한 이른바 전국철강노동조합연맹 결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 노조가 등장하는 과정에 처하여 오던 중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인하여 노동단체가 해체되고 동년 8월3일 공포된 법률 제 672 호에 의하여 단일산업별 체계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어 결성되었다. 그러나 1980 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1981년 2월 23일 개최된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거쳐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으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혁 일람표

대 회 명	개최일	위원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결성대회	59. 3. .	유익배	한승용,이원석		
한국금속노동조합 연맹결성대회	60.10. .	임한식		김사욱	
전국철강노동조합	60.10. .		준비위원회:임한식 준비부위원회:송영준,김재범		
전국금속노동조합 결성대회	61. 8.25	지연일 (인천중공업)	김재범(대한중기),이수영(삼양산업),이령(금천철공)	박종현 (삼성기계)	609
제2차대의원대회	62. 7. 2				
제3차대의원대회 (임시대회)(선출)	63. 4.12	박종현 (삼성기계)	유귀형(한국전력기계),이수영(삼양산업),권종오 (한국기계)	김득성 (기아산업)	5,034
제4차대의원대회	64. 4.30		유귀형(한국전력기계),박세천(한국기계)		8,455
제5차대의원대회	65. 4.30		최종규(금성사),이명구(인천강업)	이건성 (인천중공업)	9,110
제6차대의원대회 (임기)	66. 1. 8	박세천 (한국기계)	최종규(금성사),김병용(기아산업),박종선(한국공업)	허만성 (인천중공업)	9,984
제7차대의원대회	67. 4.27		최종규(금성사),김병용(기아산업),이의용(인천중공업)	홍순모 (일진기계)	14,038
제8차대의원대회	68. 4.30				15,223
임시대의원대회 (보선)	68. 9.20	김병용 (기아산업)	최종규(금성사),이성학(조선기업),문익모(이천전기),이규운(봉신주철),강준석(한국베아링)	이택용 (인천중공업)	17,947
제9차대의원대회	69. 4.29		문익모(이천전기),이규운(봉신주물),강준모(한국베아링),허재업(조선공사)(보선),강기태(금성사) 보선	이헌구 (한국기계) -보선	23,960
제10차대의원대회 (임기)	70. 4.30	김병용 (기아산업)	강기태(금성사),정남수(조선),하준(조선기업),이우년(한국기계)	최종규 (금성사)	25,217
제11차대의원대회	71. 1.16	김병용 (기아산업)	정남수(조선),하준(조선기업),문익모(이천전기) (보선)	최종규 (금성사)	27,306
제12차대의원대회	72. 4.28				
제13차대의원대회 (임기)	73. 4.25	김병용 (기아산업)	문익모(이천전기),강준석(한국베아링),정부경(금성사),한달수(대한전선),팽종출(조선공사),김정배(대한중기)	최종규 (금성사)	27,246
제14차대의원대회	74. 4.30				43,856

대 회 명	개최일	위원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제15차대의원대회	75. 4.23				53,293
제16차대의원대회(임기)	76. 4.21		강준석(한국베아링),정부경(금성사),하준(승리기계),한달수(대한전선)		72,809
제17차대의원대회	77. 4.27				92,756
제18차대의원대회	78. 5.20				112,891
제19차대의원대회(임기)	79. 5.11	김병용(기아산업)	하준(경북지부),정남수(부산지부),이헌구(대우중공업),팽종출(조선공사),이중석(남서울지부),정낙균(금성전선)	최종규(금성사)	138,668
제20차대의원대회	80. 6.17				126,140
제21차대의원대회(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결성임시대의원대회,정기대의원대회같음)(보선)	81. 2.23	팽종출(조선공사)-보선	최종규(금성사),민정식(금성사),박인상(조기),이준(화천),한창석(인천제철),김장선(대한전선),이상숙(금성통신),권수태(대림자동차)	김성문(대한전선)	108,846
제22차대의원대회(임기)(1983,1984년은중앙위원회로갈음)	82. 5. 7	팽종출(조선공사)	권수태(대림자동차),박인상(조기),민정식(금성사),김장선(대우전자),한창석(인천제철),조태식(효성중공업),최정원(대선조선),이성균(새한자동차),허성원(금성전선)	김성문(대한전선)	99,594
제23차대의원대회(임기)	85. 5.30	민정식(금성사)	권수태(대림자동차),박인상(조기),김세민(기아산업),김장선(대우전자),최경환(금성알프스),강창령(동부제강),최규문(국제종합기계)김장화(아세아자동차),유철규(평화크랏치)	한창석(인천제철)	19,636
제24차대의원대회	86. 5.23	민정식(금성사)	권수태(대림자동차),박인상(조기),김세민(기아산업),김장선(대우전자),최경환(금성알프스),강창령(동부제강),최규문(국제종합기계)김장화(아세아자동차),유철규(평화크랏치)	한창석(인천제철)	119,445
제25차대의원대회	87. 5.22				138,990
제26차대의원대회(임기)	88. 5.27	박인상(조기)	김세민(기아산업),김장선(대우전자),유철규(평화크랏치) 강영섭(금성사),임창기(대한중기),박기식(연합철강),정기춘(화천),이영복(현대자동차),이금수(크라운전자),양동생(대우조선),박병윤(대우통신),이성균(대우자동차),차경준(한국중공업)	김성문(대한전선)	295,864
제27차대의원대회	89. 5.26		김장선(대우전자) 강영섭(금성사),박기식(연합철강),정기춘(화천),이영복(현대자동차),박병윤(대우통신),이성균(대우자동차),차경준(한국중공업)		356,900
제28차대의원대회	90. 5.11	박인상(조기)	김장선(대우전자) 강영섭(금성사),박기식(연합철강),정기춘(화천),	김성문(대한전선)	389,060

대 회 명	개최일	위원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박병윤(대우통신),이성균(대우자동차),차경준(한국중공업)		
제29차대의원대회(임기)	91. 5.15	박인상(조기)	수석:김장선(대우전자) 상임:김성문(대한전선),정창영(금성전선) 박기식(연합철강),유재섭(금성사),박병윤(대우통신),정기춘(화천),차경준(한국중공업),정학균(대동조선),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박영호(영창악기),피희중(동해전장),염성태(대우중공업),양재석(동부제강),강규석(기아특수강),박영구(럭키금속),전덕진(현대전자),허관무(기아자동차)	최웅길(동양강철)	272,078
제30차대의원대회	92. 5.13	박인상(조기)		최웅길(동양강철)	262,078
제31차대의원대회	93. 5.20	박인상(조기)	수석:김장선(대우전자) 상임:김성문(대한전선),정창영(금성전선) 박기식(연합철강),유재섭(금성사),박병윤(대우통신),정기춘(화천),차경준(한국중공업),정학균(대동조선),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박영호(영창악기),피희중(동해전장),염성태(대우중공업),양재석(동부제강),강규석(기아특수강),박영구(럭키금속),전덕진(현대전자),허관무(기아자동차),김영철(현대전자),김관태(기아자동차)	정창영(금성전선)	
제32차대의원대회(임기)	94. 5.17	박인상(조기)	상임:김성문(대한전선),정창영(금성전선),최웅길(동양강철) 유재섭(금성사),정학균(대동조선),안영환(동부제강)김영철(현대전자),박천석(기아써비스),전재환(대우중공업),정기춘(화천),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박영호(영창악기),김동교(인천제철),오봉출(한진섬유기계),박영구(럭키금속),하영일(금성전선),박한주(코리아스파이서),김경조(쌍용중공업),김윤주(범양냉방),백종부(부산파이프)	정창영(금성전선)	243,271
제33차대의원대회	95. 5.12	박인상(조기)	상임:김성문(대한전선),정창영(금성전선),최웅길(동양강철) 유재섭(금성사),정학균(대동조선),안영환(동부제강)김영철(현대전자),박천석(기아써비스),전재환(대우중공업),정기춘(화천),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박영호(영창악기),김동교(인천제철),오봉출(한진섬유기계),박영구(럭키금속),하영일(금성전선),박한주(코리아스파이서),김경조(쌍용중공업),김윤주(범양냉방),백종부(부산파이프),이병균(대우전자),장지태(경창산업)	정창영(금성전선)	183,200
제34차대의원대회(보선)	96. 5.15	유재섭(LG전자)-보선	상임:김성문(대한전선),정창영(LG전선),최웅길(동양강철) 정학균(대동조선),안영환(동부제강)김영철(현대전자),정기춘(화천),오봉출(한진섬유기계),박영	정창영(LG전선)	160,327

대 회 명	개최일	위원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구(럭키금속), 하영일(LG전선), 김경조(쌍용중공업), 김윤주(범양냉방), 백종부(부산파이프), 이병균(대우전자), 장지태(경창산업)		
제35차대의원대회(임기)	97. 5.16	유재섭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 정기춘(화천), 김경조(쌍용중공업), 나찬경(LG전자), 김영철(현대전자), 하영일(LG전선), 강익화(대한전선), 강창영(동부제강), 백종부(세아제강), 황창배(대우전자), 김복천(정일공업), 강석수(창원공업), 김무호(한국파워트레인), 강한우(삼신), 김윤주(범양냉방, 강진호(연합철강), 김상수(동아건설), 지수식(삼영전자), 이정석(기아특수강), 박영구(LG금속)	이병균(대우전자)	169,628
제36차대의원대회	98. 5.20	유재섭(LG전자)	상임: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 정기춘(화천), 김경조(쌍용중공업), 김영철(현대전자), 하영일(LG전선), 강익화(대한전선), 강창영(동부제강), 백종부(세아제강), 황창배(대우전자), 김복천(정일공업), 김무호(한국파워트레인), 강한우(삼신), 강진호(연합철강), 김상수(동아건설), 지수식(삼영전자), 이정석(기아특수강), 김만재(현대전자), 이병균(대우전자), 박병용(대창단조), 김수도(대우전자)	이병균(대우전자)	138,858
제37차대의원대회	99. 5.20	유재섭(LG전자)	상임: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 장석춘(LG전자), 허원(칩팩코리아), 도정복(LG전선), 김두형(대성공업), 신성균(한화구로), 박병도(LG정밀), 신향철(대한전선), 문광주(세진전자), 강영철(현대반도체), 변재환(LG필립스)	이병균(대우전자)	124,097
제38차대의원대회(임기)	00. 5.24	유재섭(LG전자)	상임: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파견), 문광주(세진전자), 김만재(현대전자) 장석춘(LG전자), 강창영(동부제강), 김상수(동아건설), 김수도(대우전자), 서갑순(한국특수공구), 하영일(LG전선), 김영철(현대전자), 지수식(삼영전자), 도정복(LG전선), 허원(칩팩코리아), 황창배(대우전자), 손종흥(대한제당), 이병욱(태양금속), 강한우(삼신), 김무호(한국파워트레인), 김경조(쌍용중공업대구), 김두형(대성공업), 강진호(연합철강)박병용(대창단조), LG필립스(변재환), 강영철(현대반도체), 박병도(LG이노텍), 배동한(한국철강), 이정석(기아특수강)	이병균(대우전자)	106,126
제39차대의원대회	01. 5.25.	유재섭(LG전자)	보선-정상영(하이니스반도체), 조병철(대한전선), 김인배(LGPhilipsDisplays)	이병균(대우전자)	102,770
제40차대의원대회(보선)	02. 5.10	이병균(대우전자)	보선-김한모(칩팩코리아), 김준수(하이닉스반도체청주), 김한성(충북본부), 신택기(울산본부), 정일진(LG전자), 김길주(기아특수강), 김광호(안산	김만재(하이닉스반도체)	101,985

대 회 명	개최일	위원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시흥본부), 이문호(경남본부), 김도론(포항본부)		
제41차대의원대회 (임기)	03. 5.22	이병균 (대우일렉트로닉스)	상임-정창영.문광주.정일진.김만재. 장석춘서갑순.최경호.김순호.하영일.지수식.도정복.정상영.조병철.김한모.황창배.손종흥.이병욱.김광호.김두형.강한우.강창영.김한성.김준수.이문호.최해경.강진호.권동재.신택기.손은진.김경조.김무호.변재환.강영철.김인배.강학중.김길주	김만재 (하이닉스반도체)	100,850
제42차대의원대회	04. 5.20.	이병균 (대우일렉트로닉스)	상임-정창영.문광주.정일진.김만재. 장석춘서갑순.최경호.김순호.하영일.지수식.도정복.정상영.조병철.김한모.허원.이복교.황창배.손종흥.이병욱.김광호.김두형.강한우.강창영.김한성.김준수.이문호.최해경.강진호.권동재.신택기.손은진.김경조.김무호.이복교.변재환.강영철.김인배.강학중	이정석 (세아베스틸)	100,942
제43차대의원대회	05. 5.25	이병균 (대우일렉트로닉스	상임-문광주.정일진.김만재. 장석춘.서갑순.최경호.지수식.도정복.정상영.조병철.허원.손종흥.이병욱.김광호.김두형.강한우.김한성.김준수.이문호.최해경.권동재.신택기.손은진.김경조.이복교.변재환.강영철.김인배.강학중	이정석 (세아베스틸)	105,445
제44차대의원대회 (임기)	06. 5. 3	장석춘 (LG전자)	상임-김만재.정일진 서갑순.허원.정상영.윤동현.변재환.지수식.노남섭.정종철.유은식.김재업.백승탁.김정근.손창두.강영석.김광호.이병욱.김두형.배승천.장재성.고석희.왕용호.김한성.김준수.박정민.박병용.주해식.황대선.김희근.권동재.박한봉.장준영.박준수.정진용.이상협.김순창.이복교.정한근.신석곤.강영철.김인배.김병수.강학중.최정열.하헌준.김흥배	손종흥 (대한제당)	114,919
제45차대의원대회	07. 5.22	장석춘 (LG전자)	상임-김만재.정일진 서갑순.허원.정상영.윤동현.변재환.지수식.노남섭.정종철.유은식.김재업.백승탁.김정근.강영석.김광호.이병욱.김두형.배승천.장재성.고석희.왕용호.김한성.김준수.박정민.박병용.주해식.황대선.김희근.권동재.박한봉.장준영.박준수.정진용.이상협.김순창.이복교.정한근.신석곤.강영철.김인배.김병수.강학중.최정열.하헌준	손종흥 (대한제당)	108,206
제46차대의원대회 (보선)	08. 5.22	변재환 (LG Display)	상임-김만재.정일진 서갑순.박준수.조병철.김정근.허원.정상영.윤동현.지수식.노남섭.정종철.유은식.문광주.김재업.백승탁.손창두.손종흥.강영석.김광호.이병욱.김두형.오기순.배승천.장재성.고석희.박정용.왕용호.김한성.김준수.박정민.조경주.박병용.황대선.	김성수 (OTIS엘리베이터)	103,429

대 회 명	개최일	위원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김희근.권동재.이상철.장준영.최해경.정진용.이상협.김찬중.김순창.정한근.신석곤.김동준.강영철.김인배.김동의.김병수.강학중.최정열.하헌준.석승희		
제47차대의원대회(임기)	09. 5. 7.	변재환(LG Display)	상임-김만재.정일진. 서갑순.박준수.김정근.조병철.오용환.허원.김길섭.윤동현.박종현.박덕규.정종철.문광주.노남섭.김덕수.백승탁.박상규.오인상.강영석.김광호.김형기.오기순.배승천.박정용.고석희.정덕순.왕용호.이승현.김준수.조경주.윤종남.권동재.황대선.박병용.조용석.김희근.전광언.주해식.이상철.최해경.박한봉.장준영.정진용.박한배.김순창.김동준.윤승오.김채민.신석곤.나영섭.강영철.김인배.김동의.조성륜.김병수.정상준.이동철.장복이.하헌준.최정열.석승희	김성수(OTIS엘리베이터)	106,897
제48차대의원대회	10. 5. 4.	변재환(LG Display)	상임-김만재.정일진.김성수. 서갑순.박준수.김정근.조병철.오용환.허원.김길섭.윤동현.박종현.박덕규.정종철.문광주.노남섭.김덕수.박태석.백승탁.박상규.오인상.강영석.김광호.김형기.오기순.배승천.박정용.고석희.정덕순.왕용호.이승현.김준수.조경주.윤종남.권동재.황대선.박병용.조용석.김희근.전광언.주해식.이상철.최해경.박한봉.장준영.정진용.박한배.김수환.김동준.윤승오.김채민.신석곤.나영섭.강영철.김인배.김동의.이상덕.김병수.정상준.이동철.장복이.김찬중.하헌준.최정열.석승희	김성수(OTIS엘리베이터)	106,804
제49차대의원대회	11. 5.18.	변재환(LG Display)	상임-김만재.정일진.김성수. 서갑순.배상호.김기태.허원.윤동현.김길섭.박종현.박덕규.정종철.박태석.김덕수.문광주.노남섭.이기동.박상규.김정근.오인상.강영석.김광호.김형기.오기순.배승천.박정용..고석희.정덕순.왕용호.이승현.김준수.조경주.윤종남.황대선.주해식.박병용.조용석.김희근.전광언.이상철.최해경.배동한.박한봉.장준영.정진용.박한배.정상욱.이동철.장복이.김찬중.김수환.김동준.윤승오.김채민.신석곤.나영섭.강영철.김인배.김동의.이상덕.석호진.김병수.정상준.최정열.하헌준.설승욱.석승희	김성수(OTIS엘리베이터)	108,178
제50차대의원대회(임기)	12. 5.10.	김만재(SK하이닉스)	상임-김만재.석호진정일진.김성수 서갑순.김길섭.김영국.강영석.오기순.정덕순.왕용호.황대선.이상철.이동철.김수환.서성묵.정상준.최정열.설승욱.석승희.배상호.김기태.박태석.윤동현.이기동.문광주.윤자심.박은미.이영자.박상규.김광호.한명선.정금선.김준수.조경주.전광언.정상욱.장준영.김봉영.김동준.신석곤.한창욱	김성수(OTIS엘리베이터)	126,690

대 회 명	개최일	위원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제51차대의원대회	13. 5.10.	김만재 (SK하이닉스)	상임-김만재.석호진(수석)정일진.(상임),김성수(상임),서갑순.김길섭.김영국.윤석진.오기순.정덕순.김광희황대선.이상철.이동철.김수환.서성묵.정상준.최정열.석승희.배상호.박태석.윤동현.윤자심.박은미.윤복현,박상규.김광호.한명선.김준수.조경주.정상욱.장준영.김봉영.김동준.신석곤.한창욱	김성수 (OTIS엘리베이터)	127,383
제52차대의원대회	14. 5.20.	김만재 (SK하이닉스)	상임-김만재.석호진(수석)정일진.(상임),김성수(상임),장세종.김길섭.김영국.윤석진.오기순.정덕순.김광희황대선.이상철.이상협.김수환.서성묵.정상준.최정열.석승희.배상호.박태석.윤동현.윤자심.박은미.윤복현,박상규.김광호.한명선.김준수.조경주.정상욱.장준영.김봉영.김동준.신석곤.한창욱	김성수 (OTIS엘리베이터)	128,582
제53차대의원대회 (임기)	15. 5.20.	김만재 (SK하이닉스)	상임-김만재.정일진.(수석),김성수(상임),장세종.김길섭.오인상.윤석진.오기순.정덕순.김광희.황대선.이상철.이상협.김수환.서성묵.김영곤.최정열.석승희.김태완.배상호.박태석.윤동현.권동섭.윤복현.윤자심,김영국.박상규.김광호.한명선.장재성.김준수.조경주.정상욱.최해경.정진용.김봉영.김찬중.김동준.박칠규.한창욱.김동의.정상준	김성수 (OTIS엘리베이터)	128,905
제54차대의원대회	16. 5.17.	김만재 (SK하이닉스)	상임-김만재.정일진.(수석),김성수(상임),장세종.김길섭.오인상.방운제.이남철.정덕순.이해관.황대선.이상철.남재환.김수환.서민호.최정열.석승희.김태완.배상호.허정우.권동섭.윤복현.윤자심,김영국.박상규.윤동현.김광호.한명선.장재성.김준수.조경주.정상욱.최해경.정진용.김봉영.김찬중.김동준.박칠규.신석곤,한창욱.김동의.정상준	김성수 (OTIS엘리베이터)	129,163
제55차대의원대회	17. 5.23.	김만재 (SK하이닉스)	상임-김만재.정일진.(수석),김해광.김길섭.오인상.방운제.이남철.정덕순.이해관.황대선.이상철.남재환.김수환.배준호.천정근.최정열.석승희.김태완.배상호.허정우.권동섭.윤복현.윤자심,김영국.박상규.윤동현.김광호.한명선.장재성.강국모.류재선.최해경.정진용.이준덕.김동준.박칠규.신석곤,한창욱.김동의.정상준	김준영 (부천지역)	127,447

제56차대의원대회(임기)	18. 5.15.	김만재(SK하이닉스)	상임-김만재.김해광.(수석), 김용안,김길섭,오인상,방운제,이남철,정덕순,이해관,황대선,이상철,남재환,김수환,배준호,정상준,최정열,김태완,석승희,배상호,권동섭,권윤미,윤복현,허정우,윤자심,김영국,윤동현,한명선,장재성,정란홍,강국모,박태우,안병철,김종국,류재선,최해경,이준덕,김동준,박칠규,신석곤,김동의,어진호	김준영(부천지역)	136,009

❍ 임 원 (2018. 5. 15)

직 책	성 명	소속 조합명	직 책	성 명	소속 조합명
위 원 장	김만재	Sk하이닉스이천	수석부위원장	김해광	LG전자
사무처장	김준영	부천지역	부위원장	김용안	대우전자서비스
부위원장	김길섭	에이엔피	부위원장	윤자심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오인상	삼성공업	부위원장	윤복현	세진전자
부위원장	방운제	일진전기반월	부위원장	김영국	머큐리
부위원장	이남철	진합	부위원장	윤동현	스태츠칩팩코리아
부위원장	정덕순	두원공조	부위원장	한명선	대동모벨시스템
부위원장	이해관	LS산전	부위원장	장재성	새론오토모티브
부위원장	황대선	대선조선	부위원장	정란홍	두올아산
부위원장	이상철	세아창원특수강	부위원장	강국모	SK하이닉스청주
부위원장	남재환	울산알루미늄	부위원장	박태우	현대모비스
부위원장	김수환	카펙발레오	부위원장	안병철	부산주공
부위원장	배준호	매그나칩반도체	부위원장	최해경	한국중천
부위원장	정상준	TCC한진	부위원장	김종국	덴소코리아마산
부위원장	최정열	광주일반	부위원장	류재선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위원장	김태완	세아베스틸	부위원장	이준덕	풍산
부위원장	석승희	한일전기	부위원장	김동준	평화발레오
부위원장	배상호	LG전자	부위원장	박칠규	에스엘
부위원장	권동섭	LG디스플레이	부위원장	신석곤	평화산업
부위원장	권윤미	LG디스플레이	부위원장	김동의	LG이노텍
부위원장	허정우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어진호	엘에스엠트론

❍ 지도위원

박 인 상	유 재 섭	이 병 균	장 석 춘
변 재 환	강 영 섭	최 웅 길	

❍ 회계감사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 삼 두	SL라이텍	최 철	핸즈코퍼레이션
송 해 광	JMI	황 성 원	대철
이 가 현	LG디스플레이		

❍ 중앙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오성원	롯데알미늄	김귀녀	한국보그워너티에스
이상걸	LG전자	한주연	SK하이닉스청주
정혜영	LG전자	박대엽	YKSteel
김송훈	신한일전기	윤각열	대한제강
심일순	이젠텍	김은겸	GMB코리아
오유진	파주전기초자	손승일	세방전지
원철식	에이엔피	이정희	삼성공조
김수호	동부인천스틸	조대형	고려아연
김제곤	린나이코리아	김기표	경창정공
박상규	동국제강	이상윤	평화오일씰
강영석	삼보오토	허도영	평화정공
김진업	서진산업	채근욱	LGDisplay
장영기	PN풍년	한창욱	SK실트론
윤익병	남선기공	박순덕	세아특수강
강진연	대한전선	이종욱	세아제강
양시준	동양철관	장복이	영신정공
이창수	애디언트코리아	공지순	우영산업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강현민	한라스택폴	김학송	대유글로벌
이상용	한국보그워너티에스	엄태욱	오토리브
중앙위원 예비			
전상	K-MEC	남원섭	스타리온성철
민한기	리한	허문근	DIC
양승조	우일정밀	황성원	대철
강상욱	비츠로	정동민	노틸러스효성
진현주	알루코	진선일	선화이엔지
최중진	인팩	정관	대유에이텍
박대철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김호연	가온전선
박창혁	대창단조	이종상	토다이수

❍ 중앙집행위원 2019. 3. 31 기준

직 책	성 명	소속조합명	직 책	성 명	소속조합명
조직강화본부장	김성수	본노련	정책기획본부장	김영미	본노련
총무실장	박선자	본노련	노사대책실장	전종덕	본노련
정책기획1국장	김경호	삼영전자	정책기획2국장	강철희	영풍석포제련소
조사통계국장	정진영	LG디스플레이	대외협력국장	류성룡	대동하이렉스
조직1국장	허일욱	대덕전자	정치국장	안교신	삼 동
조직2국장	하두호	TK-FUJIKIN	노사대책1국장	김성수	세원셀론텍
통일사업국장	최인석	삼양감속기	법규국장	윤재욱	AST
문화국장	김영삼	SK하이닉스청주	여성국장	모경임	현대모비스
홍보선전국장	김동일	현대종합금속	산업안전국장	손성범	화천기공

총 론

1. 2018년 정세 전망 ····· 37
가. 경제 ····· 37
나. 정치 ····· 38
다. 남북관계 ····· 40
라. 노동 ····· 40

2. 2018년 금속산업(제조업) 전망 ····· 45
가. 11대 주력산업 전망과 특징 ····· 45
나. 2018년 주요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46
다. 2018년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 50

3. 2018년 금속노련 임단투 목표와 요구 ····· 62
가. 금속노련 2018년 3대 목표 ····· 62
나. 2018년 금속노련 임단투 요구 ·····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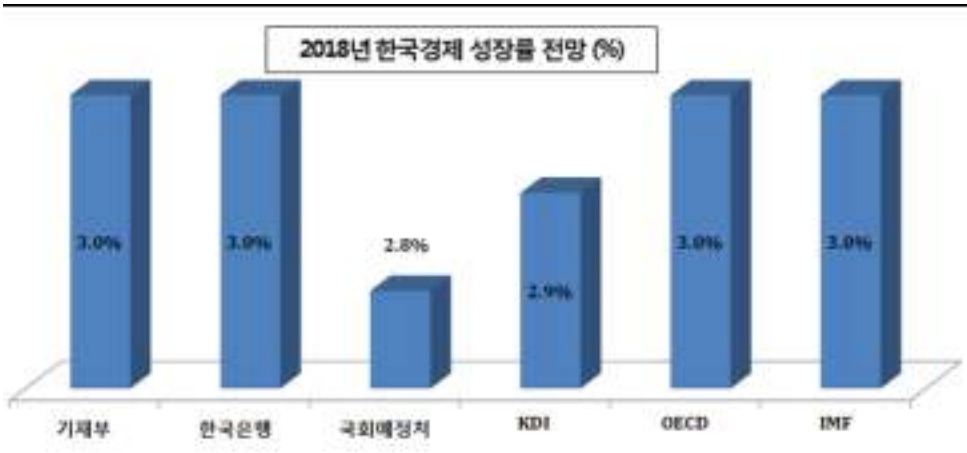
1. 2018년 정세 전망

가. 경제

(1) 2018년 경제는 비교적 낙관적 전망이 우세함.

❍ 국내외 기관들이 전망한 2018년 경제성장률은 2017년 전망치와 유사하거나 소폭 높은 2.8%~3.0%

- ▸ 원인 : 세계교역 회복,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반도체 수출 견인 등
- ▸ 반도체 업종에서 확산된 광범위한 수출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선순환흐름으로 연결될 경우 예상보다도 높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개선이 가능
- ▸ 하방리스크 : 미국 보호무역 기조, 금리인상 압력, 높은 가계부채, 지정학적 긴장 등



(2) 물가상승률 폭 축소

❍ 석유류 가격의 기저효과 축소와 농축수산물가격의 안정세로 2018년도 소비

자물가상승률은 '17년 1.9%보다 낮아질 전망임(KDI, 2017.12.)

(3) 고용

○ 2018년 취업자 수 증가는 2017년(32.4만 명) 대비 소폭 둔화된 31.5만 명 예상

▸ 건설경기 둔화 및 생산성이 낮은 일부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증가 한계가 있으나 정부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지속

▸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에 기인하여 제조업 취업자 수가 '17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여파 지속,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화학 부문의 업황 개선 효과 제한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도 10만 명 내외 증가

▸ 실업률은 3.8% 수준, 고용률은 61% 내외,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로 63%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

나. 정치

(1) 6월 지방선거와 이를 전후로 한 정계개편, 헌법개정, 선거제도 개선 등이 쟁점

○ 6월 지방선거는 현재까지 조성되는 정세(대선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보수야당의 정국 키워드 상실과 인물 부재론 등)를 비춰볼 때 집권여당의 선전이 조심스럽게 전망

▸ 다만, 민주당내 홍영표 등 패권주의세력과 문재인 정부내 신자유주의자들의 준동으로 경제·사회·노동분야에서 보수화되어가는 정책 변화흐름은 민심이반이자 정국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집권여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구조와 지방정부의 역할 대두

▸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넘어서 중앙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정치적 실험의 장, 중앙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노동존

중사회 실현, 포용복지와 공정성장 등 국정과제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과제 : 지방선거 전략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여 조직적·통일적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4월까지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선정한 후 유력후보자와 정책협력·연대를 강화하여 지방선거 정책이슈를 대중적으로 공론화함.

(2)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 국회 개헌특위 활동시기는 1월말까지로 연장하고, 6월 국민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으로써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개헌은 상수

- 촛불 시민혁명의 결과가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30년전 헌법을 새로이 바꿔야 함. 그 주요 내용은 계승해야할 가치(우리 근현대사의 4.19, 5.18. 6월 항쟁, 촛불시민항쟁과 같은 국민주권의 가치와 민주주의 실현)를 담는 것, 헌법 총강에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33조 노동기본권, 동일가지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정규직 직접고용, 경영참가, 이익균점권 보장, 사회적대화 헌법기구화 등
- 개헌이 보수정당의 반대에 부딪혀 6월 국민투표 시기를 넘기더라도 2018년 안에 개헌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

○ 선거제도 개혁

-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구도를 개혁해야 함. 보수정당체계 또는 양당체계 하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실현되지 않음.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선거연령을 낮추고,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함.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국민의 공민권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함.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난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하였지만 여야 정치권이 야합하며 비례대표 수를 오히려 축소함. 독일 녹색당은 지역구 의원이 단 한명도 없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통해서 제3당의 위치에 올라서 있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노동자 서민의 요구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한 초석임.

다. 남북관계

○ 2017년 내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대북강경정책을 쏟아 붇고 있는 트럼프 미 행정부와 이에 맞서는 북의 대결로 휴전이후 최고의 긴장국면이 지속 →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2개월간 군사훈련을 중단 제안 → 이를 계기로 북미간 협상의 길이 열릴지, 적대적 물리적 대결국면으로 갈지의 중대한 고비를 맞이함.

▸ 문제는 남북간 문제는 남북 스스로가 결정해야하고, 특히, 북에 대한 미국의 도발행위는 한국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점임. 따라서 2018년 중대한 시점에서 한국노총의 통일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긴장완화를 위한 자주교류사업 확대와 대중적인 반전평화운동

라. 노동

(1) 2018년 주요 노동이슈는 '2017년 노사관계 주요 쟁점이 이월 되어 확산'될 것

○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등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제도 개악 저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행과정에서 갈등과 민간부문으로 비정규직 감축 확산 등

○ 실노동시간 단축 :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까지 정치권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불발됨.

▸ 2017. 11. 23.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휴일근로 연장근로포함(주52시간 상한제)에 대해 중복할증 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2021.7.까지 단계적 유예, 특례업종은 10개로 축소하는 패키지안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저지시킴.

※ 한국노총은 우선적으로 특례업종 폐지하여야 하며,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먼저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변경하고, 대법원 판결직후 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2017. 12. 21. 환노위 간사회의를 개최하여 근로기준법 재개악 시도 : 민주당 한정애 간사는 기존입장을 약간 변경하여 2021. 7.까지 3단계 유예, 중복할증수당은 2021. 7.부터 적용, 특례업종을 2018. 7.부터는 10개로 축소하고 2021. 7.부터는 52시간 내로 제한하는 안(案)을 제시하였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간사가 이를 거부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은 2018. 2. 국회로 이월됨.
- 2018. 2. 임시국회와 새봄 대법원의 판결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향배를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

※ 국회 회기중이 아닌 시기에 법안심사 등 상임위 활동이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

- 노동계 입법대안 마련과 대정부·대국회를 상대로한 노동시간단축 연석회의 제안
- 대법원은 2018. 1. 18. 공개변론 이후 3월경 판결할 것으로 예상됨. 하급심(고법 14건중 11건 원고승소) 결과가 인용될 것이라는 '긍정설'과 대법관들의 보수성향과 노동법 이해 부족 등으로 '부정설'이 함께 전망

❍ 최저임금제도 개악시도 :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7530원, 한국노총이 요구해온 최저임금 1만원까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음.

▸ 2017년 최저임금 협상과정부터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법 개악 주장. 협상이후 최저임금위원회는 9월부터 '6개 연구' 용역 추진, 지난 12월 6일 관련토론회가 열린 자리에서 최저임금 산업범위 조정문제가 쟁점이 됨.

※ 현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시키는 편법과 꼼수가 활개를 침.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거나,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는 최저임금 범위의 확대는 명백한 불법임.

구 분	연 구 주 제
노동계	①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②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③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사용자단체	④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⑤ 업종·지역별 등 구분적용 방안
	⑥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개편

▸ 2017. 12. 22.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음. 2018. 1. 10. 이에 대한 노사입장 확인 및 2018. 2. 안에 최임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식대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로서 3가지 안(복리후생비 산입, 정기상여금 산입, 대부분의 임금과 금품 산입)을 제시하여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임.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보다 먼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함.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가 제도상 유사한 점에 비추어 통상임금 정의규정을 근로기준법에서 우선 개정한 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여 통일하는 것이 오히려 이치에 맞음.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칠 경우 최저임금 제도개편 문제는 2019년 내에 완료될 수 있음. 국회 논의과정에서 근로기준법 개정(통상임금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정기상여금은 재직자규정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이라고 규정)이 지연될 경우 더 늦어질 수도 있음.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이 아니라 자(子)회사 방식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비화되고 있음. 전환대상자 40만명 가운데 교육공무직 등이 포함되지 못하면서 이의 절반수준인 20만명 만이 전환대상으로 정해진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행과정도 역시 매우 더딘 가운데 2017년내 전환 목표치는 7만4천명이었지만 6만여명 만이 전환되어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

함.

- 노동현장에서는 이행과정에서 노정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예사롭지 않음. 문제 해법은 매우 간단함. 즉, 한국노총이 제기한 기준인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과 정부예산 및 정원 인력이 반영되면 됨.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공공고용공단을 설립하여 간접고용(용역·파견 등)의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을 직접고용하고 공공파견형식을 취하면 임금체계, 처우, 인사관리 등에서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음.
- 정부는 850개소에 달하는 공공기관에서 갈등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정부가 노동계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손쉬운 방법에 집착한다면 비정규직문제는 노정갈등의 시작이 될 것임.
- 비정규직의 감축과 차별해소 문제는 공공을 넘어서 민간부문으로 확산 중인 상황임. 파리바게트에 이어 민간부문에서 제2, 제3의 불법파견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상시·지속적 일자리에 정규직을 직접고용하는 원칙과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제한, 차별시정제도 등 비정규직 관련법을 개선해야 함. 국회 지형상 지연될 소지가 있다면 먼저 정부행정상 가능한 조치부터 강화해야 함.

(2) 사회적 대화 개시와 노동관계법 개정으로의 전환

❍ 사회적 대화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음. 한국노총 위원장이 2017. 9. 26.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를 제안한 이후, 대통령 역시 형식에 구애를 받지 말고 개시하자는 화답이 있었음. 그러나 관련 정부주체인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연됨.

❍ 연초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개최된다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과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4차 산업혁명 의제와 금속·자동차 등 주요산업에서 관련 위원회 구성 등 준비 역할을 맡고 2018. 3.경 노사정위원회 본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체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임.

❍ 한국노총은 주거·조세·교육 등 사회안전망 문제와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문제해소 등 의미있고 손쉬운 의제부터 사회적 대화를 개시하자는 입장임. 이를 통해서 2019. 4.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ILO창립

100주년에 맞추어 한국사회의 대전환과 노동존중사회를 선포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국정과제 일정상 2018년내 달성해야 할 과제 추진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도입,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실업급여 지급기간 30일 이상 연장 등)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노조법 개정 및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 4월부터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맞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정부가 이미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행과 가입자인 노동자 중심의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편 등

(3)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상 우경화·보수화 흐름과 차단

○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좌우 진보와 보수간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연합형 정부

▸ 권력 실세들 중 재정, 산업분야에 포진된 이른바 모피아 세력은 여전히 노동을 경시하고,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국정과제를 흔들고, 우경화 보수화흐름을 조성하고 있음. 2017. 7.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후 산입범위 확대, 휴일근로 연장근로 건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이들 신자유주의자들과 결탁하여 홍영표 등 민주당 보수패권주의 세력은 민주당내 권력 장악을 통해 보수·우편향식으로 노동정책을 전면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달리는 이상한 드라이브 조짐을 보이고 있음. 당정청 관계자들은 참여정부가 왜 노동정책을 비롯한 각종 개혁이 좌초되었는지 곱씹어 봐야 함.

▸ 이미 최저임금 산업범위,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등으로 노동계와 마찰·갈등은 시작된 상황임. 기획재정부가 2017. 6. 폐기한 성과연봉제지침을 2018년에 또다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정갈등은 거스를수 없게 됨. 임금체계 문제는 중앙차원의 통일적인 지침으로는 갈등과 충돌, 파국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됨. 적합 기관 또는 업종차원에서 모범사례와 모델을 노동조합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만들고, 시범사업을 통해 전파·확산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새로운 협력과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

▸ 한국노총은 이미 2017. 5. 1.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간 정책연대 협약을 맺어 12대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행하기로 한 바 있음. 2018년 주요한 정치일정 중 하나가 지방선거로서 이를 지렛

대로 지배권력의 보수·우경화 흐름을 차단하여 진보적인 축으로 견인해야 하며, 한국노총이 제기한 주요한 정책이 실현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함.

- 중앙차원의 통일적인 지방선거 전략, 지방선거 정책 개발과 쟁점화, 사회공론화가 중요함. 지방선거 핵심노동이슈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공공인프라 확대를 목표로 한 광역지자체 차원의 4대공단(사회서비스, 보건의료, 고용, 문화예술) 설립, 생활임금제도의 도입·확산·지방계약법 등 근거마련, 모든 노동자의 이해대변과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회의소 도입, 지방정부 노동국-일자리과 설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근로감독협업체계, 지방혁신일자리모델, 버스 준공영제 등이 있음.

2. 2018년 금속산업(제조업)전망

가. 11대 주력산업 전망과 특징

○ 2018년 11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반도체 중심의 IT산업 수출 호조 지속과 신흥시장 경기 회복세 유지 등으로 전년동기비 4.0% 증가 전망

- 그러나 보호무역 정책 기조 및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등으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2018년 11대 주력산업의 생산은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경기 회복에 따른 투자 및 소비 증가 등 내수 회복에 힘입어 소폭의 성장세 예상

- 반도체는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 신규 공장 가동 및 기존 설비 증설, 미세공정 확대와 수율 향상 등으로 26.1%의 높은 성장 전망

○ 11대 주력산업의 내수는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IT산업 수요 증가, 정부의 소득주도 및 일자리 창출 등 정책효과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등으로 증가세 시현

▸ IT산업군은 IoT, 빅데이터, AI 등 반도체 수요 신규 산업 확대, IoT 가전 신제품 수요 증가, 정보통신기기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등 신규 서비스 확산 등에 힘입어 내수 증가세 견인

〈2018년 산업전망 기상도〉

		수출	생산	내수	수입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IT 제조업군	가전	☂	☁	☼	☼☼
	정보통신기기	☁	☁	☁	☼
	디스플레이	☁	🌥	☁	☼
	반도체	☼☼	☼☼	☼☼	☼
음식료		☁	☁	☁	☁

주 : 1) 전망 :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나. 2018년 주요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1) 글로벌 경기회복 및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되나, 중국발 공급과잉 및 보호무역주의 지속

○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2018년에는 석유화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수요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

▸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권의 안정적 성장세가 예상되면서 우리 주력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4차 산업혁명 주도 성장 등 글로벌 디지털 전환으로 IT산업군과 조선을 제외한 기계산업군, 철강 등에서 긍정적 영향이 예상

▸ 반도체는 AI, IoT, 클라우드(Cloud) 등 4차 산업혁명 주도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서 지속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가전 역시 프리미엄 IoT 인공지능 가전시장 형성 및 국내 가전 대기업의 핵심기술 경쟁우위 확보로 시장에 긍정적 효과 기대

▸ 자동차는 자율자동차, 전기차 등 개발 경쟁 지속 및 레벨2 수준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부품 장착 수요 증가, 일반기계는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기계장비 고도화 수요 확대 등 예상

▸ 철강은 온라인 교역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물류 효율화로 인접국과의 교역 증가 등 긍정적 효과 기대

○ 조선, 철강,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에서는 글로벌 공급과잉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

▸ 조선의 건조능력 및 선복 과잉, 신흥국의 생산 확대(철강, 섬유), 글로벌 가전업체 간 시장 선점 생산 확대(가전), 중국 생산 확대(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2018년에도 지속되면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가전, 디스플레이, 음식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한미 FTA 개정 재협상(자동차), 신흥국 보호무역주의 확대(철강), 미국의 한국 가전 반덤핑 제소(가전) 등

(2) 주력산업의 수출시장 환경은 개도국 중심으로 개선 전망

○ 대중국 수출은 총수출의 약 25%로 중국 시장 여건 변화는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 2018년에는 가전 및 정보통신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대중국

수출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사드 리스크 해소로 식품, 의류 등 소비재의 대중 수출 부진은 완화 예상

- ▸ 또한 중국 제품의 품질 강화를 위해 필요하나 자체 생산이 어려운 고사양 부품에 대한 한국 제품 수요 증가 예상(반도체, 일반기계)
- ▸ 반면 독자브랜드 경쟁력 제고와 고품질 자국산 제품 확보를 목표로 한 중국 산업정책의 자국기업 지원 확대가 중국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국내 산업을 위협(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 미국 시장은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식품 등의 호재 예상

- ▸ PC시장 성장 및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 확대(정보통신기기), PC·스마트폰 등 전방 수요산업의 수요 증가(반도체), 한국식품 인지도 제고 및 신규 유통채널 진입(식음료) 등

○ EU 시장은 조선과 자동차산업의 수출 여건 개선 전망

- ▸ 대EU 수출비중이 30.6%로 높은 조선 수출이 유럽의 경기회복 추세, 선박금융 공급여건 개선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자동차 역시 지난 5년간 판매 증가에 따른 대기수요 소진에도 불구 소형 SUV 신차 투입으로 수출 여건은 개선

○ 신흥시장 중 베트남은 국내 의류, 정보통신기기 업체의 생산기지로 현지생산 증가에 따른 국산 섬유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요 확대가 예상

- ▸ 러시아 및 중남미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해당국 환율 약세 진정 등으로 경기가 개선되면서 비심리 회복과 신차 구매 사이클에 의한 자동차 수요 확대 예상
- ▸ 인도는 성장시장으로 통신, 가전, 자동차산업의 생산규모 확대에 힘입어 철강, 석유화학 등 국산 중간재 수요 증가 예상
- ▸ 아세안은 경제성장 및 한류 수요 증가로 음식료, 의류 수출 확대 예상

⑶ 2018년 수출 성장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와 정부정책 효과 등이 주력산업 성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

❍ 현 정부의 성장모델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회복, 생산확대,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 기대. 또한, 2018년 수출 증가세와 더불어 민간소비 회복 정도가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핵심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

❍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비 164% 상승하며 주력업종에 영향 예상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증대 및 소비심리 개선으로 의류, 가전, 음식료 등 소비재의 내수가 증가하고 디스플레이는 소득증가에 따른 간접적 수요 발생으로 긍정적 효과 발생 예상
- ▸ 반면 생산 측면에서는 주력업종 중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섬유, 가전, 음식료산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 등 생산에의 부정적 영향 예상

❍ 현 정부의 국정 어젠다로 떠오른 공급주도의 혁신성장은 시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고, 기업 R&D 지원을 통한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주도

- ▸ 정부정책에 의해 조선, 섬유, 가전, 반도체, 음식료 등에서 생산 및 내수 양측 모두 긍정적인 효과 예상

❍ 그 외 환경규제 강화, SOC 투자 감소,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일부 업종의 부정적 영향 전망(석유화학, 철강, 일반기계)

❍ 2018년 소득주도,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 요인과 경기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에서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긍정적 효과 기대

- ▸ 정부 복지예산 증가,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소득증대와 소비심리 개선은 일차적으로 자동차, 의류, 가전, 정보통신기기 등

소비재의 수요 진작 요인으로 작용

- ▸ 가전, 통신기기 등 세트제품의 민간소비 회복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부품소재의 간접적 수요 확대 기대

다. 2018년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1) 수출은 IT산업군, 소재산업군 중심으로 4.0%의 증가 전망

〈2018년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 전망〉

주 : 1) 달러표시 가격 기준, ( ) 안은 2018년 총수출 대비 점유율 전망.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일반기계는 사무기계(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 ○ 11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IT 경기개선과 신흥국 경기 호전에 따른 신흥국 수입수요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증가 지속 예상
  - ▸ 그러나 보호무역 정책 기조 및 글로벌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해외 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 11대 주력산업 중 조선, 가전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세가 예상

- ○ (기계산업군) 조선은 선박인도 물량이 크게 줄면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 일반기계는 소폭의 증가에 그쳐 전년동기비 7.1% 하락 전망

- ▸ 자동차는 중동, 러시아, 중남미 등 신흥국가의 경기 회복으로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국내업체의 현지생산 증가에 따른 부품 수출의 증가세 전환 및 수출단가 상승 지속으로 전년비 4.4% 증가 예상
- ▸ 조선은 상선 인도물량의 지속적 감소, 고가 생산설비 해양플랜트의 통관 완료 등 부정적 요인으로 전년비 39.8% 큰 폭 감소
- ▸ 일반기계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 유럽,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건설기계 및 설비투자 수요 확대, 아세안 신흥국 생산 인프라 및 SOC 투자 확대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기비 5.3% 증가

❍ (소재산업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및 글로벌 수요 호조세 불구 전년 실적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비 5.2% 증가

- ▸ 철강은 신흥국 중심의 철강 수요의 안정적 증가, 국제 철강가격 안정세 유지, 고급 기능성 강판의 수출 비중 상승에 따른 수출구조 개선 등으로 전년동기비 2.4% 증가 예상
- ▸ 석유화학은 글로벌 경기 호조 및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세 지속,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규모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8.3% 증가 전망
- ▸ 섬유는 글로벌 경기의 안정적 성장에 따른 선진권의 의류 소비 회복세 및 봉제 생산국의 의류 수출 증가에 따른 한국산 섬유소재 수요 확대로 전년동기비 1.8% 증가세 전환 예상

❍ (IT산업군) IT제품의 고도화와 IT부품의 수요산업 확대 등 IT산업 전반적인 업황 개선 요인으로 전년동기비 13.9% 증가 예상

- ▸ 반도체는 D램 단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추세이나, 반도체 수요는 지속 확장되는 반면 공급 확장은 제한적이고, 공급자 주도형 생산량 조절을 통한 경쟁력 우위로 수출 호조세는 지속되어 전년동기비 22.9%의 높은 증가 예상

  * 반도체의 수출 실적이 단일품목으로 사상 처음으로 1,200억 달러에 달해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반도체 수출비중 및 무역의존도는 지속 상승 전망

  * 반도체의 수출비중은 2017년 17.0%에서 2018년 19.9%로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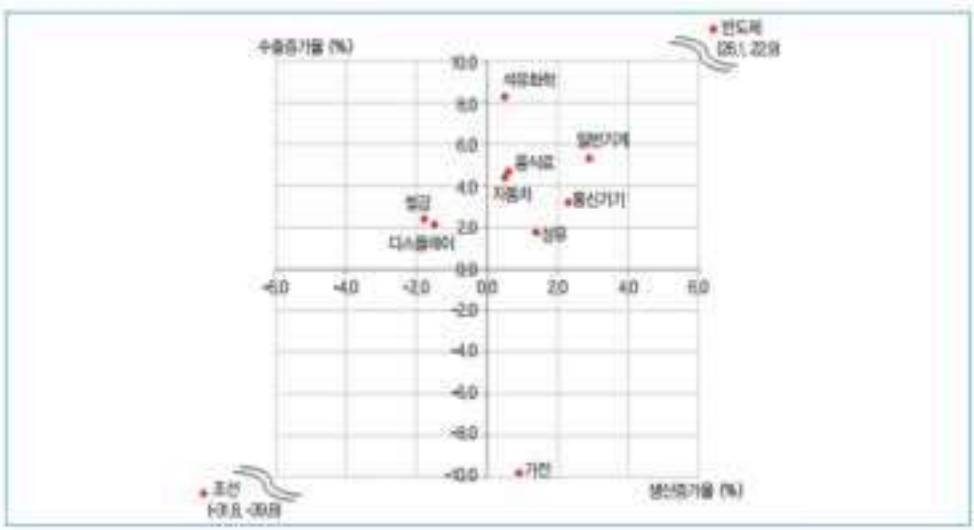
- ▸ 디스플레이는 OLED의 높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LCD 출하량 감소, 중국 기업들의 8세대 이상 생산라인 가동 확대, 국내업체의

중국 패널공장 생산 확대 등 수출 제약으로 전년동기비 2.1% 증가 예상

- ▸ 정보통신기기는 전년동기 실적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 확대, SSD 및 제품 고급화에 따른 핵심부품 중심 수출 개선 등으로 전년동기비 3.2%의 증가세 전환
- ▸ 가전은 OLED TV, UHD TV와 IoT 가전 등의 초프리미엄 신제품의 해외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수출단가 하락과 해외생산 확대의 부정적 요인이 우세하여 전년동기비 9.8% 감소할 전망

○ 음식료는 주력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아세안, 중동 등 신흥시장의 유지류 및 조미김 등 주력 제품의 수요 확대, 원자재 1차 가공제품 수출 증대 등에 힘입어 전년비 4.7% 증가 전망

〈2018년 주요 산업별 생산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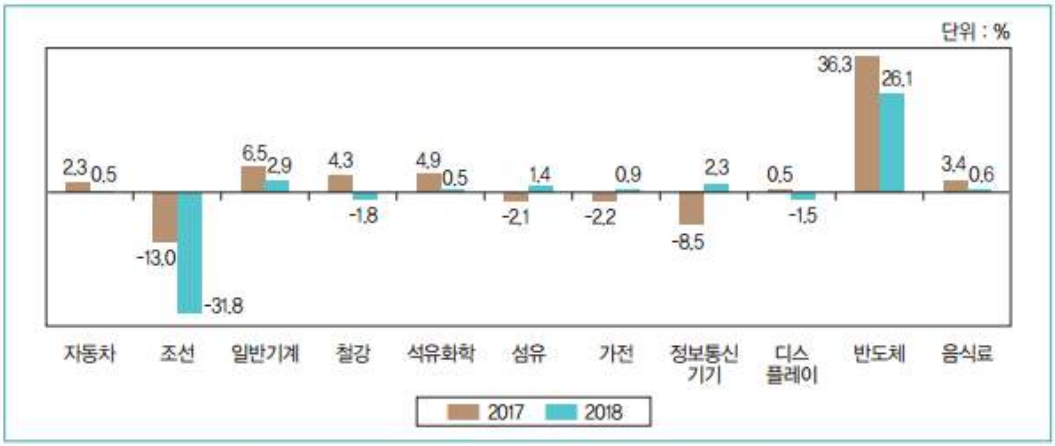
(2) 생산은 수출 및 내수 동반 증가로 조선, 철강,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부문에서 확대 예상

○ 2018년 11대 주력산업 생산은 신흥시장 수요가 늘어나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 신규 공장 가동 및 기존 설비 증설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반도체가 성장 견인 전망

○ (기계산업군) 자동차는 내수 및 수출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업체의 임금협상 장기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등 노사관계가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년동기비 0.5% 증가 전망

- 조선은 2016년 수주절벽의 현실화로 건조량이 크게 줄어 전년동기비 31.8%의 큰 폭 감소 예상
- 일반기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수요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 기조와 정부의 적극적인 첨단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내수 투자 수요 증대 및 수출의 동반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2.9% 증가 예상

〈2018년 주요 산업별 생산증가율 전망〉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소재산업군) 철강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 부진에 따른 봉형강류 생산 부진과 판재류 및 강관의 생산 위축이 지속되어 전년동기비 1.8% 소폭 감소 예상

- 석유화학은 국내 생산설비의 증설 및 가동률 상승으로 상반기에 다소 증가할 것이나 하반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및 금호타이어 구조개편에 따른 국산 합성고무 및 부품소재의 공급 감소로 연간 0.5% 횡보
- 섬유는 내수 및 수출이 늘어나 증가세 회복이 예상되나, 내수에서 수입점유율이 높고, 해외 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1.4% 증가 전망

○ (IT산업군) 가전은 내수 회복세에 따른 OLED TV, IoT가전, 프리미엄 제품 생산 증가 및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개최로 인한 수출 감소폭 둔화로 0.9% 증가세 전환 전망

- ▸ 정보통신기기는 기저효과와 수출 및 내수 회복 등으로 전년동기비 2.3% 증가할 전망이며,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노트북PC 신제품 교체수요 증가, 수출용 스마트폰 핵심부품 및 SSD 수요 확대가 생산 증가를 견인
- ▸ 디스플레이는 OLED 출하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LCD 구조조정에 따른 출하량 감소, 수출 위축, 세트제품의 성장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전년동기비 1.5% 감소 예상
- ▸ 반도체는 전방산업의 급격한 수요 확대, 삼성의 신공장 가동 및 SK 하이닉스의 증설, 미세 공정 확대와 수율 향상으로 인한 생산 증가 실현 등에 힘입어 26.1% 높은 증가 전망

○ 음식료는 수출 확대, 신정부의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의 추진에 따른 가계의 소득 증대, 신제품 출시, 소비자 대응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비 0.6% 증가 예상

⑶ 내수는 철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

○ 주력산업 내수는 4차산업 혁명으로 부상하고 있는 IT 신기술의 수요가 늘면서 IT산업을 중심으로 증가 예상

○ (기계산업군) 복지예산 증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정책과 주가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폭스바겐의 국내시장 판매 재개,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 등이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전년 동기비 1.0% 소폭 증가 예상

- ▸ 일반기계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에 따른 관련 투자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설비투자 확대로 전년동기비 3.7% 증가 예상

○ (소재산업군) 철강은 조선용 중후판 수요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동차의 국내 생산 정체 등 수요 산업의 생산 활동 위축으로 제조업 부문 철강수요 정체 혹은 감소, 건설투자 위축에 따른 건설용 수요 둔화 효과로 전년동기비 2.6% 감소할 전망

- ▸ 석유화학은 건설산업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회복, 자동차·섬유·정보통신기기 등 수요산업의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동기비 2.0% 증가 전망
- ▸ 섬유는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정책 등 고용 및 소득 개선으로 의류의 민간 소비가 증가하고, 의류용 섬유소재 및 산업용섬유 내수 확대, 중저가 수입 증대 등으로 전년동기비 2.5% 증가 전망

〈2018년 주요 산업별 내수증가율 전망〉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IT산업군) 가전은 경기 회복,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창출 정책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고 효율 가전, IoT 가전기기, 의류건조기 등 신제품 수요 증가 및 판매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비 8.0%로 높은 증가세 예상

- ‣ 정보통신기기는 신규 스마트폰, PC 교체수요 확대, 인공지능 음성인식 및 가상증강현실 신규 서비스 확산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4.3%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나 단통법 일몰 이후 스마트폰 유통구조 변화 및 단말기 자급제 추진 여부는 내수변동의 요인으로 작용

- ▸ 디스플레이는 올림픽 및 월드컵 등 이벤트 기대감, TV의 대형화 추세, OLED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TV 및 스마트폰, PC 등 수요산업의 성숙화로 성장 제약 요인이 상존하여 전년동기비 2.2% 소폭 증가 예상
- ▸ 반도체는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반도체 수요 신규 산업 확대, 데이터 센터 (Data Center) 등 기업용 반도체 수요, 스마트폰의 고사양화 및 가전의 고용량화 등 개인용 반도체 수요 동시 증가로 전년동기비 17.7%의 높은 증가 예상

○ 음식료는 정부주도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 평창올림픽 등 이벤트 개최, 소비자의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제품 출시 등이 기대되면서 전년동기비 0.3% 소폭 증가 예상

⑷ 수입단가 상승, 역수입 증가 등으로 4.7% 증가

○ 11대 주력산업의 수입은 내수가 다소 회복되면서 철강, 조선을 제외한 산업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동기비 4.7% 증가 예상

○ (기계산업군) 자동차는 수입차 증가에 따른 AS부품과 안전·편의 관련 첨단 기능 구현 수입부품 수요 확대, 판매중지된 폭스바겐 판매재개, 수입차의 가격인하와 다양한 신모델 출시 등 으로 전년비 8.2% 증가 전망

- ▸ 조선은 대중국 벌크선 수입의 증가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나 해외의존 비율이 높았던 해양 기자재, 일부 조선 기자재 수요가 줄면서 전년동기비 13.9% 감소 예상
- ▸ 일반기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반기계 수요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가 수입 증가를 견인하면서 전년동기비 5.8%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철강은 수요산업과의 연관성을 높이고 내수를 국내공급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1.4% 감소 예상

- ▸ 석유화학은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세 유지, 중국산 범용

제품 수입증가로 전년동기비 0.8% 소폭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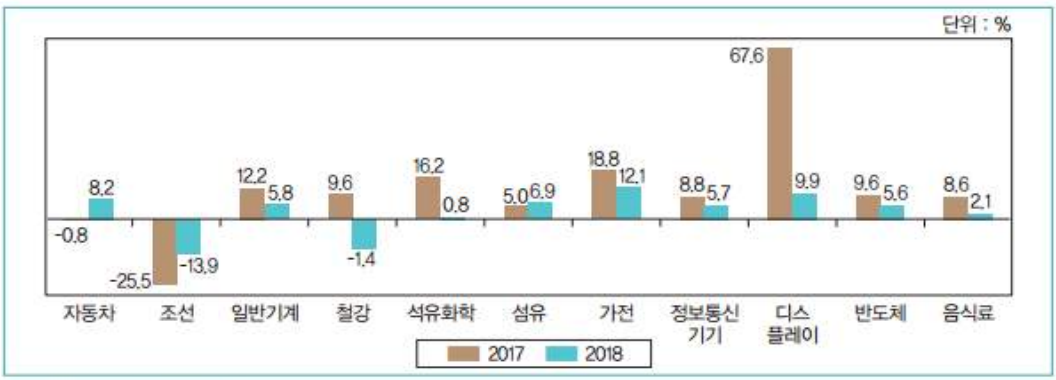
- 섬유는 해외생산 의류의 역수입 지속 확대, 국내 생산업체들의 채산성 개선을 위한 중저가 섬유소재 수입 확대로 전년비 6.9% 증가 예상

○ (IT산업군) 가전은 중저가 제품 선호가 늘어나고 중국기업의 국내진출 확대 및 해외생산 제품의 역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비 12.1% 증가 예상

- 정보통신기기는 외산 신규 스마트폰, 노트북PC, 컴퓨터 부품, 완제품의 역수입이 지속 증가하고, 국내 AI 서비스,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시장 확대에 따른 서버용 SSD 수입 증가로 전년동기비 5.7% 증가 예상
- 디스플레이는 국내생산의 구조조정 추진의 영향을 받아 중국, 베트남 등 해외공장으로부터의 역수입 증가로 전년동기비 9.9% 증가 예상
- 반도체는 IoT, 빅데이터, AI,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규 산업에서 국내 제작이 어려운 시스템 반도체 수요 증가로 전년비 5.6% 증가 전망

○ 음식료는 주요 원자재의 국제 가격 안정화와 맥주, 고급 유가공품 등 고급 기호식품에 대한 수입수요 증가로 전년비 2.1% 증가 예상

〈2018년 주요 산업별 수입증가율 전망〉



주 : 1) 달러표시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2018년 11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

달러, %

	2016	2017			2018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65,720 (-8.8)	33,396 (1.2)	33,618 (2.8)	67,014 (2.0)	34,812 (4.2)	35,122 (4.5)	69,934 (4.4)
조선	34,268 (-14.6)	23,912 (29.1)	17,568 (11.6)	41,480 (21.0)	12,850 (-46.3)	12,130 (-31.0)	24,980 (-39.8)
일반기계	44,156 (-3.0)	24,190 (10.3)	23,644 (6.4)	47,834 (8.3)	25,450 (5.2)	24,900 (5.3)	50,350 (5.3)
철강	28,535 (-5.5)	16,875 (16.0)	17,023 (21.7)	33,898 (18.8)	17,000 (0.7)	17,700 (4.0)	34,700 (2.4)
석유화학	36,165 (-4.3)	22,057 (27.5)	23,014 (22.0)	45,071 (24.6)	24,055 (9.0)	24,772 (7.6)	48,827 (8.3)
섬유	13,807 (-4.7)	6,838 (0.5)	6,905 (-1.4)	13,743 (-0.5)	6,884 (0.7)	7,101 (2.8)	13,985 (1.8)
가전	11,343 (-11.6)	4,528 (-17.9)	4,750 (-18.5)	9,278 (-18.2)	4,150 (-8.3)	4,220 (-11.2)	8,370 (-9.8)
정보통신기기	38,262 (-6.5)	15,446 (-17.4)	16,428 (-16.0)	31,874 (-16.7)	15,975 (3.4)	16,905 (2.9)	32,880 (3.2)
디스플레이	25,106 (-15.5)	13,211 (15.5)	14,288 (4.6)	27,500 (9.5)	13,427 (1.6)	14,643 (2.5)	28,070 (2.1)
반도체	62,228 (-1.1)	42,880 (49.5)	54,710 (63.1)	97,590 (56.8)	58,190 (35.7)	61,790 (12.9)	119,980 (22.9)
음식료	4,376 (7.1)	2,266 (8.2)	2,350 (3.0)	4,616 (5.5)	2,380 (5.0)	2,455 (4.5)	4,835 (4.7)
11대 합계	363,966 (-6.8)	205,599 (15.1)	214,298 (15.6)	419,898 (15.4)	215,173 (4.7)	221,738 (3.5)	436,911 (4.0)

주 :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4)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2018년 11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단위 : %

	2016	2017			2018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대)	4,229 (-7.2)	2,163 (-1.5)	2,162 (6.4)	4,325 (2.3)	2,168 (0.2)	2,178 (0.7)	4,345 (0.5)
조선 (만CGT)	1,230 (-3.2)	578 (-16.4)	492 (-8.7)	1,070 (-13.0)	350 (-39.4)	380 (-22.8)	730 (-31.8)
일반기계 (십억원)	98,768 (-1.6)	52,482 (8.9)	52,705 (4.2)	105,188 (6.5)	53,150 (1.3)	55,073 (4.5)	108,223 (2.9)
철강 (백만톤)	73,327 (0.3)	37,887 (5.7)	38,600 (3.0)	76,487 (4.3)	37,600 (-0.8)	37,500 (-2.8)	75,100 (-1.8)
석유화학 (천톤)	21,080 (0.4)	10,835 (2.4)	11,268 (7.4)	22,103 (4.9)	11,079 (2.3)	11,144 (-1.1)	22,223 (0.5)
섬유 (십억원)	72,265 (-3.2)	37,290 (-3.3)	33,458 (-0.7)	70,748 (-2.1)	37,050 (-0.6)	34,688 (3.7)	71,738 (1.4)
가전 (십억원)	31,884 (-1.1)	15,401 (-4.2)	15,785 (-0.1)	31,186 (-2.2)	15,624 (1.4)	15,850 (0.4)	31,474 (0.9)
정보통신기기 (십억원)	61,035 (-13.2)	27,528 (-11.3)	28,345 (-5.5)	55,873 (-8.5)	28,264 (2.7)	28,875 (1.9)	57,140 (2.3)
디스플레이 (십억원)	34,711 (-10.7)	17,182 (1.9)	17,756 (-0.7)	34,938 (0.5)	17,002 (-1.1)	17,416 (-1.9)	34,418 (-1.5)
반도체 (십억원)	83,213 (11.5)	44,885 (21.2)	68,494 (48.3)	113,379 (36.3)	68,610 (52.9)	74,360 (8.6)	142,970 (26.1)
음식료 (십억원)	83,765 (2.6)	42,445 (4.4)	43,835 (2.4)	86,270 (3.4)	42,850 (0.3)	44,220 (0.9)	87,070 (0.6)

주 :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2018년 11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단위 : %

	2016	2017			2018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대)	1,828 (-0.3)	905 (-3.5)	923 (3.7)	1,828 (0.0)	922 (1.9)	923 (0.0)	1,845 (1.0)
조선 (만CGT)	105 (-7.8)	50 (4.2)	60 (5.3)	110 (4.8)	48 (-4.0)	57 (-5.0)	105 (-4.5)
일반기계 (십억원)	79,398 (-5.1)	41,734 (8.0)	43,615 (7.0)	85,349 (7.5)	42,417 (1.6)	46,049 (5.6)	88,466 (3.7)
철강 (백만톤)	56,738 (2.3)	28,478 (1.5)	27,240 (-5.0)	55,718 (-1.8)	27,300 (-4.1)	26,960 (-1.0)	54,260 (-2.6)
석유화학 (천톤)	11,225 (6.7)	5,786 (5.0)	5,838 (2.2)	11,624 (3.6)	5,894 (1.9)	5,958 (2.1)	11,852 (2.0)
섬유 (십억원)	73,078 (-1.8)	37,298 (-2.2)	35,140 (0.6)	72,438 (-0.9)	37,405 (0.3)	36,865 (4.9)	74,269 (2.5)
가전 (십억원)	25,323 (7.2)	14,011 (9.4)	14,314 (14.3)	28,325 (11.9)	15,154 (8.2)	15,449 (7.9)	30,603 (8.0)
정보통신기기 (십억원)	44,557 (-12.1)	24,715 (9.4)	25,030 (14.0)	49,745 (11.6)	25,727 (4.1)	26,141 (4.4)	51,868 (4.3)
디스플레이 (십억원)	9,389 (-4.4)	5,249 (3.0)	4,226 (-1.6)	9,476 (0.9)	5,355 (2.0)	4,330 (2.5)	9,674 (2.2)
반도체 (십억원)	53,484 (11.5)	18,017 (-25.7)	29,958 (2.3)	47,976 (-10.6)	25,550 (42.3)	29,430 (2.4)	54,980 (17.7)
음식료 (십억원)	91,342 (2.4)	46,898 (4.8)	47,944 (2.9)	94,842 (3.8)	46,953 (0.1)	48,164 (0.5)	95,117 (0.3)

주 :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2018년 11대 주력산업의 내입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16	2017			2018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16,007 (3.8)	7,918 (-4.5)	7,968 (3.2)	15,886 (-0.8)	8,405 (6.2)	8,778 (10.2)	17,183 (8.2)
조선	3,262 (-25.8)	1,302 (-23.4)	1,128 (-27.8)	2,430 (-25.5)	1,087 (-16.5)	1,005 (-10.9)	2,092 (-13.9)
일반기계	27,320 (-11.2)	14,795 (9.2)	15,861 (15.1)	30,656 (12.2)	15,850 (7.1)	16,583 (4.6)	32,433 (5.8)
철강	19,994 (-10.4)	11,713 (21.4)	10,204 (-1.4)	21,917 (9.6)	10,700 (-8.6)	10,900 (6.8)	21,600 (-1.4)
석유화학	11,900 (-10.8)	7,116 (21.9)	6,708 (10.7)	13,824 (16.2)	6,866 (-3.5)	7,065 (5.3)	13,931 (0.8)
섬유	14,507 (1.4)	6,845 (6.3)	8,390 (4.0)	15,235 (5.0)	7,206 (5.3)	9,078 (8.2)	16,284 (6.9)
가전	5,690 (11.8)	3,310 (20.7)	3,450 (17.0)	6,760 (18.8)	3,730 (12.7)	3,850 (11.6)	7,580 (12.1)
정보통신기기	24,427 (6.3)	12,988 (12.1)	13,585 (5.8)	26,573 (8.8)	13,705 (5.5)	14,387 (5.9)	28,092 (5.7)
디스플레이	3,038 (-23.8)	2,758 (83.8)	2,332 (51.7)	5,090 (67.6)	3,009 (9.1)	2,582 (10.7)	5,591 (9.9)
반도체	36,610 (-4.4)	19,273 (6.6)	20,851 (12.5)	40,124 (9.6)	20,212 (4.9)	22,163 (6.3)	42,375 (5.6)
음식료	10,953 (1.5)	5,909 (11.5)	5,981 (5.8)	11,890 (8.6)	6,050 (2.4)	6,090 (1.8)	12,140 (2.1)
11대 합계	173,708 (-4.4)	93,927 (11.0)	96,458 (8.3)	190,385 (9.6)	96,820 (3.1)	102,481 (6.2)	199,301 (4.7)

주 :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4)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3. 2018년 금속노련 임단투 목표와 요구

전진 또 전진!
도약하는 제조노동자!!

촛불혁명과 정권교체 승리의 기운으로 중단 없는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위해 제조노동자의 단결로 힘차게 도약하자!!

가. 금속노련 2018년 3대 목표

◆ 노동자의 대표성 강화로 노동존중사회 건설

-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확대
-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전면 개정
-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 및 차별개선
- 제조산업 특별법 제정 및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 노사공동결정 원칙의 확립 및 인사·경영 참여확대

◆ 멈춤 없는 소득성장과 노동자의 삶 개선

- 연맹 인금인상 요구율 9.6% 쟁취
- 임금저하 없는 실노동시간 단축
-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 4차 산업혁명의 대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구조조정 없는 고용안정 확보

◆ 거침 없는 조직 역량 강화

- 지속적·체계적 조직확대 강화
- 제조노동자 단결로 제조연대 활동 강화
- 현장과 소통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
- 교육사업 확대를 통한 간부 역량 강화

나. 2018년 금속노련 임단투 요구

1) 표준생계비에 기초한 목표임금 쟁취

-금속노련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기초로 실태조사를 통해 산출한 조합원 가구원수와 물가인상 예상치, 도시근로자(2인 이상)가구 총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을 기초로 2018년 금속노동자의 생계비를 산정하고, **생계비 충족률 93.5%, 기본급 대비 9.6% (181,884원)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함.

-가맹노조는 금속노련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토대로 소속 조합원의 가구원수, 회사의 경영실적 및 재정상태, 조합원의 요구수준등 주·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조직 실정에 따라 임금인상 요구율과 요구액을 조정할 수 있음.

-가맹노조는 금속노련의 임금인상 요구지침과 조직실정에 기초한 임금인상 요구율을 관철함으로써 생계비에 기초한 목표임금을 쟁취

2) 노사공동결정 원칙 확립 및 인사·경영참여 확대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수단이 됨. 이 경우 민주주의란 기업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노동자 경영참여란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 및 해고, 기술변경과 생산기구의 구성, 사회적 영향과 투자 및 투자계획 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기업수준에서 결정하거나 이를 준

비하는데 있어서 노동자가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이며, 아울러 "기업조직 내에서 노동자 또는 그 대표조직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제도와 관행"을 의미함.

-시대의 변화와 경제민주화의 요구에 따라 기업이나 공공조직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경제적 환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원인 인력의 능동적 활용을 위해서는 인력관리 방식에 있어 기존의 '통제와 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이해, 참여,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나라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노동자들의 집단적 경영참여를 제도화해왔고,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우 주로 노동자들의 개별적 경영참여, 비공식적 경영참여 등의 형태를 발전시켜옴.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먼저 단체협약에 노사협의회의 실질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 규정을 토대로 한 실질적 경영참가 실현을 위한 경영협의회 설치 및 노동이사제, 노사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회사 운영의 의사결정 참여확대를 실현해야 함.

[요구]

- 회사의 휴·폐업, 합병·양도·이전, 업종전환 등에 따른 조합원의 신분 및 근로조건의 변동사항은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사전 합의 또는 협의 규정 구성
-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의 등의 노사동수 구성을 요구
- 단체협약상 배치전환·전보 등에 있어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절차 마련
- 단협상 노사협의회 제도 운영의 실질적 근거 마련
-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시

3) 실노동시간 단축(교대제 개선)

-우리나라의 취업자 기준 연간노동시간은 2,240시간에 이르며, OECD 평균 연간노동시간(1,764시간)보다 무려 480시간 정도를 더 일하는 초장시간 노동국가임.

-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적용제외 업종 등 노동시간 적용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고용노동부의 불법적 행정해석·포괄임금제·낡은 교대제 등이 장시간노동의 주요원인이 됨.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주40시간 제한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시 12시간 한도로만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금속노련의 가맹노조 다수는 아직도 주52시간이 넘는 불법적인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주야 맞교대, 심야·휴일 근로의 형태로 현장에 만연해 있음.

-장시간 근로와 심야근로를 동반하는 교대제는 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가족관계 형성과 사회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임. 또한 장시간 노동은 낮은 생산상과 기업경쟁력의 약화 요인일 뿐임.

-휴일·연장노동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불법적 행정해석의 폐기 없이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입법처리를 강행함(△1주(7일) 주52시간 단계적 시행(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2019.7.1.시행)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12.31.까지는 특별연장노동 시간 8시간 추가허용 △휴일노동에 대한 중복할증 불인정(현행대로 50% 할증임금만 인정), △'특례업종': 현행 26개 업종 → 5업종 축소(연속휴게시간 최소 11시간 보장).

-장시간·저임금노동체계 개선과 노동시간 정상화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불법적 행정해석 즉각 폐기와 주52시간 상한 확립, △ 낡은 교대제의 개편, △포괄임금제도에 대한 법적 규제, △휴가·휴일의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이뤄야 함.

[요구]

- 교대제개편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대근무자 보호 단체협약을 통한 교대제 개편
- 교대제 개편시 시·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
- 실노동시간 상한제 및 추가채용 의무 부가
- 소정노동시간 단축시 임금·노동조건 저하 금지

4) 최저임금 탈법행위 근절 및 1만원 쟁취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임금·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인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 시키려는 기업의 편법꼼수, 탈법행위 및 최저임금 제도개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측의 탈법적 임금체계 변경은 임금 등 노동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여 현장의 고질적인 저임금-장시간노동 구조를 타파해나가야 함.

[요구]

▸최저임금 상승분의 온전한 인상 요구

▸노동조합 동의 없는 임금체계 변경 금지 (불이익 변경에 해당)

5) 통상임금 정상화 및 범위확대

-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뚜렷이 밝히면서, 통상임금의 범위와 법적판단기준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복리후생적 급여 등의 고정성 판단에 있어 앞서 수차례 법원 판결에서 인정되어온 각종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여 통상임금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에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기업에 초래될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법정 기준이하로 미지급된 각종 법정수당 등에 대한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재계의 입장이 반영된 정치적 판결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보장된 권리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제한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노사합의를 사실상 용인하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범성을 무시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만 있으면 통성임금성이 부정된다는 식의 무리한 확대해석하

고 있음. 그로 인해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보수야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통상임금' 부분에서는 통상임금 정의규정을 신설하되, 통상임금 제외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재직자요건 등의 다툼이 있는 통상임금성 부분을 제외코자하는 의도를 드러냄.

- 금속노련은 정기상여금이 일부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성을 부정당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임.

[요구]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확보를 위한 단협체결

▸ 각 종 제 수당의 통상임금성 확보를 위한 단협 체결

6) 공휴일 및 대체휴일제 확대 시행

-한국에는 국민 전체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없이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있었음. 국회가 관공서 공유일 유급휴무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입법을 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규모별·단계적 시행의 문제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국회의 단계별 시행 입법과 별개로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면적 적용을 요구하여 정부부문과 민간부분의 공휴일 사용에서 불평등을 빠르게 해소하여야 함.

-단체협약에서 특단의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루만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음. (설날, 어린이날, 추석에만 대체휴일제 적용)

- 조합원의 유급휴가 확대를 위해 관련법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요구.

[요구]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단협에 명시 유급휴일로 요구

▸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이 중복 될 경우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요구

7) 임금피크제 환원, 임금손실 없는 정년보장

- 한국사회가 고령화의 길로 접어들고 조합원들의 연령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근속년수가 높은 조합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직이 어렵고 자녀교육과 주거 등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년연장의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음. 정년 60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진 문제와는 별개로 정년연장은 고령화 시대에 현장의 요구일 수밖에 없음. 그러나 현실은 정년60세 법제화와 맞물려 임금피크제 도입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신규채용과 고용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임금피크제가 신규고용창출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들어나고 그것은 명분일 뿐이었음. 이에 금속노련은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거부하며 기 체결된 임금피크제 또한 이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것을 요구함.

[요구]

- ▸ 사측의 임금피크제 요구 거부 및 정년연장 요구
- ▸ 기 체결된 임금피크제의 환원 요구

8) 고용안정

❍ -2017년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고른 성장, 세계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성장률 반등을 시현한 데 이어 올해에도 경기 확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 유로존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금융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통화정책 정상화는 완만한 속도로 추진되고 주요 신흥국의 성장세 확대로 세계 GDP 성장률은 소폭 상승할 전망임.

❍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적 불안이 어느정도 해소되긴 했지만, 장기간에 걸친 수출부진, 내수시장침체, 저성장, 조선업 구조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임. 특히, 조선업은 계속되는 불황의 여파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며, 섬유업종은 그 뒤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경영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람짜르기식의 구조조

정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함. 고용의 문제를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위원회의 구성과 고용안정협약 체결의 필요성이 대두됨.

[요구]

▸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및 고용안정협약 체결

정책기획활동

1. 정책기획 활동 평가 ····· 73

2. 노동현안 및 정책활동 ····· 74

가. 근로시간단축관련 ····· 74

나. 위원장 지역순회 간담회 (2018년 하반기) ····· 101

다. 2019 제조연대 단체협약해설집 발간 ····· 122

라. 자동차산업 원하청거래의 실태와 개선과제 연구 ····· 129

마. 노동조합 운영비원조관련 ····· 141

3. 한국노총 제조연대 활동 보고 ····· 149

가. 한국노총 제조연대 확대출범식 ····· 149

나. 제조연대 일자리위원회 의제제출 ····· 151

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156

라. 선언문 및 성명서 ····· 159

1. 정책기획 활동 평가

가. 성과 및 한계

❍ 노동현안 대응

- 근기법,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금속현장의 목소리를 총연맹, 고용노동부, 국회에 전달
- 연 2회에 걸친 지역순회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근기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법 제도변화에 대한 현장의 의견 청취 및 교육을 통하여 연맹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설명
- 새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난 시점 노동경제정책이 표류하며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모양새로 전개, 금속노련의 입장과 의견은 표출하였으나 정책결정과정과 법 개정과정에 적극적 투쟁을 전개하지는 못함

❍ 한국노총 제조연대의 출범 및 공동사업 전개

- 한국노총 산하의 7개 제조산별의 상설적 연대회의를 새롭게 확대 출범
- 산별연맹의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사안별 공동투쟁 및 정책, 홍보활동 등 일상적 연대활동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노동자연대 실현의 초석을 마련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종별위원회 설치를 공식제안하고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를 요구
- 공동사업과 공동교육을 통해 향후 제조산업 노동운동의 발전전망을 논의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
- 최저임금,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노동현안에 대한 성명등의 입장발표는 있었으나 공통의 실천투쟁이 미흡

나.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

❍ 한국노총 제조연대 공동투쟁을 통한 제조노동운동의 발전

-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상설적 연대의 경험을 축적하며 공동사업, 공동투쟁을 통하여 노동운동의 정형과 모범을 창출하여야 할 것임

- 경사노위 업종별위원회를 강력히 추동하여 한국노총 제조노동자 뿐아니라 민주노총 제조노동자를 포괄하는 양대노총 제조연대와의 공조의 틀을 더더욱 공고히 하고 제조산업협의체 건설로 나아가야 함.

○ 노동현안 대응의 강화

- 2019년은 정부의 노동경제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로가 될 것으로 예견됨. 이에 금속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실천적 투쟁으로 담보해내기 위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

2. 노동현안 대응활동

가. 근로시간단축 관련

1) 실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현장 대응지침

Ⅰ. 목적

- 연장노동을 포함한 1주간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법이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됨.
- 주52시간을 넘는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는 제도시행에 앞서 근무형태 변경, 신규채용, 실질임금 보존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준비되고 있으며, 정부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하여 후속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충분치 못한 상황임.
- 노사정 모두가 제도변화와 함께 오랜 기간 관행화된 장시간노동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바 교대제 개편 등 근무형태 개선, 저임금구조 개선, 적정인력의 추가채용 등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노조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한국노총 차원의 현장지원 및 조직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Ⅱ.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1.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의 취지

○ 잘못된 행정해석에서 비롯된 장시간 노동관행의 정상화

- 이번 실노동시간단축법 개정은 1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휴일노동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휴일노동에 대한 할증율을 정함으로써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1]에서 비롯된 법적 혼란과 입법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왜곡한 장시간노동 체제를 '정상화' 시켰다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음.
- 2004년부터 법정노동시간을 주40시간 단축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연장-휴일특근으로 인한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여 노동자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을,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기업에는 생산성을 향상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 반면 주40시간을 넘는 휴일노동에 대하여 중복할증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사건이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이 휴일노동에 대한 중복가산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적 조치를 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기업부담을 고려하여 주40시간을 넘는 휴일노동에 대해서 50% 가산할증만을 인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되었음.

○ 무제한 노동이 가능했던 노동시간 특례업종 26개 → 5개로 대폭 축소

1) 고용노동부는 1주 12시간 한도로 규제되는 연장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는 1주가 7일이 아니라 사실상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ex. 5일)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석함. 이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되지만, 여기에 더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게 되어 1주 최장 근로시간은 68시간(기준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토요일 8시간 + 일요일 8시간)이상[1]으로 늘어남.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의 두 번째 의의는 무제한 노동이 가능했던 노동시간 특례업종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대폭 축소한 것임.
- 지난 201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공익위원 의견으로 채택되었던 기존 특례업종 26개를 10개로 축소한다는 안보다 개선된 내용임.
- 버스운전기사의 살인적인 장시간노동과 졸음운전으로 잇따른 대형사고를 야기했던 노선여객운수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것도 의미 있는 진전임.
- 이로써 근기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던 노동자 453만명 가운데 341만명은 연장근로 포함 주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됨.

○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 전환 및 민간적용 보편화

- 이번 제도변화의 또다른 의의는 공무원·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한 대목임.
- 이 법 시행이전에 민간부문에서 법으로 보장되는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전부임. 설날, 추석, 각종 국가기념일 등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휴일로써,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임. 일반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본래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음. 이에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도 일하고, 휴일 가산임금조차도 지급되지 않음.
- 개정 법률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보장하는 것은 법정 공휴일의 확대 및 민간 사업장내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사업장간의 '휴일·휴식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등 후속 제도개혁 필요

-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서도 마찬가지임. 1주 최장노동시간 52시간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 노동시간 적용에서 소외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시간 적용제외 사업장 및 나머지 특례적용 5개 업종 폐지, 포괄임금제 남용규제 등을 위한 제도개혁 후속논의가 착수되어야 할 것임.

2. 개정 근로기준법 요지 및 주요내용

1) 노동시간단축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요지

구 분		주요 개정내용	비 고
노동시간	최대 노동시간	52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 현재 주당 68시간까지 가능 ※ 1주가 7일임을 명시
	시행시기	300인 이상 : 2018.7.1. 50~300인 미만 : 2020.1.1. 5~50인 미만 : 2021.7.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7.1.부터 시행
	특별 연장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부터 2022.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을 추가 허용	※ 주당 60시간까지 가능
휴일노동	가산수당 (할증률)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 가산지급	※ 현행과 동일
	시행시기	공포후 즉시 시행	
유급휴일	내 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함.	
	시행시기	300인 이상 : 2020.1.1. 30~300인 미만 : 2021.1.1. 5~30인 미만 : 2022.1.1.	
노동시간특례	대상업종	5개 업종(육상운송(택시, 기차 등), 수상운송(여객선, 화물선 등), 항공운송(여객기, 화물기 등), 기타운송(택배 등), 보건업(병원 등))유지, 나머지 21개 업종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업 제외
	시행시기	2018.7.1.	
	보완장치	근무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 보장	※ 시행시기 : 2018.9.1.
연소자	노동시간	법정 : 35시간 연장 : 5시간	※ 현재는 1주 노동시간 40시간, 연장노동시간 6시간
	시행시기	2018.7.1.	

기타 부칙·부대의견	- 특례유지 5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방안 마련 - 2022.12.31.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 준비

2) 주요내용 해설 및 유의사항

□ 1주 7일, 휴일포함 1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

- 1주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법정노동시간 40시간 + 연장노동 12시간)[2]으로 제한됨.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제2조 제1항 '정의'규정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평일.주말(토요일.일요일) 가리지 않고 1주 최대 연장노동은 12시간으로 제한됨.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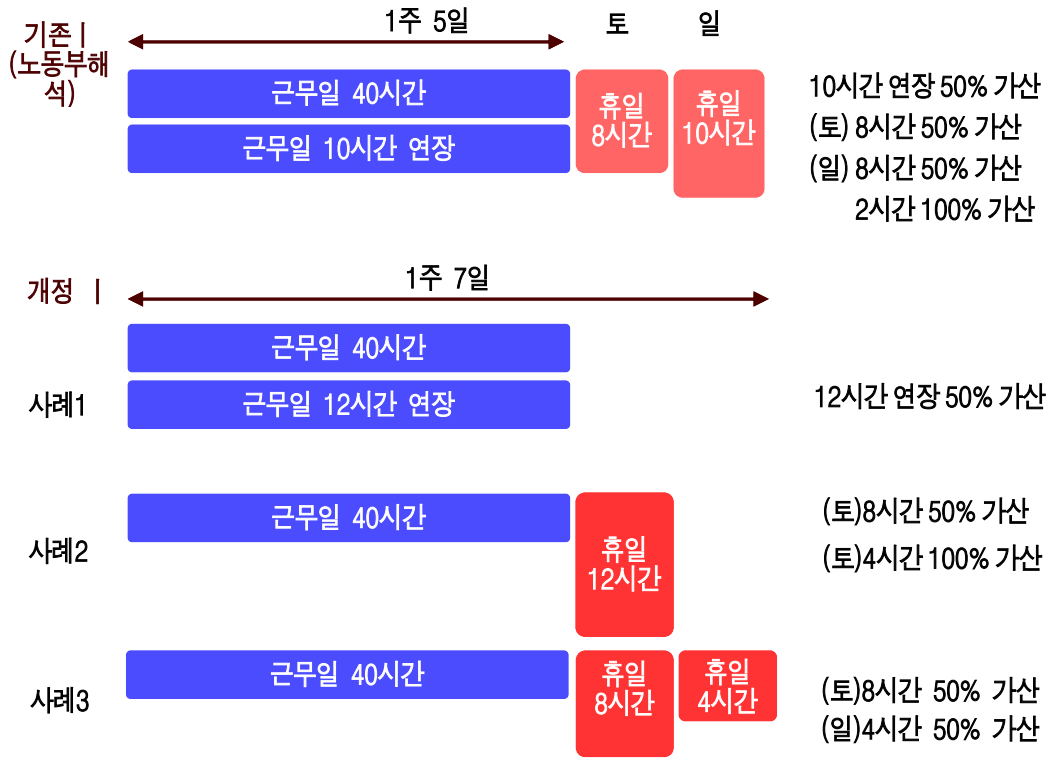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시적 특별연장노동 허용('21. 7/1～'22. 12/31)

- 상시 3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8시간'의 '특별연장노동'이 2021.7.1.~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됨.
- 사용자는 '연장된 노동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및 '대상 노동자의 범위'를 노동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위 8시간의 특별연장노동을 할 수 있음(15~18세 미만의 연소 노동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추가로 연장되는 8시간은 반드시 휴일노동일 필요는 없고, 휴일이 아닌 평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여 1주 최장 60시간을 넘지 않으면 됨.
-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에 대하여도 연장노동 가산임금이 동일하게 지급됨.

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동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휴일노동의 가산임금 지급기준 신설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함에 따라, 평일.주말 여부와 관계없이 주40시간을 초과하면 모두 '연장노동'이 됨.
- 이에 따라 휴일노동을 한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이면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이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설

- 현재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5월 1일 근로자의 날 뿐임.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에 더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신설함.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조항은 기업규모별로 3단계에 걸쳐 상시 300명 이상 또는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개정 법률은 제도신설의 취지에 밝히며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밝히고 있는 바, 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28호)에서 정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함.

□ 공휴일에 갈음한 휴일의 대체

-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갈음하여 다른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 경우 사전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을 근무일로 하고, 다른 근무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공휴일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 유급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① 사전에, ②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과반수 대표자)와, ③ 서면으로 합의해야 함.
-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유급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 사후에 휴일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가산임금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주어야 함.

□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축소 및 연속 휴식시간 보장

- ‘노동시간 특례업종’이란 근기법 제59조에 의해 사용자가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노동을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함. 문제는 연장노동의 상한을 두지 않아, 그동안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어 옴.

- 개정 법률은 현재 26개 업종에 이르는 특례업종의 규모를 5개 업종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존치되는 5개 업종에 대하여도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무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함.

□ 연소자의 1주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축소

-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소노동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주 40시간,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6시간까지 연장노동이 가능하여 1주 최대 노동시간은 46시간까지 가능했음.
- 개정법률에 따르면 연소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주 35시간, 연장노동은 5시간으로 줄어들어 1주 최대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제한됨.
- 연소노동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주35시간을 넘는 연장노동을 시키면 가산수당을 주어야 하며, 연장노동시간도 5시간으로 제한됨.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의 문제

-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노사합의를 전제로 특정 시기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시기의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정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를 의미함.
- 최근 노동시간단축법 시행을 앞두고 보수언론과 경영계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
- 탄력적 노동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및 유연근무제 확산 논의는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임. 본래 탄력적 노동시간제는 OECD국가들처럼 연평균 노동시간 1800시간 미만인 국가들에서 계절적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

되는 제도인 반면, 우리나라의 제도도입 논의는 연장노동 포함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신규채용을 늘리는 대신 탄력적 노동시간제를 활용해 6개월간 주64시간을 넘는 연속적이고 장시간노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려는 의도임.

- 현행 제도상으로도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이 가능함. 이 경우 1.5개월은 52시간을 하고 1.5개월은 28시간을 하면 지금 1일 8시간을 넘는 일을 시켜도 연장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이에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으면서 가산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활용될 수 있음.
-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여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할 경우 노사합의시 6개월 동안을 주64시간 장시간노동이 가능해지고 6개월은 주40시간의 노동을 시킬 수 있게 됨. 탄력적 노동시간제가 확대될 경우 장시간노동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실제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없게 됨.

Ⅲ. 실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현장 변화 및 대응방침

1. 장시간노동 실태와 노동현장의 변화

○ 장시간노동 초래하는 교대제 개선 필요성

- 우리나라의 교대근무제는 2조격일제, 2조2교대제, 3조 2교대제, 3조 3교대제, 4조3교대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아직까지 주야 맞교대 형식의 2조 2교대제와 3조 3교대제에 휴일근로가 결합하여 위법적 장시간 근로가 만연해 있음.
- 3조 2교대, 3조 3교대는 역시 연 2,600시간 이상의 장시간근로를 강요하고 있음.
- 이에 주52시간제(주40시간+연장12시간)를 확립시키고 장시간근로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교대제 방식은 4조 교대제로의 전환 또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활용한 방식으로의 교대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노동시간단축과 노동현장의 어려움과 우려

-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하거나 기존 노동자의 실질임금의 감소를 최소화 하고, 작업공정을 개편하여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기업들은 설비투자 부담, 인력수급 및 인건비 부담 등을 호소하고 있음
-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에 속하는 기업들도 현행 정부의 지원 대책만으로는 신규채용의 확대, 낡은 교대제 개편 등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는 관행개선을 제대로 개선하기 힘든 상황임.
- 사무.금융, 영업직, 운수.경비직, 서비스직 등에 만연된 포괄임금제로 장시간 노동과 실제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미지급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바 위법한 포괄임금제 근절대책도 마련되어야 함.

○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문제

- 특히 2018년 7월 1일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노선버스 여객운수업의 경우, 당장 제도가 시행되면 버스운형의 차질로 인한 교통대란이 예고되고 있음.
- 공사기간이 곧 비용과 직결되어 집중적인 장시간노동 관행이 만연된 건설업계나 IT업계 등에서도 대책을 호소하고 있음.
- 이러한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필요인력에 대한 실태파악 및 인력수급 대책에 대한 이견조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2018년 7월1일까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대폭적인 임금감소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주52시간을 넘는 초과노동 개선 및 지원대책 필요성

-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2018. 3.)에 따르면 실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임금은 월평균 약38만원이 감소된다고 분석했으며, 노동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노동자 규모는 100만 명에 이르고, 노동시간이 52시간 이내로 줄게 되면 월평균 약 38만원 이상의 임금이 감소하게 됨.
-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이러한 임금감소의 폭이 커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주당 법정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노사합의에 의한 연장노동의 단축은 노사부담이 원칙이라고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 개정에 의하여 초과노동의 한도가 갑작스럽게 단축되어 노사의 임금감소와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적극 고려되어야 함.
- 이에 기업의 지불능력 한계와 실질임금 감소로 생활수준의 위축을 초래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2. 대응방침

1) 대응방향

- '실노동시간단축법' 시행이 후진적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일-가정의 양립과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노동시간단축-일자리 연대교섭 활동을 추진할 것임.

2) 한국노총 대응방침

○ 실노동시간단축법 시행을 기점으로 후진적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 개혁
○ 교대제 개편, 근무형태 개선 등 장시간노동 해소 및 일자리창출 위한 연대교섭 추진
○ 중소기업 및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수준 저하 없는 노동시간단축 실현

○ 범정부적인 실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대책 촉구활동 전개
○ 실노동시간단축-일자리 창출실현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합의 추진
○ 노동시간단축 취지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시행유예, 특례업종 추가, 노동시간 적용예외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확대 등 제도개악시 총력 저지투쟁 전개
○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시간 적용제외 사업장 등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및 특례존치 5개 업종의 폐지, 노동시간 근로계약서 명시의무화 등 제도개선 활동전개
○ 노동시간 단축법의 준수와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엄격한 근로감독 촉구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업종별 노사정 협의기구 및 민관합동지원단 구성
○ 현장 교섭지원에 대한 조직적 체계 및 법률대응 체계 확립
- 실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선, 생활수준 저하 없는 적정임금 확보를 위한 현장 교섭지도지침 시달
- 개정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용자의 일방적인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 등 탈법-꼼수행위에 대한 법률대응 체계확립

3)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현장 단위 대응지침

○ 연장노동 포함 주52시간제의 전면적 조기도입
- 노동시간 상한제 및 추가인력 확보, 생활수준 저하 없는 적정임금 확보
○ 일방적인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조정 개편 저지
-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일체의 시간(대기시간, 작업지시 시간, 조회시간, 품질관리 활동시간, 청소시간, 교육시간, 체조시간, 중식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
○ 실노동시간단축-교대제 개편 추진위원회 구성
- 실노동시간단축 및 추가고용 확보를 위한 노사공동의 로드맵 마련
○ 포괄임금제 남용[3] 등 위법한 노동시간제 철폐

- 실노동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의 미지급 또는 하향지급 수단으로 악용되는 위법하고 편법적인 포괄임금제 관행 철폐

○ 연속적인 연차휴가권 및 휴일 휴식권 확보

4) 실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사안별 대응방안

(1) 근무형태의 개선

▸ 교대제 개편

○ 2조 2교대, 2조 격일제, 3조 3교대 등은 1주 최대 52시간을 넘어서는 상시적 장시간노동문제를 야기하고, 휴일노동과 연계되어 노동자의 휴식권를 침해할 수밖에 없음.

○ 연장노동포함 주52시간 이내의 노동시간을 확립하고 장시간노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4조 교대제 내지 주간연속 2교대제 등으로 교대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참고 1) 교대제 개편 모범사례 : Y(주) 노동조합

❍ 도입배경

▸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메이저 완성차 업체들이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에 관한 노사협의를 진행하였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합의 및 사회적 합의에 대한 요구가 나타남(현대자동차의 경우 2003년 근무형태변경

▸ 현장 근무형태는 10.5H+10.5H 맞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생활임금을 맞추기 위하여 장시간노동이 필요한 상황이었음(현장 평균노동시간 1주 60시간 이상).

▸ 현장 노동환경은 신·구 아이템 간의 의무생산량 편차 및 자동·수동라인 간의 노동

3) '포괄임금제'의 정의에 대하여,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강도 편차, 수동라인 간의 의무생산량 편차관련 문제점 야기(최대 노동강도 격차 40% 이상).

▸임단협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의 82.5%가 실질임금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에 찬성함.

○ 도입경과

- ▸ 2012~2013년 노사협의회에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며, 내부조사후 실질적 협의를 위해 2014.4부터 2개월 주기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 ▸ 노사공동 위원회인 '주간연속2교대 TF'를 구성하여 2014.6.부터 시작함.
- ▸ 2014.7.29. 단체협약에서 주간연속2교대제 전환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가 상호협력하며, 2016.4.1.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범운행을 2.1.부터 2개월간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함.
- ▸ 2014.6.부터 2016.9.까지 총 34차례 주간연속2교대제 TF 활동을 통해 현장표준화 도입과 MODAPTS기법[4]을 적용하였으며, 현장 공정별 가동률 분석기법을 확립함.
- ▸ 2016.4.2. 단체협약에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시기를 10월로 연기하고 포괄적 생산성 보전 및 임금보전 방안을 합의함.
- ▸ 2016.5.30.~10.25. 구체적인 생산량 조정을 위한 주간연속2교대제 TF활동과 함께 현장표준화 실무팀을 운영하여 현장표준화를 통해 작업공정별 표준시간을 정립함.
- ▸ 2016.9. 노사협의회에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위한 세부적 사항을 합의하고 동년 10.3.부터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함(현장공정별 의무생산량 확정, 간접부서 운영방안,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으로 인한 복지사항).

○ 도입효과

- ▸ 작업표준화와 MODAPTS 기법 적용 및 수작업 부하율 결정으로 의무생산량이 13.85% 상승됨(작업의 대폭적인 COST DOWN).
- ▸ 표준작업시간 설정으로 노사상호간 신뢰가 구축되었으며, 향후 물량변동시 유연성 확보

4) 근무자의 신체동작을 분석하여 작업표준시간을 설정하고, 생산성의 개선 및 향상을 꾀하는 경영기법으로 1966년 호주에서 개발된 작업동작표준시간측정법(PTS법)임. 이 기법은 신체 각 부위의 움직임은 각기 동작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든 근무자의 동작을 21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시간치를 부여하여 작업시간을 도출함.

- 시대적 요구인 주52시간 및 최저임금 1만원 문제 동시 해결
-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가동시간이 15.8% 줄어들었음에도 현장표준화로 시간당 의무생산량이 평균 13.85% 상승되어 생산실적이 줄어들지 않고, 평일 잔업의 변동성이 없어져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하게 됨.
-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맞교대제 근무형태의 임금을 평일근무 기준으로 100% 보전받게 되어 안정된 생활임금 확보와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등 삶의 질이 향상됨.

(참고 2) 교대제 개편 모범사례 : S 자동자부품사

○ 도입배경

-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에 대한 방안으로 인력운영 효율화, 고용안정, 장시간 노동 개선으로 노동환경 개선 등의 요구 발생
- 3조 3교대 근무형태 유지하여 통상임금 적용시 임금부담 가중
- 3조 3교대 근무형태 유지시 노동시간 단축 어려움
- 수주량 변화에 따른 인력운영의 어려움
- 연 2920시간의 장시간 노동 : 3조3교대를 기본으로 휴무조 발생일에 근무조가 주야 맞교대로 운영하며 주당 노동시간이 56시간(연간 2920시간)에 달함.
- 회사측 교대제 개편 기대효과 : 통상임금, 노동시간 단축 문제 해결, 수주량 변화에 따른 인작 자원 활용 극대, 품질 안정,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식당, 주차공간 부족 해소 등)
- 조합측 교대제 개편 기대효과 : 충분한 휴식 보장으로 재충전 기회, 계획적인 생활(자기개발 기회 마련), 출근일수 감소 및 노동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과의 소통)

○ 교섭경과 및 주요내용

- 경과 및 합의내용
- 2012. 통상임금 관련 TFT 구성 협의 진행
- 2013.11.1.~12.말까지 단체협약 갱신 교섭 진행, 2014.1.1.~2.4.까지 임금교섭 진행, 총 22회차 단체교섭 진행
-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하고 2014.1.1.부로 소급적용, 3년 소

급분은 동종업계 합의/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정리

- ▸ 근무형태를 3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4근 4휴)로 변경, 2014.4.14.부터 시행
- ▸ 임금보전 : 2014년 기본급(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분 포함) 기준 11% 인상 합의, 야간노동 할증 50%→75% 상승, 야간노동시 1일당 1시간 연장노동 수당 지급
- ▸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임금총액 수준 유지 또는 소폭 상승
- ▸ 교대제 전환 개편 내용

전제조건		탄력적근로제	근기법51조
근무형태	7근(오전) 1휴 – 8일 7근(야간) 1휴 – 8일 4근(오후) 1휴 – 5일	4근(주간) 4휴 – 8일 4근(야간) 4휴 – 8일	
연 휴무일	3휴*17.38주=52.1일	8휴*22.81주=182.5일	130.4일 증가
연간 근로시간	168시간*17.38주=2,920시간	96시간*22.81주=2,190시간	730시간 감소
주당 근로시간	2,920시간/52.1주=56시간	2,190시간/52.1주=42시간	14시간 감소
월 근로시간	2,920시간/12개월=243.3시간	2,190시간/12개월=182.5시간	
주기당 야간일수	7일	4일	
연 야간일수	7일*17.38주=121.6일	4일*22.81주=91.2일	30일 감소

(2) 포괄임금제의 남용 저지

○ 포괄임금제는 근기법에 규정된 법정수당의 산정방법을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관행으로서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함. 다만, 당장 폐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노동시간의 산정방법이 어려울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도록 함.

○ 정부는 포괄임금제의 남용규제를 위한 행정지침 마련, 실태조사 및 엄격한 근로감독을 단행해야 함.

(참고 3) 포괄임금제가 무효인 경우 임금체불의 구체적 판단사례

❍ **전제** : 5인 이상 사업장, 월 소정노동시간+주휴시간=209시간, 월소정노동일수 23일

❍ **(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계약했더라도 이 조항은 무효이므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소정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보고 통상시급을 계산 → 실노동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 이상을 지급해야 함.

- 다만,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명시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통상시급을 산정
- **[사례1]** 근무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월 200만원 임금 지급
  - 근로자가 한달간 20시간의 연장노동를 한 경우 체불금액 → 실 노동에 따라 발생한 연장노동 20시간에 대한 연장노동수당
  - 계산방법 : (통상시급 : 200만원/209h)×20h×1.5 = 287,081원
- **[사례2]** 근무시간을 09:00부터 21:00(휴게시간 : 2h)으로 정하고(일 10시간, 2시간 연장노동 사전약정), 월 300만원 임금지급
  - 노동자가 한달간 50시간의 연장노동을 한 경우 체불금액 → 실 노동에 따라 초과된 연장노동 4시간(50시간-2시간×23일)에 대한 연장노동수당
  - 계산방법 : {통상시급:300만원/(40h+연장 15h+주휴 8h)/7일×4h×1.5} = 65,753원
- **[사례3]** 근무시간을 오전근무조(08:00~17:00), 오후근무조(16:00~01:00)로 정하고(각 휴게시간 : 1h), 일급 10만원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체불금액
  - 오전근무조는 문제가 없으나, 오후근무조는 야간노동 3시간에 대한 야간노동수당, 계속노동일 경우 주휴수당(10만원)을 지급해야 함.
  - 계산방법 : 야간노동수당 18,750원{(통상시급:10만원/8h)×3h×0.5}

❍ **(정액수당제)** 정액으로 지급된 수당이 실노동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 이상이어야 함. 다만, 각 수당항목이 법정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단순히 수치를 맞춘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임금의 총액을 소정노동시간에 대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노동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함.

- **[사례1]** 근무시간을 8시간(09:00~18:00, 휴게 1h)으로 정하고, 기본임금 월 200만원, 매월 40시간 고정 O/T를 지급
  - 노동자가 한달간 50시간의 연장노동를 한 경우 체불금액 → 실 노동에 따라 초과된 연장노동 10시간에 대한 연장노동수당
  - 계산방법 : (200만원/209h)×10h×1.5 = 143,541원
- **[사례2]** 근무시간을 8시간(09:00~18:00, 휴게 1h)으로 정하고, 기본임금 월 200만원, 기본임금의 20%(40만원)를 연장노동수당으로 지급
  - 노동자가 한달간 20시간의 연장노동을 한 경우 체불금액 → {(200만원/209h)×20h×1.5}= 287,081원 < 40만원 → 체불없음.
  - 노동자가 한달간 40시간의 연장노동를 한 경우 체불금액 → 실 노동에 따라 연장 40시간에 대한 연장노동수당에서 기지급된 연장수당을 뺀 금액

· 계산방법 : {(200만원/209h)×40h×1.5=574,162원}-40만원 = 174,163원

(3)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문제

-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하거나 그 이하로 단축하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은 임금수준(임금총액)의 저하가 없도록 해야 하지만(ILO협약 제47호, 1935년). 노사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휴일노동-연장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사부담을 원칙이지만,
- 우리나라의 경우 관행화된 상시적 장시간노동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즉, 우리나라의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노동 관행은 정부의 위법한 행정해석에서 비롯됐다는 점, 노사간 합의로 가능했던 초과노동의 법정한도가 정부의 법 개정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단축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노사가 부담해야 할 연장근로 수당감소에 따른 임금감소 및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노사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질임금 및 생산물량 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적정고용-적정임금 확보전략을 마련해야 함.
- 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전과 적정한 생산물량 확보를 노사 공동부담의 원칙, ② 정부지원대책 활용을 통한 비용부담의 최소화, ③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임금구조 개선 및 시급 통상임금 인상을 통하여 노동시간 단축과 실질임금의 보존과 연계하는 대응전략이 요구됨.

(4) 정부지원대책의 적극 활용

- 고용노동부는 근기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으로서, 크게 ① 일자리함께하기사업(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보전 지원 +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등), ②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③ 일터혁신컨설팅을 제시한 이후, 노동시간 단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상반기 중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 정부지원대책의 요지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지원확대 : 신규채용 인건비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기간 : 1년 -> 2년 연장/ 300인 미만 기업이 조기시행시 신규채용 1인 단 100만원, 최대3년간 지원), 인원한도(고용보험 피보험자 30%) 확대 / 기존 노동자 임금감소분 보전시, 보전금액의 80%까지(월 40만원 한도도) 지원, 지원대상 인원 확대 -> 500이하 제조업에서 모든 기업 대상으로 확대 예정

‣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제도 확충 / 세제지원 강화(시간단축에 따른 고용증대, 임금감소 보전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노동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 설비투자 비용 : 필요 설비 및 복지시설(휴게시설 등) 투자비의 30% 매칭 지원(최대 2억원 +융자 10억원)

- 정부지원 대책 활용 (실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고용 인건비 + 기존 노동자 임금보전 지원제도) + 일터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 노사상생 부담(생산성 향상 + 임금보전) 임금감소 최소화 방안 마련

(5) 실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대책

- 한국노총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초과노동 수당의 감소로 퇴직급여 수령액의 감소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함.

- 이에 정부는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노동시간 단축입법에 따른 임금감소’를 추가하고,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방지를 위해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전환’,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토록 하는 등 사용자의 책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음.

-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시간단축법 시행이후 퇴직이 예정된 조합원의 퇴직급여 감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중간

정산 방안을 안내하고, 확정급부형(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하여 실노동시간단축 이전 퇴직급여 수준을 확보하는 등의 대응조치가 요구됨.

2)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예방을 위한 산하조직 대응지침

1. 목적 및 취지

○ 1주간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실노동시간단축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이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됨.

- 실노동시간단축은 관행화된 장시간노동 체제변화와 삶의 질의 개선이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 감소가 우려됨.
- 실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는 퇴직급여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퇴직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한국노총은 이에 대한 정부대책을 촉구하였으며,
- 이에 정부는 최근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노동시간단축을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시키는 등의 대책을 마련함.

○ 최근 개정·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관련 시행령의 주요사항을 살펴보고, 한국노총 산하조직의 현장 대응방안을 제시하려 함.

2.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내용

○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노동시간 단축입법으로 주 최대 노동시간이 감축(68→52시간)되고 특례업종 또한 감소(26→5개)되어 실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은 퇴직급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사유를 확대하고, 사용자의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음.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금 감소” 추가
- 사용자의 퇴직급여 감소예방을 위한 책무 부여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 노동시간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①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②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 사용자가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부여.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추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를 추가

▸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 노동시간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대표와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여야 하는 사용자 책무 포함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별도의 산정기준 마련

3. 노동조합 대응방안

○ 이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실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퇴직급여감소에 대해 사용자의 책무성이 부과**된 것임.

- "사용자는 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②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 제도의 활용, 확정급부형(DB) 퇴직연금제도 등의 경우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따라서 노동조합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인지하고 해당 조합원들의 퇴직급여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함.

- 이번 개정의 취지는 노동시간단축 입법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에방을 목적으로 한 것임. 따라서 원래 퇴직급여제도의 제1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감안한다면 중간정산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퇴직시점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최선의 방안임.
- 다만 개별 노동자들의 퇴직시점 이후 생활비, 대출원리금 등 경제적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할 필요가 있음.
- 우선적으로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 혹은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등을 통해 퇴직급여가 감소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더불어 실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퇴직급여감소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예방조치를 사용자에게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음. 이를 강조하는 현장의 대응이 요구됨.

(1)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1 : 퇴직금제도의 경우

○ 퇴직금제도는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①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안.
- ②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별도의 급여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
- ③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①불가피한 사정으로 노동시간단축시점 이전에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②노사합의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노동시간 단축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함.

○ 단, 퇴직금 중간정산은 노동자가 요청해도 사용자가 "경영상의 사유"등을 이유로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에 급여지급이 곤란한 경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음.

▸ 동시에 실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해 노동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법위반으로 제재 가능.

○ 별도의 급여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예시로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할 것임.

○ 모범 규정안(안) 예시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제○○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수준이 노동시간 단축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 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1. 노동시간 단축 전 계속근로기간: 노동시간 단축일(0000년 00월 00일)을 퇴직급여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단축 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노동시간 단축 후 계속근로기간: 퇴직일을 퇴직급여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단축 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 퇴직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물론 가능함. 하지만 급격하게 DC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위와 같이 별도의 급여산정기준을 취업규칙에 담아내도록 노사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퇴직금 중산정산으로 지급받은 일시금도 퇴직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일 기준 60일 이내에 노동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납입할 수 있음. 이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유예되므로 노동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고려해볼 수 있음.

⑵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2 :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경우

○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는 세 가지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음.

- ①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 ②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별도의 급여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
- ③현행 DB제도와 함께 DC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

○ 고용노동부에서는 DC로 전환하는 것을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DC보다는 DB의 안정성이 더 높으므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DB를 선호할 수밖에 없음.

○ 현실적으로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별도 급여산정기준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별도의 급여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예시로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

○ 모범 퇴직연금 규약(안) 예시

- DB제도 규약에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규약 제○○조(급여수준)
① 이 제도에 따른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수준이 노동시간 단축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 수준보다 낮아자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 제도의 급여수준으로 한다.

1. 노동시간 단축 전 계속근로기간: 노동시간 단축일(0000년 00월 00일)을 퇴직급여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단축 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노동시간 단축 후 계속근로기간: 퇴직일을 퇴직급여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단축 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 DB제도만을 도입·운영해온 사업장의 경우 DC를 추가로 설정하여 개별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DC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새로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대표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함.

○ 단, 추가로 DC제도에 가입하는 근로자 범위가 매우 구체적으로 한정된다면(A관할구역 내 사무직 노동자) 근로자 과반 가입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 DC제도 추가 설정.

○ 이 경우에도 기존 DB제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사용주는 여전히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노동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⑶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3 : DB와 DC제도가 함께 설정된 사업장의 경우

○ 두 가지 퇴직연금제도가 함께 설정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①퇴직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노동자와 ②상대적으로 퇴직시점이 많이 남은 노동자로 구분하여 전략적 선택이 가능함.

○ 퇴직시점이 1~2년 이내 정도로 얼마 남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를 위해 별도급여산정기준을 마련하거나 DC로 전환하도록 사용주가 의무를 다 해야 함.

○ 퇴직시점이 많이 남은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향후 1~2년정도 실질임금이 삭감 내지 소폭 상승한다 하더라도, 2~3년이 지나면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임금삭감효과가 거의 상쇄되므로 DB제도 유지가 더 유리할 수 있음.

▸ 때문에 사업장별 특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DB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나. 위원장 지역순회 간담회(2018년 하반기)

중요 활동 보고

2018년 금속노련 조직 현황 (2018년 10월 현재)

구분		2018	2017	2016	2015	2014
조직수	전체	518	490	488	484	481
	단조	477	442	441	438	436
	지부	48	48	47	46	45
조합원수	맹비납부	101,474	94,459	96,483	97,296	99,138
	NPAS	142,020	133,755	133,009	130,587	112,587
	노동부	-	-	129,260	125,742	121,284

• 조합원수 기준 : 맹비납부 6월 , NPAS 11월, 고용노동부 2016년

2018년 신규조직 현황 (22개 조직, 2018년 10월 현재)

구분	지역	노조명	대표	조합원수	설립일자	가맹일자	업종
신규가맹	경기	TDK한국	김동수	160	1996.02.08	2018.05.01	전자부품소재
		두원정공	정춘식	8	2018.05.29.	2018.08.17	자동차부품
	안시	서울반도체	박정훈	2	2018.07.16	2018.07.17	반도체
	충북	모비스충주	원종민	115	2018.04.21	2018.05.02	자동차부품
		일본전산리드	이선수	39	2018.02.22	2018.04.02	PCB검사설비
		비그린파워	한훈희	170	2018.06.24	2018.07.09	자동차배터리
	부산	스타리온기원	문동우	43	2018.06.12	2018.06.14	전기전자
		시퍼스파이프라인	김성윤	35	2018.05.17	2018.07.02	조선파이프
		일본해사협회	이창원	50	2017.07.01	2018.08.14	선박검사
	경남	세동산업	손동우	56	2018.07.18	2018.07.23	자동차부품
		위즈테크	유재성	48	2018.08.09	2018.08.14	자동차부품
		수성기체산업	정석진	62	2018.06.18	2018.06.18	항공부품
	구미	오성전자	권경찬	150	2018.07.02	2018.07.04	리모콘

2018년 신규조직 현황 (22개 조직, 2018년 10월 현재)

구분	지역	노조명	대표	조합원수	설립일자	가맹일자	업종
신규가맹	포항	포항지역철강	이창언	50	2018.09.17	2018.06.05	포스코협력
		포스코	김인철	5000		2018.11.14	철강
	울경	KAC전장기업	이영정	23	2018.05.01	2018.05.24	자동차유리
		스타리온일우	남호진	23	2018.05.03	2018.05.24	자동차핸들
	대경	금오EMS	정재식	-	-	-	-
	전북	타오스	김준규	40	2018.03.14	2018.04.25	자동차부품
		KCFT	최영진	120	2018.02.28	2018.04.25	자동차부품
		유신정밀	조장세	-	2018.04.16	2018.04.25	-
	광전	광양로앤복	양기만	40	2017.12.22	2018.05.08	로수리
		광주일반	최정열	41	2018.03.09	2018.06.25	일반노조

2018 현안 사업장 현황 (가. 조정 등 분쟁사업장)

본부	노조명	본부	노조명
서울	농협사료, 불보건설기계코리아, 오티스엘리베이터	경남	대영소결금속, 세일공업, 한국특수형강, 한일제관, KAI, STX중공업
경기	ASE코리아, 본코어, 일진전선, 리한, 로얄앤컴퍼니, 삼영전자, 에이엔피, 하나모들, 한국키스톤발부, 핸즈식스	울산광주	명화공업
안산시흥	남양공업, 아이아, 서울반도체, 영흥철강진, TRW, 명화공업안산	대구경북	타이코에이엠피, 천우정밀, 효림산업
인천	한국GM사무직	구미	영풍석포제련소, 오성전자
대전	한일제관 대전지부	포항	동일기업, 한금, 현대종합금속
충남	동부제철, 세명테크, 우영산업, MEMC코리아, 휴스틸(조정준비중)	광주전남	SNNC, 성암산업
충북	현대모비스충주협력사	전북	LS엠트론
부산	시퀘스파이프, 스타리온기원, 일본해사협회한국	강원	오토리브

2018 현안 사업장 현황 (나. 투쟁사업장)

지역	노조명	쟁점	경과	비고
서울	오티스엘리베이터	임단협결렬	부분파업	노사합의
경기	로얄엔컴퍼니	위문장 해고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	진행중
	삼영전자	임단협결렬	총회근 투쟁	노사합의
안산시흥	남영공업	임단협결렬,해고	총회근투쟁, 부분파업	노사합의
	이이아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준법투쟁, 파업	노사합의
	TRW	임단협결렬	부분파업	노사합의
인천	한국GM서무지	법인분리/폐수노조	-	진행중
충남	우영산업	임단협결렬	준법투쟁, 부분파업	노사합의
경남/대전	한일계공	사업 일부축	본사 집회	노사합의
부산	스타리온 기원	이전, 법인분리	-	진행중
구미	영풍석포제련소	임단협결렬	총회근투쟁	진행중
포항	한금	임단협결렬	총회근투쟁	노사합의
	동일기업	임단협결렬	총회근투쟁	진행중
	현대종합금속	임단협결렬	총회근투쟁	진행중
광주전남	성한산업	사업권 반납	준법투쟁	진행중

오토리브 총파업중 : 조합원 197명중 176명 감원

2018 현안 사업장 현황 (다. 교섭 위임 사업장)

지역	노조명	위임내용	경과	비고
경기	포일엔진피니	임단협 체결	단체교섭중	진행중
	일진전기전선사업부	신규조직 임단협 체결	위임철회 후 노사합의	조정신청
안산시흥	서울반도체	신규조직 임단협 체결	단체교섭중	진행중
경남	한국특수형강	임단협 체결	조정중 노사합의	조정신청
	덕영소금금속	임단협 체결	위임철회 후 노사합의	-
부산	시티스타이프라인	신규조직 임단협 체결	조정중 노사합의	조정신청
	일본해사협회 한국	신규조직 임단협 체결	단체교섭중	조정신청
구미	오성전자	신규조직 임단협 체결	단체교섭중	진행중
광주전남	SNNC	신규조직 임단협 체결	조정중 단협체결 이후 자체적으로, 임금교섭중	진행중
금속노련	금속일반노조 특별산업분회	기업노조서 조직형태 변경, 지회 설치	단체교섭중	진행중

금속노련 20만 조직화 사업

타켓 조직화 + 신규 조직화 = 20만 조직화

"전략적 타킷" 조직화 사업

- 방법 : 조직화 대상을 사전 선정 후 조직화 사업
- 대상 : 포스코와 포스코협력사, 모비스협력사 조직화, 향후 삼성 등

"미조직 신규" 조직화 사업

- 대상 : 미조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화 사업
- 방법 : 지역본부별 지역/일반노조, 금속노련 내 일반노조 설립

금속노련 20만 조직화 사업

금속노련 20만 조직화 사업
모비스
A
B
협력사1
협력사2
협력사3
협력사4
금속노조(민노)
A사(금속노련)
B사(회사명만)
협력사1-4에
금속노조 설립
✓ 현대모비스 지방 공장내에 두개의 모듈사(A와 B사)
✓ A사는 금속노련 소속, B사는 사명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음, 각 2개의 협력사
✓ 협력사내에 금속노조(민주노총) 설립후, 협력사 4개를 B사로 통합
✓ 각각 교섭중이나 A사 교섭 부진, 사측 B사 교섭 결과 보자

노조 규약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 가입범위"

노동조합 규약	단체협약
제8조(조합원의 범위) 본 노조의 조합원은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고 노조에서 담당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3조[조합원의 범위] 회사의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종업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4급 이상 관리직 사원 2. 총무, 인사, 노무, 경리, 영업, 기획, 전산, 생산관리, 구매, 기타 기밀취급 담당자 3. 비서, 경비, 통신 및 승용차 기사 4. 수습중인 자 및 계약직 직원 5. 기타 노사협의로 정한 자

사례> 단체협약에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자 - 예를 들어 계약직 직원- 이 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였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 받아야 하는가? 받지 말아야 하는가?

노동조합과-419 (2004-02-18)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이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2. 한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에서 규약과는 달리 일정범위의 근로자를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단체협약 조항은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 대표자"가 아닌 자로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할 수는 없다.

2018년 하반기 제조연대 대표자 및 상근간부 기본교육

- 한국노총 제조연대 공동사업 (제조산업 7개 산별 공동교육)

- 일정 : 11월 19일 ~ 21일
- 장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 대상 : 단위노조 대표자 및 핵심상근간부

- 교육내용
ㅇ제조연대의 방향과 목표
ㅇ노동자와 노동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학장)
ㅇ노동조합 운영 실무교육 (섬유유통노련 박근식 본부장)
ㅇ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원리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ㅇ단체교섭의 실무 (노무법인 참터 유성규 노무사)
ㅇ쟁의행위의 실전사례 진로 등 (식품산업노련)

경노사위 – 제조산업위원회 설치 제안

논의 의제
ㅇ제조업 발전과 부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ㅇ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의 대응전략
ㅇ한국 제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ㅇ제조업의 일자리창출, 고용유지 관련 정책방안 논의

노동계	사용자	정부	비고
한국노총(2인) 민주노총(2인)	한국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4인)	산업부, 중소벤처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4인)	※ 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은 사안별 참여

자동차산업의 원하청거래 실태와 개선과제 연구

사업목적

원·하청간의 납품구조와 납품단가 결정 등의 거래구조의 실태를 연구하고 제도적 개선과제들을 도출하여 향후 불공정한 원·하청거래 관행을 바꾸고 대중소기업간의 균형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함.

사업내용

◦ 원·하청간의 납품구조와 납품단가 결정 등의 거래구조의 실태 및 현황 리뷰 ◦ 파생되어 발생하는 지불능력격차, 근로조건 격차 등의 인과관계 연구 ◦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각계의 입장 및 전문가 의견 조사 ◦ 기업간 격차해소를 위한 부품사 보호방안 등 제도개선 검토 및 보완책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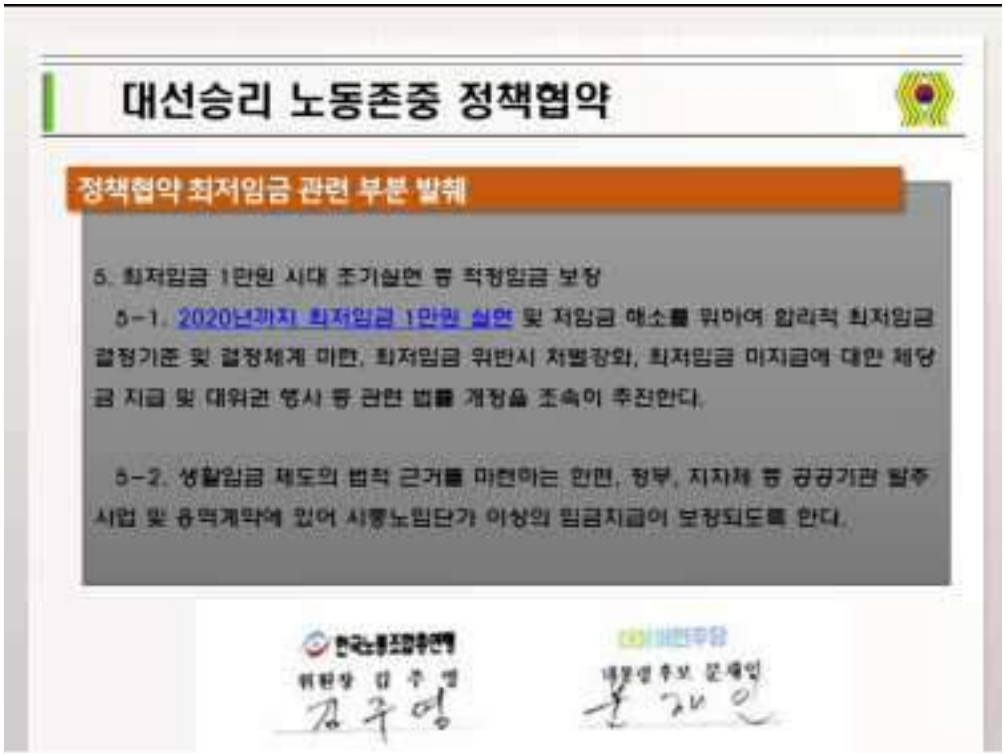
실태조사 설문 배포 예정 (10월 중순)

남북 제조노동자 교류협력 사업제안

- 양대노총 제조연대 (한국노총-금속노련, 화학노련 ·민주노총-금속노조, 화섬연맹) 북측 조선직총 산하 조선경공업 및 화학 직업동맹과 조선금속 및 기계동맹 중앙위원회에 제안

제안내용	제조산업발전을 위한 남북제조노동자 대표자회의
취지	남과 북의 제조산업 노동자들이 함께 남북 제조산업발전과 제조업 노동자들의 상호 교류협력 사업의 도대 마련
목적	- 남북제조노동자 자주교류 협력사업 - 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 평화와 통일운동의 협력사업
공동제안배경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각각 소속된 4개 조직이 2013년 공동투쟁을 함께 진행하면서 '양대노총제조연대'라는 연대조직으로 발전하였음. 판문점선언 이후 남측의 제조노동자들 대표해서 자주교류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제안함.
초기사업 예시	남북제조노동자 간부결의대회 및 체육행사, 교차산업시찰 및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화학 등 업종별 교류사업, 남북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항일-노동운동 유적답사 기행 사업, 기타

노동쟁점과 현안


대선승리 노동존중 정책협약
정책협약 최저임금 관련 부분 발췌
5.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조기실현 등 적정임금 보장
5-1.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및 저임금 해소를 위하여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체계 마련,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강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5-2.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 발주사업 및 용역계약에 있어 시행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지급이 보장되도록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전)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②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③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시행규칙 별표1)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①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③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그 밖에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①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②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③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④일직·숙직수당 ⑤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최저임금 관련 사측 요구 (개정전)

소정근로시간 조정

- 소정근로시간 축소

  226시간 / 243시간 → 209시간

임금체계조정

- 상여금 산정 방식 변경
- 상여금 기본급화
- 복리후생 급여 최저임금 산입 임금으로 전환

최저임금법 개정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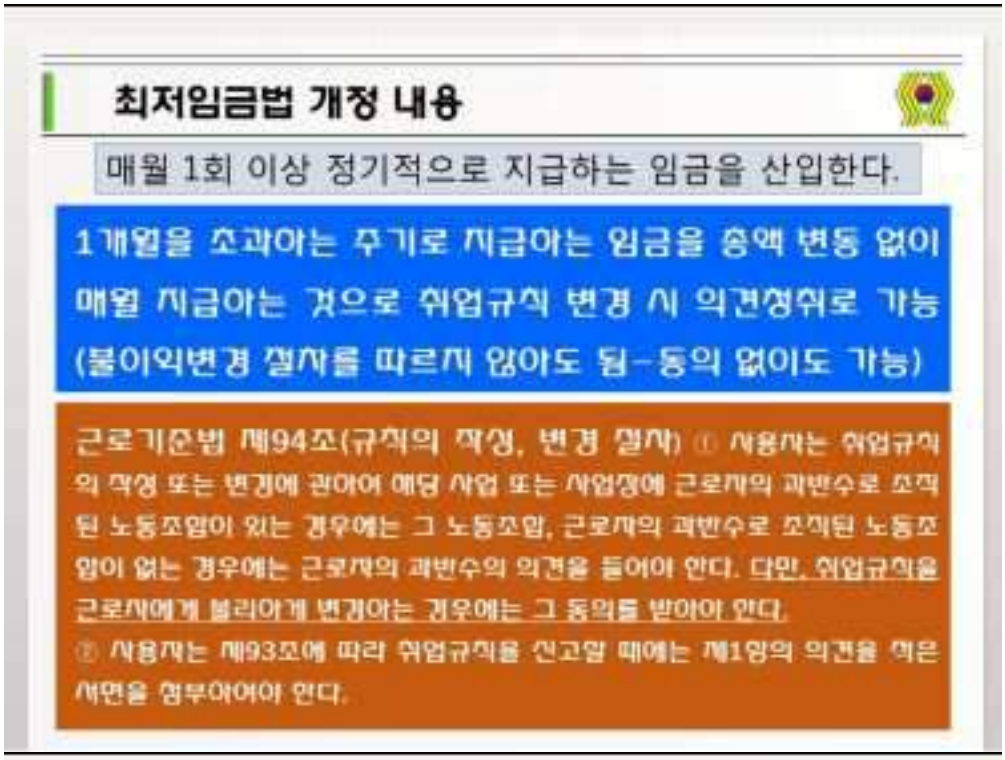
최저임금법 개정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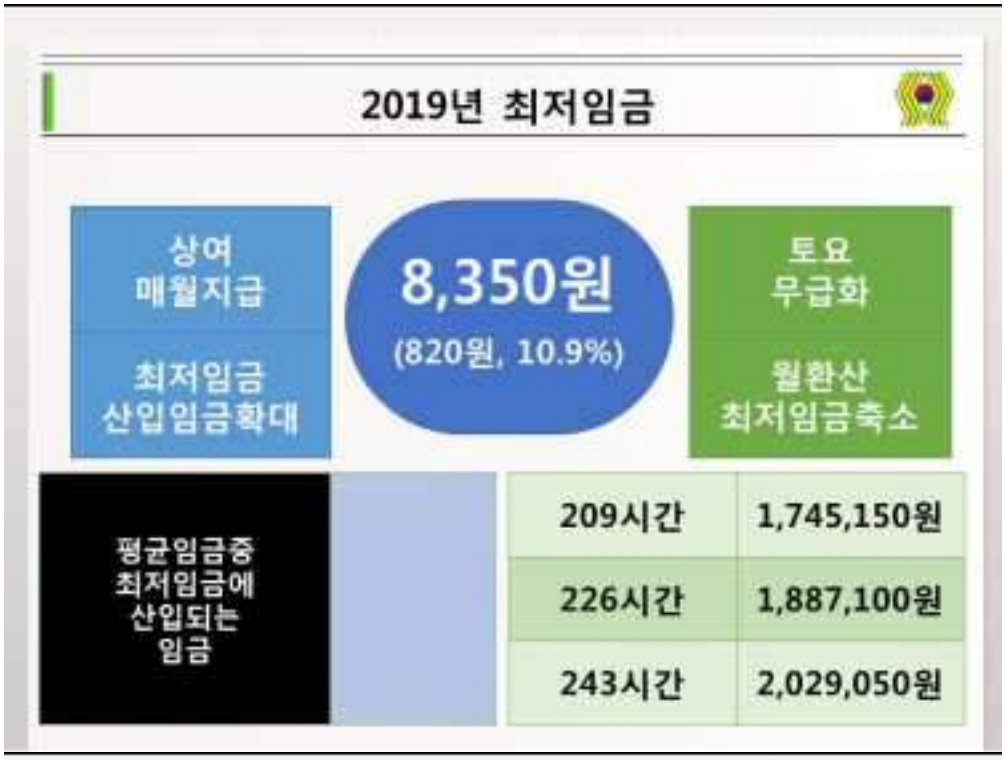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을 종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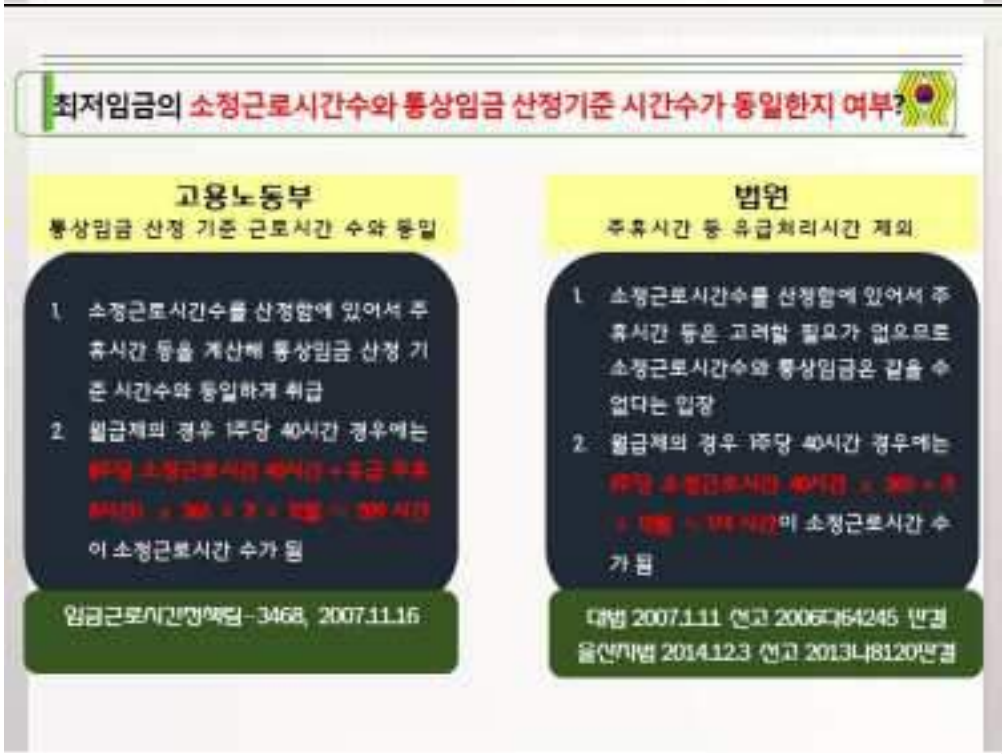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종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로 가능 (불이익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됨-동의 없이도 가능)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
상여금은 월 최저임금의
- 2019년 25% 초과금액
- 2020년 20% 초과금액
- 2021년 15% 초과금액
- 2022년 10% 초과금액
- 2023년 5% 초과금액
복리후생급여 월 최저임금의
- 2019년 7% 초과금액
- 2020년 5% 초과금액
- 2021년 3% 초과금액
- 2022년 2% 초과금액
- 2023년 1% 초과금액
최저임금에 산입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종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로 가능(불이익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됨-동의 없이도 가능)


2019년 최저임금
상여
매월지급
최저임금
산입임금확대
8,350원
(820원, 10.9%)
토요
무급화
월환산
최저임금축소
평균임금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209시간
1,745,150원
226시간
1,887,100원
243시간
2,029,050원


최저임금의 소정근로시간수와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가 동일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 수와 동일
1.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휴시간 등을 계산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와 동일하게 취급
2. 월급제의 경우 1주당 40시간 경우에는
이 소정근로시간 수가 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68, 2007.11.16
법원
주휴시간 등 유급처리시간 제외
1.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휴시간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수와 통상임금은 같을 수 없다는 입장
2. 월급제의 경우 1주당 40시간 경우에는
이 소정근로시간 수가 됨
대법 2007.1.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울산지법 2014.12.3 선고 2013나8120판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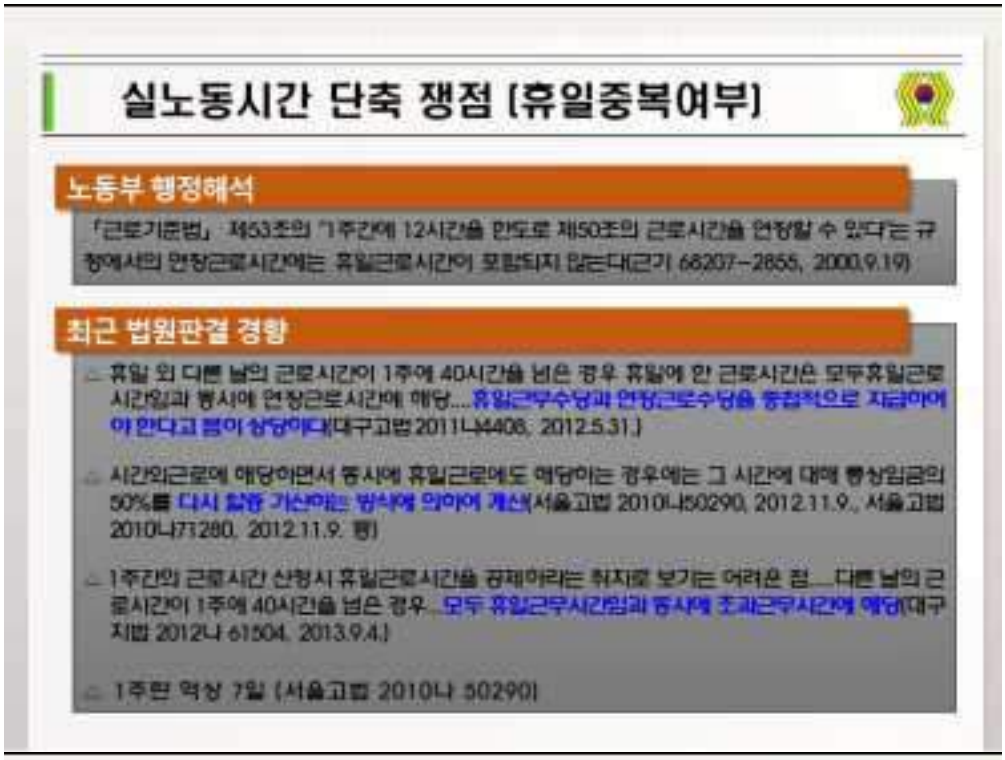
한국당 윤상직, '주휴시간 제외' 최저임금법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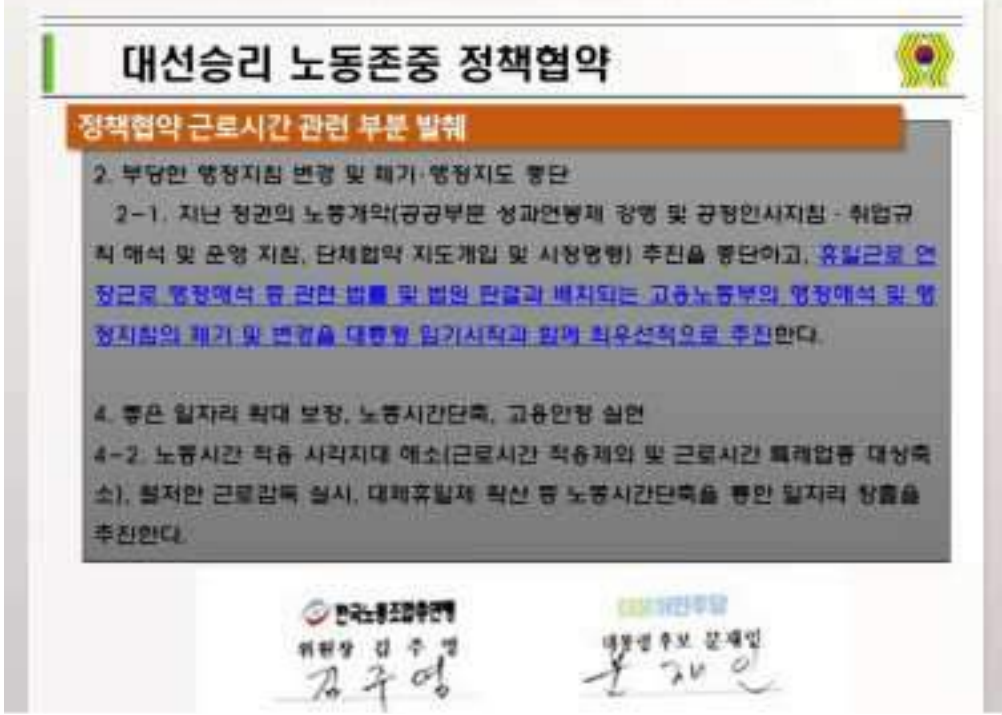
f

[마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유급휴일 등 주휴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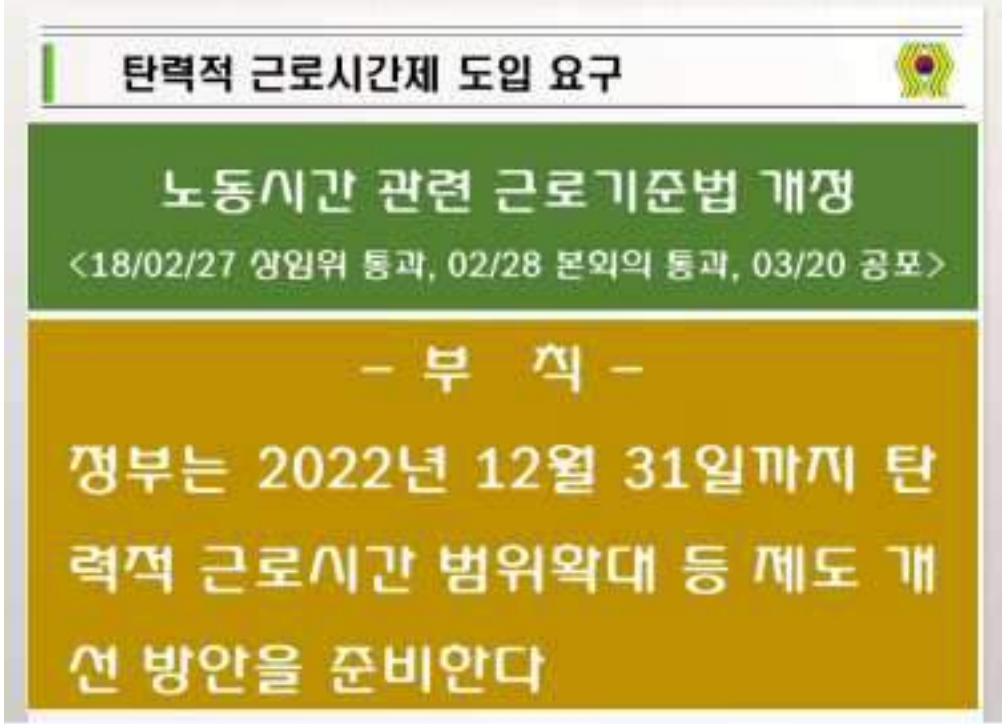
주휴시간은 쉬었어도 급여로 인정되는 유급휴일 등을 말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에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또 최저임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를 법률로 상향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사업의 종류와 규모,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실노동시간 단축 쟁점 (휴일중복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3조의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근기 68207-2855, 2000.9.19)
최근 법원판결 경향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구고법 2011나4406, 2012.5.31.)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 가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산(서울고법 2010나50290, 2012.11.9., 서울고법 2010나71280, 2012.11.9. 등)
1주간의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대구지법 2012나 61504, 2013.9.4.)
1주란 역상 7일 (서울고법 2010나 50290)


대선승리 노동존중 정책협약
정책협약 근로시간 관련 부분 발췌
2. 부당한 행정지침 변경 및 폐기·행정지도 중단
2-1. 지난 정권의 노동개악(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행 및 공정인사지침 ·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단체협약 지도개입 및 시정명령) 추진을 중단하고, 휴일근로 연장근로 통상해석 등 관련 법률 및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행정지침의 폐기 및 변경을 대통령 임기시작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4. 좋은 일자리 확대 보장, 노동시간단축, 고용안정 실현
4-2. 노동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근로시간 적용제외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축소), 철저한 근로감독 실시, 대체휴일제 확산 등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노동시간 관련 개정안 당론발의
1주일의 정의 & 시행일
•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 1,000인 이상(2017년), 300-999(2018년), 100-299(2019년), 5-99(2020년)
연장근로 확대
• 현행 연장근로 제한 1주 12시간→ 20시간으로 연장(2023년까지 일몰제 시행 이후 연장재검토)
휴일가산수당 50%만 지급(현행 노동부 해석 그대로)
• 8시간 이하 : 50% , 8시간 이상 : 100%
탄력적근로시간 확대
• 현행 2주(취업규칙) / 3개월 단위(노사합의)를 각각 1개월, 6개월로 연장
• 최대 7%의 OT수당의 삭감하고, 뿐만 아니라 임금손실 이상으로 불규칙한 노동시간과 집중된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 초래
근로시간저축 휴가제
• 연장(야간)(휴일) 할증임금과 연차휴가를 임금 안주고 저축하여 나중에 사용
• → 배수가, 경영악화시 회사의 악용가능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면죄부
• 부칙 제3조 (특례) : 단계적 시행일의 전날까지 '1주'는 '휴일'을 제외한 기간으로 본다
• 법 통과시 소송하면 승소확률 0% → 교대제 개편, 노동시간단축 '교섭력 약화 초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구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18/02/27 상임위 통과, 02/28 본회의 통과, 03/20 공포>
- 부 칙 -
정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 범위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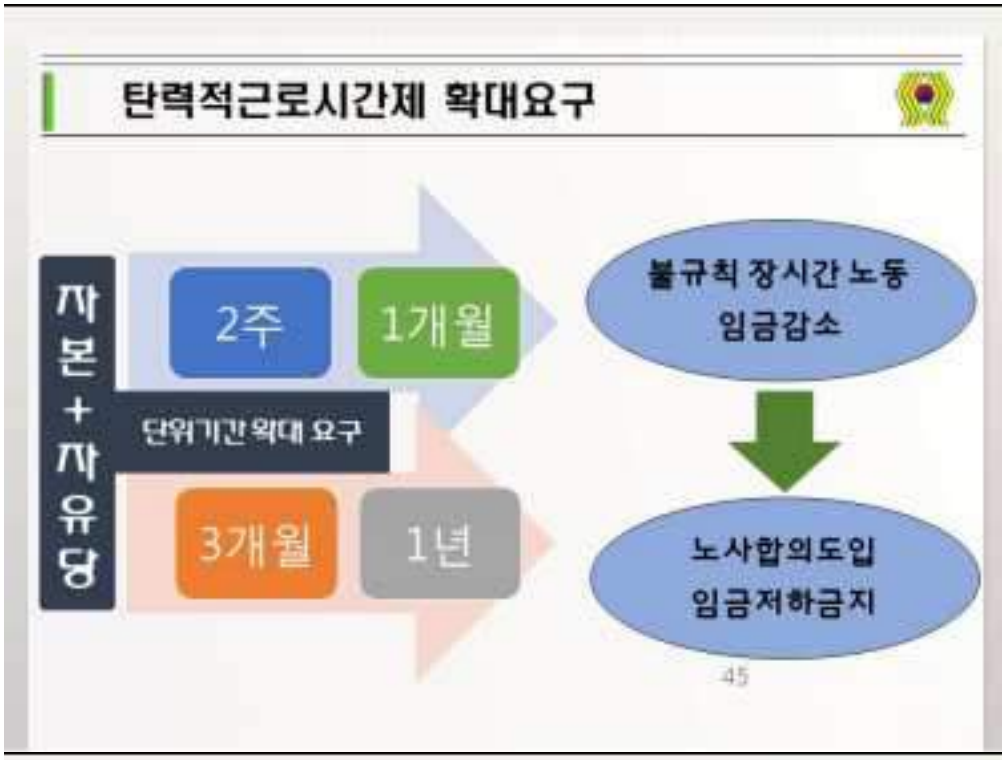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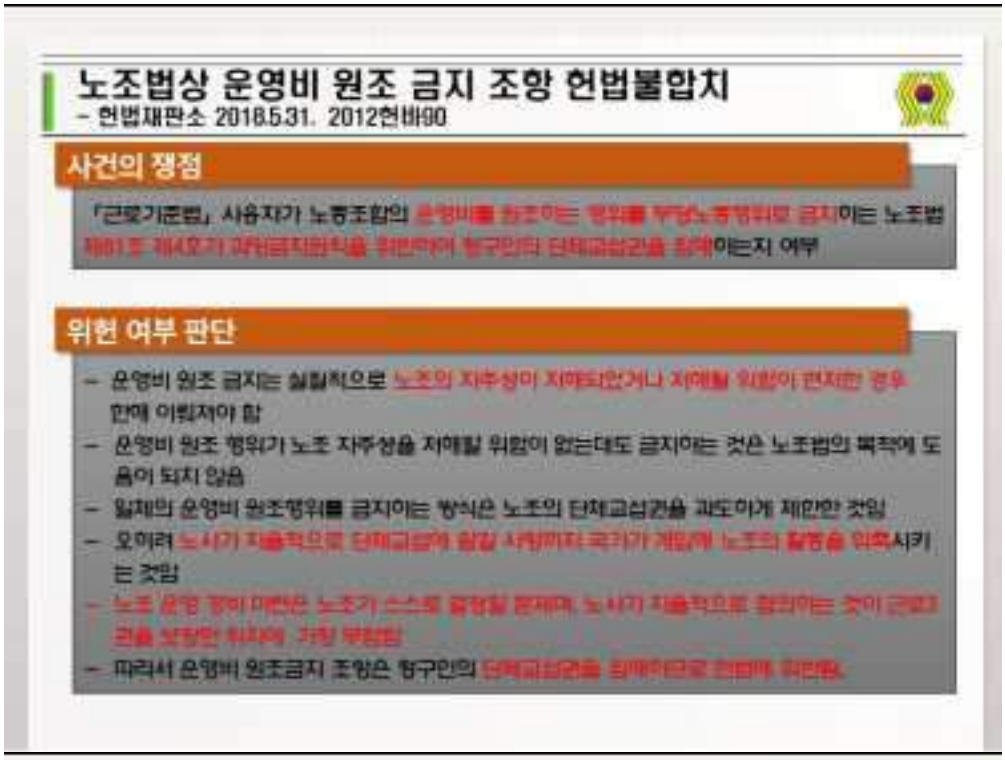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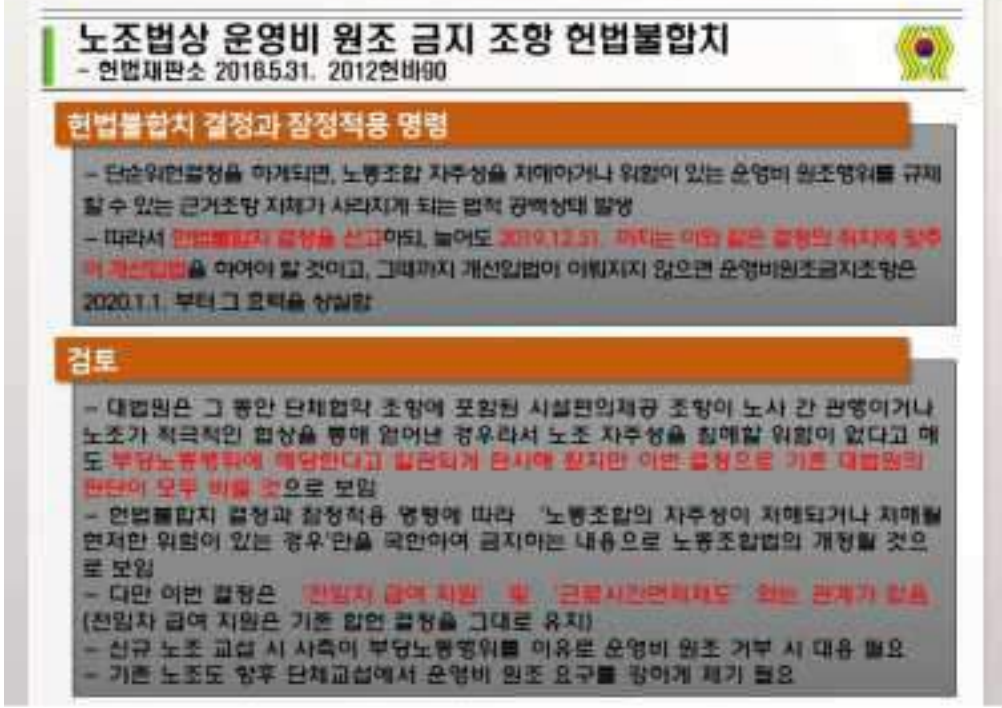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근로시간제

기준	단위	주	노동시간	주당평균	합의연장	연장포함
취업규칙	2주	1주	48 (+8)	40	12	60
		1주	32 (-8)		12	44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3개월	6주	52 (+12)	40	12	64
		6주	28 (-12)		12	40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요구
자본+자유당
2주
1개월
단위기간 확대 요구
3개월
1년
불규칙 장시간 노동
임금감소
노사합의도입
임금저하금지
45

탄력적근로시간제
1주
60
64
2주
32/44
28/40
부서별 업무량
기능의 다변화
일방적 배치전환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 헌법재판소 2018.5.31. 2012헌바90
사건의 쟁점
「근로기준법」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위헌 여부 판단
- 운영비 원조 금지는 원칙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 한해 이뤄져야 함
- 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조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데도 금지하는 것은 노조법의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일체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임
- 오히려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교섭에 임할 사항까지 국가가 개입해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임
- 노조 운영 경비 마련은 노조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근로권을 보장한 취지에 가장 부합함
- 따라서 운영비 원조금지 조항은 청구인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 헌법재판소 2018.5.31. 2012헌바90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적용 명령
- 단순위헌결정을 하게되면, 노동조합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 발생
-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늦어도 2019.12.31. 까지는 이와 같은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개선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2020.1.1. 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검토
- 대법원은 그 동안 단체협약 조항에 포함된 시설편의제공 조항이 노사 간 관행이거나 노조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얻어낸 성과라서 노조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다고 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기존 대법원의 판단이 모두 바뀔 것으로 보임
-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적용 명령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국한하여 금지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의 개정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번 결정은 '전임자 급여 지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와는 관계가 없음
(전임자 급여 지원은 기존 합헌 결정을 그대로 유지)
- 신규 노조 교섭 시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운영비 원조 거부 시 대응 필요
- 기존 노조도 향후 단체교섭에서 운영비 원조 요구를 강하게 제기 필요

다. 2019 제조연대 단체협약해설집 발간

1. 개요

□ 목적

- 제조연대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제조산업의 특성을 적용한 모범단협안 구성
- 모범단협안의 마련과 법리해설 현장사례 등을 기술하여 단위노조 교섭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 2019년 임단투 지침서와 같이 발간

□ 모범단협집 발간팀 구성

소속	지위/성명	비고
금속노련	곽상욱 부장	
	나병호 부장	
섬유·유통노련	정대중 국장	간사
	김동현 차장	
화학노련	심재호 실장	팀장

□ 모범단협집 발간팀 역할분담

- 섬유·유통노련 : 총칙, 노조활동, 인사(사회적 책무/고용안정/비정규직 등)
- 금속노련 : 임금, 근로시간, 휴게·휴일 등
- 화학노련 : 교육훈련, 복리후생, 산안, 여성,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개인정보, 부칙 등

□ 모범단협집 구성

구성 순서	비고
조문	모범안
해설	모범안 해설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등 행정해석으로 보충설명
법원판례	조문에 관련된 법원의 최신판례 수록
TIP	조문과 연관된 부연설명(필요 시)
관련법조문	노동관계법 및 기타 관련 법령
별지	모범단협안(제1조~부칙까지)

□ 단체협약 해설집 제작 일정

날짜	내용
2018년 12월 7일(금)	제2차 모범단협집 발간팀 회의(1차 마무리)
2018년 12월 28일(금)	제3차 모범단협집 발간팀 회의(2차 마무리) 각 연맹별 부수파악(실무선)
2019년 1월 4일(금)	TEXT 집행위원회 공유, 기획사 선정
2019년 1월 8일(화)	제14차 집행위원회 예정 모범단협집 부수파악, TEXT 제출
2019년 1월 10일(목) ~11일(금)	모범단협집 발간팀 워크숍(강화도)
2019년 1월 16일(수)	원고 기획사에 넘기기
2019년 1월 31일(목)	편집·디자인 검토 및 완료
2019년 2월 11일(월)	모범단협집 최종 발주
2019년 2월 28일(목)	제조연대 모범단협집 각 사업장 수령완료

2. 2019 제조연대 단체협약 해설집

목차

Contents

전문 11

제1장 총칙

1. 노동조합의 고심내용 지위 보장 15
2. 단체협약의 우선적용 17
3. 기존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저하 금지 20
4.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22
5. 근등처우 26
6. 규정의 제정과 개폐 28
7. 동지의무 30

제2장 노동조합 활동

8.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33
9. 조합원 교육시간 36
10. 노동조합 전임자 및 처우 37
11. 근로시간면제자 및 처우 40
12.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43
13.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 45
14. 홍보활동의 보장 47
15. 조합비 및 조합무과금 등의 일괄공제와 인도 49
16. 노조에 대한 시설 및 편의제공 51
17. 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 54

제3장 임금 및 퇴직금

18. 임금의 원칙 59
19. 임금저하불가 59
20. 임금의 정의와 구성 61
21. 수당 69
22. 상여금 69
23. 임금인상 72
24. 임금의 지급 72
25. 임금 · 직급 · 근무체계의 개편 76
26. 임금의 임의 공제금지 78
27. 비상시 지불 80
28. 단일호봉제 81
29. 정기승급 81
30. 특별승급 82
31. 연장 · 야간 · 휴일노동수당 83
32. 휴업지불 87
33. 퇴직금 90
34. 퇴직연금 94
35. 퇴직금 중간정산 98
36. 퇴직금 지급의 특례 101

제4장 노동시간 · 휴일 · 휴가

37. 노동시간 105
38. 휴게시간 108
39. 시업 및 종업시간 110
40. 연장 · 야간 · 휴일노동시간 112
41. 탄력적 근로시간제 115
42. 고대근무 조합원 보호 118
43. 유급휴일 120
44. 연차유급휴가 125
45.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금지 126
46. 병가 128
47. 생리 130
48. 하기유급휴가 133
49. 경조휴가 134
50. 장기근속 조합원 포상 136

제5장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51. 국제규범의 준수 139
52. 기업의 사회적 책임 140
53. 경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141
54. 공동결정사항 142
55. 협의사항 143
56. 보고사항 143
57. 노조대표의 이사회 참가 및 이사 · 감사 추천 145
58. 예산권과 노동조합의 의견 반영 146
59. 우리사주조합 147
60. 종업원 기업민수 149

제6장 인사

61. 인사원칙 153
62. 인사고과 155
63. 승진 · 승급 156
64. 인사위원회 158
65. 이의제기 161
66. 채용 163
67. 수습기간 164
68. 징계사유 167
69. 징계의 종류 169
70. 징계절차 171
71. 해고 173
72. 해고의 예고 175
73. 무단결계 및 해고 178
74. 정년 180
75. 휴직사유와 기간 182
76. 휴직자 처우 및 복직 184

제7장 고용안정

77. 고용민원위원회 189
78. 재고용의무 192
79. 직장인력의 유지 및 확보 194
80. 전직 · 배치전환의 제한 196
81. 휴주 및 휴도급 199
82. 회사의 정리해산 · 이전 · 업종전환 201
83. 신규사업 확대 및 신기술 · 신설비 도입 202
84. 회사의 분할 · 합병 · 양도 · 폐직 시 고용승계 205
85. 해외분장 · 별도법인 206
86.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제한 207
87. 기업구조 개선작업 및 기업회생절차 211

제8장 취약계층노동자 보호

88.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제한 219
89.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계약의 서면작성 및 교부의무 222
90. 직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원칙 위반의 효과 225
91. 시간선택제노동의 전환 및 차별금지 226
92. 간접고용 사용사유의 제한 227
93. 간접고용 사용계약 체결 시 명시사항 및 교부의무 231
94. 간접고용 사용원칙 위반의 효과 232
95. 우선채용의무 234
96. 차별의 시정 235
97. 고용형태 현황의 게시 240

목차

Contents

제9장 교육훈련 및 복지

98. 신규채용자 교육 ····· 245
99. 직무교육 등 ····· 246
100. 교육훈련 휴직 ····· 246
101. 교육훈련위원회 ····· 247
102. 복지시설 ····· 248
103. 통근편의 제공 ····· 248
104. 급식 ····· 249
105. 근무복 등 ····· 249
106. 체력단련비 ····· 250
107. 기숙사 ····· 251
108. 주택마련지원 ····· 251
109. 재해지원 ····· 251
110. 단체상해보험 ····· 252
111. 학자금 지원 ····· 254
112. 의료비 지원 ····· 254
113. 보험료 납부내역 통보 ····· 255
114. 휴양시설 ····· 256
115. 취미 · 여가활동 지원 ····· 256
116. 문화체육행사 ····· 256
117. 재충전 휴가 ····· 257
118. 사내복지기금의 설치운영 ····· 258

제10장 양성평등과 일 · 생활 균형보장

119.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 263
120. 양성평등위원회 ····· 265
121. 고용상 성차별 금지 ····· 266
122.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 268
12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 270
124. 명예고용평등감독관 ····· 272
125.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274
126.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금지 ····· 275
127. 생리휴가 ····· 278
128. 출산전후휴가 ····· 279
129. 배우자 출산휴가 ····· 285
130. 임신 · 출산 프랍원의 노동조건 보호 ····· 286
131. 육아휴직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 287
132. 자녀돌봄휴가 ····· 291
133. 직장보육시설 ····· 292
134. 난임치료휴직 ····· 295
135. 가족돌봄휴직 ····· 295

제11장 산업안전보건과 재해보상

136. 재해예방 의무 ····· 301
137. 노조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 301
13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302
139. 안전보건관계자 ····· 306
14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310
141. 안전보건 관리규정 ····· 313
142. 안전보건교육 ····· 313
143. 안전장비 및 보호구 ····· 314
144. 안전보건진단 ····· 320
145. 건강검진 ····· 322
146. 작업환경측정 ····· 329
147. 작업중지권 ····· 332
148.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및 조치 ····· 335

149. 뇌심혈관계 질환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조치 ... 341
150. 화학물질관리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 344
151. 유해 · 위험작업의 노동시간 ... 350
152. 의무실 설치 및 구급시설 ... 350
153. 휴게시설의 설치 ... 351
154.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 353
155. 산업재해의 처리와 조사 ... 360
156. 업무상재해 인정과 보상 ... 363
157. 재해자의 추가보상 및 원직복직 ... 367

제12장 노사협의회
158. 노사협의회 구성 ... 371
159. 보고사항 ... 375
160. 협의사항 ... 377
161. 의결사항 ... 379
162. 의결사항의 효력 ... 381
163. 자료제공의무 ... 382
164. 고충처리위원회 ... 383

제13장 안권보호 및 감시의 금지
165. 인권보호 의무 ... 389
166. 각서의 금지 ... 389
167.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대책 ... 391
168. 개인정보의 보호 ... 394
169. 감시장비 설치 금지 ... 396

제14장 단체교섭
170. 교섭의무 ... 401
171. 교섭대상 ... 403
172. 교섭위원 구성 및 회의 ... 406
173. 합의서 작성 ... 408

제15장 노동쟁의
174. 노동쟁의 원칙 ... 411
175. 조정신청 ... 412
176. 합의 중재신청 ... 415
177. 쟁의 중 신분보장과 불이익금지 ... 418
178. 쟁의 중 출입과 시설물이용 보장 ... 420
179. 신규채용 및 대체 금지 ... 422
180. 공격적 직장폐쇄의 금지 ... 425

제16장 부칙
181. 유효기간 ... 429
182. 협약의 갱신 ... 432
183. 협약의 해석 ... 434
184. 협약의 보관 ... 436

부록
체조연대 모범 단체협약(안) ... 441

라. 자동차산업 원하청거래의 실태와 개선과제 연구

1. 사업개요

❍ 사업분야: 정책연구 (노동단체 지원사업)

❍ 사 업 명: 자동차산업 원·하청거래의 실태와 개선과제

❍ 사업기간: 2018. 06.01 ~2018. 12.31

❍ 사업목적

– 자동차 산업의 산업구조 특성상 계층화된 중층적 부품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에 원·하청간의 납품구조와 납품단가 결정 등의 거래구조의 실태를 연구하고 제도적 개선과제들을 도출하여 향후 불공정한 원·하청거래 관행을 바꾸고 대중소기업간의 균형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함.

2. 세부 사업내용

□ 사업추진 배경

- 최근 기업 규모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에서도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확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노동계는 완성차와 부품업체간의 하도급거래의 불공정성으로 인해 원·하청간 지불능력의 격차가 확대되고, 이것이 자동차 부품업체의 상대적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온다고 봄.
- 한국 자동차산업의 원·하청거래관계는 수직적 도급형의 거래관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주기업에 대한 수주기업의 종속성이 매우 강하고 직간접적인 지휘와 통제를 받게 됨. 그로 인해 완성차 업체의 단가관리, 임금관리의 영향력이 존재하며 이런 이유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의 임금격차는 통상적인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이외에 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요소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자동차 산업의 도급구조와 납품구조 실태를 조사하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고용현황과 고용형태의 변화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지불능력격차, 근로조건 격차 등을 파악하여 그 원인의 분석이 요구됨.
- 또한 자동차 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업 간의 격차를 극복하고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부터의 중소기업 보호방안과 제도개선 연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에는 180여개가 넘는 다양한 규모의 자동차 부품업종이 가맹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청거래 관행 및 다양한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하기에 적합성이 있음.

□ 기대효과

- 이 연구를 통하여 계층화된 중층적구조의 자동차 산업 원·하청도급구조와 납품구조, 납품단가 결정구조 실태를 파악하고 그로인해 파생되는 기업간 지불능력격차, 근로조건 격차 발생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중소기업의 보호방안과 제도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음.
- 이 연구를 통하여 불공정거래 의무고발권 주체 확대, 납품단가조정협의권 의무화, 원·하청간 이익공유제등 다양한 대안들에 대하여 검토하여 대기업 중심의 지배구조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봄.

□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원·하청간의 납품구조와 납품단가 결정 등의 거래구조의 실태 및 현황 리뷰
- 파생되어 발생하는 지불능력격차, 근로조건 격차 등의 인과관계 연구
-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각계의 입장 및 전문가 의견 조사
- 기업간 격차해소를 위한 부품사 보호방안 등 제도개선 검토 및 보완책 연구

2) 연구방법

- 문헌 조사
- 기초 자료 수집, 도서 구입
- 기획연구진 구성
- 기업체 설문조사 및 방문 실태조사 (노동조합과 사용자)
- 전문가 토론회 및 워크샵을 통한 각계의 의견 청취 및 토론
- 각종 통계,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한 실증적 분석
-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부터의 중소기업 보호방안과 제도개선 연구

□ 최종보고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원하청 실태와 개선방안

2018. 12. 31

연 구 진

책임연구원 : 김 주 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연 구 자 : 김 윤 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연구보조원 : 이 상 준 (HR디자인 연구소 팀장)

목 차

Ⅰ.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 7
1. 문제제기 및 연구 필요성 ····· 7
2. 연구목적 ····· 10

Ⅱ. 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 ····· 11
1. 국내 자동차산업과 부품업체 현황 ····· 11
2. 자동차산업 원하청관계와 임금·노동조건 격차 ····· 28

Ⅲ. 자동차 산업의 원하청 구조의 실태 ····· 36
1. 자동차산업 원하청구조의 변화 ····· 36
2. 자동차 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실태 ····· 41
3. 자동차 부품기업의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 59
1) 설문조사 특징 및 응답업체 개요 ····· 59
2) 하도급 구조 ····· 65
3) 공정거래관련 ····· 76
4) 부품업체 고용구조와 임금 ····· 84
5) 원하청 문제의 해결 방향 ····· 92

Ⅳ. 자동차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방안 ····· 94
1. 자동차 업종의 노사정 정책협의기구 설치 ····· 95
2. 불공정 거래 노사정 공동감시 기구 설치 운영 ····· 95
3.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화와 노사의 참여 ····· 96
4.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방안 ····· 96

참고문헌 ····· 99
설문지 ····· 100

표 목차

<표 Ⅱ-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 매출액 추이 ····· 15
<표 Ⅱ-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 17
<표 Ⅱ-3> 기업규모별 1차 부품업체수 ····· 19
<표 Ⅱ-4> 종업원 규모별 1차 부품업체수 ····· 20
<표 Ⅱ-5> 1차 부품업체 납품종류별 매출액 ····· 22
<표 Ⅱ-6> 완성차업체별 1차 부품업체수와 납품실적 ····· 22
<표 Ⅱ-7> 1차부품업체의 국내완성차업체 복수거래현황 ····· 23
<표 Ⅱ-8> 완성차업체 매출액(국내 기준) 대비 부품업체의 납품액 비중 ····· 24
<표 Ⅱ-9> 2015년 주요국의 자동차 산업분야 기업 간 영업이익률 비교 ····· 25
<표 Ⅱ-10> 자동차산업 규모별 임금총액 추이 ····· 28
<표 Ⅱ-11> 원하청단계별 월평균임금>-자동차산업 원하청거래 사업체 종사자 ····· 31
<표 Ⅱ-12> 원하청단계별 시간당 임금-자동차산업 원하청거래 사업체 종사자 ····· 32
<표 Ⅱ-13> 원하청단계별 부가급부 등: 자동차산업 원하청거래 사업체 종사자 ····· 33
<표 Ⅱ-14> 자동차산업 원하청단계별 이직률 추이 변화 ····· 34
<표 Ⅲ-1> 설문조사 응답업체의 기본 현황 ····· 61
<표 Ⅲ-2> 납품업체 현황 ····· 62
<표 Ⅲ-3> 완성차업체 기준 원청업체 수 ····· 62
<표 Ⅲ-4> 하청지위별 계약기간 ····· 78
<표 Ⅲ-5> 설계방식에 따른 납품단가협상방식의 비중 ····· 80
<표 Ⅲ-6> 부품업체 고용형태별 인력규모 ····· 85
<표 Ⅲ-7> 부품업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증감 ····· 87
<표 Ⅲ-8> 부품업체의 정규직과 사내하도급 증감 ····· 88
<표 Ⅲ-9> 고용형태별 인력규모 증감유형별 영업이익률과 매출증가율 ····· 89
<표 Ⅲ-10> 하청지위에 따른 조합원 평균임금수준 비교) ····· 90
<표 Ⅲ-11> 경영전략 유형별 조합원 평균임금 비교 ····· 90
<표 Ⅲ-12> 납품단가 협상방식별 조합원 평균임금 비교 ····· 91

그림 목차

[그림 Ⅱ-1] 2004년이후 한국자동차생산 현황 ····· 11
[그림 Ⅱ-2] 2017년 이후 한국자동차 산업 동향 ····· 12
[그림 Ⅱ-3] 2011년 이후 국내 완성차업체의 생산량 추이 ····· 13
[그림 Ⅱ-4] 2017년 이후 국내 완성차 업체 월별 생산량 ····· 14
[그림 Ⅱ-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 규모별 매출액 추이 ····· 15
[그림 Ⅱ-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 규모별 매출액 증가율 추이 ····· 16
[그림 Ⅱ-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 규모별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 18
[그림 Ⅱ-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 규모별 부채비율 추이 ····· 19
[그림 Ⅱ-9] 완성차/부품기업별 고용비중 추이 ····· 21
[그림 Ⅱ-10] 자동자부품 수출액과 수입액 비교 ····· 25
[그림 Ⅱ-11] 완성차/부품기업별 1인당 급여액 상대비 추이 ····· 30
[그림 Ⅲ-1] 하청단계별 지위 ····· 59
[그림 Ⅲ-2] 주력업종분포 ····· 63
[그림 Ⅲ-3] 경영체제 분포 ····· 63
[그림 Ⅲ-4] 경영 우선순위 분포 ····· 64
[그림 Ⅲ-5] 주거래업체 ····· 65
[그림 Ⅲ-6] 주거래업체 매출의존도 ····· 66
[그림 Ⅲ-7] 주거래업체에 대한 경쟁사 수 ····· 67
[그림 Ⅲ-8] 수주경쟁방식 ····· 68
[그림 Ⅲ-9] 설계도면 작성방식 ····· 69
[그림 Ⅲ-10] 재위탁 매출비중 ····· 70
[그림 Ⅲ-11] 거래선 교체 예상반응 ····· 71
[그림 Ⅲ-12] 거래선 교체 시 업체공급 소요기간 ····· 72
[그림 Ⅲ-13] 매출의존도 변화 의견 ····· 73
[그림 Ⅲ-14] 주거래업체와의 관계 전망 ····· 74
[그림 Ⅲ-15] 주거래업체 관계 약화 이유 ····· 75
[그림 Ⅲ-16] 계약서 작성 방식 ····· 76

[그림 Ⅲ-17] 계약기간 ····· 77
[그림 Ⅲ-18] 납품단가 협상방식 ····· 79
[그림 Ⅲ-19] 납품단가 인하 경험 ····· 80
[그림 Ⅲ-20] 납품단가 인하대응 ····· 81
[그림 Ⅲ-21] 납품단가 변동률 ····· 81
[그림 Ⅲ-22] 품질클레임 부담방식 ····· 83
[그림 Ⅲ-23] 부품기업의 고용형태 활용방식 ····· 85
[그림 Ⅲ-24] 최근 5년간 정규직 증감 ····· 86
[그림 Ⅲ-25] 최근 5년간 비정규직 증감 ····· 86
[그림 Ⅲ-26] 최근 5년간 사내하도급 증감) ····· 87
[그림 Ⅲ-27] 임금인상률 저하 논리 ····· 91

□ 최종보고서 4장 개선방안

자동차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방안

생물의 공생관계를 비유해 완성차 업체사와 협력업체간의 관계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서로가 손해보는 경우로서, 이를 상극(相剋)관계라 한다. 둘째,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한쪽은 이득을 보고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경우이고, 이를 기생(寄生)관계라 한다. 셋째,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한쪽은 이득을 보고 다른 한쪽은 이득도 손해도 입지 않는 경우이며, 이를 편생(片生)관계라 한다. 마지막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경우로서 이를 상생(相生)관계라 한다.

이상의 네 가지 유형중에서 현행 우리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관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관점이든지 상

생의 관계에 미치고 있지 못함이 분명하다. 어떤 측면에서는 한쪽은 이득을 보고 부품업체는 계속 손해를 보는 기생관계도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가 상생의 관계로 형성되어야 함은 자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생태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부품업체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업의 지불능력 확충을 위한 부품업체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독자적인 기술 및 품질 능력이 확보되며, 독자·독립적인 거래선 확보 및 해외진출이 필요하다.

둘째, 불공정 거래 개선이 필요하다. 완성차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원가절감 및 단가 인하 등의 성과가 공유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단가 결정 방식에 대한 사회적 계약이 필요하다. 원청에 의한 일방적 단가 결정 방식을 탈피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단가 결정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방식은 전 부처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논의되고 정책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불공정거래의 감시 차원에서 당장 수행할 수 있는 대안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자동차 업종의 노사정 정책협의기구 설치

불공정하도급문제는 노동조합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자동차산업 위기론의 핵심적 문제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불공정하도급문제에 대한 사회적 의제 설정과 공론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정책협의기구를 통해 하도급법을 비롯한 법제도적 개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감독강화, 기업간 협력관계에 대한 지원조치 등에 대한 세부적

방안을 마련하여냐 한다. 자동차산업의 불공정하도급문제를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제조업의 공동화, 지역경제의 활성화방안과 결부시켜서 이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부품업체의 역량강화와 같은 방안도 논의되어여 함은 물론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한 하부위원회로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회의하고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각 참여주체들(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공업협동조합, 현대기아차 경영진, 양대 노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 산자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등)이 민관협치관계를 형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불공정 거래 노사정 공동감시 기구 설치 운영

노동조합에서 불공정거래 감시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헤야 한다. 가칭 “원청갑질 119” 혹은 “자동차 불공정거래 신문고” 등을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만들고 감시하는 채널을 구축하야 한다. 신고센터는 노사정공동으로 지역별로 구성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형식적인 신고센터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인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정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독과 재재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국민적 정서이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상시적 감시감독체계의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서면실태조사를 통한 대금결정방식, 대급지급방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의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노동조합이 이러한 감시의 역할을 지원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동감시단을 운영하고 이 기구에 고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과 함께, 원·하청 기업 간에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공정거래를 실천하고 있는 모범 사업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하도급 벌점의 감점, 과징금 감면, 조사면제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모범·우수업체에 대해 정부의 정책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화와 노사의 참여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가 산출 근거와 도출 방식을 부품별로 명시하여 그에 따라 단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납품단가에 원재료 등 재료비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원재료 가격 연동제와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률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납품단가 결정 산식을 제도적으로 명시한 가운데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정협의의 구성을 확장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도급 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원청 노사, 1차 부품 노사, 2차 부품 노사 등이 함께 참여하여 해당 업종과 부품에 대한 단가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단가협의 과정에 협력업체 노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차와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관련하여 협상 및 조정협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4.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방안

첫째,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거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법에서는 '계약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일반 사항을 기대한 서면'을 교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원하청 관계가 계약관계가 아닌 단순 위탁생산관계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명무화된 계약서 작성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음에 따라 하청업체가 법적 소송을 제기할 때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공개경쟁 입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원청업체는 납품단가의 결정방식을 공개하고 물량,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식, 재료비, 노무비 등의 단가구성항목을 공지하고 그 산정방식을 입찰공지서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단가인하로 대표되는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하도급법 규정은 원청업체의 일방적 대금감액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지 '부당한' 감액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규정 또한 감액절차나 감액사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임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의 변경과 같은 특정한 사유 외에는 계약기간 중 단가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현금결제 보증보험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한 협력기업들에게는 모기업으로부터 어음을 받을 경우 그 어음을 현금으로 대신 지불해주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상환하도록 한다. 협력기업들로 하여금 보험가입에 따른 손실과 현금결제에 따른 이익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보험료는 협력업체와 정부가 공동 분담하도로 한다.

넷째, 하청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부품업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완성차업체 및 대기업 원청업체가 기금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활 필요가 있다. 기금은 모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은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사용하며 상생의 인프라를 형성하는데 활용한다. 단, 자금만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이전과 지식정보 전달 등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해당 기금의 운영 현황과 그 결과를 보

고하고 심사받아야 한다.

다섯째, 부품협력업체 자체적인 공제회 설립도 적극화해야 한다. 완성차업체나 대기업 원청업체의 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품업체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건설업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공제회와 같은 방식을 통해 자체 기금을 확보하여 자금지원과 회원사 및 노동자들의 복지 개선으로 이를 사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마.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관련

1) 노조 운영비원조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산하조직 대응지침

1. 목적 및 취지

○ 2018.5.31. 헌법재판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 제4호 단서에 따른 예외(근로자 후생·재액방지 기금기부, 최소한의 노조사무실 제공)를 제외하고, 일체의 노조운영비 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함.

○ 2010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법원은 최소한의 노조사무실 제공을 제외하고, 일체의 사용자 노조 운영비 원조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임.[5)]

▸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되었던 노조사무실 운영비, 통신비, 전기·수도요금 등 사무실유지비, 사무용품, 차량지원 등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게 됨.

○ 특히 지난 보수정권 하에서 정부는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지도 계획'을 발표함[6)]과 동시에 노조사무실 유지관리비(전화, 비품,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및 차량지원 등 노조에 대한 최소한의 시설.편의제공을 '위법'사항이라고 하여 각 사업장에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었음.

---

5) 대법원 2016.1.28. 선고 2012두15821 판결, 대법원 2016.4.29. 선고 2014두15092 판결, 대법원 2017.1.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등 참조.

6) 고용노동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지도 계획', 2016. 3. 28.

○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과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 행위의 근거가 된 '일체의 노조운영비 원조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 노조법 제81조 제4호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에 현장단위에서 노사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단체협약 시정지도 행위' 및 '사측의 단체협약 개정요구' 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진 것인바, 향후 사용자의 부당한 노조에 대한 지원행위 중단 및 관련 단협 개정 요구를 근절하고, 노사 자율교섭에 의한 안정적 노조활동의 근거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 사건개요

▸산별조직인 해당 노동조합은 2010.6.18.부터 2010.6.30.까지 사이에 7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조합사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지비(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영선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비용을 지급한다)'는 등의 노동조합에 시설·편의를 제공하는 조항(이하 '시설·편의제공 조항'이라고 함)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시설·편의제공 조항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0.11.11. 해당 노사 당사자에 대하여 노조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함)을 내림.

▸이에 해당 노조는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위 노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하자 2012.3.7.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하기에 이름.

○ 심판대상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0.1.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결정요지

▸운영비 원조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그런데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음.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고, 집단적 노사관계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에 관한 사항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운영비 원조 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제한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함.

▸운영비 원조 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

▸노동조합이 근로3권을 실현하는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협력적 노사자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노사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에 맡길 사항까지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의 성과를 감소시키는 것에 불과함. 또한 복수 노동조합의 존재를 고려하더라도, 운영비 원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따라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는 결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3. 노조운영비 원조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

○ '노조운영비 원조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한 것'이라고 판단함.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근로자 후생·

재액방지 기금기부, 최소한 노조사무실 제공))를 제외하고 운영비 원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남.

▸오히려 해당규정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등한 지위에서 운영비 원조를 협의하는 것을 막아 실질적 노사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동3권의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임.

○ 대법원 판결 및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 행위의 법적 근거 상실

▸2010년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법원은 최소한의 노조사무실 제공을 제외하고 일체의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임.[7)]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되었던 노조사무실 운영비, 통신비, 전기·수도요금 등 사무실유지비, 사무용품, 차량지원 등이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거나 노사간 소송이 빈번히 발생됨.

▸지난 보수정권하에서 정부는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지도 계획'에 따라 노조사무실 유지관리비(전화, 비품,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 및 차량지원 등 노조에 대한 최소한의 시설·편의제공을 '위법'사항이라고 하여 각 사업장에 '단체협약 시정지도' 행위가 이루어진 바가 있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근 대법원 판결과 정부의 단체협약

7) 대법원 2016.1.28. 선고 2012두15821 판결, 대법원 2016.4.29. 선고 2014두15092 판결, 대법원 2017.1.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등 참조.

시정지도 행위의 근거가 된 '일체의 노조 운영비 원조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 노조법 제81조 제4호 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며,

▸ 현장단위에서 그동안 노사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 행위' 및 '사측의 단협 개정요구'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진 것인바[8], 사용자의 일방적인 노조 지원행위 중단 및 관련 단협 개악요구를 거부하고, 노사 자율 교섭에 의한 노조활동의 근거를 적극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4. 노동조합 대응지침

○ 노조사무실 제공에 수반되는 시설 및 편의(전화, 비품, 전기, 수도, 냉·난방 등)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아래와 '모범 단체협약(안)'을 참고하여 기존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이 유지되도록 함.

○ 노조의 자주적 조합활동 보장 및 조합에 대한 시설·편의 등 지원에 대한 단체교섭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자율적 교섭활동의 결과인 단체협약으로 확보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 한국노총은 2019년까지 향후 노조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노사자율에 의한 전임자 유급활동 및 노조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입법활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 모범 단체협약(안) 예시

8)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2019.12.31.을 개정시한으로 한시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되나 이미 위 결정으로 해당 법률 규정의 헌법적 근거가 상실된 것인바, 이에 근거한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 및 법원의 법률적 판단근거도 없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제◯◯조(노조에 대한 시설 및 편의제공) ① 회사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합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전용 사무실로 제공하여 조합이 관리하게 하며, 조합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비품(사무용품 및 집기, 전화, 컴퓨터 및 전산장비, 복사기 등) 및 차량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며, 조합과 관련된 상급단체나 타(他) 노조 및 외부인의 자유로운 조합 사무실 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조(조합활동의 보장) ①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노조법 제24조의2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별개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노조의 사전 통보시 근무시간중 유급활동을 보장한다.

1.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
3.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준비에 필요한 시간 포함)
4. 회계감사 기간
5. 상급단체의 각종 회의 및 교육행사
6.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7. 간부수련회
8. 임원 및 대의원선거
9. 집행부 이·취임식
10. 기타 노사 합의한 사항

○ 모범 단체협약(안) 해설

▸ 회사가 노동조합의 시설·편의제공 요구에 맞서 종전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거부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노조의 정당한 활동임을 이유로' 보장받기 위해 요구할 것. 따라서 최근 대법원 판결 등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보았던 자동차·아파트 제공, 인건비 지원, 매점·자판기 운영권, 각종 공과금, 정기적인 운영비 원조 등을 단체교섭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국제노동기구

(ILO) 역시 노동자대표에게는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 노조사무실 제공에 수반되는 일체의 시설 및 편의제공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사용자는 노조사무실 제공과 통상 사무실 운영상 필요한 일체의 비품과 시설(사무용품 및 집기, 전화, 컴퓨터 및 전산장비, 복사기,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조합사무실에서 회의 등 각종 조합행사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을 단체협약상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상급단체의 간부 등 외부인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조합사무실에 이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어야 함.
- 비전임간부(교섭위원, 대의원, 비상임간부 등)나 조합원 등이 근무시간 중 교섭활동, 노사협의회 활동, 고충처리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 활동 등을 단체협약 및 관련 법률(근로자참여및협력법, 사내복지기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근무시간중 유급활동을 보장하도록 함.

3. 한국노총 제조연대 활동보고

가. 한국노총 제조연대 확대출범식

1. 배 경

-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이하 제조연대)는 2001년 1월 16일 고무산업노련, 금속노련, 섬유·유통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 5개 산별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섬유·유통노련에서 공식출범하여 2004년 11월 1일까지 활동한 바 있음.
- 최초의 제조연대는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전국제조산별노동조합연맹연합 결성 등 왕성한 활동 이후 소강상태에 있다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 속에서 제조업체의 부도,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과 같은 현안이 발생하면서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9년 7월 9일 고무산업노련, 금속노련, 섬유·유통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 5개 제조산별이 참여하여 재가동되어 2011년 5월까지 활동한바 있음.
- 이후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 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노동정세에 대응하고자 2018년 1월 19일 광산노련, 고무산업노련, 섬유·유통노련, 식품산업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 7개 제조부문 산별대표자가 만나 7년 만에 재결성을 한바 있음.

2. 취 지

- 이번 제조연대는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광산노련과 식품산업노련까지 참여함으로써 한국노총 회원조합 중 제조업산별이 모두 참여하는 제조연대의 명실상부한 기틀을 마련함.
- 따라서 5월 30일(수) 개최되는 확대출범식은 과거의 제조연대 역사를 계승·발전시키고 한국노총 내 위상강화는 물론 한국노동사의 한 획을 긋는 동시에 각 제조업산별의 공동현안을 모색하고 각 지역, 업종 간 상호협력

및 교류, 유대강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임.

3. 출범식 개요

1) 명　칭 :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 확대 출범식**
2) 슬로건 : **도약하는 제조노동자! 현장과 함께! 전진 또 전진!**
3) 일　시 : **2018년 5월 30일(수) 14시**
4) 장　소 : **한국노총 5층 대강당(웨딩 여율리)**
5) 참석대상 : **노동계, 국회의원, 정부관계 인사 등(200여명)**

4. 출범식 포스터

나. 제조연대 일자리위원회 의제 제출

1) 제조산업 일자리 해결을 위한 노정, 노사정 대화기구의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필요성

- 제조업의 고용비중 저하는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작용
- 지난 정권은 국가 주요 정책과, 운영방향에 대한 노동, 노동조합 철저 배제
- 4차 산업혁명 도래 이후 사라지는 일자리 중 상당수가 제조업에서 발생한다는 위기감 증대
- 서비스업, 금융업의 발전과 융합에도 강한 제조업 기반이 필요
-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 필요
  ※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한계

□ 기대효과

-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한다는 국민통합의 메시지 전달
- 제조업의 일자리 위기(디지털화.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원, 외주화 등 일자리 질 저하 등) 문제 해결을 통한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신뢰감 형성
-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질 좋고 안정적인 고용 창출에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 가장 적합
- 4차 산업혁명(디지털화)에 따른 막연하고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고용 위기'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 국민적 불안감 해소

【각종 정부기구, 노정, 노사정 대화기구에 노동조합의 참여】
- 일자리 위원회 내 제조업 일자리 분과 조속 가동
-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이후 민주노총을 포함한 제조업 일자리 노사정 대화기구 구성

-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동조합의 참여

※ 제조업 일자리 현안 논의시에 당사자인 노동자가 배제되어서는 안됨

【노사정 대화기구의 주요 의제】

-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선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확대
-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실태 조사사업
- 4차 산업혁명에 호응하는 제조업 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안

2) 일자리 감소와 질 저하의 원흉,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 현황 및 문제점/필요성

- 부당한 단가인하, 내부거래와 복사발주, 어음결제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해 수많은 부품업체들은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

특히 최근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관련 대법원 판결 행정해석 폐기, 근로기준법 개정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다수 하도급 업체는 원청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해결없이는 기업 운영 자체가 곤란한 상황

【포스코 사례】

포스코는 '두 자릿수 임금인상'을 위해 1000억원 수준의 외주비를 증액하는 등 향후 3년간 외주비를 점진적으로 늘려 외주사 직원들의 임금인상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 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협력사 임금인상은 7~8%대에 머물고 있음

※ 포항, 광양의 상생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과 근로자 대표들의 항의 중

- 근본적으로 포스코 협력사의 임금 수준은 원청에 비해 약 40%대로 타 업종(자동차산업)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
- 정권 교체 이후, 포스코는 '원청사보다 높은 외주비 인상, 두 자릿수 인상' 등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지난 정부 집권기간과 최근까지도 자재비, 정비비 등을 꾸준히 인하시켜 왔음

- 원하청 불공정거래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
-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저임금 노동 해소)를 살리기 위해서도 불공정거래 근절 필요
- 원청사의 불공정행위 근절 없이는 장시간노동 해소, 노동시간 단축은 허상
- 중소기업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유지뿐만 아니라 경제정의 실현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단속권한 강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불공정거래 감시단 구성, 표준거래, 초과 성과이익공유제 도입 등 법제도 개선 필요

-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교섭력을 높여 집단자치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

□ 기대효과

노동시간 단축(68시간→52시간), 교대제 개편을 위한 하도급업체의 지불능력 확보가 가능해지면 온전한 고용확대 효과 기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 보장에 기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 근절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가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3)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별 확대 및 국방섬유 국산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필요성

○(현황) 99.9%가 종사자수 300인 미만 규모, 종사자수 300인 미만 업체수가 48,346개사로 전체의 99.9%, 전체고용의 93.7%인 286,807명을 고용.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

○(인력의 고령화) 40세 이상 종사자가 전체의 69.2% 차지/'14~'19년 취업자의 연령별 비중에서는 50세 이상의 비중이 증가 전망.

○(생산직 및 기술직 인력부족) 설비 자동화, 해외이전, 최저임금 영향 등으로 단순 생산직 및 기술직 인력감소가 심화.

□ 요구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업종별·규모별 대상 확대
- 3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업체의 연착륙 지원.
○ 국방섬유 국산 의무화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를 통한 국내기업지원
- 국방섬유의 원사와 직물 등 국내기업에서 구매토록 제도개선.
- 조달청관납 및 공공기관의 섬유관련 제품 국산화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국산화 확산.
※ 미국은 Buy American 정책에 따라, 모든 국방섬유관련 제품은 미국산 사용. 2017년 11월 16일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 기대효과

○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상시적 구조조정 완화⇒고용안정⇒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질전환 등 연착륙⇒신규인력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
○ 국방 및 공공기관의 국산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안정 및 창출
※ '14년 기준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는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산업 취업계수(9.3%), 취업유발계수(10.0%)

4)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재직자 임금 보전 방안 확대

□ 현황 및 문제점/필요성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1,800시간대로 노동시간 단축 목표 제시하였으며, 지난 2.28일 국회에서는 노동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음,

- 개정안에 따르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함으로써 주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1주의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상황임.
-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자 시행으로 규정하였으며, 휴일근로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중임.
- 1주를 7일로 규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휴일 노동과 연장 노동의 중복할증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법으로 중복할증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월권임.
- 또한, 휴일 노동의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하급심의 판결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법으로 중복할증을 금지함으로써 사용자에게는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지급 요구를 거절할 명분을 부여한 것이며, 잘못된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인정하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행위임.
- 더불어, 현장의 왜곡된 임금체계 속에서 기본급의 비중이 대단히 낮고, 생활임금을 확보하기위한 연장 및 휴일 노동 비중이 높은 상황 속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될 경우 기존 재직자의 실질임금 감소가 발생하게 됨.
-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대책으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음.
- (300인 미만 기업)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해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확대

< 지원내용 >

▲신규채용1인당: 월80~100만원, 1~3년

▲임금보전1인당: 월10~40만원, 1~3년

- (300인 이상 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은 확대 (500인이하 특례제외업종 추가)

< 지원내용 >

▲신규채용1인당:(현행)월40만원→ (개선)월60만원

▲임금보전1인당:(현행) 500인이하 제조업→(개선) 500인이하제조업+특례제외 업종

- 즉 기업에서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한 인원에 비례하여 기존 재직 중인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 중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신규 인원 채용은 후순위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기존 노동자의 임금 감소만 일방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음.

□ 요구사항

-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존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및 정부의 의지 표명
- 신규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재직자 임금 감소분 보전에 대한 지원 기간 및 지원액 상향 조정.

□ 기대효과

- 기존 노동자의 실질임금 감소 방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유지
- 실질임금 유지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 활동 증대 및 내수 경제 활성화
- 기존 노동자에 대한 실질임금 금 보장을 유도하는 정부의 의지 표명과 지도 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 편법을 방지할 수 있음.

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종별위원회 설치 공식제안

1	위원회 명칭
ㅇ제조산업위원회	
2	배경 및 목적
ㅇ주요 선진국과 경쟁국가의 경우 제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ㅇ제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 절실	
3	구성 단체
ㅇ 노측: 양대노총 제조업노동조합 연합단체 및 노동조합 등 ㅇ 사측: 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금속사용자협회 등 업종별 사용자협회 등 ㅇ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4	논의 의제
ㅇ제조업 발전과 부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ㅇ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의 대응전략 ㅇ한국 제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ㅇ제조업의 일자리창출, 고용유지 관련 정책방안 논의	
5	운영 일정 및 시한, 기타 세부 운영방식
ㅇ제조업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각 4인(총 12인) 대표자를 둔다	

노동계	사용자	정부	비고
한국노총(2) 민주노총(2)	한국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4인)	산업부, 중소벤처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4인)	※ 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은 사안별 참여

○노동계는 양대노총에서 제조부문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연맹)의 대표자 각 2인(총 4인)
○사용자는 해당 단체의 제조업 담당(혹은 산업정책 담당) 부회장급 임원 중 4인
○정부는 관련 부처 차관급 중 4인
○제조산업위원회는 석유화학, 섬유, 식품, 광산업, 고무산업, 출판,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분과위원회는 시급한 현안이 있는 업종부터 구성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제조업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함
○제조업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고 효율적인 논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 실무협의회 구성은 노사는 정책담담 본부장급, 정부측은 담당 국장급으로 구성하고 관련 학자와 산업연구원 등 전문가등이 함께 구성

6	기대효과

○노사의 산업정책 결정 참여를 통한 노동존중사회 실현
○4차 산업혁명시대 제조업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라. 선언문 및 성명서

1) 한국노총 제조연대 확대출범선언문

한국노총 제조산업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쳤다.

오늘 한국노총 소속 제조산업 7개 산별연맹은 2001년 1월 16일 시작된 제조부문 산별연맹들의 상설적 연대와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단결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노총 제조연대의 확대출범을 선언한다.

이명박·박근혜의 비즈니스프렌들리 9년은 대한민국 제조업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전 세계가 '다시 제조업'을 외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 제조업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생존권을 빼앗기고 있다.

비단 제조노동자만의 문제이겠는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는 무엇을 말하는가!
800조가 넘는 재벌들의 곳간에 쌓인 돈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13년간의 OECD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불러야 하는가!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나라, 그것을 근면한 민족성이라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여도 그것은 그저 자본의 요구대로 흘러온 저임금·장시간노동 이라는 이름의 착취일 뿐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에 시달리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그 곳엔 노동자를 위한 대한민국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척박한 땅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는 민중들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였다. 촛불혁명! 134일간의 광화문 광장, 연인원 1700만명의 '이

게 나라냐'라는 부르짖음 속에 스스로 주인임을 선언하는 위대한 민중의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시대의 요구 앞에 단결을 선언하고 노동이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을 선언하며, 언제나 그러했듯 투쟁의 선두에 제조노동자의 깃발을 세울 것을 결의한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부활과 제조노동자들의 생존을 건 거대한 투쟁의 길에 서있다.

제조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춧돌이다. 제조산업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국가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 지난 시간 제조산업 현장은 정부주도의 일방적 구조조정, 무분별한 아웃소싱, 원·하청간의 불공정거래,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차별 등에 시달려 왔다. 이는 제조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이에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국가의 제조산업정책에 노동조합의 참여와 개입을 선언하고 노동중심 산업정책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거침없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당면한 노동현안들을 해결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현장으로부터의 연대와 투쟁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 앞에는 노동시간, 최저임금, 비정규직,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된 고용위기 등 산적한 현안들이 늘어서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투쟁의 역사속에서 알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하나 된 조직과 투쟁을 통하여 광범위한 노동자연대를 실현하고, 당면한 노동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끝으로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연대의 정신과 동지애에 기초한 상호토론과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모범적 노동운동상을

정립하기 위한 자기노력을 다함으로써 한국노총을 강화하고 한국노동운동을 강화하는데 복무해 나갈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한국노총 제조연대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현장과 함께! 전진 또 전진! 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8년 5월 30일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

고무산업노련/광산노련/금속노련/섬유유통노련/식품산업노련/출판노련/화학노련

2)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기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 제조연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폐기 투쟁 선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또 다시 노동자들을 배신했다.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입법에 합의했다. 사실상 노동존중·소득주도의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창출 등 노동공약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개악시키고 비정규직은 자회사 전환 말고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실업률 등 사상 최악의 고용지표 악화로 수구야당과 족벌언론의 집중포화를 맞더니 자본의 대변인임을 자임하고 나섰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는 단순히 노동자에게 임금 손실만의 문제가 아니

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시간단축 효과를 완전히 없애 버려 위법을 합법화시킬 것이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취지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최장 노동시간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특히, 우리 제조업은 주야 맞교대, 휴일근로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낡은 교대제와 함께 왜곡된 저임금체계가 연장노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산재사망률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합의는 정치적 야합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실현의 의지가 더 이상 없음을 대내외에 표명한 것이라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실패를 답습하고 자본과 수구 기득권에 굴복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려고 수백만 촛불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을 또 다시 배신하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오롯이 자본을 달래기 위한 정책은 사회적 대화를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임은 자명하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이러한 정치야합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해 한국노총의 조직방침에 따라 전국노동자대회 등 앞으로의 총력투쟁에 30만 제조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그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8. 11. 07.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

고무산업노련/광산노련/금속노련/섬유유통노련/식품산업노련/출판노련/화학노련

3) 누구를 위한 처벌유예 연장인가?

장시간 노동 조장하는 계도기간 연장 계획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12월 24일 주52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또다시 발표했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주52시간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 계획 철회와 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1주일의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은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이미 법 시행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법 시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법을 집행해야 될 행정부의 직무유기이며 행정권 남용이다.

또한, 정부가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법 시행 시점 또는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시점을 설정한 것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생략한 졸속적인 합의를 요구하는 협박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더불어, 정부는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임금 체계 개편을 협의하는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처벌 유예도 함께 발표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이 순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 절차도 무시된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협의를 이유로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무제한의 권한과 특혜를 부여한 것일 뿐이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사용자에게는 무제한의 특혜를 부여하고, 노동자에게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계도기간 연장 계획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주52시간 위반 및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노동계와 합의 없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30만 제조노동자의 이름으로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이다.

2018. 12. 28.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

고무산업노련/광산노련/금속노련/섬유유통노련/식품산업노련/출판노련/화학노련

조사통계활동

1. 2018년 임금교섭 결과 ····· 167
가. 2018년 금속노련 임금인상요구 ····· 167
나. 2018년 임금교섭 결과 ····· 167

2. 2019년 임단투 준비활동 (실태조사) ····· 168
가. 개요 ····· 168
나. 조사 결과 ····· 169

3. 2019년 임단투 지침 발간 및 지역순회 ····· 174
가. 2019 임단투 지침 ····· 182
나. 금속노련 상반기 임단투 지역순회 ····· 186
다. 금속노련 상반기 임단투 지역순회 설명자료 ····· 187

평가 및 개선방향

조사통계활동은 현장 조합원 및 노동자들의 상황, 노동운동을 둘러싼 정세 등 객관적 현황파악을 통해 연맹활동의 과학적 논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책, 조직, 교육 등 타부서 활동의 기초가 된다.

2018년 연맹의 조사통계활동은 2018년 임단투 결과 및 임금을 비롯한 현장의 기본적은 현황에 대한 조사를 기본으로 2019년 임단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 · 임단투지침서 발간 · 지침교육 등 가맹노조의 임단투 지원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의 개정 및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단위사업장의 교대제개편, 임금체계개편 및 임금보전방안마련 등의 산적한 과제들이 놓여있다. 이에 비춰보면 금속연맹의 조사통계활동도 구체적 사안별로의 조사사업이 일상화 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연맹의 조사통계활동이 그 대표성을 가질수 있는지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의 응답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련의 조사통계활동에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단위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히 응답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현장과 중앙의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1. 2018년 임금교섭 결과

가. 2018년 금속노련 임금인상요구

생계비 충족률 93.5%	기본급대비 9.6% (181,884원)
생활물가의 인상으로 임금인상의 욕구와 기대심리,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2018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표준생계비의 93.5% 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 대비 9.6% (181,884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나. 2018년 임금교섭 결과

○ 2018년 단위사업장 임금인상 요구율 및 타결율 (기본급기준)

- 가맹노조 본조기준 477개 노조 중 125개 노조 응답 (응답율 26.21%)
- 2018년 임금인상 요구율 평균은 8.71%이며 임금 인상 타결율 평균은 4.62%인 것으로 나타남

2018년 임금인상 요구율 평균	2018년 임금인상 타결율 평균
8.71%	4.62%

2. 2019년 임단투 준비활동 (실태조사)

가. 개요

1) 조사 목적

○ 2019년 임.단투에 임하는 단위노조의 상황 및 의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연맹의 정책근거로 삼기 위해 실시한 조사이다.

○ 본 조사는 각 단위노조의 임금과 관련한 일반실태 파악 및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금속연맹은 본 조사를 토대로 2019년 임금인상 요구율 및 임·단투 지침을 결정하는 기초로 활용할 것이다.

2) 조사 기간

○ 2018년 12월 26일 ~ 2019년 1월 18일

3) 조사 방식 및 대상

○ 금속노련 산하 477개(본조, 2018년 12월 기준) 가맹조직을 대상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하였고 설문방식은 자기기입식으로 하였다.

4) 수거율

○ 총 분석대상 477개 중 수거된 설문지 125부
○ 조직수 대비 26.21%의 수거율

나. 조사 결과

○ 총 분석대상 477개 조직 중 수거된 설문지 125부(조합대비 수거율 26.21%)의 유효설문지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설문응답노조 유형별 분류

(1) 설문응답현황 - 지역별 분류

지역별로는 경남지역본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금속노련 전체조직수 대비 26.21%의 수거율을 기록해 향후 임단투 지침의 실효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본부별 제출현황				
지역	제출노조	응답률	지역전체노조	제출/지역
서울	4개	1) 3.20%	12개	33.33%
경기	19개	15.20%	58개	32.76%
인천	8개	6.40%	27개	29.63%
안산시흥	11개	8.80%	40개	27.50%
대전	2개	1.60%	5개	40.00%
충남	13개	10.40%	49개	26.53%
충북	10개	8.00%	39개	25.64%
부산	8개	6.40%	30개	26.67%
경남	21개	16.80%	49개	42.86%
울산경주	4개	3.20%	18개	22.22%
대구경북	7개	5.60%	61개	11.48%
구미	4개	3.20%	15개	26.67%
포항	4개	3.20%	30개	13.33%
광주전남	4개	3.20%	29개	13.79%
전북	4개	3.20%	10개	40.00%
강원	2개	1.60%	5개	40.00%
합계	**125개**	**100%**	**477개**	**26.21%**

※연도별 설문지 수거 추이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거량	158개	152개	150개	112개	122개	125개

(2) 설문응답현황 - 조합규모별

전체 가맹 노조(477개 본조기준) 중 설문에 응한 조합원 규모를 분석해보면, 조합원 규모 100~999명의 노조가 응답의 7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실태조사는 상대적으로 조합원 10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합규모	제출 노조	응답률	전체 노조	제출/ 전체
1~49명	11개	8.8%	138개	7.97%
50~99명	11개	8.8%	121개	9.09%
100~299명	60개	48%	148개	40.54%
300~999명	35개	28%	57개	61.4%
1000명 이상	8개	6.4%	13개	61.54%
합계	**125개**	**100%**	**477개**	**26.21%**

2) 임금 등 노동조건 현황

(1) 노동시간 및 근속년수, 연령, 가족규모 현황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음에도 뚜렷하게 근로시간이 단축되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으며, 이는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유예의 부작용으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평균 근속년수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조합원 평균 가족규모는 3.01인으로 나타났다.

구분	주당평균 실노동시간	평균 근속년수		평균 연령		평균 가족규모
		남	녀	남	녀	
2018년결과	50.4시간	14.1년	12.1년	42.3세	43.1세	3.01인
2017년결과	51.9시간	14.1년	12.2년	42.2세	42.6세	2.95인
2016년결과	49.3시간	13.8년	12.6년	41.6세	43.3세	2.89인
2015년결과	52.4시간	13.6년	12.2년	43.3세	43.1세	2.97인
2014년결과	53.0시간	13.2년	11.5년	41.0세	39.5세	3.15인
2013년결과	51.5시간	12.9년	11.9년	40.5세	43.4세	2.96인

(2) 금속노련 조합원 임금실태 (2018년 12월 현재, 단위: 원)

설문에 응답한 125개의 노조 중 117개의 노조가 임금 현황에 답했으며, 기본급은 2,016,449원, 고정급여는 3,455,470원, 변동급은 750,778원으로 평균 임금 총액은 4,206,248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 (A)	고정 및 기타 수당 (B)	상여월할 (C)	고정급여 (A+B+C)	변동급 (D)	임금총액 (A+B+C+D)
2,016,449	360,654	1,078,367	**3,455,470**	750,778	4,206,248

(3) 금속노련 지역별 임금실태

(2018년 12월 현재, 단위: 원)

지역	응답수	기본급 (A)	수당 (B)	상여 (C)	고정급여 (A+B+C)	변동급 (D)	임금총액 (A+B+C+D)
전체	117	2,016,449	360,654	1,078,367	3,455,470	750,778	4,206,248
서울	3	2,451,151	194,631	996,853	3,642,635	724,551	4,367,187
경기	18	2,191,744	319,281	901,363	3,412,388	638,723	4,051,111
안산시흥	10	1,983,441	267,569	934,569	3,185,578	752,822	3,938,401
인천	5	1,771,872	259,397	900,870	2,932,139	518,665	3,450,804
대전	2	1,810,067	203,702	891,711	2,905,480	1,043,342	3,948,822
충남	13	1,935,124	391,874	1,213,776	3,540,775	577,942	4,118,717
충북	10	1,952,042	422,983	1,142,648	3,517,673	844,757	4,362,430
부산	8	2,005,697	223,015	1,015,136	3,243,848	507,514	3,751,362
경남	20	2,009,673	336,840	1,146,786	3,493,299	858,876	4,352,175
울산경주	4	2,094,672	289,423	1,333,047	3,717,142	835,436	4,552,578
대구경북	7	2,161,248	486,950	893,507	3,541,705	929,398	4,471,103
구미	4	2,151,216	299,786	1,234,318	3,685,320	930,108	4,615,428
포항	3	1,710,322	851,622	1,366,835	3,928,779	786,457	4,715,236
광주전남	4	1,713,150	987,970	1,093,852	3,794,972	1,035,536	4,830,507
전북	4	2,065,313	184,503	1,436,498	3,686,314	909,408	4,595,722
강원	2	1,766,317	333,182	1,156,031	3,255,529	528,274	3,783,803

(4) 금속노련 규모별 임금실태 (2018년 12월 현재,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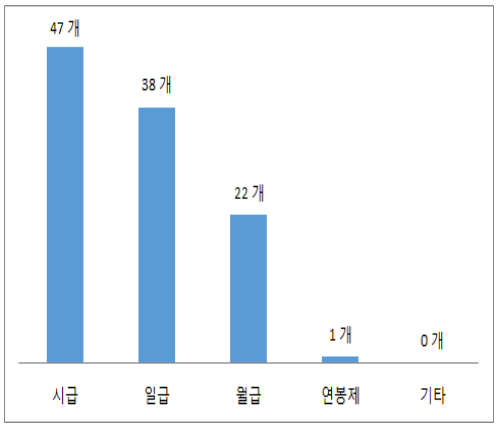
조합 규모별 임금 수준을 보면 조합원 규모가 클수록 고정급여와 임금총액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규모와 임금총액의 일정한 형태로 정의 비례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	응답수	기본급 (A)	고정수당 (B)	상여 (C)	고정급여 (A+B+C)	변동급 (D)	임금총액 (A+B+C+D)
전체	**117**	**2,016,449**	**360,654**	**1,078,367**	**3,455,470**	**750,778**	**4,206,248**
1~49명	9	2,100,282	156,028	840,906	3,097,216	745,941	3,843,156
50~99명	11	1,939,041	326,224	737,661	3,002,926	774,816	3,777,742
100~299명	56	1,984,085	383,721	1,144,948	3,512,755	750,803	4,263,558
300~999명	33	2,049,079	359,527	1,084,390	3,492,995	766,383	4,259,378
1000명 이상	8	2,120,526	481,374	1,323,063	3,924,963	658,618	4,583,580

(5) 임금지급형태

응답에 응한 123개 사업장 중 시급제가 53.66%(66개), 일급제가 26.83%(33개)로 대다수의 사업장이 시급제와 일급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시급	66개	53.66%
일급	33개	26.83%
월급	21개	17.07%
연봉제	3개	2.44%
합계	123개	100%



(6) 2018년 단위사업장 임금인상 요구율 및 타결율 (기본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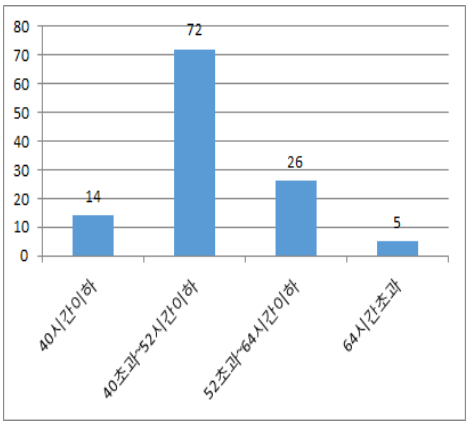
금속노련 가맹노조의 2018년 임금인상 요구율 평균은 8.71%이며 임금인상 타결율 평균은 4.6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임금인상 요구율 평균	2018년 임금인상 타결율 평균
8.71%	4.62%

(7) 주당평균실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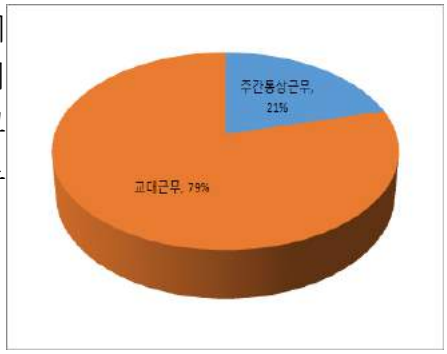
주당평균 실노동시간에 대한 응답을 확인해본 결과 52시간을 넘어서는 장시간노동사업장 비율이 2018년 임단투 실태조사 결과인 42%에서 2019년 임단투 실태조사 결과 26%로 줄어들었음이 확인되었다.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40시간이하	14개	11.97%
40초과~52시간이하	72개	61.54%
52초과~64시간이하	26개	22.22%
64시간초과	5개	4.27%
합계	117개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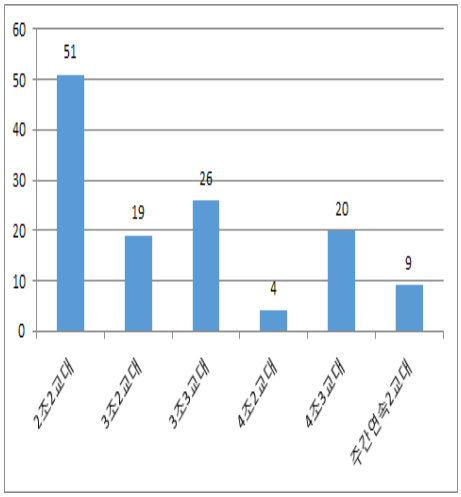


(8) 근무 형태

교대 근무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124개의 사업장에서 답변했고, 주간통상근무만 한다고 응답한 곳이 26개로 23.73%였다. 반면 조합원이 일부라도 교대근무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노조가 90개로 76.27%였다.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2조2교대	51개	39.53%
3조2교대	19개	14.73%
3조3교대	26개	20.16%
4조2교대	4개	3.10%
4조3교대	20개	15.50%
주간연속2교대	9개	6.98%
합계	129개	100%



조합원의 교대근무 실태를 보면, 2조2교대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51개(39.53%)로 가장 높았으며, 3조 3교대가 26개(20.16%), 4조 3교대가 20개(15.50%), 3조 2교대가 19개(14.73%), 주간연속 2교대제가 9개(6.98%), 4조2교대가 4개(3.10%)인 것으로 나타났다.

3) 2019년 임단투 전망

(1) 2019년 임단투에서 단위노조의 역점사항

2019년도 단위노조 임단투 역점을 묻는 설문에는 “임금인상”, “고용안정”, “통상임금범위확대”, “최저임금 제도 변경 대응” 순으로 역점을 두겠다고 답변했다.

2019년 단위노조 임단투역점사항	중점1	응답률	중점2	응답률	중점3	응답률	복수응답	응 답률
통상임금 범위 확대	19	15.32	15	12.20	10	8.20	44	**11.92**
최저임금 제도 변경 대응	14	11.29	17	13.82	10	8.20	41	**11.11**
탄력적근로제 등 저지	3	2.42	15	12.20	8	6.56	26	7.05
고용 안정	28	**22.58**	18	14.63	12	9.84	58	**15.72**
임금 인상	52	**41.94**	18	14.63	13	10.66	83	**22.49**
임금체계 변경 대응	2	1.61	10	8.13	14	11.48	26	7.05
노동시간단축	3	2.42	10	8.13	12	9.84	25	6.78
비정규직 고용개선	2	1.61	2	1.63	3	2.46	7	1.90
노동자 건강권	0	0.00	6	4.88	19	15.57	25	6.78
복수노조 관련 교섭권 확보	0	0.00	1	0.81	3	2.46	4	1.08
각종 성과배분제도 마련	1	0.81	11	8.94	18	14.75	30	8.13
총계	124	100%	123	100%	122	100%	369	100%

(2) 2019년 금속노련(한국노총)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활동해야 할 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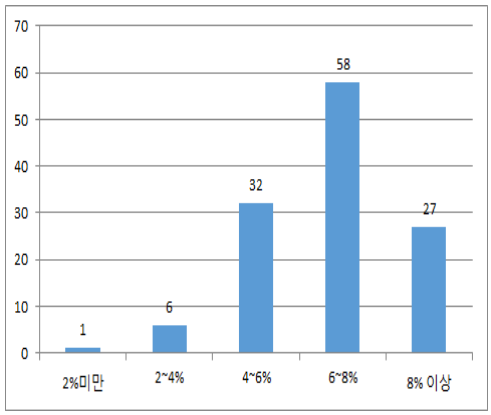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활동해야할 사안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의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와 더불어 '통상임금 범위확대 등 대응방안마련', '실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보전 대응'에 대한 요구들이 확인됨.

2019년단위노조임단투역점사항	중점 1	응답률 %	중점 2	응답률 %	중점 3	응답률 %	복수 응답	응답률 %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50	**40.00**	13	10.40	11	8.87	74	**19.79**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4	3.28	10	8.00	17	13.71	31	8.29
통상임금 범위확대 등 대응방안마련	23	**18.85**	20	**16.00**	15	12.10	58	**15.51**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요구	0	0.00	0	0.00	1	0.81	1	0.27
노조법 전면개정 및 ILO 핵심협약 비준	7	5.74	18	14.40	7	5.65	32	8.56
청년, 비정규직,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지원	0	0.00	2	1.60	4	3.23	6	1.60
실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보전 대응	16	**13.11**	26	**20.80**	15	12.10	57	**15.24**
최저임금 인상 및 법제도 개선	5	4.10	18	14.40	15	12.10	38	10.16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대책 마련	9	7.38	10	8.00	13	10.48	32	8.56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및 양성평등 실현	0	0.00	0	0.00	0	0.00	0	0.00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이행	4	3.28	2	1.60	9	7.26	15	4.01
사회안전망 강화	1	0.82	1	0.80	5	4.03	7	1.87
노동 가치 존중 헌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혁	2	1.64	1	0.80	5	4.03	8	2.14
4차산업혁명에따른대응방안마련	1	0.82	0	0.00	4	3.23	5	1.34
복수노조 관련 무노조 조직 확대 및 조직대응	3	2.46	4	3.20	3	2.42	10	2.67
총계	125	100	125	100	124	100	374	100

(3) 2019년 금속노련(한국노총)이 제시할 임금인상율 지침 수준

2019년 가맹노조에서 요구하는 금속노련(한국노총)이 제시할 임금인상율 지침의 수준은 “6%이상 ~ 8%미만” 수준의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2%미만	1개	0.81%
2~4%	6개	4.84%
4~6%	32개	25.81%
6~8%	58개	46.77%
8% 이상	27개	21.77%
합계	124개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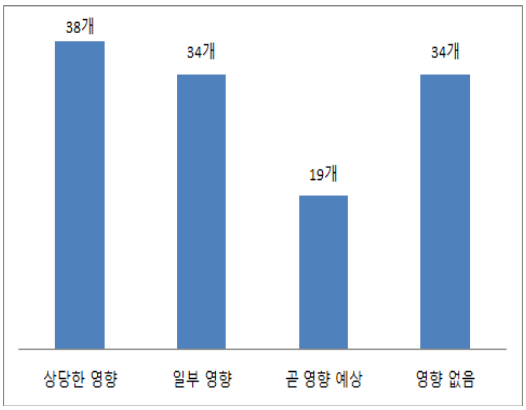


4) 최저임금

(1)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장의 임금인상과 단체교섭에 미치는 영향

금속노련 응답노조 중 72.8%(91개)의 조직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인상과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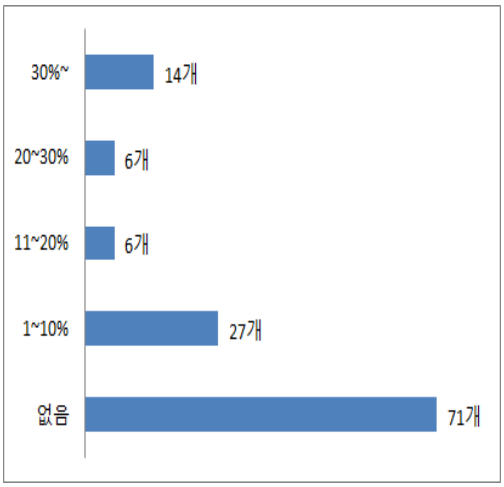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상당한 영향	38개	30.4%
일부 영향	34개	27.2%
곧 영향 예상	19개	15.2%
영향 없음	34개	27.2%
합계	125개	100%



(2)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위반이 되는 조합원의 규모

금속노련 응답노조 중 42.7%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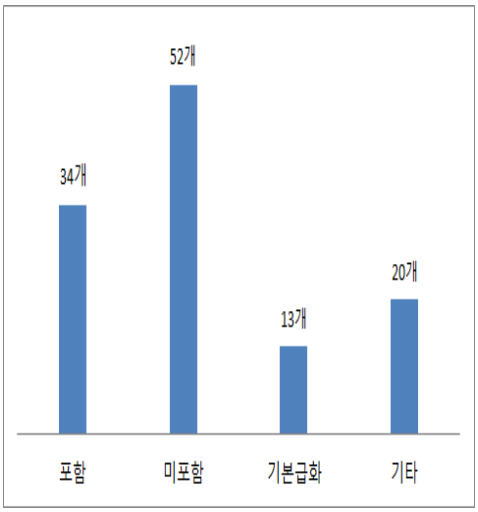
위반규모	제출노조	응답률
없음	71개	57.3%
1~10%	27개	21.8%
11~20%	6개	4.8%
20~30%	6개	4.8%
30% 이상	14개	11.3%
합계	124개	100%



(3) 개정 최저임금법 적용시 정기상여금의 산입범위 변화

개정 최저임금법 적용시 정기상여금의 산입범위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한 119개 노조 중 52개(43.7%)가 미포함, 34개(28.6%)가 정기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된다고 답했다.

산입범위변화	제출노조	응답률
포함	34개	28.6%
미포함	52개	43.7%
기본급화	13개	10.9%
기타	20개	16.8%
합계	119개	100%



5) 탄력적근로시간제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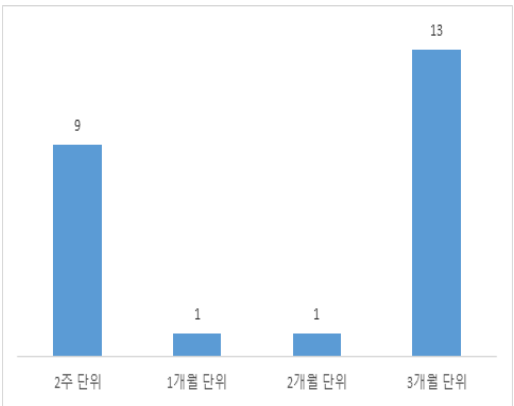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여부에 답한 124개 사업장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된 사업장은 25개로 20.1%로 나타났다. 도입요구는 있었으나 저지한 사업장은 16개로 12.9%, 도입을 논의중인 사업장은 21개로 16.9%로 나타났다. 반면, 도입요구가 없었던 사업장은 62개로 50%로 나타났다.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2018년 7월 1일 이전 시행 중	7개	5.7%
2018년 7월 1일 이후 합의 또는 시행	18개	14.5%
도입요구는 있었으나 저지	16개	12.9%
도입관련 논의 중	21개	16.9%
도입요구 없음	62개	50.0%
합계	124개	100%

(2)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의 또는 시행중이어서 단위기간이 설정되었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24개였다. 3개월 단위가 13개로 54.2%였고, 2주 단위로 설정된 사업장이 9개로 37.4%였다. 1개월 단위와 2개월 단위는 각 1개로 4.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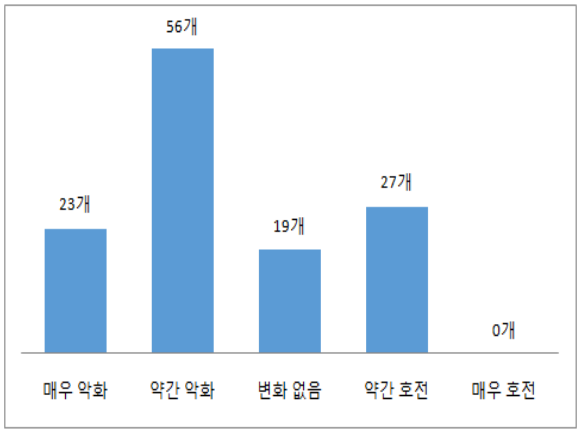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2주 단위	9개	37.4%
1개월 단위	1개	4.2%
2개월 단위	1개	4.2%
3개월 단위	13개	54.2%
합계	24개	100%



6)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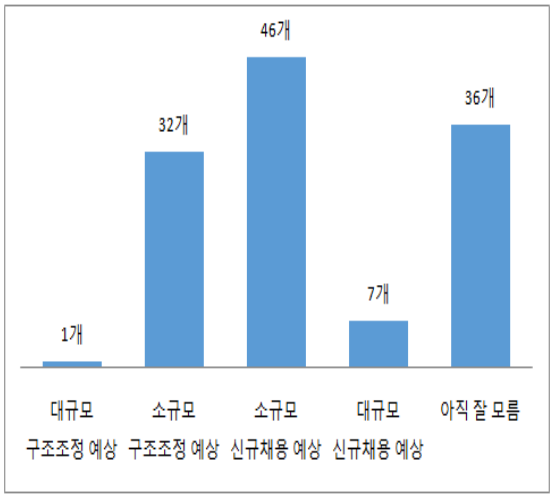
(1) 경영 상태 예상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매우 악화	23개	18.4%
약간 악화	56개	44.8%
변화 없음	19개	15.2%
약간 호전	27개	21.6%
매우 호전	0개	0%
합계	125개	100%



(2) 고용 상황 변화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대규모 구조조정 예상	1개	0.9%
소규모 구조조정 예상	32개	26.2%
소규모 신규채용 예상	46개	37.7%
대규모 신규채용 예상	7개	5.7%
아직 잘 모름	36개	29.5%
합계	122개	100%



3. 2019년 임단투 지침 발간 및 지역순회

가. 2019 임단투 지침

목 차

제1장 2019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Ⅰ. 2019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운동방향
1. 2019년 정세전망
2. 2019년 금속산업(제조업)전망
3. 2019년 한국노총 운동방향

Ⅱ. 한국노총 임금지침
1. 2018년 임단투 평가와 2019년 전망
2. 2019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Ⅲ. 금속노련 임금지침
1. 2019년 임단투실태조사 결과분석
2. 2019년 금속노련 임금인상 요구

제2장 2019년 주요쟁점 단체협약 및 대응지침

Ⅰ. 노동시간 관련 법·제도변화와 대응과제

1. 개요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개선과제
3.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남용방지
4. 공짜야근 자유이용권 '포괄임금제' 저지
5.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6.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Ⅱ. 최저임금 제도변화 대응 및 저임금구조 개선

1. 개요
2. 최저임금제도 변화 내용 및 문제점
3. 개정 최저임금법(2018.5.) 관련 Q&A
4. 최저임금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영향
5. 최저임금제도 추가 개악 시도 현황
6. 생활임금 국내 도입 현황 및 노동조합의 개입 필요성
7. 한국노총의 대응방향 및 현장 대응지침

Ⅲ. 200만 한국노총 조직화를 위한 현장 조직화 실천지침

1. 개요
2.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 조직이 참여하는 조직 확대 결의 및 선언
3. 조직화를 위한 현장의 실천 과제
4. 2018~19년 중점 조직화 대상 및 조직화 지침

Ⅳ.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없는 일터실현

1. 개요
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3.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
4.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민간부문 확산 및 제도 개선
5. 단체협약 요구안 및 해설

Ⅴ.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

1. 개요
2. 구조조정 및 고용위기 현황
3. 산업구조조정 관련 정부대책

4.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의 대응목표 및 방향
5.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와 의결사항을 단체협약 명시
6. 노사 간 합의(동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체결
7. 고용안정협약 모범사례

제3장 단체협약 및 제도개선 지침

Ⅵ. 노동자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 확대

1. 노동자 경영참가제도 개요
2. 노동이사제를 통한 경영참여방안
3. 노사공동결정체제를 통한 경영참여방안
4. 자본참가를 통한 경영참여방안

Ⅶ. 일터 괴롭힘 근절 및 노동자 인격권 보호

1. 개요
2. 일터 괴롭힘의 유형과 사례
3. 일터 괴롭힘 관련 주요 법률내용
4. 일터 괴롭힘 근절을 위한 현장 대응지침 및 모범단협안

Ⅷ.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위험의 외주화 금지

1. 개요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모범단협안
3. 안전한 일터, 건강한 일터 만들기
4. 직업성질환의 예방 및 조치
5.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통한 차별없는 일터
6. 쾌적한 일터 만들기
7. 노동자의 산재보상권 확대
8.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모범단협안

Ⅸ. 노동자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1. 퇴직급여제도의 이해

2.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예방을 위한 대응지침
3. 퇴직연금, 노동조합이 무엇을 해야 할까?

X.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일·생활 균형

1. 개요
2.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균등처우 원칙 보장
3. 모성권 및 여성건강권 강화
4. 부모의 돌봄권과 일·생활 균형의 실현
5.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및 성희롱 예방활동의 강화
6.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활동 보장

XI.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활성화 방안

1.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필요성
2. 직업능력개발 노동자 참여수준
3.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요사업 및 노조 참여 현황
4. 노동조합 참여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5. 노동조합 직업능력개발 참여 한국노총 지침

XII.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1.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실태
2.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의 변화
3.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
4. 노동조합의 디지털전환 대응전략

<부록>

최근 주요판례 및 시사점
2019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법제도
주요 노동통계

나. 금속노련 상반기 임단투 지역순회

○ 2019 금속노련 상반기 임단투 지역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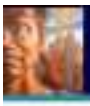
- 2019년 임단투 지침 설명
- 금속노련 위원장 간담회 및 질의 응답

○ 지역순회 일정

일자	시간	지역	장소
3/6(수)	10:30	충북본부	본부회의실
3/7(목)	15:30	포항본부	여수
3/12(화)	15:30	울산경주본부	본부회의실
3/13(수)	10:30	부산본부	본부회의실
3/13(수)	15:30	경남본부	본부회의실
3/14(목)	10:30	대구경북본부	본부회의실
3/14(목)	15:30	충남본부	본부회의실
3/15(금)	10:30	구미본부	본부회의실
3/19(화)	10:30	강원본부	본부회의실
3/20(수)	10:30	대전본부	본부회의실
3/26(화)	15:30	인천본부	미정
3/27(수)	10:30	서울본부	본부회의실
3/28(목)	15:30	안산시흥본부	군산(선유도)
3/29(금)	10:30	전북본부	미정
4/9(화)	10:30	광주전남본부	본부회의실
4/16(화)	10:30	경기본부	본부회의실

다. 금속노련 상반기 임단투 지역순회 설명자료

○ 2019년 단위노조의 임단투 지원의 일환으로 금속노련 상반기 임단투 지역순회를 실시함.



상반기 지역순회

- ✓ 개회선언
- ✓ 노동의례
- ✓ 인사말 (지역본부 의장/ 연맹 위원장)
- ✓ 2019년 임단투 지침 해설
- ✓ 질의응답 및 토론
- ✓ 폐회선언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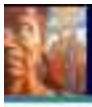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2)

상반기 교육 일정

교육명	일시	장소	주관
■■조연대 경영분석교육	3/11~13	노동중앙교육원	■■조연대
■■조연대 교섭위원교육 1차	3/18~20	노동중앙교육원	■■조연대
금속노련 노동문화교육	3/27~29	예■■미■3수련원	금속노련
■■조연대 교섭위원교육 2차	4/1~3	노동중앙교육원	■■조연대
■■조연대 산■■■동교육	4/8~10	노동중앙교육원	■■조연대
■■조연대법률학교	4/15~17	노동중앙교육원	■■조연대
금속노련 여성간부교육	6~7월중	미정	금속노련
정■■ 지■■■■■보건교육	미정	미정	금속노련



제조연대 모범단협집 발간

1. 금속노련 교육 활동

가. 2018 제조연대 2차 교섭위원교육

1) 일시 : 2018년 4월 2일 ~ 4일

2) 장소 : 한국노총중앙교육원

3) 참석 : 대표자 및 간부 183명 (금속노련)

4) 교육일정표 :

<table>
<tr><th>일자
시간</th><th>4월 2일 (월)
(1일차)</th><th>4월 3일(화)
(2일차)</th><th>4월 4일(수)
(3일차)</th></tr>
<tr><td>08:00</td><td rowspan="8">11시40분부터 접수가능
(중식제공)

접수 및 중식

13시까지 접수완료</td><td colspan="2">조식</td></tr>
<tr><td>09:00</td><td rowspan="2">2018년 임금지침 해설 1.5h
(이승용 화학노련정책부장)</td><td rowspan="2">사례로 살펴보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2h
(한국노총 김태룡실장)</td></tr>
<tr><td>10:00</td></tr>
<tr><td>11:00</td><td rowspan="2">단체교섭의
법률 쟁점해설 2h
(노무법인 참터 유성규노무사)</td><td>교육 평가 및 귀가</td></tr>
<tr><td>12:00</td><td rowspan="3">중식</td><td rowspan="8">단위사업장으로</td></tr>
<tr><td rowspan="2">13:00</td><td>교육 일정 안내 및 방배정</td></tr>
<tr><td>개강식 및 사진촬영</td><td rowspan="3">단체교섭에 임하는
전략과전술 3h
(변민재 화학노련조직국장)</td></tr>
<tr><td>14:00</td><td rowspan="2">2018년 노동정세와
단협지침해설 2h
(최장윤 금속노련정책국장)</td></tr>
<tr><td>15:00</td></tr>
<tr><td>16:00</td><td rowspan="2">2018년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2h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td><td rowspan="2">분임토의 1.5h
(각 조직별 모범 사례 공유)</td></tr>
<tr><td>17:00</td></tr>
<tr><td>18:00</td><td>석식</td><td>석식</td></tr>
<tr><td>19:00</td><td rowspan="2">참가조직 및 교육생 인사</td><td>단체교섭 요구안 작성방법 1h
(정태교 금속노련조직부장)</td></tr>
<tr><td>20:00</td><td>단결의 밤</td></tr>
</table>

나. 2018 제조연대 선전선동교육

1) 일시 : 2018년 4월 9일 ~ 11일

2) 장소 : 한국노총중앙교육원

3) 참석 : 노조 대표자 및 간부 100명 (금속노련)

4) 교육과정 :

<table>
<tr><th>일자
시간</th><th>4월 9일(월)
(1일차)</th><th>4월 10일(화)
(2일차)</th><th>4월 11일(수)
(3일차)</th></tr>
<tr><td>08:00</td><td rowspan="4">11시40분부터 접수가능
(중식제공)

접수 및 중식

13시까지 접수완료</td><td colspan="2">조식</td></tr>
<tr><td>09:00</td><td>한국사회 다시보기 1h
(화학노련 이승용 정책부장)</td><td rowspan="2">단체행동 법리해설 2h
(법률사무소 함께 변호사)</td></tr>
<tr><td>10:00</td><td rowspan="2">선전선동이란 무엇인가! 3h
(금속노련 전종덕 노사대책실장)</td></tr>
<tr><td>11:00</td><td>교육 평가 및 귀가</td></tr>
<tr><td>12:00</td><td></td><td>중식</td><td rowspan="8">단위사업장으로</td></tr>
<tr><td rowspan="2">13:00</td><td>교육 일정 안내 및 방배정</td><td rowspan="2">(계속) 선전선동이란 무엇인가!</td></tr>
<tr><td>개강식 및 사진촬영</td></tr>
<tr><td>14:00</td><td rowspan="2">간부의 자세와 역할 2h
(금속노련 사무처장 김준영
)</td><td rowspan="2">쟁의프로그램 작성법 2h
(금속노련 정태교 조직부장)</td></tr>
<tr><td>15:00</td></tr>
<tr><td>16:00</td><td rowspan="2">2018년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2h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td><td rowspan="2">선전선동/쟁의프로그램 실습 2h
(조별실습)</td></tr>
<tr><td>17:00</td></tr>
<tr><td>18:00</td><td>석식</td><td>석식</td></tr>
<tr><td>19:00</td><td rowspan="2">교육생 상호인사 및 조편성</td><td>선전/선동 실습발표</td></tr>
<tr><td>20:00</td><td>단결의 밤</td></tr>
</table>

다. 2018 제조연대 법률학교

1) 일시 : 2018년 4월 16일 ~ 18일

2) 장소 : 한국노총중앙교육원

3) 참석 : 노조 대표자 및 간부 125명 (금속노련)

4) 교육과정 :

<table>
<tr><th>일자
시간</th><th>4월 16일(월)
(1일차)</th><th>4월 17일(화)
(2일차)</th><th>4월 18일(수)
(3일차)</th></tr>
<tr><td>08:00</td><td rowspan="4">11시40분부터 접수가능
(중식제공)

접수 및 중식

13시까지 접수완료</td><td colspan="2">조식</td></tr>
<tr><td>09:00</td><td rowspan="2">임금실무, 최저임금 대응 3h
(법률사무소 함께)</td><td rowspan="2">노동자의 눈으로 세상보기 2h
(금속노련 곽상욱 정책부장)</td></tr>
<tr><td>10:00</td></tr>
<tr><td>11:00</td><td rowspan="11">단위사업장으로</td></tr>
<tr><td>12:00</td><td>중식</td></tr>
<tr><td rowspan="2">13:00</td><td>교육 일정 안내 및 방배정</td><td rowspan="2">부당노동행위 2h
(법률사무소 함께)</td></tr>
<tr><td>개강식 및 사진촬영</td></tr>
<tr><td>14:00</td><td rowspan="2">근로시간 실무 2h
(법률사무소 함께)</td></tr>
<tr><td>15:00</td><td>휴식시간</td></tr>
<tr><td>16:00</td><td rowspan="2">2018년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td><td rowspan="2">해고, 징계, 인사 등 2h
(법률사무소 함께)</td></tr>
<tr><td>17:00</td></tr>
<tr><td>18:00</td><td>석식</td><td>석식</td></tr>
<tr><td>19:00</td><td rowspan="2">교육생 상호인사 및 조편성</td><td>산업안전 보건 실무
(금속노련
나병호노사대책부장)</td></tr>
<tr><td>20:00</td><td>단결의 밤</td></tr>
</table>

라. 2018 제조연대 대표자 및 상근간부 기본교육

1) 일시 : 2018년 11월 19일 ~ 21일

2) 장소 : 한국노총중앙교육원

3) 참석 : 노조 대표자 및 간부 81명 (금속노련)

4) 교육과정 :

<table>
<tr><th>일자
시간</th><th>11월 19일(월)</th><th>11월 20일(화)</th><th>11월 21일(수)</th></tr>
<tr><td>08:00</td><td rowspan="4">12시부터 점심식사 가능

12:40분까지 접수완료</td><td>조식</td><td>조식</td></tr>
<tr><td>09:00</td><td rowspan="2">노동조합 운영 실무교육
(섬유·유통노련 조직강화본부
박근식 본부장)</td><td rowspan="2">제조연대의 방향과 목표
(대표자 특강)</td></tr>
<tr><td>10:00</td></tr>
<tr><td>11:00</td><td rowspan="2">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원리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td><td>교육 평가 및 귀가</td></tr>
<tr><td>12:00</td><td>중식</td><td rowspan="8"></td></tr>
<tr><td rowspan="2">13:00</td><td>개강식(13:30~13:37)</td><td rowspan="3">중식</td></tr>
<tr><td>제조연대 확대출범식 동영상
상영(13:37~13:50)</td></tr>
<tr><td>14:00</td><td rowspan="2">노동자와 노동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학장)</td><td rowspan="2">단체교섭의 실무
(노무법인 참터 유성규
공인노무사)</td></tr>
<tr><td>15:00</td></tr>
<tr><td>16:00</td><td>한국노총 위원장 특강</td><td rowspan="3">쟁의행위의 실전사례
(에스콰이어노조 방재웅 위원장)</td></tr>
<tr><td>17:00</td><td rowspan="2">참가조직 및 교육생 인사</td></tr>
<tr><td>18:00</td><td>석식</td><td>휴식</td></tr>
<tr><td>19:00</td><td rowspan="2"></td><td rowspan="2">단결의 밤</td></tr>
<tr><td>20:00</td></tr>
</table>

마. 2019 제조연대 경영분석교육

1) 일시 : 2019년 3월 11일 ~ 13일

2) 장소 : 한국노총중앙교육원

3) 참석 : 노조 대표자 및 간부 55명 (금속노련)

4) 교육과정 :

<table>
<tr><th>일자
시간</th><th>3월 11일(월)
(1일차)</th><th>3월 12일(화)
(2일차)</th><th>3월 13일(수)
(3일차)</th></tr>
<tr><td>08:00</td><td rowspan="5">접수 및 중식</td><td colspan="2">조식</td></tr>
<tr><td>09:00</td><td rowspan="3">경영분석과 계정과목 해설
3h
(이황현아 연구원)</td><td rowspan="2">노동조합 간부의 자세와 역활
2h
(금속노련 노윤철 조직국장)</td></tr>
<tr><td>10:00</td></tr>
<tr><td>11:00</td><td>교육 평가 및 귀가</td></tr>
<tr><td>12:00</td><td rowspan="2">중식</td><td rowspan="10">단위사업장으로</td></tr>
<tr><td>13:00</td><td>개강식</td></tr>
<tr><td>14:00</td><td rowspan="3">2019년도 정세와
개정노동법 해설 2h
(화학노련 이승용 정책국장)</td><td rowspan="2">경영분석실습 2h
(이황현아 연구원)</td></tr>
<tr><td>15:00</td><td>휴식</td></tr>
<tr><td>16:00</td><td rowspan="3">경제지표와 경영분석 방법론
2h
(전 노동조합기업경영 연구소
이황현아 연구원)</td><td rowspan="2">사례발표 및 평가 2h
(이황현아 연구원)</td></tr>
<tr><td>17:00</td></tr>
<tr><td>18:00</td><td>참가조직 및 교육생인사</td><td>석식</td></tr>
<tr><td>19:00</td><td rowspan="2">석식</td><td>임금지침 해설 1h
(화학노련 이승용 정책국장)</td></tr>
<tr><td>20:00</td><td></td><td>단결의 밤</td></tr>
</table>

바. 2019 제조연대 1차 교섭위원교육

1) 일시 : 2019년 3월 18일 ~ 20일

2) 장소 : 한국노총중앙교육원

3) 참석 : 노조 대표자 및 간부 55명 (금속노련)

4) 교육과정 :

<table>
<tr><th>일자
시간</th><th>3월 18일 (월)
(1일차)</th><th>3월 19일(화)
(2일차)</th><th>3월 20일(수)
(3일차)</th></tr>
<tr><td>08:00</td><td rowspan="5">접수 및 중식</td><td colspan="2">조식</td></tr>
<tr><td>09:00</td><td>2019년 임금지침 해설 1h
(화학노련 이승용 정책국장)</td><td rowspan="2">한국노총 200만 조직화사업
모범사례 2h
(한국노총 김태룡 조직실장)</td></tr>
<tr><td>10:00</td><td rowspan="2">단체교섭의
법률 쟁점해설 2h
(법률사무소 새날)</td></tr>
<tr><td>11:00</td><td>교육 평가 및 귀가</td></tr>
<tr><td>12:00</td><td>중식</td><td rowspan="10"></td></tr>
<tr><td>13:00</td><td>개강식</td><td rowspan="4">단체교섭에 임하는
전략과전술 3h
(화학노련 변민재 조직국장)</td></tr>
<tr><td>14:00</td><td rowspan="2">2019년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2h
(전태일노동대학 김승호 대표)</td></tr>
<tr><td>15:00</td></tr>
<tr><td>16:00</td><td rowspan="3">2019년 노동정세와
단협지침 해설 2h
(섬유유통노련 정대중 정책국장)</td></tr>
<tr><td>17:00</td><td rowspan="2">분임토의 2h
(각 조직별 모범 사례 공유)</td></tr>
<tr><td>18:00</td><td>참가조직 및 교육생 인사</td></tr>
<tr><td>19:00</td><td>석식</td><td>석식</td></tr>
<tr><td>20:00</td><td rowspan="2"></td><td>제조연대 모범단협집 해설 1h
(금속노련 곽상욱 정책부장)</td></tr>
<tr><td></td><td>단결의 밤</td></tr>
</table>

2. 가맹노조 교육강사 지원 활동

가. 강사파견현황

연번	일자	단위노조 및 교육대상	장소	강사
1	2018-05-03	현대엘리베이터 노조간부교육	영월 펜션	곽상욱
2	2015-05-12	신한일전기 노조간부교육	하내테마파크	전종덕
3	2015-05-15	두산전자사업부 간부전진대회	대천 파레브	김준영
4	2018-05-24	대구경북지역본부 상반기 워크샵	삼척 대명	김만재, 전종덕
5	2018-05-25	동서기공 노조간부교육	화성 펜션	전종덕
6	2018-05-26	현대종합금속 노조간부교육	청도 연수원	전종덕
7	2018-05-26	핸즈식스 임원대의원교육	영흥도 오션빌	곽상욱, 나병호
8	2018-05-28	대한전선 조합원교육	사내강당	전종덕
9	2018-05-29	니콘 대의원 임원교육	조합사무실	전종덕
10	2018-05-31	울산알루미늄 노조간부교육	사내강당	전종덕
11	2018-06-07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조합원교육	볼보 인천물류	곽상욱
12	2018-06-07	영풍석포제련소 조합원교육	사내교육장	전종덕
13	2018-06-08	이화다이아몬드 조합원교육	사내강당	곽상욱
14	2018-06-14	타이코에이엠피 노조간부교육	대구대 연수원	곽상욱, 나병호
15	2018-06-18	롯데알미늄 노조간부교육	안산2공장	곽상욱
16	2018-06-18	엘링크링거 노조간부교육	조합사무실	나병호
17	2018-06-18	지엠비코리아 확대간부교육	노총교육원	김준영, 곽상욱
18	2018-06-19	sk하이이엔지 조합원교육	이천여주지부	김준영
19	2018-06-19	인지컨트롤스 조합원교육	사내강당	전종덕
20	2018-06-26	LS산전 부산조합원교육	사내식당	곽상욱
21	2018-06-27	대풍공업 조합원교육	사내식당	전종덕
22	2018-06-29	한일제관 대의원및 간부교육	노조사무실	전종덕
23	2018-07-05	LS엠트론 노조대의원교육	농촌사랑학교	김준영

24	2018-07-05	서진캠 아산공장 조합원교육	사내교육장	곽상욱
25	2018-07-05	농협사료 노조간부교육	함안	전종덕
26	2018-07-06	서진캠 평택공장 조합원교육	사내교육장	나병호
27	2018-07-13	LS엠트론 노조간부교육	농촌사랑학교	김준영
28	2018-07-13	KAI 신입사원교육	사내강당	나병호
29	2018-07-20	제이케이퍼니처 노조간부교육	안성	나병호
30	2018-07-21	한국키스톤발브 조합원교육	안성	전종덕
31	2018-07-24	포항지역대표자 조직강화교육	포항	정태교
32	2018-07-27	타이코에이엠피 노조간부교육	대구대 연수원	곽상욱, 나병호
33	2018-08-01	농협사료노조 부산지회 조합원교육	부산회의실	전종덕
34	2018-08-14	대흥R&T노조 임단협 교섭 교육	경남본부 회의실	전종덕
35	2018-08-14	KCFT노조 임단협 교섭위원 교육	연맹회의실	곽상욱, 나병호
36	2018-08-24	명화공업 안산지부 조합원 교육	사내강당	곽상욱
37	2018-08-27	TDK한국 노동조합 신입간부 교육	노조사무실	곽상욱
38	2018-09-04	현대모비스 노동조합 확대간부 교육	영월 펜션	노윤철
39	2018-09-04	kcft 조합원 교육	정읍교육장	나병호
40	2018-09-11	현대모비스충주협력사노조 간부 교육	공장 대회의실	노윤철
41	2018-09-13	경기본부 대표자및 간부교육	푸르미르호텔	전종덕
42	2018-09-13	창원 노사민정 노조간부 역량강화교육	창원과학기술원	김준영
43	2018-09-13	한국노총충남세종지역본부 여성간부교육	대천 파로스	김영미
44	2018-09-20	ASE코리아노조 조합원교육	노조사무실	노윤철
45	2018-09-28	TDK한국 노동조합 간부워크샵교육	당진 펜션	곽상욱
46	2018-10-05	롯데알미늄노동조합 조합원교육	진청공장 강당	김성수
47	2018-10-10	시퍼스파이프라인 조합원교육	사내강당	전종덕
48	2018-10-11	대구경북본부대표자및노조간부교육	백송스파비스	곽상욱
49	2018-10-11	대한제강노동조합조합원교육	부산본부중회의실	전종덕
50	2018-10-11	금속경남본부 대표자워크샵 교육	거제대명	김해광
51	2018-10-12	현대모비스하반기조합원교육	노총중앙교육원	노윤철

52	2018-10-12	프라코노노조 확대간부 교육	썬리치 레저타운	전종덕
53	2018-10-15	LS산전 간부 교육	산정호수 한화	노윤철
54	2018-10-15	니콘코리아 노조 간부 교육	단양 대명콘도	전종덕
55	2018-10-16	sk하이닉스이천 간부 교육	노총중앙교육원	전종덕
56	2018-10-17	두올아산 조합원 교육	사내식당	김영미, 나병호
57	2018-10-17	스타리온기원 조합원교육	사내강당	전종덕
58	2018-10-18	ASE코리아노동조합 조직강화 교육	고양비정규직센터	노윤철
59	2018-10-19	한국항공우주산업노동조합 신입사원 교육	사내강당	나병호
60	2018-10-19	일본해사협회 조합원 교육	울산	전종덕
61	2018-10-26	서진캠 확대간부 교육	하내테마파크	곽상욱
62	2018-10-31	LS산전노 천안지부 조합워교육	천안공장 강당	전종덕
63	2018-11-03	이수엑사보드노조 확대간부 워크숍 교육	가평 펜션	곽상욱
64	2018-11-07	롯데알미늄대의원교육	안산1공장	노윤철
65	2018-11-07	금속일반노조태광산업지회교육	연맹회의실	노윤철
66	2018-11-08	LS산전 부산공장 조합원교육	사내식당	노윤철
67	2018-11-09	희성금속 간부교육	대부도	곽상욱
68	2018-11-09	국제종합기계 조합원교육	한두레마을	노윤철
69	2018-11-09	롯데알미늄 상무집행위 교육	노총중앙교육원	노윤철
70	2018-11-20	태성전장 노동조합 역량강화교육	대둔산휴양림	전종덕
71	2018-11-21	sk하이이엔지 조합원교육	이천여주지역지부	김준영
72	2018-11-23	노벨리스코리아 상집간부교육	소선암 휴양림	곽상욱, 나병호
73	2018-11-24	금속일반노조 네오아이오티지회 교육	강북지사	노윤철
74	2018-11-27	인지컨트롤노조 조합원교육	옥천공장	노윤철
75	2018-11-27	노벨리스코리아 조합안교육	사내강당	김준영
76	2018-11-28	LS산전 조합원교육	청주1공장	노윤철
77	2018-11-29	MEMC 확대간부교육	천안	전종덕
78	2018-12-05	울산알루미늄 조합원교육	사내강당	전종덕
79	2018-12-19	무창노동조합 쟁의교육	노조사무실	전종덕
80	2018-12-21	명화공업 안산지부 조합원 교육	사내강당	전종덕
81	2018-12-26	삼영전자 조합원교유	사내강당	전종덕

82	2018-12-28	세방전지 조합원교육	사내강당	김준영
83	2019-01-12	남양넥스모 상무집행위 교육	대부도	김준영
84	2019-01-12	오토리브 간부수련회 교육	문막	노윤철
85	2019-01-15	포스코 간부교육	노조사무실	정태교
86	2019-01-17	ASE 조합원교육	김영사 세미나실	노윤철
87	2019-01-17	KCFT 확대간부교육	정읍 공간플러스	곽상욱
88	2019-01-23	포스코광양지부 상무집행위교육	광양지부대회의실	전종덕
89	2019-01-25	태양금속 동계수련회 간부교육	안산 노을펜션	전종덕
90	2019-01-30	타이코에이엠피 조합원교육	사내식당	나병호
91	2019-02-13	롯데알미늄 간부수련회 교육	KT도고수련관	김성수
92	2019-02-13	ASE 대의원교육	노조사무실	노윤철
93	2019-02-14	모비스 충주협력사 확대간부교육	중앙교육원	노윤철
94	2019-02-14	니콘코리아 간부교육	용평리조트	전종덕
95	2019-02-15	MEMC 조합원교육	천안	전종덕
96	2019-02-18	현대모비스노동조합 확대간부교육	홍천 예담숲	노윤철
97	2019-02-18	캐논코리아 노조간부 교육	천안 대명리조트	전종덕
98	2019-02-20	대호P&C 조합원 교육	포항본부	정태교
99	2019-02-21	애디언트코리아 조합원교육	사내교육장	전종덕
100	2019-02-23	오성전자 간부교육	구미 문화센터	전종덕
101	2019-02-27	ASE노동조합 워크샵 교육지원	통일동산 교육센터	노윤철
102	2019-02-28	엘링크링거 조합원교육	사내식당	나병호
103	2019-03-05	셰플러안산 조합원교육	용인한화리조트	전종덕
104	2019-03-07	AST 간부교육	사내강당	김성수
105	2019-03-08	AST 조합원교육	사내강당	김성수
106	2019-03-16	동일알루미늄 간부교육	펜션	전종덕
107	2019-03-19	한국항공우주산업 신입사원 교육	사내 대회의실	나병호
108	2019-03-20	노총 안산지역지부 노사실무자교육	천안 대명리조트	김준영
109	2019-03-23	남양넥스모 확대간부 워크샵	노총중앙교육원	노윤철

총무활동

제1장 회의활동 ····· 237
1. 2018년도 정기대의원대회개최 ····· 237
2. 중앙위원회 및 기타회의개최 ····· 264
3. 회계감사수검 ····· 266
3. 주요행사 및 지원사업 ····· 266

제2장 노총장학재단 및 금속노련 장학금 배정지급 ····· 267

제1장 회 의 활 동

1. 2018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결의사항

1. 대회개최일시 : 2018년 5월 15일 13:30

2. 대회개최장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경기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산3번지)

3. 참 석 자 : 재적대의원 740명중 630명 참석

4. 결 의 사 항

안 건	결 의 사 항
가. 2017년도 사업보고 건	- 원안통과 (회의자료 참조)
나. 회계감사보고	- 원안통과 (회의자료 참조)
다. 2017년도 결산보고 건	- 원안통과 (회의자료 참조)
라. 임원선출 건(위원장)	- 총 투표 600명 중 찬성 585 반대 15 무효 0 : 선출됨
마. 임원선출 건(부위원장,사무처장,회계감사)	- 총 투표 576명 중 찬성 563 반대 2 무효 11 : 선출됨
바. 연맹 중앙위원 및	- 총 투표 578명 중 찬성 568 반대 1 무효 9 : 선출됨
노총(파견대의원,선거인)선출 건	- 총 투표 580명 중 찬성 572 반대 1 무효 7 : 선출됨
사. 2018년도 사업계획 수립 건	- 원안통과 (회의자료 참조)
아. 2018년도 예산 수립 건	- 원안통과 (회의자료 참조)
자. 기타토의	

◆부위원장

번호	직위	소속	성명	비고
1	수석부위원장	금속노련	김해광	
2	부위원장	서울지역본부	김용안	
3	부위원장	경기지역본부	김길섭	
4	부위원장	인천지역본부	오인상	
5	부위원장	안산시흥지역본부	방운제	
6	부위원장	대전지역본부	이남철	
7	부위원장	충남지역본부	정덕순	
8	부위원장	충북지역본부	이해관	
9	부위원장	부산지역본부	황대선	
10	부위원장	경남지역본부	이상철	
11	부위원장	울산경주지역본부	남재환	
12	부위원장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수환	
13	부위원장	구미지역본부	배준호	
14	부위원장	포항지역본부	정상준	
15	부위원장	광주전남지역본부	최정열	
16	부위원장	전북지역본부	김태완	
17	부위원장	강원지역본부	석승희	
18	부위원장	LG전자	배상호	
19	부위원장	LGDisplay	권동섭	
20	부위원장	LGDisplay	권윤미	여
21	부위원장	세진전자	윤복현	여
22	부위원장	SK하이닉스이천	허정우	
23	부위원장	SK하이닉스이천	윤자심	여
24	부위원장	머큐리	김영국	
25	부위원장	스태츠칩팩코리아	윤동현	
26	부위원장	대동모벨시스템	한명선	여
27	부위원장	새론오토모티브	장재성	
28	부위원장	두올아산	정란홍	여
29	부위원장	SK하이닉스청주	강국모	
30	부위원장	현대모비스	박태우	
31	부위원장	부산주공	안병철	
32	부위원장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김종국	
33	부위원장	한국항공우주산업	류재선	
34	부위원장	한국중천	최해경	여
35	부위원장	풍산	이준덕	
36	부위원장	평화발레오	김동준	
37	부위원장	에스엘	박칠규	
38	부위원장	평화산업	신석곤	
39	부위원장	LG이노텍	김동의	
40	부위원장	엘에스엠트론	어진호	
41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금속노련	김준영	

◆회계감사

번호	소속	성명	비고
1	에스엘라이팅안산	김삼두	
2	JMI	송해광	
3	LGDisplay	이가현	여
4	핸즈코퍼레이션	최철	
5	대철	황성원	

◆중앙위원

번호	소속	성명	비고
1	롯데알미늄	오성원	
2	LG전자	이상걸	
3	LG전자	정혜영	여
4	신한일전기	김송훈	
5	이젠텍	심일순	여
6	파주전기초자	오유진	
7	에이엔피	원철식	
8	동부인천스틸	김수호	
9	린나이코리아	김제곤	
10	동국제강	박상규	
11	삼보오토	강영석	
12	서진산업	김진업	
13	PN풍년	장영기	
14	남선기공	윤익병	
15	대한전선	강진연	
16	동양철관	양시준	
17	애디언트코리아	이창수	
18	한라스택폴	강현민	
19	한국보그워너티에스	이상용	
20	한국보그워너티에스	김귀녀	여
21	SK하이닉스청주	한주연	여
22	YKSteel	박대엽	
23	대한제강	윤각열	
24	GMB코리아	김은겸	
25	세방전지	손승일	
26	삼성공조	이정희	여
27	고려아연	조대형	
28	경창정공	김기표	
29	평화오일씰	이상윤	
30	평화정공	허도영	
31	LGDisplay	채근욱	
32	SK실트론	한창욱	
33	세아특수강	박순덕	
34	세아제강	이종욱	

번호	소속	성명	비고
35	영신정공	장복이	
36	우영산업	공지순	여
37	대유글로벌	김학송	
38	오토리브	엄태욱	

◆중앙위원후보

	지역	소속	성명	
1	서울	K-MEC	전상	
2	경기	리한	민한기	
3	인천	우일정밀	양승조	
4	안산/시흥	비츠로	강상욱	
5	대전	알루코	진현주	
6	충남	인팩	최중진	
7	충북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박대철	
8	부산	대창단조	박창혁	
9	경남	스타리온성철	남원섭	
10	울산/경주	DIC	허문근	
11	대구/경북	대철	황성원	
12	구미	노틸러스효성	정동민	
13	포항	선화이엔지	진선일	
14	광주/전남	대유에이텍	정관	
15	전북	가온전선	김호연	
16	강원	토다이수	이종상	

◆노총파견대의원

번호	조 직 명	직위	성명	성별
1	LG전자	위원장	배상호	남
2	LG전자	부위원장	김영	남
3	LG전자	부위원장	윤영식	남
4	LG전자	부위원장	김태훈	남
5	LG전자	부위원장	유정종	남
6	LG전자	부위원장	이상걸	남
7	LG전자	총무국장	김성규	남
8	LG전자	조직국장	황성관	남
9	LG전자	여성부장	정혜영	여
10	롯데알미늄	위원장	오성원	남
11	OTIS엘리베이터	위원장	이창호	남
12	LGDisplay	위원장	권동섭	남
13	LGDisplay	부위원장	채근욱	남

14	LGDisplay	사무국장	정진영	남
15	LGDisplay	사무장	손동락	남
16	LGDisplay	대의원	김양원	남
17	LGDisplay	대의원	이준희	남
18	LGDisplay	대의원	김두종	남
19	LGDisplay	대의원	김성남	남
20	LGDisplay	대의원	정초영	여
21	LGDisplay	여성부장	이가현	여
22	LGDisplay	기획부장	정상식	남
23	LGDisplay	조직부장	문현진	남
24	LGDisplay	대의원	이호준	남
25	LGDisplay	대의원	태원식	남
26	LGDisplay	대의원	이미정	여
27	LGDisplay	대의원	오지수	여
28	LGDisplay	기획부장	김영태	남
29	LGDisplay	총무부장	정규웅	남
30	LGDisplay	여성부장	권윤미	여
31	SK하이닉스이천	위 원 장	허정우	남
32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이명근	남
33	SK하이닉스이천	사무국장	이인용	남
34	SK하이닉스이천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	남
35	SK하이닉스이천	노총이천지역지부의장	정상영	남
36	SK하이닉스이천	노총경기본부부의장	박태석	남
37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윤자심	여
38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김재숙	여
39	에이엔피	위원장	원철식	남
40	동희정공_화성	노총화성지역지부의장	김덕수	남
41	한국키스톤발부	위원장	박명규	남
42	파주전기초자	노총서부지역지부의장	오유진	남
43	신한일전기	노총부천지역지부의장	박종현	남
44	세진전자	위원장	윤복현	여
45	SK하이이엔지	위원장	정상종	남
46	스태츠칩팩코리아	위원장	윤동현	남
47	스태츠칩팩코리아	자문위원	허원	남
48	동국제강	위원장	박상규	남

49	핸즈코퍼레이션	위원장	최철	남
50	동부인천스틸	위원장	김수호	남
51	린나이코리아	위원장	김제곤	남
52	대한제당	위원장	조주희	남
53	일진전기(반월)	위원장	방운제	남
54	삼보오토	위원장	강영석	남
55	대덕GDS	위원장	김광호	남
56	비츠로	위원장	강상욱	남
57	대덕전자	위원장	허일욱	남
58	대동모벨시스템	위원장	한명선	여
59	두원공조	위원장	정덕순	남
60	동희오토협력업체	위원장	정성진	남
61	애디언트코리아	위원장	이창수	남
62	오스템	위원장	두병비	남
63	대한전선	위원장	강진연	남
64	두올아산	위원장	정란홍	여
65	SK하이닉스청주	위원장	강국모	남
66	SK하이닉스청주	사무국장	김영삼	남
67	SK하이닉스청주	정책실장	이승의	남
68	SK하이닉스청주	부위원장	한주연	여
69	SK하이닉스청주	회계감사위원	우미선	여
70	매그나칩반도체	위원장	김영일	남
71	현대모비스	위원장	박태우	남
72	LS산전	의장	이해관	남
73	두산전자	위원장	윤영훈	남
74	에스엠알오토모티브 모듈코리아	위원장	박대철	남
75	한국보그워너티에스	위원장	이상용	남
76	금화소재	위원장	김근란	여
77	대선조선	부산지역본부의장	황대선	남
78	대한제강	위원장	윤각열	남
79	YK Steel	위원장	박대엽	남
80	성우하이텍	위원장	김근수	남
81	한국항공우주산업	조직쟁의실장	김병환	남
82	한국항공우주산업	대외협력실장	손정우	남

83	세아창원특수강	조직부장	김성수	남
84	세플러코리아	위원장	전광배	남
85	세방전지	위원장	손승일	남
86	GMB코리아	위원장	유재현	남
87	두원중공업	위원장	정진용	남
88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위원장	김종국	남
89	NEK	위원장	장원혁	남
90	한국중천	위원장	최해경	여
91	풍산	위원장	이준덕	남
92	DIC	위원장	허문근	남
93	고려아연	위원장	조대형	남
94	LS-Nikko동제련	위원장	박성걸	남
95	에스엘	위원장	박칠규	남
96	평화발레오	위원장	김동준	남
97	이수페타시스	위원장	이기남	남
98	평화산업	위원장	신석곤	남
99	카펙발레오	위원장	김수환	남
100	경창산업	위원장	김성호	남
101	평화오일씰	위원장	이상윤	남
102	평화정공	위원장	허도영	남
103	남선알미늄	위원장	최화순	남
104	에스엘	여성부장	김나영	여
105	평화오일씰	여성부장	김영옥	여
106	LG이노텍	위원장	김동의	남
107	LG이노텍	사무처장	정현주	남
108	LG이노텍	사무국장	조현순	남
109	SK실트론	위원장	한창욱	남
110	노벨리스코리아	위원장	권국진	남
111	노틸러스효성	위원장	정동민	남
112	현대종합금속	위원장	김동일	남
113	세아제강	위원장	이종욱	남
114	TCC한진	위원장	정상준	남
115	동부대우전자민주	광주전남지역본부의장	최정열	남
116	세아베스틸	위원장	김태완	남
117	대유글로벌	위원장	김학송	남

1	LG전자	평택1사무국장	김기학	남
2	LG전자	평택2사무국장	이용선	남
3	LG전자	청주/인천지부 사무국장	이종태	남
4	스태츠칩팩코리아	부위원장	박명근	남
5	SK실트론	부위원장	옥윤수	남
6	현대모비스	부위원장	모경임	여
7	리한	위원장	민한기	남
8	세진전자	부위원장	지성임	여
9	삼우금속	위원장	차재련	남
10	LGDisplay	대의원	이동진	남
11	LGDisplay	대의원	김범기	남
12	LGDisplay	대의원	홍하늘	여
13	LGDisplay	대의원	이명은	여
14	LG이노텍	부지부장	황혜인	여
15	현대성우캐스팅	위원장	정천균	남
16	세아특수강	위원장	박순덕	남
17	휴스틸	위원장	강경호	남
18	동국실업	위원장	문부근	남
19	머큐리	노총인천지역본부의장	김영국	남
20	오스템	노총충남세종지역본부의장	고석희	남
21	삼성제침	노총경북지역본부의장	권오탁	남
22	서진산업	노총시흥지역지부의장	김진업	남
23	한일전기	강원지역본부의장	석승희	남
24	충남지역금속일반	노총아산지역지부의장	강흥진	남
25	쌍신전자통신	노총충남중부지역지부의장	정명식	남
26	풍산FNS	노총논산지역지부의장	최용웅	남
27	동부제철	노총충남서부지역지부의장	김우하	남
28	건우	노총광양지역지부의장	김성희	남
29	영신정공	노총경주지역지부의장	장복이	남
30	화신	노총영천지역지부의장	윤승오	남
31	두산전자	노총김천지역지부의장	정갑성	남
32	세일공업	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의장	조경옥	남
33	LG전자	금속노련부위원장	김해광	남
34	부천지역	금속노련사무처장	김준영	남

◆노총파견선거인

번호	정후보	조직명	직위	성명	성별
1	정	LG전자	위원장	배상호	남
2	정	LG전자	사무처장	이상걸	남
3	정	LG전자	총무실장	김성규	남
4	정	LG전자	평택1지부장	김 영	남
5	정	LG전자	평택2지부장	윤영식	남
6	정	LG전자	청주/인천지부장	김태훈	남
7	정	LG전자	구미지부장	유정종	남
8	정	LG전자	창원1지부장	임채현	남
9	정	LG전자	창원2지부장	하영규	남
10	정	LG전자	부위원장	김해광	남
11	정	LG전자	조직국장	황성관	남
12	정	LG전자	평택1사무국장	김기학	남
13	정	LG전자	평택2사무국장	이용선	남
14	정	LG전자	청주/인천사무국장	이종태	남
15	정	LG전자	구미사무국장	조봉래	남
16	정	LG전자	창원1사무국장	김진성	남
17	정	LG전자	창원2사무국장	김창옥	남
18	정	LG전자	회계감사	곽동국	남
19	정	LG전자	회계감사	강신갑	남
20	정	LG전자	회계감사	홍경우	남
21	정	LG전자	회계감사	김용문	남
22	정	LG전자	기획부장	정문식	남
23	정	LG전자	문화체육부장	변성환	남
24	정	LG전자	법규부장	이수민	남
25	정	LG전자	총무부장	윤창렬	남
26	정	LG전자	후생부장	이광호	남
27	정	LG전자	조직부장	김원준	남
28	정	LG전자	교육선전부장	김수천	남
29	정	LG전자	조사통계부장	이철	남
30	정	LG전자	산재대책부장	박주상	남
31	정	LG전자	USR부장	이성기	남
32	정	LG전자	쟁의부장	김도환	남

33	정	LG전자	여성부장	정혜영	여
34	정	LG전자	평택1여성부장	정슬비	여
35	정	LG전자	청주/인천여성부장	조은란	여
36	정	LG전자	구미여성부장	이하늘	여
37	정	LG전자	창원1여성부장	석희주	여
38	정	LG전자	창원2여성부장	최윤희	여
39	정	롯데알미늄	위원장	오성원	남
40	정	롯데알미늄	수석부위원장	전영희	남
41	정	롯데알미늄	사무국장	박경선	남
42	정	OTIS엘리베이터	위원장	이창호	남
43	정	대우전자서비스	위원장	김용안	남
44	정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위원장	조승구	남
45	정	KC코트렐	위원장	최경배	남
46	정	K-MEC	위원장	전상	남
47	정	LGDisplay	위원장	권동섭	남
48	정	LGDisplay	부위원장	채근욱	남
49	정	LGDisplay	사무국장	정진영	남
50	정	LGDisplay	사무장	손동락	남
51	정	LGDisplay	대의원	김양원	남
52	정	LGDisplay	대의원	이준희	남
53	정	LGDisplay	대의원	김범기	남
54	정	LGDisplay	대의원	김성남	남
55	정	LGDisplay	대의원	배한영	남
56	정	LGDisplay	대의원	김두종	남
57	정	LGDisplay	대의원	이종우	남
58	정	LGDisplay	대의원	이무영	남
59	정	LGDisplay	대의원	이정호	남
60	정	LGDisplay	대의원	황선오	남
61	정	LGDisplay	대의원	류대식	남
62	정	LGDisplay	대의원	이현석	남
63	정	LGDisplay	대의원	이동진	남
64	정	LGDisplay	대의원	이민수	남
65	정	LGDisplay	대의원	이명훈	남
66	정	LGDisplay	대의원	박현원	남
67	정	LGDisplay	대의원	이세원	남

68	정	LGDisplay	대의원	김동은	남
69	정	LGDisplay	대의원	손성익	남
70	정	LGDisplay	대의원	백승욱	남
71	정	LGDisplay	대의원	오충훈	남
72	정	LGDisplay	대의원	최중호	남
73	정	LGDisplay	대의원	백지웅	남
74	정	LGDisplay	기획부장	정상식	남
75	정	LGDisplay	총무부장	정선재	남
76	정	LGDisplay	조직부장	문현진	남
77	정	LGDisplay	대의원	정초영	여
78	정	LGDisplay	대의원	이명은	여
79	정	LGDisplay	대의원	권하라	여
80	정	LGDisplay	여성부장	이가현	여
81	정	LGDisplay	여성차장	김슬기	여
82	정	LGDisplay	여성차장	최은나래	여
83	정	LGDisplay	여성차장	윤세연	여
84	정	LGDisplay	여성차장	정금지	여
85	정	LGDisplay	여성차장	김은경	여
86	정	LGDisplay	여성차장	박경미	여
87	정	LGDisplay	문화차장	김재희	여
88	정	LGDisplay	문화차장	김민희	여
89	정	LGDisplay	대의원	이호준	남
90	정	LGDisplay	대의원	한성욱	남
91	정	LGDisplay	대의원	태원식	남
92	정	LGDisplay	대의원	강석민	남
93	정	LGDisplay	대의원	이병준	남
94	정	LGDisplay	대의원	배기철	남
95	정	LGDisplay	대의원	정영수	남
96	정	LGDisplay	대의원	곽재수	남
97	정	LGDisplay	대의원	윤종연	남
98	정	LGDisplay	대의원	김경동	남
99	정	LGDisplay	대의원	손봉호	남
100	정	LGDisplay	대의원	임성균	남
101	정	LGDisplay	대의원	장진욱	남
102	정	LGDisplay	대의원	박제율	남

103	정	LGDisplay	대의원	김세중	남
104	정	LGDisplay	대의원	정재호	남
105	정	LGDisplay	대의원	이진우	남
106	정	LGDisplay	대의원	황종영	남
107	정	LGDisplay	대의원	최경훈	남
108	정	LGDisplay	대의원	권동준	남
109	정	LGDisplay	기획부장	김영태	남
110	정	LGDisplay	총무부장	정규웅	남
111	정	LGDisplay	조직부장	조동수	남
112	정	LGDisplay	대의원	이미정	여
113	정	LGDisplay	대의원	이은진	여
114	정	LGDisplay	대의원	오지수	여
115	정	LGDisplay	대의원	김지윤	여
116	정	LGDisplay	여성부장	권윤미	여
117	정	LGDisplay	여성차장	안성현	여
118	정	LGDisplay	여성차장	조은성	여
119	정	LGDisplay	여성차장	김단비	여
120	정	LGDisplay	여성차장	이아림	여
121	정	LGDisplay	여성차장	김미영	여
122	정	SK하이닉스이천	위 원 장	허정우	남
123	정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이명근	남
124	정	SK하이닉스이천	사무국장	이인용	남
125	정	SK하이닉스이천	지원실장	손철호	남
126	정	SK하이닉스이천	정책실장	한명욱	남
127	정	SK하이닉스이천	조직실장	김상호	남
128	정	SK하이닉스이천	홍보실장	나운현	남
129	정	SK하이닉스이천	복지실장	오경환	남
130	정	SK하이닉스이천	회계감사	원종원	남
131	정	SK하이닉스이천	회계감사	이장호	남
132	정	SK하이닉스이천	회계감사	조태석	남
133	정	SK하이닉스이천	지도위원	김만재	남
134	정	SK하이닉스이천	지도위원	정상영	남
135	정	SK하이닉스이천	지도위원	박태석	남
136	정	SK하이닉스이천	지원부장	이병주	남
137	정	SK하이닉스이천	체육부장	김도형	남

138	정	SK하이닉스이천	조사통계부장	박용순	남
139	정	SK하이닉스이천	안전부장	김찬균	남
140	정	SK하이닉스이천	영상기획부장	조현제	남
141	정	SK하이닉스이천	노사대책부장	신종민	남
142	정	SK하이닉스이천	기숙사지원차장	김태민	여
143	정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윤자심	여
144	정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김재숙	여
145	정	SK하이닉스이천	문화실장	이영숙	여
146	정	SK하이닉스이천	교육차장	주현자	여
147	정	SK하이닉스이천	교육차장	이진경	여
148	정	SK하이닉스이천	쟁의차장	이순미	여
149	정	SK하이닉스이천	쟁의차장	이경선	여
150	정	SK하이닉스이천	홍보차장	전혜은	여
151	정	SK하이닉스이천	편집차장	남기문	여
152	정	SK하이닉스이천	복지차장	최미진	여
153	정	SK하이닉스이천	후생차장	이상순	여
154	정	SK하이닉스이천	기숙사지원부장	서미정	여
155	정	SK하이닉스이천	여성차장	이은희	여
156	정	현대엘리베이터	위원장	김종우	남
157	정	현대엘리베이터	부위원장	박범돈	남
158	정	현대엘리베이터	부위원장	오석근	남
159	정	서진캠	지부장	예병우	남
160	정	ASE코리아	위원장	곽노용	남
161	정	프라코	위원장	김기연	남
162	정	신한일전기	위원장	김송훈	남
163	정	신한일전기	조직부위원장	심화택	남
164	정	SK하이이엔지	위원장	정상종	남
165	정	이화다이아몬드	위원장	한정호	남
166	정	에이엔피	위원장	원철식	남
167	정	테크팩솔루션	위원장	정수환	남
168	정	대동도어	위원장	안영철	남
169	정	삼아알미늄	위원장	조용범	남
170	정	대신기계	위원장	강호석	남
171	정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화성	위원장	유성준	남
172	정	동희정공_화성	노총화성지부의장	김덕수	남

173	정	파주전기초자	노총서북부지역지부의장	오유진	남
174	정	니콘코리아	위원장	한상진	남
175	정	리한	위원장	민한기	남
176	정	한국키스톤발부	위원장	박명규	남
177	정	세진전자	위원장	윤복현	여
178	정	세진전자	부위원장	지성임	여
179	정	JMI	위원장	송해광	남
180	정	리한	대의원	오숙경	여
181	정	한국체인	위원장	김호인	남
182	정	인알파코리아	위원장	박원제	남
183	정	스태츠칩팩코리아	위원장	윤동현	남
184	정	스태츠칩팩코리아	부위원장	한오석	남
185	정	스태츠칩팩코리아	부위원장	이현희	여
186	정	스태츠칩팩코리아	부위원장	박명근	남
187	정	스태츠칩팩코리아	사무국장	신진호	남
188	정	스태츠칩팩코리아	정책실장	김홍환	남
189	정	스태츠칩팩코리아	자문위원	허원	남
190	정	스태츠칩팩코리아	여성부장	음정미	여
191	정	동국제강	위원장	박상규	남
192	정	동국제강	지부장	박성균	남
193	정	동국제강	지부장	김성곤	남
194	정	동국제강	부위원장	이강춘	남
195	정	동국제강	사무국장	서용선	남
196	정	핸즈코퍼레이션	위원장	최철	남
197	정	핸즈코퍼레이션	수석부위원장	박충희	남
198	정	핸즈코퍼레이션	여성부위원장	고필임	여
199	정	핸즈코퍼레이션	사무국장	최정열	남
200	정	신한다이아몬드공업	위원장	조명선	남
201	정	신한다이아몬드공업	부위원장	최석민	남
202	정	린나이코리아	위원장	김제곤	남
203	정	린나이코리아	수석부위원장	안무순	남
204	정	동부인천스틸	위원장	김수호	남
205	정	동부인천스틸	사무국장	황상순	남
206	정	대동하이렉스	위원장	류성룡	남
207	정	대동시스템	위원장	김정운	남

208	정	머큐리	위원장	김영국	남
209	정	삼양감속기	위원장	최인석	남
210	정	청우하이드로	위원장	이명선	남
211	정	삼성공업	위원장	오인상	남
212	정	삼성공업	회계감사	강혜숙	여
213	정	태양금속	위원장	황명찬	남
214	정	태양금속	사무국장	임용재	남
215	정	대덕전자	위원장	허일욱	남
216	정	대덕전자	사무국장	문성호	남
217	정	동서기공	위원장	임동훈	남
218	정	남양공업	위원장	조제현	남
219	정	남양공업	사무국장	정승현	남
220	정	포스코대우(안산)	위원장	정교태	남
221	정	에스엘라이팅안산	위원장	김삼두	남
222	정	서진산업	위원장	김진업	남
223	정	대덕GDS	위원장	김광호	남
224	정	이수엑사보드	위원장	정정호	남
225	정	아이아	위원장	김광섭	남
226	정	에스엘미러텍	위원장	김종훈	남
227	정	한샘	위원장	이성영	남
228	정	일진전기(반월)	위원장	방운제	남
229	정	삼보오토	위원장	강영석	남
230	정	PN풍년	위원장	장영기	남
231	정	우진공업	위원장	김영철	남
232	정	서진오토모티브	위원장	김진연	남
233	정	대동모벨시스템	위원장	한명선	남
234	정	비츠로	위원장	강상욱	여
235	정	진영공업	위원장	지해갑	남
236	정	진합	위원장	이남철	남
237	정	남선기공	위원장	윤익병	남
238	정	애디언트코리아	위원장	이창수	남
239	정	애디언트코리아	사무장	정민영	남
240	정	오스템	위원장	두병비	남
241	정	대한전선	위원장	강진연	남
242	정	동희오토협력업체	위원장	정성진	남

243	정	동희오토협력업체	수석부위원장	김광민	남
244	정	휴스틸	위원장	강경호	남
245	정	두원공조	위원장	정덕순	남
246	정	동원금속아산공장	위원장	강춘호	남
247	정	동부제철	위원장	김우하	남
248	정	SL라이팅천안	위원장	김기문	남
249	정	신원	위원장	전성복	남
250	정	동부제철	위원장	김우하	남
251	정	아산성우하이텍	위원장	임갑병	남
252	정	우영산업	위원장	김정국	남
253	정	경신전선	위원장	채준병	남
254	정	새론오토모티브	위원장	장재성	남
255	정	대륙제관	위원장	전해영	남
256	정	LS메탈	위원장	김병석	남
257	정	인지AMT	위원장	나명구	남
258	정	코리아휠	위원장	유인규	남
259	정	우영산업	지부장	공지순	여
260	정	두올아산	위원장	정란홍	여
261	정	SK하이닉스청주	위원장	강국모	남
262	정	SK하이닉스청주	사무국장	김영삼	남
263	정	SK하이닉스청주	정책실장	이승의	남
264	정	SK하이닉스청주	교육부장	이종열	남
265	정	SK하이닉스청주	조사통계부장	박철균	남
266	정	SK하이닉스청주	홍보실장	맹정재	남
267	정	SK하이닉스청주	홍보부장	박성제	남
268	정	SK하이닉스청주	복지실장	백경환	남
269	정	SK하이닉스청주	복지부장	정수현	남
270	정	SK하이닉스청주	총무부장	경두현	남
271	정	SK하이닉스청주	조직실장	문학성	남
272	정	SK하이닉스청주	체육부장	김선익	남
273	정	SK하이닉스청주	노사대책부장	최기성	남
274	정	SK하이닉스청주	부위원장	한주연	여
275	정	SK하이닉스청주	회계검사위원	우미선	여
276	정	SK하이닉스청주	기숙사지원부장	최리진	여
277	정	SK하이닉스청주	여성부장	백서은	여

278	정	SK하이닉스청주	여성차장	김미희	여
279	정	SK하이닉스청주	여성차장	오선희	여
280	정	SK하이닉스청주	여성차장	이혜나	여
281	정	매그나칩반도체	위원장	김영일	남
282	정	매그나칩반도체	부위원장	김태동	남
283	정	매그나칩반도체	지부장	배준호	남
284	정	매그나칩반도체	여성부장	김미영	여
285	정	매그나칩반도체	후생복지부장	이혜영	여
286	정	현대모비스	위원장	박태우	남
287	정	현대모비스	수석부위원장	노홍선	남
288	정	현대모비스	부위원장	모경님	여
289	정	현대모비스	지부장	김순건	남
290	정	두산전자	위원장	윤영훈	남
291	정	두산전자	김천지부장	정갑성	남
292	정	에스엠알오토모티브 모듈코리아	위원장	박대철	남
293	정	LS산전	위원장	홍문기	남
294	정	현대성우메탈	위원장	엄기호	남
295	정	한국야금	위원장	왕용호	남
296	정	삼동	위원장	안교신	남
297	정	한국보그워너티에스	위원장	이상용	남
298	정	삼화전기	위원장	박종훈	남
299	정	국제종합기계	위원장	정재연	남
300	정	선일다이파스	위원장	조경탁	남
301	정	극동전선	위원장	반영진	남
302	정	헨켈코리아	위원장	연병주	남
303	정	넥상스코리아	위원장	최경천	남
304	정	우지막코리아	위원장	김종하	남
305	정	인지컨트롤스	위원장	정찬이	남
306	정	백조씽크	위원장	손관수	남
307	정	금화소재	위원장	김근란	여
308	정	대한제강	위원장	윤각열	남
309	정	대한제강	사무국장	부윤덕	남
310	정	YK Steel	위원장	박대엽	남
311	정	부산주공	위원장	안병철	남

312	정	성우하이텍	위원장	김근수	남
313	정	태광	위원장	박근수	남
314	정	동화엔텍	위원장	김영만	남
315	정	오리엔탈정공	위원장	정영수	남
316	정	성광벤드	위원장	주영수	남
317	정	강남	위원장	황태연	남
318	정	TK-FUJIKIN	위원장	하두호	남
319	정	한국주철관	위원장	박정철	남
320	정	대창단조	위원장	박창혁	남
321	정	대선조선	위원장	하영수	남
322	정	한국항공우주산업	위원장	류재선	남
323	정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위원장	이재호	남
324	정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위원장	이창호	남
325	정	한국항공우주산업	사무국장	김민곤	남
326	정	한국항공우주산업	총무실장	한용주	남
327	정	한국항공우주산업	정책기획실장	안영만	남
328	정	한국항공우주산업	복지후생실장	이동규	남
329	정	한국항공우주산업	선전실장	김규훈	남
330	정	한국항공우주산업	산업안전보건실장	최현민	남
331	정	셰플러코리아	위원장	전광배	남
332	정	셰플러코리아	지부장	양희완	남
333	정	셰플러코리아	부위원장	최맹석	남
334	정	세아창원특수강	위원장	이상철	남
335	정	세아창원특수강	부위원장	위성준	남
336	정	세아창원특수강	조직부장	김성수	남
337	정	세아창원특수강	홍보부장	손정구	남
338	정	세아창원특수강	교육부장	김재민	남
339	정	세방전지	지부장	기세준	남
340	정	세방전지	수석부위원장	임병희	남
341	정	스타리온성철	위원장	남원섭	남
342	정	스타리온성철	교육선전부장	박성욱	남
343	정	한국철강	위원장	김회봉	남
344	정	한국철강	부위원장	심귀봉	남
345	정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창원	위원장	이희기	남
346	정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창원	수석부위원장	정원출	남

347	정	유니크	부위원장	박용건	남
348	정	유니크	사무국장	김현진	여
349	정	GMB코리아	위원장	유재현	남
350	정	GMB코리아	부위원장	문경규	남
351	정	두원중공업	위원장	정진용	남
352	정	두원중공업	사무국장	오삼석	남
353	정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위원장	김종국	남
354	정	에스텍	위원장	김성종	남
355	정	KR모터스	위원장	백차근	남
356	정	삼한	위원장	윤삼원	남
357	정	한국코오베용접	위원장	주종일	남
358	정	STX중공업	위원장	장세명	남
359	정	삼우KJS텍	위원장	김승규	남
360	정	대동기어	위원장	김대용	남
361	정	고려특수선재	위원장	금명록	남
362	정	대흥산업	위원장	이동우	남
363	정	한국중천	위원장	최해경	여
364	정	삼성공조	위원장	이정희	여
365	정	풍산	위원장	이준덕	남
366	정	풍산	지부장	박용노	남
367	정	풍산	지부장	박동원	남
368	정	풍산	지부장	신재관	남
369	정	풍산	지부장	안효진	남
370	정	LS-Nikko동제련	위원장	박성걸	남
371	정	LS-Nikko동제련	사무국장	김우진	남
372	정	울산알루미늄	위원장	허진구	남
373	정	울산알루미늄	사무국장	손진영	남
374	정	고려아연	위원장	조대형	남
375	정	고려아연	부위원장	최재영	남
376	정	DIC	위원장	허문근	남
377	정	DIC	사무국장	박찬기	남
378	정	동희산업	위원장	노현돈	남
379	정	대경기계기술	위원장	최용수	남
380	정	명화공업	위원장	노경택	남
381	정	국일인토트	위원장	조정식	남

382	정	에스엘	위원장	박칠규	남
383	정	에스엘	사무국장	차종영	남
384	정	에스엘	여성부장	김나영	여
385	정	이수페타시스	위원장	이기남	남
386	정	이수페타시스	부위원장	강대성	남
387	정	이수페타시스	사무국장	손태진	남
388	정	평화발레오	위원장	김동준	남
389	정	평화발레오	부위원장	백인찬	남
390	정	평화발레오	사무국장	이근제	남
391	정	평화산업	위원장	신석곤	남
392	정	평화산업	수석부위원장	임복재	남
393	정	카펙발레오	위원장	김수환	남
394	정	카펙발레오	부위원장	이동호	남
395	정	평화오일씰	위원장	이상윤	남
396	정	경창산업	위원장	김성호	남
397	정	남선알미늄	부위원장	김태현	남
398	정	성진포머	위원장	이상식	남
399	정	평화정공	위원장	허도영	남
400	정	화신	위원장	김해용	남
401	정	남양금속	위원장	이상기	남
402	정	KBWS	위원장	이선희	남
403	정	삼성제침	위원장	권오탁	남
404	정	영진	위원장	권태훈	남
405	정	타이코AMP	위원장	박기성	남
406	정	평화기공	위원장	박병선	남
407	정	모토닉	위원장	김상권	남
408	정	케이디에스	위원장	서정구	남
409	정	금용기계	위원장	이상만	남
410	정	에스엘라이팅	위원장	김채민	남
411	정	세원물산	위원장	손관희	남
412	정	THN	위원장	김태수	남
413	정	신영	위원장	박남규	남
414	정	대철	위원장	황성원	남
415	정	일지테크	위원장	나영섭	남
416	정	HSL일렉트로닉스	위원장	이종하	남

417	정	삼익THK	위원장	박기호	남
418	정	대한소결금속	위원장	김효선	남
419	정	경창정공	위원장	김기표	남
420	정	대철	조합원	남금자	여
421	정	대철	조합원	임순옥	여
422	정	경창정공	조합원	이미경	여
423	정	경창정공	조합원	박경란	여
424	정	LG이노텍	위원장	김동의	남
425	정	LG이노텍	지부장	안병일	남
426	정	LG이노텍	지부장	감동현	남
427	정	LG이노텍	지부장	김하장	남
428	정	LG이노텍	지부장	장대식	남
429	정	LG이노텍	사무처장	정현주	남
430	정	LG이노텍	부지부장	황혜인	여
431	정	LG이노텍	부지부장	한성산	남
432	정	LG이노텍	회계감사	김광남	남
433	정	LG이노텍	회계감사	정승우	남
434	정	LG이노텍	여성부장	송현주	여
435	정	LG이노텍	사무국장	조현순	남
436	정	LG이노텍	여성부장	이선희	여
437	정	SK실트론	위원장	한창욱	남
438	정	SK실트론	부위원장	옥윤수	남
439	정	SK실트론	사무국장	김현수	남
440	정	SK실트론	총무실장	김용덕	남
441	정	SK실트론	총무차장	문유미	여
442	정	노벨리스코리아	위원장	권국진	남
443	정	영풍석포제련소	위원장	강철희	남
444	정	노틸러스효성	위원장	정동민	남
445	정	존슨콘트롤즈델코배터리	위원장	김상희	남
446	정	클레스트라하우저만	위원장	이문희	남
447	정	LIG넥스원	위원장	임종성	남
448	정	영신정공	위원장	장복이	남
449	정	현대종합금속	대의원	이장호	남
450	정	TCC한진	위원장	정상준	남
451	정	현대성우캐스팅	위원장	정천균	남

452	정	동일기업	위원장	이기목	남
453	정	세아특수강	위원장	박순덕	남
454	정	동일산업 합금철사업부	위원장	공재청	남
455	정	한금	위원장	이성용	남
456	정	에어릭스	사무국장	김성환	남
457	정	TCC한진	위원장	정상준	남
458	정	조선선재	위원장	조석연	남
459	정	유일	위원장	이수출	남
460	정	동부대우전자민주	광주전남지역본부의장	최정열	남
461	정	화천기공	위원장	손성범	남
462	정	캠스	위원장	김홍관	남
463	정	대유에이텍	위원장	정관	남
464	정	한국차량	위원장	모수환	남
465	정	세아베스틸	위원장	김태완	남
466	정	세아베스틸	수석부위원장	진인석	남
467	정	세아베스틸	사무국장	염성곤	남
468	정	세아베스틸	조직실장	서현승	남
469	정	세아베스틸	산안실장	양석원	남
470	정	엘에스엠트론	위원장	어진호	남
471	정	엘에스엠트론	사무국장	이재익	남
472	정	엘에스엠트론	기획실장	김남희	남
473	정	대유글로벌	위원장	김학송	남
474	정	오토리브	위원장	엄태욱	남
475	정	한일전기	위원장	석승희	남
1	후보	부천지역	금속노련사무처장	김준영	남
2	후보	LG전자	평택1 부지부장	박대석	남
3	후보	LG전자	평택1 부지부장	신택교	남
4	후보	LG전자	평택2 부지부장	이진호	남
5	후보	LG전자	청주/인천부지부장	정필관	남
6	후보	SK실트론	조직부장	김종협	남
7	후보	SK실트론	조직부장	권순욱	남
8	후보	현대모비스	사무국장	김길현	남
9	후보	LS-Nikko동제련	부위원장	김용우	남
10	후보	LS-Nikko동제련	부위원장	한상욱	남
11	후보	매그나칩반도체	사무국장	이영민	남

12	후보	풍산홀딩스	위원장	감규상	남
13	후보	세원셀론텍	위원장	김성수	남
14	후보	NEK	위원장	장원혁	남
15	후보	LGDisplay	대의원	백승욱	남
16	후보	LGDisplay	대의원	서현덕	남
17	후보	LGDisplay	대의원	최승열	남
18	후보	LGDisplay	산재부장	이해규	남
19	후보	LGDisplay	후생부장	주평준	남
20	후보	LGDisplay	관리부장	이정우	남
21	후보	LGDisplay	조통부장	김창익	남
22	후보	LGDisplay	체육부장	김홍기	남
23	후보	LGDisplay	산재차장	손은석	남
24	후보	LGDisplay	교선차장	김정민	여
25	후보	LGDisplay	여성차장	정금지	여
26	후보	LGDisplay	관리차장	김하영	여
27	후보	LGDisplay	여성차장	강소진	여
28	후보	LGDisplay	대의원	정승희	남
29	후보	LGDisplay	대의원	한선용	남
30	후보	LGDisplay	대의원	이영기	남
31	후보	LGDisplay	대의원	이대영	남
32	후보	LGDisplay	대의원	장원준	남
33	후보	LGDisplay	대의원	서영배	남
34	후보	LGDisplay	대의원	표태양	남
35	후보	LGDisplay	여성차장	이혜민	여
36	후보	LGDisplay	여성차장	김미선	여
37	후보	LGDisplay	여성차장	김영은	여
38	후보	LG이노텍	사무국장	유강식	남
39	후보	LG이노텍	사무국장	김영지	남
40	후보	LG이노텍	사무국장	한상진	남
41	후보	대호P&C포항공장	위원장	박규진	남
42	후보	피씨엠	위원장	서영신	남
43	후보	SK하이닉스청주	산업안전부장	엄태영	남
44	후보	SK하이닉스청주	후생부장	장진영	남
45	후보	SK하이닉스청주	조직부장	최경식	남
46	후보	SK하이닉스청주	후생차장	정윤정	여

47	후보	SK하이닉스청주	산업안전차장	임연희	여
48	후보	SK하이닉스청주	조직차장	최현희	여
49	후보	인지컨트롤스	위원장	정찬이	남
50	후보	우지막코리아	총무부장	김정숙	여
51	후보	동희정공(부산)	위원장	추진호	남
52	후보	동국실업	위원장	문부근	남
53	후보	풍산FNS	위원장	최용웅	남
54	후보	MEMCKOREA	위원장	임철승	남
55	후보	풍산FNS	위원장	최용웅	남
56	후보	노벨리스코리아	위원장	권국진	남
57	후보	신화실업	위원장	최형한	남
58	후보	S.P일레멕	위원장	황경숙	여
59	후보	우일정밀	위원장	양승조	남
60	후보	서연탑메탈	위원장	박득률	남
61	후보	대성사	위원장	이권언	남
62	후보	풍산	사무국장	권인석	남
63	후보	오스템	노총충남세종지역본부의장	고석희	남
64	후보	쌍신전자통신	노총충남중부지역지부의장	정명식	남
65	후보	화신	노총영천지역지부의장	윤승오	남
66	후보	신한일전기	노총부천지역지부의장	박종현	남
67	후보	충남지역금속일반	노총아산지역지부의장	강흥진	남
68	후보	건우	노총광양지역지부의장	김성희	남
69	후보	세일공업	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의장	조경옥	남

결 의 문

촛불시민과 노동자의 투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멈춰 세웠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조합 하기 쉬운 나라를 표방하는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을 맞이하고 있다. 반 노동정책 9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기본권의 확대와 노동조합 조직운동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13만 금속노련 조합원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하나. 우리는 한국노총의 200만 조직화 방침과 금속노련 20만 조직화 추진전략에 따라 단위 사업장의 조직률 제고와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조직화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우리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는 악성 종양과 같다. 이에, 임금 ·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한국노총과 금속노련의 투쟁방침을 적극 실천하다

하나.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자유시장경제의 근본을 부정하는 원 · 하청 불공정거래와 재벌기업의 갑질 근절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은 제조업이다. 이에 제조업 부흥과 제조노동자의 산업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조산업협의회' 등 사회적대화기구 구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5월 15일

2018년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 일동

표 창 자 명 단

노총 위원장 표창자

순번	조 직 명	직 위	성 명	비 고
2018-	현대모비스	위원장	박태우	충북
	명화공업	위원장	노경택	울산·경주
	KR모터스	위원장	백차근	경남
	심팩	위원장	문재식	인천
	삼영전자	위원장	김경호	경기
	삼익THK	위원장	박기호	대구·경북
	LG전자	회계감사	곽동국	서울
	LG전자	여성부장	석희주	LG전자
	SK하이닉스청주	문화소통차장	오선희	SK하이닉스청주
	세아베스틸	조합원	문현석	전북

공로패

성 명	소 속	비 고	
천정근	동화기업	포항지역본부(前)의장	

감사패

성 명	소 속	비 고	
정일진	LG전자	금속노련(前)수석부위원장	
		선배	

조직확대 우수본부상

경남지역본부

연맹 위원장 표창자

순 번		조 직 명	직 위	성 명	비 고
1	2018-121	롯데알미늄	조합원	송창조	서울
2	122	세진전자	부위원장	지성임	경기
3	123	코모스	위원장	노민기	“
4	124	태양금속	위원장	황명찬	안산.시흥
5	125	대동하이렉스	위원장	류성용	인천
6	126	세아이앤티	위원장	정제종	대전
7	127	대륙제관	위원장	전해영	충남
8	128	두산전자	위원장	윤영훈	충북
9	129	동희정공	위원장	추진호	부산
10	130	알코닉코리아	사무국장	심정보	경남
11	131	영풍기계	위원장	유상업	울산.경주
12	132	화신정공	위원장	이광우	대구.경북
13	133	KEC	여성부위원장	최수지	구미
14	134	현대종합금속	쟁의부장	신현준	포항
15	135	한국알프스	위원장	신정훈	광주.전남
16	136	LS엠트론	조직부장	이진수	전북
17	137	오토리브	조합원	원구식	강원
18	138	SK하이닉스이천	기숙사지원부장	서미정	
19	139	SK하이닉스이천	교육차장	김명종	
20	140	SK하이닉스이천	영상기획차장	성기찬	
21	141	세아창원특수강	총무부장	심규현	
22	142	LG전자	산재대책부장	박주상	
23	143	LG전자	후생부장	이광호	
24	144	LG전자	USR부장	이성기	
25	145	동국제강	조직부장	홍순우	
26	146	LG이노텍	대의원	김경주	
27	147	매그나칩반도체	대의원	오정록	
28	148	한국항공우주산업	복지실장	이동규	
29	149	SK실트론	쟁의부장	김휘창	
30	150	풍산	조합원	우병록	
31	151	LG Display	대의원	김범기	
32	152	LG Display	대의원	이무영	
33	153	LG Display	대의원	태원식	
34	154	스태츠칩팩코리아	정책기획실장	김홍환	
35	155	세아베스틸	조합원	이훈기	
36	156	SK하이닉스청주	홍보차장	권순민	
37	157	SK하이닉스청주	복지부장	정수현	
38	158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총무실장	박선자	

2.중앙위원 회의 및 기타회의

1) 제183차 중앙위원 회의

◆개최일시: 2018년 5월 3일(목) 13:30

◆개최장소: 한국노총 대회의실

◆참석인원: 재적인원 73명중 참석인원 43명

● ——— 안건

▶ 토의사항

1. 정기대의원대회 안건

- 회순심의
- 대의원 자격심사건

* 2018년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 표창자 확정

* 회의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 사업계획 및 예산서 심의에 관한건

* 회의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2. 제규정 개정 및 제정의 건

* 회의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 기타토의

2) 제184차 중앙위원 회의

◆개최일시 : 2019년 2월 21일(목) 13:30

◆개최장소 : 한국노총 대회의실

◆참석인원 : 재적인원 71명중 참석인원 48명

●——— 안 건

▶ 보고사항

1. 제조연대 활동 보고
   1) 양대노총 제조연대
   2) 한국노총 제조연대
2. 2019년도 상반기 교육계획
3. 20만 조직화사업 추진현황 보고 건

▶ 토의사항

1. 가예산승인(2019년 4월 - 5월)의 건
   - 회의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2. 2019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관한 건
   - 2019년 5월 14일(화) 확정 결의하다.
3. 2019년도 임단투지침(안)확정 건
   - 2019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생계비 충족률 90%, 기본급 대비 8.3% 168,050 원으로 임금 요구안을 결정하다.
4. 규약 및 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
   - 회의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5. 조직화 홍보차량 구입 건
   - 회의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 기타토의

3. 회계감사 수검

1. 2017회계연도 하반기 회계감사 수검

1) 일 시 : [노련회계감사]2018년 4월 25일(수) 11시
[공인회계사 감사]2018년 4월 24일(화) 11시 / 1회(년)

2) 장 소 : 우리노련 회의실

3) 내 용 : 2017회계연도 하반기(2017.10.1-2018.3.31)회계집행내역
내역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수검하다.

회계감사위원 : 강호석(대신기계),김삼두(에스엘라이팅안산),이재성(희성금속),황성원(대철),김나리(LGDisplay)

2. 2018회계연도 상반기 회계감사 수검

1) 일 시 : 2018년 11월 1일(목) 11시

2) 장 소 : 우리노련 회의실

3) 내 용 : 2018회계연도 상반기(2018.4.1-2018.9.31)회계집행내역
내역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수검하다.

회계감사위원 : 김삼두(에스엘라이팅안산),송해광(JMI),최철(핸즈코퍼레이션),황성원(대철),이가현(LGDisplay)

4. 주요행사 및 지원사업

1. 주요행사 집행

1) 금속노련 창립 57주년 기념식

- 목 적 : 2018년 금속노련 창립 57주년 기념 금속노련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노동운동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고자 함.
- 개최일시 : 2018년 8월 24일 11:00
- 개최장소 : 진풍정한정식(여의도)
- 참 석 자 : 역대 금속노련 위원장님 외 선배님

2) 금속노련 사무처 워크숍

- 목 적 : 금속노련 노동정책과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적 역량 집중 및 단결과 화합을 위함
- 개최일시 : 2019년 3월 21일-23일(2박3일)
- 개최장소 : 제주한화리조트 회의실
- 참 석 자 : 금속노련 임원 및 사무처 전원

3) 복지증진을 위한 직원 건강검진 실시

- 개요 및 목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일반 질병 및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및 환경을 보호·유지에 적합하도록 관리
-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건강상 이상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
을 통하여 지속적 진찰 및 상담 등 의학적 검진 시행
- 과도한 업무 및 긴장상태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도
와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
- 검진일정 : 2018년 6월 - 12월 중 본인 선택
- 검진대상 : 2인(본인 및 배우자)
- 검진기관: 한국의료재단(여의도 IFC)

제 2 장 노총장학재단 및 금속노련 장학금 배정지급

1. 취지

한국노총 장학재단에서 금속노련에 배정된 2018학년도 장학금 30,020,000원을 수령하여 가맹노조의 맹비납부 실적에 따라 배정하였다. 또한 금속노련 장학금을 2009년도부터 신설하여 장학금 20,000,000원을 산하 조직의 조합원의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신입생 포함)중 경제적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당해 조직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선정하여 배정하였다.

2.연도별 장학금 수혜 내역

년도별	고	대학(2년)	대학(4년)	수혜자계	지급총액
2008	76	방통대1	1	83	85,340,000
2009	63	2/방통대1	2	68	71,000,000
2010	59	방통대1	2	62	67,060,000
2011	50	2	2	54	62,000,000
2012	43	3/방통대1	2	49	55,400,000
2013	41	1	1	43	46,000,000
2014	27	2/방통대1	1	31	34,400,000
2015	28	1		29	29,660,000
2016	28	1		29	30,020,000
2017	30			30	30,020,000
2018	28	1		29	30,000,000
금속노련 장학금 수혜 내역					
년도별	고	대학(2년)	대학(4년)	수혜자계	지급총액
2015	40				20,000,000
2016	40				20,000,000
2017	40				20,000,000
2018	40				20,000,000

조직활동

1. 조직현황 ····· 271
가. 지역본부별 노동조합 현황 ····· 271
나. 지부현황 ····· 295
다. 신규조직 현황 ····· 297
라. 대표자변경 조직 현황 ····· 298
마. 해산 및 이탈조직 현황 ····· 300
바. 연도별 조합원 증감현황 ····· 300
사. 조직확대 우수본부상 수여 ····· 300
2. 투쟁사업장 현황 ····· 302

평가 및 개선방향

2018년은 20만 금속노련 조직화의 원년이다. 금속노련 2018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20만 금속노련 조직화계획을 승인받고 곧바로 조직화에 돌입했다. 금속노련 사무처는 조직확대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그만큼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포항지역과 광양지역의 포스코 노동자 6,500여명을 조직했고, LG전자 노동조합의LG전자서비스 도급사원 직영화에 따른 4,000여명의 조직, ASE코리아 노동조합의 기존 미가입 직원 1,000여명 조직 등 큰 성과가 있었다. 28개의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2,996명의 조합원이 금속노련의 식구가 되었다.

우리 금속노련 조합원수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449천여명까지 증가한 적도 있지만 1990년부터 줄곧 감소해서 10만명 이하의 선까지 떨어진 시기도 있었다. 2018년 한 해의 조직화 결과는 20만 금속노련 건설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금속노련의 조직활동가와 각 지역본부, 가맹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간부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절대 달성할 수 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신규로 조직된 노동조합 수가 증가할수록 금속노련 본부의 상근간부 충원과 상근간부의 능력을 배가해야한다는 요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조직화를 통한 예산 확보, 이를 통한 조직활동가 충원 및 가맹 노조 지원 증가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만 금속노련은 2019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 사업장 전략조직화, 내 사업장 100% 조직화, 전국금속일반노조를 통한 비정규·사무직 노동자 조직화로 20만 금속노련을 견인할 계획이다.

1. 조직현황

가. 지역본부별 노동조합 현황

1) 서울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9. 12. 28.

②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 가 57 노동복지회관 405

③ 전화번호 : 02)2676 4823 FAX : 02)2676 4824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김용안	대우전자서비스	2018.12.20.
수석부의장	오성원	롯데알미늄	2018.12.20.
사무국장	전 상	K-MEC	2018.12.20.
회계감사	조승구	볼보건설기계코리아	2018.12.20.

⑤ 서울지역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K-MEC	20160212	전상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22 신관 9층
KC코트렐	19990609	최경배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1
LG전자	19630530	배상호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10길 22
OTIS엘리베이터	19870727	이창호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별관2층
농협사료	20170206	홍헌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528
대경기계기술서울	20150320	이종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대우전자서비스	19981229	김용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233
롯데알미늄	19760407	오성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201 2층
볼보건설기계코리아	20000803	조승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0 볼보빌딩 6층
야마하뮤직코리아	20140901	신우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8 (역삼동) 11층
오텍오티스파킹시템	20160401	김진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80 제1별관 3층

2) 경기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2. 9. 27

②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7층)

③ 전화번호 : (031) 233-3580/1 FAX 번호 : (031) 233-3586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원철식	에이엔피	2018.11.20.
부의장	정상영	SK하이닉스	2018.11.20.
부의장	권동섭	LG디스플레이	2018.11.20.
부의장	윤복현	세진전자	2018.11.20.
부의장	김 영	LG전자 평택1지부	2018.11.20.
부의장	박종현	신한일전기	2018.11.20.
부의장	장대식	LG이노텍 오산지부	2018.11.20.
부의장	성형준	STX엔진	2018.11.20.
부의장	안광호	SK하이닉스	2018.11.20.
부의장	오유진	서진산업 화성지부	2018.11.20.
회계감사	김송훈	파주전기초자	2018.11.20.
회계감사	최원규	신한일전기	2018.11.20.
사무국장	민한기	리한	2018.11.20.

⑤ 경기지역본부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ASE코리아	19881219	곽노용	경기 파주시 산업단지길 76
JMI	19970120	송해광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8길 15-20
LGDisplay	19990101	권동섭	경기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45 A1동
SK하이닉스이천	19870814	허정우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SK하이스텍	20080319	박이순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SK하이이엔지	20010618	정상종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STX엔진	20011205	성형준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288
TDK한국	19960228	김동수	경기 평택시 청북읍 현곡산단로 104
가온전선	19890124	전정일	경기 군포시 엘에스로45번길 120
경동산업	19881213	이석현	경기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601번길 51
니콘코리아	20031210	한상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124번길 2
대동도어	19890221	안영철	인천 연수구 첨단대로124번길 64
대신기계	20070601	강호석	경기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711-78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화성	19680128	박기규	경기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5길 9
도루코	19750520	이용식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50
동화프라임	19870814	박운병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곶남로 528-2
동희정공	20000619	박노용	경기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720-1
두원정공	20180529	정춘식	경기 안성시 대덕면 만세로 21-5
로얄&컴퍼니	19870727	문성식	경기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895-20
리한	20070601	민한기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25 마도산업단지 2B1L
베올리아워터코리아	20050408	윤종근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부천지역	19880706	김덕근	경기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36 근로자복지관3층
삼기오토모티브	19781013	김용태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268번길 147
삼아알미늄	19890315	조용범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92
삼영전자	19880828	김경호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47
삼화전자공업	19941121	김진옥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215
서진캠	20030705	정지덕	경기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31 어연한산지방공단내 2B-5L
성문전자	19910103	차현택	경기 평택시 세교산단로 61
성안기계	19890515	심규성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6길 33
세아FS	19870719	서민형	경기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19
세진전자	19950727	윤복현	경기 오산시 가장로 494
신한일전기	19740518	김송훈	경기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22
썬코어	19880511	김주훈	경기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360번길 148-103
씬터온	19930310	조성철	경기 화성시 봉담읍 주석로 1155
에이엔피	19870902	원철식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300
우주엔비텍	20030401	임재용	경기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122
이큐글로벌	20011207	남종태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이화다이아몬드	19880312	한정호	경기 오산시 남부대로 374
인알파코리아	20101021	박원제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2길 39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일진전기	19870816	안명호	경기 화성시 만년로 905-17
일진전기전선사업부	20171115	강철선	경기 화성시 만년로 905-64
일진제강	19870829	이주행	경기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905-80
전기초자코리아	20171012	박영호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11 603동 1104호
코리아에프티열린광장	20160115	김주승	경기 안성시 원곡면 섬바위길23
코모스	20020308	노민기	경기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 842-1
테크팩솔루션	19880404	정수환	경기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 1885-16
파주전기초자	20110519	오유진	경기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695-35
파카코리아	19930401	최원규	경기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1길 23
프라코	19880714	김석준	경기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 679-24
필코전자	19870826	정덕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270
하나모듈	20020216	변주현	경기 화성시 우정읍 남양만로 707
한국기가포톤	20130405	김지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 12 넥사이언 리더스타워 8층
한국체인	19870826	김호인	경기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867-11
한국키스톤발부	19880709	김한기	경기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1길 56
해강알로이	20141219	임병욱	경기 김포시 하성면 마곡로 70
핸즈식스	20170501	윤영인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6길 12
현대엘리베이터	19870814	김종우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1

3) 인천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1. 11. 2.

②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75(구월동)

③ 전화번호 : (032) 437 8505 FAX : (032) 437 8504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오인상	삼성공업	2019.3.4.
지도위원	김영국	머큐리	2019.3.4.
지도위원	안경봉	서울엔지니어링	2019.3.4.
상임부의장	김제곤	린나이코리아	2019.3.4.
부의장	박상규	동국제강	2019.3.4.

부의장	김수호	동부인천스틸	2019.3.4.
부의장	김영철	후지테크코리아	2019.3.4.
부의장	조주희	대한제당	2019.3.4.
부의장	윤동현	스태츠칩팩코리아	2019.3.4.
사무국장	류성룡	대동하이렉스	2019.3.4.
회계감사	최철	핸즈코퍼레이션	2019.3.4.
회계감사	최인석	삼양감속기	2019.3.4.

⑤ 인천지역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A.F.T	20020506	송병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95
대동시스템	19890711	김정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419
대동하이렉스	20030806	류성룡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78번길 43
대우전자사무직	20180301	강용석	광주 광산구 용아로 559 (장덕동)
대한제당	19690602	조주희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16
동국제강	19890220	박상규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15
동보	19870910	홍은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646
동부인천스틸	19660429	김수호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789
다이후쿠코리아	20170407	김희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275번길 8
린나이코리아	19890316	김제곤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577번길 48
머큐리	20001117	김영국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90
삼성공업	19870810	오인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91
삼양감속기	20020715	최인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44
서연탑메탈	19880806	박득률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10번길 40
서울엔지니어링	19870824	안경봉	인천광역시 남구 방축로 332
스태츠칩팩코리아	19980701	윤동현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무역로 191
신한다이아몬드공업	20120703	김종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375
심팩	19870818	문재식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141
심팩인더스트리	20080704	강광식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24
심팩주물	20180208	박정승	인천광약시 서구 가좌로 64
우일정밀	19870824	양승조	인천광역시 남구 염전로289번길 5
인켈	19870919	하재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중로 93
청우하이드로	19880510	고기선	인천광역시 서구 호두산로 166
한국지엠사무직	20160419	오용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33
한일튜브	19930517	전영성	인천광역시 서구 원전로 17
핸즈코퍼레이션	20140401	최철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854
후지테크코리아	19870827	김영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51
희성금속	19870823	안병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117

4) 안산.시흥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97. 12. 16.

② 소재지 : 안산시 선부3동 1076-9 근로자복지관 3층

③ 전화번호 : (031) 410 8601 FAX : (031) 401 8602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백선진	명화공업	2018.11.21.
부의장	허일욱	대덕전자	2019.1.30.
부의장	지해갑	진영공업	2019.1.30.
부의장	강상욱	비츠로	2019.1.30.
상임고문	김광호	대덕전자	2019.1.30.
상임고문	강영석	삼보오토	2019.1.30.
상임고문	윤석진	광명전기	2019.1.30.
상임고문	방운제	일진전기	2019.1.30.
자문위원	장영기	PN풍년	2019.1.30.
자문위원	정교태	포스코대우	2019.1.30.
자문위원	이정한	흥진정공	2019.1.30.
자문위원	김삼두	SL라이팅안산	2019.1.30.
자문위원	최형한	신화실업	2019.1.30.
자문위원	김영철	우진공업	2019.1.30.
회계감사	한명선	대동모벨시스템	2019.1.30.
회계감사	황명찬	태양금속	2019.1.30.
사무국장	조제현	남양넥스모	2019.1.30.

⑤ 안산.시흥지역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PN풍년	19860831	장영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620
S.P일레멕	19891026	황경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정공길 2-15
TRW	19870107	강한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127
광명전기	19870815	윤석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160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교세라케넥터	19990429	김진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116
남양공업	19950328	조제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150
대덕GDS	19871212	김광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3
대덕전자	19871228	허일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27
대동모벨시스템	20020426	한명선	경기도 시흥시 번영로 105
대풍공업	19780223	장정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9번길 196
동부전자소재	20170106	이종승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256
동서기공	19890424	임동훈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52
동희산기	19910522	이홍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453
릭실Korea	19870822	노석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355
비츠로	19900821	강상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27
삼보오토	19880629	강영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195
서울반도체	20180716	박정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63번길 97-11
서진산업	19760226	김진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96
서진오토모티브	19910125	김진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313
선도전기	19890306	김보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86
선창ITS	□	최준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118
셰플러안산유한회사	19950513	강일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179
신화실업	19880502	최형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31
아이아	19890113	김광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87
에스엘라이팅안산	19880324	김삼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35
에스엘미러텍	20060928	김종훈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130
엔피씨몰텍	19950513	하신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289
영흥철강진	19880418	정영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354
우진공업	19890513	김영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48
위스코	19881018	이귀조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133-14
위어인터내셔널	20170809	김재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151
유텍솔루션	20091103	이진구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205
이수엑사보드	20150213	정정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274
일진전기(반월)	19870822	방운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21
진영공업	20061011	지해갑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80 (정왕동)
태양금속	19760526	황명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12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포레시아배기콘트롤시스템코리아	20030619	김현식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4길 11
포스코대우(안산)	20090930	정교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235
한샘	19800401	이성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144

5) 대전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1. 1. 30.

②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4 번지

③ 전화번호 : (042) 488 9057 FAX : (042) 488 9058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이남철	(주)진합	2018.07.01
사무국장	윤익병	(주)남선기공	2018.07.01

⑤ 대전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남선기공	19740221	윤익병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31번길 17
삼양패키징단위	20140331	박성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17번길 47
세아이앤티	19870107	정제종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67번길 40
알루코	19670306	진현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119번길 31
진합	19880126	이남철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42

6) 충남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95.06.01

② 소재지 :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457 근로복지회관 2층

③ 전화번호 : (041) 565 8001 FAX : (041) 565 9001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정덕순	두원공조	2016.05.26
수석부의장	양시준	동양철관	2016.05.26
부의장	이창수	애디언트코리아	2016.05.26
지도위원	강흥진	금속일반	2016.05.26
지도위원	고석희	오스템	2016.05.26
지도위원	최용웅	풍산FNS	2016.05.26
사무국장	강진연	대한전선	2016.05.26
회계감사	전성복	신원	2016.05.26
회계감사	정종명	오텍	2016.05.26

⑤ 충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KB오토시스	19870915	강주호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528-24
LS메탈	19551015	김병석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화송길 123
MEMCKOREA	19960327	임철승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854
SL라이팅천안	19990429	김기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250
경신전선	19890910	채준병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567
귀뚜라미범양냉방	19770804	김성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음봉로 850
대륙제관	19870828	전해영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202번길 17
대양금속	20060220	민성기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8
대원전선	19870801	허 일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덕령길 92
대한전선	19720615	강진연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대호만로 870
동부제철	19660429	김우하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228
동양철관	19870826	양시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515
동원금속아산공장	19970409	강춘호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288-7
동일알루미늄	19950727	이진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160
동해기계항공	20181118	김태환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고도평말길 175
동희오토협력업체	20110321	정성진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신당1로 105-1
두올아산	19990704	정난홍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611
두원공조	19870810	김태선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43
디젠스	19970414	김창규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288-7
삼신	19870729	김학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1138-11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새론오토모티브	19951016	장재성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5길 133
새화신	20020314	김영일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468
서연오토비전노동조합	20150112	오제헌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거섬들2길 45
세명테크	20171204	노남진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91
승일	20121226	김지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1길 10
승일테크	20180104	이승찬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남로 185
신원	20010903	전성복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448
삼광글라스 천안캔공장	20181024	하형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망향로 1112-84
쌍신전자통신	19780426	정명식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당산로 507
아산성우하이텍	20051110	임갑병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613
애디언트코리아	19950925	이창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로 45
오스템	19970123	정동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739
오텍	20050914	정종명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1033-36
인지AMT	20100420	나명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156
인팩	19890420	최중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6길 47 (업성동)
인팩혼시스템	19960812	이성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1길 7
전진CSM	19950508	윤정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365
지코	19870912	박인용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48-15
충남지역금속일반	20110720	강흥진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415번길 34
캐논코리아	19940626	최용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00 (불당동)
코리아신예	19890923	심만식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924
코리아휠	20000721	황호경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길 165
태성전장	20060315	박현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송1길 110
페더럴모굴	19710513	김길중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청연로 442-16
풍산FNS	20021111	최용웅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득안대로 893
혜인	19870727	진지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5로 23 (차암동)
환영철강	19950117	이방섭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보덕포로 587
휴스틸	19800508	강경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131

7) 충북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8. 12. 31.

②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814-39

③ 전화번호 : (043) 267 1418 FAX : (043) 266 5088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	선출일자
의장	박태우	현대모비스	2019.1.29.
지도위원	왕용호	한국야금	2019.1.29.
부의장	윤영훈	두산전자	2019.1.29.
부의장	강국모	SK하이닉스	2019.1.29.
부의장	안교신	삼동	2019.1.29.
부의장	정재연	국제종합기계	2019.1.29.
부의장	서진성	지앤피	2019.1.29.
사무국장	박대철	에스엠알코리아	2019.1.29.
회계감사	손관수	백조씽크	2019.1.29.
회계감사	김영일	매그나칩반도체	2019.1.29.

⑤ 충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AND전자저울	19890222	이창휘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인석로 191
HL그린파워협력사	20180624	한훈희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기업도시1로 69
LS산전	19870727	홍문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95
SK하이닉스청주	19900209	강국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37
갑을메탈	20061011	정원호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소산단로 66
국제종합기계	19740201	정재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부로 49
극동전선	19870822	반영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길 29-23
금화소재	20151005	김숙화	충북 충주시 주덕읍 중원산업로 158
넥상스코리아	19780219	최경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길 50
대림통상	19870813	이영득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평산단로 23
대성쎌틱에너시스	19890419	이재현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로 55-72
동성금속	19910309	손현식	충북 영동군 용산면 용산공단길 74
두산전자	19881015	윤영훈	충북 증평군 증평읍 두산로 40
로얄테크	20041203	박홍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215
매그나칩반도체	19870727	김영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215
백조씽크	19850218	손관수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성로 353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삼동	19960809	안교신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816-41
삼화전기	19900131	박종훈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3
서울전선	20090917	조병선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새미실길45번길 98-12
선일다이파스	19880618	조경탁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산단2길 14
성은	20130804	민경운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용로 329
에넥스	19870810	김동용	충북 영동군 황간면 에넥스로 37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19871112	박대철	충북 청원군 옥산면 과학산업1로 170 오창과학단지 4-9블럭
에스피텍	20021202	최용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38
엔텍	20110701	황을준	충북 영동군 영동읍 금동로 101
우지막코리아	20051125	김종하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67번길 5
인지컨트롤스	20091224	이상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농공로 70
일본전산리드코리아	20180222	이선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6번길 67
전진중공업	20100112	이석근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264
지앤피	19870903	서진성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448 (목행동)
한국보그워너티에스	20010521	이상용	충북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251번길 19
한국야금	19910204	왕용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55
한국캠브리지필터	19900216	유호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86
한라스택폴	20081001	강현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5로 101
한미전선	20130630	서지웅	충북 진천군 이월면 생거진천로 2028-37
헨켈코리아	20130620	연병주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298
현대모비스	20000401	박태우	충북 진천군 문백면 사양2길 95
현대모비스충주협력사	20180421	원종민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기업도시1로 47
현대성우메탈	20030211	최창수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344

8) 부산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0. 12. 29.

②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86 근로자종합복지관 6층

③ 전화번호 : (051) 861 4613 FAX : (051) 853 8770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	선출일자
의 장	윤각열	대한제강	2019.1.29.

지도위원	강진호	동국제강 부산지부	2005.2.3.
지도위원	박병용	대창단조	2008.1.23.
지도위원	황대선	대선조선	2019.1.29.
부의장	황태연	강남	2019.3.27.
부의장	하영수	대선조선	2019.3.27.
부의장	윤성원	동국제강신평지부	2019.3.27.
부의장	추진호	동희정공	2019.3.27.
부의장	안병철	부산주공	2019.3.27.
부의장	김근수	성우하이텍	2019.3.27.
부의장	하두호	태광후지킨	2019.3.27.
사무국장	박창혁	대창단조	2019.3.27.
회계감사	김휘종	고려용접봉	2019.3.27.
회계감사	박근수	태광	2019.3.27.
회계감사	하만욱	태양금속	2019.3.27.

⑤ 부산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PSMC	20110819	원광조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4길 16
SKF코리아	20070115	이상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19번길 183
TK-FUJIKIN	20080205	하두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61로88번길 7
YK Steel	19800226	박대엽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760
강남	19780319	황태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로16번길 71
고려용접봉	19840617	김휘종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63번길 70
대동스프링	20110101	옥용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19번길 9
대선조선	19681203	하영수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나루로 254
대창단조	19750510	박창혁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로 157
대창솔루션	19930831	이종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삼동로 387-22
대한제강	19890420	윤각열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69
동양제강	19870814	박영철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147
동화엔텍	19870910	김영만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1로63번길 20
동희정공	19870901	추진호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공단1길 41
부산선박목의장	19930325	이종용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50번길 20

부산주공	19880420	안병철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1길 54
부산지역금속일반	20181127	황대선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86
삼공사	19870213	류국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17로 135
성광벤드	19751119	주영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62로 26
성우하이텍	19880707	김근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농공길 2-9
스타리온기원	20180612	문동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대로 34-23
시퍼스파이프라인	20180517	김성운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6로54번길 20
오리엔탈정공	19900217	정영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89로 6
제일전기	19770319	서종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555
태광	19760602	박근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117-12
태양금속	19960523	하만욱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240 (장림동)
태원니들	19890406	조재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469번길 76
풍산홀딩스동래	20031116	신선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230
프라이그파이스트	20100930	허성택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7로 19
한국주철관	19800419	박정철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525

9) 경남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1년 1월 9일

②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581 노동복지회관4층

③ 전화번호 : (055) 284 4021 FAX : (055) 287 5052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이상철	세아창원특수강	2017.3.2.
부의장	하영규	LG전자 창원2지부	2017.3.2.
부의장	김성종	에스텍	2017.3.2.
부의장	감규상	풍산홀딩스	2017.3.2.
부의장	손승일	세방전지	2017.3.2.
사무국장	김은겸	금속연맹경남본부	2017.3.2.
회계감사	김진희	대동기어	2017.3.2.
회계감사	최영식	상농전선	2017.3.2.
회계감사	황상문	한국특수전지	2019.2.26.

⑤ 경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GMB코리아	19881115	유재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618
KR모터스	19830326	백차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28
NEK	19960325	장원혁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공단서3길 18
STX중공업	19870810	신재중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381 (
고려용접봉(창원)	20180209	문경록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704 (성주동)
고려특수선재	19870321	금명록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43 (유산동)
대동기어	19830424	김진희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42
대동정비	19891004	백운효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로 154 (상대동)
대명공업	19881124	김회식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384
대성사	19760330	이권언	경상남도 양산시 대동로 53 (어곡동)
대신금속	19961126	김진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346번길 10
대영소결금속	20080702	김남수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양산대로 2213
대흥R&T	20171226	권정식	경남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436번길 70-25
대흥산업	20061018	이동우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731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창원	19890308	신병건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630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19800515	김종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첨단산업로 3
두원중공업	19800114	정진용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구해창길 20-7
삼성공조	19850404	이정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76
삼우KJS텍	20050115	김승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328
삼우금속	19800607	차재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 53
삼한	19870813	윤삼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84
상농전선	19780828	최영식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9길 6-1
세방전지	19760728	손승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22
세동산업	20180718	손동우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635번길 42
세아창원특수강	19990730	이상철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147
세원셀론텍	19881102	김성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11
세일공업	19880414	김길수	경남 진주시 대곡면 대화로 92
셰플러코리아	19630225	전광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90
수성기체산업	20180618	정석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1144번길 99
스타리온성철	20040625	남원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 29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알코닉코리아	20020324	최해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48
에스텍	20040317	김성종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9길 22
영흥철강	20100511	김병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193
위즈테크	20180809	유재성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54
유니크	19880716	허영복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179번길 90
케이지이에프	20000322	유만봉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50
풍산홀딩스	19870811	감규상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70
하나	20161108	김승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 29
한국경남태양유전 통영공장	19870822	최경식	경상남도 통영시 서송정길 32
한국정상화성	19880704	심문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5길 100
한국제강	□	조용갑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394
한국중천	19870811	최해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2길 26
한국철강	19870810	김동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103번길 12
한국코오베용접	20000617	주종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단지로 97
한국특수전지	20050310	황상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80
한국특수형강	20130118	김동현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공단동길 98
한국항공우주산업	20030922	김인덕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78
한일제관	19870817	박한규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4길 21
한전금속	20180306	김지영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43번길 25

10) 울산.경주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9.09.01.

② 소재지 :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3동 168 7

③ 전화번호 :(052) 276 5880 FAX : (052) 274 9631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남재환	울산알루미늄	2018.11.28..
상임부의장	최용수	큐로	2018.11.28.
부의장겸 사무국장	문부근	동국실업	2018.11.28.
회계감사	장기현	KUM	2018.11.28.
회계감사	조정식	국일인토트	2018.11.28.

⑤ 울산경주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DIC	19850607	허문근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농공길 8
KAC전장기업	20180501	이영정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산업로 76
KUM	20171205	장기현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양등농공길 17
LS-Nikko동제련	19830321	박성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148
NVH.KOREA	20010515	정대석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안길 44
고려아연	19771015	조대형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
국일인토트	20030515	조정식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탑걸길 17
대경기계기술	20080101	최용수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 (부곡동)
대주코레스	20141021	권대우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길 84-64
동국실업	19960628	문부근	울산광역시 북구 효자로 133 (연암동)
동희산업	19870812	노현돈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675 (황성동)
마이테크	20080221	장길용	울산광역시 남구 납도로 110 (여천동)
명화공업	19991115	노경택	울산광역시 남구 사평로 211 (부곡동)
스타리온일우	20180503	남호진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1길 56
영풍기계	20170228	유상업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공단길 165
울산알루미늄	19780803	허진구	울산광역시 남구 부두로 393 (여천동)
조선선재온산공장	20020306	김영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2길 34-13
풍산	19870725	이준덕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호국로 2606-10

11) 대구.경북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1. 1. 10.

②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32 근로자종합복지관 4층

③ 전화 번호 : (053) 570 7071 FAX : (053) 570 7079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김수환	카펙발레오	2017.02.16
수석부의장	박칠규	에스엘	2017.02.16
지도위원	신석곤	평화산업	2017.02.16
지도위원	김동준	평화발레오	2017.02.16
지도위원	권오탁	삼성제침	2017.02.16
부의장	권태훈	영진	2017.02.16
부의장	김기표	경창정공	2017.02.16
부의장	김세흥	삼익정공	2017.02.16
부의장	김해용	화신	2017.02.16
부의장	이기남	이수페타시스	2017.02.16
부의장겸사무국장	황성원	대철	2017.02.16
회계감사	김정식	동원파이프	2019.02.22.
회계감사	권영동	아세아텍	2019.02.22.

⑤ 대구.경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AST	20071204	윤재욱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2산업단지2길 182
AMS	20190213	이지모	경북 경산시 자인면 금박로 95(읍천리)
HSL일렉트로닉스	20050831	이종하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0
KBWS	20151215	이선희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33길 10
THN	19890227	김태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71길 43
건화트렐러보그	20020223	김태진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5길 33
경창산업	19850720	김성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35길 6 (월암동)
경창정공	19880909	김기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258 (장동)
구영테크	20070117	제창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39길 119
금오EMS	20180614	정재식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대로4길 46
금용기계	19900324	이상만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7길 57
남선	20030425	손성호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효령공단길 14-5
남선알미늄	19680825	최화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88
남양금속	19881109	장득학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53길 20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대동금속 제1	20181017	김홍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02
대리정밀	19880714	방상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117길 2
대철	19700226	황성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36안길 5
대한소결금속	19881021	김효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87길 43
대호에이엘	20021002	남기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동원파이프	19890315	김정식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6길 28 (이현동)
모토닉	19871021	김상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30 (신당동)
산도브레이크	19910410	윤장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438
산도테크	19910410	남영찬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1길 7
삼성제침	19910527	권오탁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256
삼익THK	19870818	박기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163 (월암동)
삼익정공	19890816	김세흥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남로32길 39
상신정공	20131024	신 달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길 71-9
성진포머	20170331	이상식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79 (호산동)
세명기업	19750619	조인수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 20
세왕금속	19870827	양명선	경상북도 영천시 망정1길 209
세원물산	19870828	손광희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길 53 (도남동)
세원이엔아이	20011026	예병진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길 53 (도남동)
세원정공	20011025	이정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4 (신당동)
신영	19841026	박남규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공단길 39 (본촌동)
아세아텍	19870615	권영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96길 11
아진산업	19810721	김경규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 171
에스엘	19680618	박칠규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77
에스엘라이팅	19910410	정의철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공단로 32 (검단동)
에스엠텍	20130803	김성진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240
영진	19851115	권태훈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산단로 53 (채신동)
이수페타시스	19890420	이기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53길 36
일지테크	19890201	김민철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 50
체시스	19920618	최상수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일연로 528
카펙발레오	19731130	김수환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 113 (호산동)
케이디에스	20030127	서정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8로26길 35
타이코AMP	19891101	박기성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1로 68
평화CMB	20110413	박영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29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평화ENG	20110531	안병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11
평화기공	20110408	박병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95
평화발레오	19890128	김동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236 (장동)
평화산업	19750410	신석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97
평화오일씰	19781014	이상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51길 42
평화정공	19880920	허도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392
피엔디티	20140501	윤광열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산단로 92 (채신동)
한국OSG	20170222	이동기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109길 38 (호산동)
한국댓와일러	20141119	박응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15길 26
한국신동공업	19920610	조영혁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87길 16
화신	19880504	김해용	경상북도 영천시 언하공단1길 14 (언하동)
화신정공	20020425	이광우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3길 96 (도남동)
화신테크	19880429	이희찬	대구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중앙대로 1
효림산업	19990409	김원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전지공단길 22-9

12) 구미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93. 11. 15.

② 소재지 : 구미시 공단동 262 2 번지

③ 전화번호 : (054) 465 3643 FAX : (054) 464 3643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 출 일 자
의장	배준호	매그나칩반도체 구미지부	2016.07.13.
부의장	김상일	새로닉스	2016.07.13.
사무국장	정동민	효성TNS	2016.07.13.
회계감사	이문희	클레스트라하우저만	2016.07.13

⑤ 구미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KEC	20110701	이준한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41 (공단동)
LG이노텍	19870814	김동의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221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LIG넥스원	19870817	신현범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354-25)
SK실트론	19890105	한창욱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3로 132-11
노벨리스코리아	19950715	권국진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공단로 23 (적서동)
효성TNS	20100805	정동민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179-15
새로닉스	19740611	김상일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9길 36 (공단동)
엘링크링거	20141001	복명진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10길 23-7
영풍석포제련소	19770131	강철희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부길 16
일성기계공업	19820903	손진명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7길 58-27
존슨콘트롤즈델코배터리	19870819	김상희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13 (황상동)
클레스트라하우저만	19890224	이문희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20 (황상동)
태평양금속	19880726	김수문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92 (공단동)

13) 포항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91. 11. 23.

②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번길 26 근로자복지관 204호

③ 전화번호 : (054) 283 3728 FAX : (054) 283 3729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정상준	TCC한진	2018.01.17
사무국장	이수출	유일	2018.01.17
회계감사	조영철	대동산업	2018.01.17
회계감사	정춘식	흥화	2018.01.17

⑤ 포항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TCC한진	19830402	고경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
그린산업	19880701	장호용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로 13-2
대동산업	20090213	조영철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 115
대호P&C포항공장	19890701	박규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서원재로 44 (호동)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동일기업	19880704	이기목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 104 (대도동) 3층
동일산업 봉강사업부	20170904	강준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11 (장흥동)
동일산업 합금철사업부	19960321	공재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112 (장흥동)
동주산업	20061114	김삼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66번길 61
동화기업	19890324	김하식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125번길 6
디케이동신	20001228	이문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54 (괴동동)
선화이엔지	20090121	진선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예로 100 3층
성원제강	20000430	김관용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로 206 (호동)
세아제강	19740311	이종욱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136 (장흥동)
세아특수강	19890321	임성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40 (장흥동)
쏠라이트	20040821	남현진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용명공단길 183-12
아진카인텍	20111128	권병욱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갠버불길 148-6
에어릭스	19910130	최호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66번길 10
영신정공	19890421	장복이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모아오야길 156
유일	20000408	이수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62번길 4-1
장원	20070521	김영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985 (해도동)
제일테크노스	19890808	김성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로39번길 7
조선선재	19881210	조석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43 (장흥동)
코스틸	19880424	정삼복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동로 35 (호동)
포스코	20181106	김인철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6213번길 15-15
포스코케미칼	19880629	황성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서원재로 7 (호동)
플랜트건설	20080917	이창언	경북 포항시 남구 운하로 108 (송도동) 2층
피씨엠	20050127	서영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126 (대도동)
한금	19901205	이성용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산단로 240
현대성우캐스팅	19890610	정천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 459 (장흥동)
현대종합금속	19870819	김동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00 (장흥동)
흥화	19870825	정춘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209 (괴동동)

14) 광주.전남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0. 12. 30.

②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 94-7 임동근로자복지관2층

③ 전화번호 : (062) 381 8581 FAX : (062) 381 8672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최정열	동부대우전자민주	2016.11.01.
부의장	이주행	한국신광전자	2016.11.01.
부의장	신정훈	한국알프스	2016.11.01.
부의장	박옥경	성암산업	2016.11.01.
사무국장	정관	대유에이텍	2016.11.01.
회계감사	이재천	D.S.R제강	2016.11.01.
회계감사	김현철	서진산업	2016.11.01.

⑤ 광주. 전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DSR제강	19850617	이재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산단1길 15
SNNC	20171025	백성완	전남 광양시 중마용소6길 9 (중동)
건우	19960529	조인관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로 240
광양로행복	20171222	양기만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85
대경기계기술여수	20120831	정태수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243 (월하동)
대우전자	19830402	김광섭	광주 광산구 용아로 559 (장덕동)
대유에이텍	20001214	정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23번길 40-12
대유홀딩스	20160811	권철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23번길40-15
동부대우전자민주	20110704	노동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559 (장덕동)
무창	20181015	임성근	전남 광양시 중동 1881-7 (항만9로 128)
부국산업	19881101	김재호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2148-97 (금호동)
서암기계	19990708	김수복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27-15
선우ENG	20171010	신정수	전남 광양시 금호로 396
성암산업	19881123	박옥경	전라남도 광양시 산업로 1 (태인동)
세강산업	20190114	김재식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로 30
세방산업	20060306	박거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236 (하남동)
세아M&S	20091012	박상복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중앙로 188 (화치동)
아륭기공	19870811	정홍원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담순로 48
여수해양	20090311	문상열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추길 54
캠스	20020406	김홍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30
코아월드	20131217	장준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47
코아정밀	20131217	조영훈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47
포스코엠텍	19890208	이현길	전라남도 광양시 희망길 12-14 (금호동) 제철협력회관 4F B동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포스코플랜텍	20030805	정정섭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4길 2 (태인동)
한국신광전자	19891127	이주행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산단1길 32

15) 전북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96. 4. 10.

②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산북동 3601-3

③ 전화번호 : (063) 465-4875 FAX : (063) 465-4876

④ 임원명단

직위	성 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김태완	세아베스틸	2016.08.01.
부의장	박정욱	캐스코	2016.08.01.
사무국장	김학송	대유글로벌	2016.08.01.
회계감사	한근배	두산전자익산지부	2016.08.01.
회계감사	김호연	가온전선전주지부	2016.08.01.

⑤ 전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KCTF	20180228	최영진	전북 정읍시 북면 3산단2길 2
대우전자부품	19750516	이중찬	전라북도 정읍시 공단2길 3 (망제동)
대유글로벌	19991101	김학송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4로 133
동양정공	20010223	남석구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8로 66
세아베스틸	19660506	김태완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522 (소룡동)
엘에스엠트론	20080701	어진호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86
유신정밀	20180416	조장세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10 (오식도동)
일진제강민주	20160103	이민영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46
타모스	20180314	김준규	전북 군산시 동장산로 130-18 (소룡동)
캐스코	20050816	박정욱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3산단1길 24

16) 강원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2003. 2. 20

②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11-6 공업단지 한일전기 내

③ 전화번호 : (033) 744-6658 FAX : (033) 746-4120

④ 임원명단

직위	성 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석승희	한일전기	2016.09.
부의장	이종상	토다이수	2016.09.
사무국장	엄태욱	오토리브	2017.10.
회계감사	용석태	신일정밀	2018.11.

⑤ 강원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속초지역	19700126	전용원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201 (교동)
신일정밀	20001213	용석태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582 (입암동)
오토리브	19920315	엄태욱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02
토다이수	19930714	이종상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36
한일전기	19751021	석승희	강원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10 (우산동)

나. 지부현황

조직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LG전자구미지부	20020202	유정종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77
LG전자창원1지부	19630505	김진성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 170
LG전자창원2지부	19880122	하영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84
LG전자청주인천지부	19980701	김태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971번길 93
LG전자평택1지부	19630530	김영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엘지로 222
LG전자평택2지부	19980123	윤영식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엘지로 222
LGDisplay구미지부	20050701	채근욱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2로 235
가온전선전주지부	20050223	김훈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77
세아FS광주지부	19960322	안태술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126
테크팩솔루션광주지부	20140130	김용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736

조직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프라코아산지부	19980327	김자운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30번길 55
대한제당울산지부	19900213	형환우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457 (용잠동)
동국제강당진지부	20120101	김성곤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1길 25
동국제강부산지부	19770212	박성균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102 (감만동)
동국제강신평지부	19901017	윤성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76 (신평동)
동국제강포항지부	19901017	하상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 195
서진산업경주지부	20010501	김진동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2산단로90
서진산업광주지부	19990626	김현철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3번로 121 (옥동)
서진산업화성지부	19910710	안광호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454
대한전선기기&시공지부	19760615	정지래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보덕포로 542
동양철관충주지부	19910126	황동현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415 (용탄동)
세명테크노동조합익산지부	20171204	이안섭	전북 익산시 석암로7길 137 (팔봉동)
휴스틸대불지부	□	강병채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3로 150
LS산전천안지부	19870727	이신선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4길 56
두산전자김천지부	20090901	정갑성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1길 83-16 (대광동)
두산전자익산지부	19870820	한근배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627 (팔봉동)
매그나칩반도체구미지부	19900209	배준호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375 (임수동)
현대모비스용인지부	20090301	김순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240번길 17-2
한국주철관포항지부	19890117	강종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신항로 86 (청림동)
세방전지광주지부	19891216	기세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287 (하남동)
셰플러코리아전주지부	19890320	양희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7
한일제관대전지부	20060817	최진석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50
한일제관음성지부	19870817	안재근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하이텍산단로 84
KUM충주지부	20171127	이상호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기업도시2로 47
명화공업안산지부	19970228	백선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65 (원시동)
풍산동래지부	19881205	박동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230 (반여동)
풍산안강지부	19870725	안효진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호국로 2606-10
풍산울산지부	19870725	신재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94
풍산특금지부	19870816	박용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157 (효성동)
LG이노텍광주지부	20040701	감동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26 (장덕동)
LG이노텍구미지부	19870814	김동의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221 (구포동)
LG이노텍오산지부	19710514	장대식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97 (가수동)
LG이노텍청주지부	19630530	안병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971번길 93

조직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LG이노텍파주지부	20090701	김하장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휴암로 570
포스코노동조합광양지부	20181106	이성재	전남 광양시 백운로 1638-11 백운메디컬센터 401호
포스코케미칼광양지부	19880629	신용수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1로 48 (태인동)
한금양산지부	19901231	박기원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89 (유산동)

다. 신규조직 현황

번호	본부	조직명	대표자	설립일자	주 소
1	경기	국민정밀	20190313	한영탁	경기 부천시 신흥로402번길 45 (내동)
2	경기	두원정공	20180529	정춘식	경기 안성시 대덕면 만세로 21-5
3	인천	대우전자사무직	20180301	강용석	광주 광산구 용아로 559 (장덕동)
4	안산	서울반도체	20180716	박정훈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63번길 97-11
5	충남	동해기계항공	20181118	김태환	충남 공주시 신풍면 고도평말길 175(산정리)
6	충남	삼광글라스 천안캔공장	20181024	하형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망향로 1112-84
7	충북	HL그린파워협력사	20180624	한훈희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기업도시1로 69
8	충북	일본전산리드코리아	20180222	이선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6번길 67 (봉명동)
9	충북	현대모비스충주협력사	20180421	원종민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기업도시1로 47
10	부산	부산지역금속일반	20181127	황대선	부산 연제구 연수로 86 (연산동)
11	부산	스타리온기원	20180612	문동우	부산 금정구 동대로 34-23 (회동동)
12	부산	시퍼스파이프라인	20180517	김성운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6로54번길 20
13	부산	일본해사협회한국	20170701	이창원	부산 중구 중앙대로 45 (중앙동2가) 302호
14	경남	세동산업	20180718	손동우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635번길 42 (안동)
15	경남	수성기체산업	20180618	정석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1144번길 99
17	경남	위즈테크	20180809	유재성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54 (남산동)
18	울경	KAC진장기업	20180501	이영정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산업로 76
19	울경	스타리온일우	20180503	남호진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1길 56
20	대구	AMS	20190213	이지모	경북 경산시 자인면 금박로 95(읍천리)
21	대구	금오EMS	20180614	정재식	대구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대로4길 46
22	대구	대동금속 제1	20181017	김홍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02
23	대구	한국OSG	20170222	이동기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109길 38 (호산동)
24	구미	오성전자	20180702	권경찬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335-4 (공단동)
25	구미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인더스트리얼	20180801	김동한	경북 구미시 3공단2로 238 (진평동)
26	포항	포스코	20181106	김인철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6213번길 15-15

27	포항	포항지역플랜트건설	20080917	이창언	경북 포항시 남구 운하로 108 (송도동) 2층
28	광전	GSDK	20181106	차귀은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2로 23
29	광전	광양로행복	20171222	양기만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85
30	광전	광주일반	20180309	최정열	광주 북구 서림로 94-7 (임동)
31	광전	무창	20181015	임성근	전남 광양시 중동 1881-7 (항만9로 128)
32	광전	세강산업	20190114	김재식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로 30
33	전북	KCFT	20180228	최영진	전북 정읍시 북면 3산단2길 2
34	전북	유신정밀	20180416	조장세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10 (오식도동)
35	전북	타모스	20180314	김준규	전북 군산시 동장산로 130-18 (소룡동)

라. 대표자변경 조직 현황

노동조합명	대 표 자		대표자 변경일자	대회 구분
	신	구		
경기지역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화성	박기규	유성준	19.03.01	정기대회
베올리아워터코리아	윤종근	노용성	19.04.01	정기대회
일진전기전선사업부	강철선	지남용	18.08.20	정기대회
프라코	김석준	김기연	18.08.01	정기대회
한국키스톤발부	김한기	박명규	18.07.08	정기대회
한국기가포톤	김지민	유온규	19.04.05	정기대회
인천지역				
한국지엠사무직	오용환	김현남	18.06.	위원장선거
신한다이아몬드공업	김종호	조명선	18.07	위원장선거
AFT	송병철	정운일	18.10	위원장선거
안산시흥지역				
포레시아코리아	김현식	유원기	18.07.01	정기대회
대풍공업	장정식	김동언	19.01.01	정기대회
유텍솔루션	이진구	박권구	18.10.10	정기대회
동부전자소재	이종승	박용수	18.09.18	정기대회
충남지역				
동일알루미늄	이진호	문상열	19.02.01	정기총회
오스템	정동준	두병비	19.01.01	정기총회
코리아휠	황호경	유인규	18.01.01	정기총회
두원공조	김태선	정덕순	28.11.31	정기총회

노동조합명	대 표 자		대표자 변경일자	대회 구분
	신	구		
충북지역				
갑을메탈	정원호	김광희	18.10.13	정기총회
금화소재	김숙화	김근란	18.11.01	정기총회
로얄테크	박홍일	전태윤	18.06.01	정기대회
현대성우메탈	최창수	엄기호	19.01.01	정기총회
인지컨트롤스	이상현	정찬이	19.01.22	정기총회
ANS전자저울	이창휘	박남서	17.12.01	정기대회
경남지역				
삼성공조	이정희	변기섭	18.03.28	위원장선거
한국철강	김동원	김회봉	18.10.11	위원장선거
STX중공업	신재중	장세명	18.11.09	위원장선거
한국항공우주산업	김인덕	류재선	18.11.27	위원장선거
덴소코리아창원	신병건	이희기	19.01.23	위원장선거
대동기어	김진희	김대용	19.01.25	위원장선거
한국특수형강	김동현	홍연국	18.10.16	위원장선거
대구경북지역				
효림산업	김원	장병관	18.10	임시총회
남양금속	장득학	이상기	18.11	정기총회
에스엘라이팅	정의철	김채민	19.01	임시총회
일지테크	김민철	나영섭	19.01	임시총회
구영테크	제창희	배광수	19.02	임시총회
포항지역				
노벨리스코리아	장만덕	권국진	19.03.14	위원장선거
포항지역				
TCC한진	고경호	정상준	18.12.13	위원장선거
DK동신	이문규	황영수	19.01.01	위원장선거
세아특수강	임성수	박순덕	19.02.01	위원장선거

마. 해산 및 이탈조직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탈퇴일자	이탈사유	조합원수
경기지역				
이젠텍	박정근	2018.06.30	집행부전원사퇴,마비	104
제이케이퍼니처	김윤수	2019.02.15	노동조합해산	6
충남지역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홍성	박종화	2018.12.31.	의무금 미납,제명	50
우영산업	김정국	2019.02.01.	상급단체 변경	150
부산지역				
한국선재	강대후	2018.07.30	노동조합해산	80
한일스틸	정석금	2018.07.01	노동조합해산	10
대구경북지역				
전우정밀	박종원	2019.01.25	상급단체변경	24
전북지역				
아이에스테크	이석산	2018.11.14	회사폐쇄	24

바. 연도별 조합원 증감현황

(2019.3.현재)

구분 \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조직체수		480	466	438	430	486	488	484	483	496	524
조합원수	남	79,804	80,405	85,758	90,824	96,761	101,008	100,300	102,506	104,329	117,325
	여	27,093	26,399	22,420	17,556	30,622	26,088	30,460	30,582	30,950	33,923
	계	106,897	106,804	108,178	108,380	127,383	127,096	128,905	133,044	135,279	148,275
조합원증감		+3,468	-93	1,374	202	19,003	-287	+1,809	+4,139	+2,235	+12,996명
조직체증감		+7	-14	-28	-8	+56	+2	-4	-1	+13	+28

사. 조직확대 우수본부상 수여

지역본부 조직확대 우수본부상 수여

단위노조와 연맹의 허리의 역할을 하며 가장 중심인 지역본부의 동기부

여와 활동에 힘을 불어넣어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본부상을 수여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처음 시작으로 우수본부상 수여기준은 신규노조 설립에 가장 큰 핵심이며 신규노조를 설립하여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본연의 목표와 가치를 두고자 함이 가장 중요포인트이다.

** 지역본부에 수여되는 우수본부상 평가기준
1. 지역본부별 신규가입과 소멸조직수를 통계
2. 지역본부별 신규가입조합원과 소멸조직의 조합원 통계
3. 신규와 소멸조직 통계수에 아래의 점수를 부여
4. 3년 통계하여 계산함.

- 신규가입후 의무금 납입(5점)
- 상급단체변경후 가입(5점)
- 신규가입후 의무금납입 안 함(3점)
- 재가입(3점)
- 복수노조로 신규가입(2점)

연도별 조직 확대 우수본부상 수상내역

년 도	지역본부명	평가점	비 고
2016년	충북	25	
2017년	서울	32	
2018년	경남	25	

2. 투쟁사업장 현황

가. 조정신청 등 분쟁사업장 현황

본부	노조명
서울	농협사료,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오티스엘리베이터
경기	ASE코리아, 썬코어, 일진전선, 리한, 로얄앤컴퍼니, 삼영전자, 에이엔피, 하나모듈, 한국키스톤발부, 핸즈식스
안시	남양공업,아이아, 서울반도체, 영흥철강진, TRW, 명화공업안산
인천	한국GM사무직
대전	한일제관 대전지부
충남	동부제철, 세명테크, 우영산업, MEMC코리아, 휴스틸
충북	현대모비스충주협력사, 인지콘트롤즈
부산	시퍼스파이프, 스타리온기원, 일본해사협회한국
경남	대영소결금속, 세일공업, 한국특수형강, 한일제관, KAI, STX중공업
울경	명화공업
대경	타이코에이엠피, 전우정밀, 효림산업
구미	영풍석포제련소, 오성전자
포항	동일기업, 한금, 현대종합금속
광전	SNNC, 성암산업
전북	LS엠트론
강원	오토리브

나. 투쟁사업장현황

지역	노조명	쟁점	투쟁내용
서울	오티스엘리베이터	임단협결렬	(부분)파업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외주화, 교섭권분리	집회
경기	로얄앤컴퍼니	임단협결렬,위원장해고	집회, 전면파업
	삼영전자	임단협 결렬	출퇴근 투쟁
안산시흥	남양공업	임단협결렬,해고	출퇴근투쟁, (부분)파업
	아이아	사업권반납 및 정리해고	준법투쟁, 전면파업
	TRW	임단협결렬	(부분)파업
인천	한국GM사무직	법인분리/복수노조	-
충남	동부제철	임단협	츨퇴근투쟁
	MEMC	임단협	중식집회
	우영산업	임단협결렬	준법투쟁, 부분파업
경남/대전	한일제관	외주화	집회(본사)
부산	스타리온기원	이전, 법인분리	-
구미	영풍석포제련소	임단협결렬	출퇴근투쟁
포항	한금	임단협결렬	출퇴근투쟁
	동일기업	임단협결렬	출퇴근투쟁
	현대종합금속	임단협결렬	출퇴근투쟁
광주전남	성암산업	사업권 반납	준법투쟁
	SNNC	임단협 체결	전면파업
전북	엘에스엠트론	분할매각	집회
강원	오토리브	구조조정/정리해고	전면파업

-

다. 로얄앤컴퍼니

(1) 노조개요

- 명칭 : 로얄앤컴퍼니 노동조합
- 대표자명 : 문성식
- 조합원수 : 71명
-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2) 주요쟁점

- 2018년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 타임오포
- 노동조합 위원장 부당해고 및 근로자 지위
- 조합원 체불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일부 미지급)

(3) 진행상황

- 2018년 05월 15일 : 로얄앤컴퍼니 노조 위원장 징계 해고, 교섭 및 체결권 위임
- 2018년 05월 17일 :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 2018년 07월 16일 : 경기지노위 심문회의 개최, 부당해고 인정
- 2018년 07월 27일 : 제1차 단체교섭 노사 교섭 위원 상견례
- 2018년 08월 09일 : 제2차 단체교섭
- 2018년 08월 16일 : 제3차 단체교섭 (제1차 실무교섭)
- 2018년 08월 23일 : 제4차 단체교섭 (제2차 실무교섭)
- 2018년 08월 30일 : 제5차 단체교섭 (제3차 실무교섭)
- 2018년 09월 07일 : 제6차 단체교섭 (제4차 실무교섭)
- 2018년 09월 14일 : 제7차 단체교섭 (제5차 실무교섭)
- 2018년 09월 27일 : 제8차 단체교섭 (제6차 실무교섭)
- 2018년 10월 12일 : 제9차 단체교섭
- 2018년 10월 26일 : 제10차 단체교섭
- 2018년 10월 29일 : 노동쟁의 조정 신청

- 2018년 11월 19일 : 경기지노위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
- 2018년 11월 29일 : 중노위 재심판정회의 개최, 초심 유지 결정
- 2018년 12월 04일 : 2시간 부분파업, 총파업 출정식 개최, 노조 위원장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 2018년 12월 18일 : 4시간 부분파업, 조합원 교육 실시
- 2018년 12월 24일 ~ 12월 26일 : 파업, 서울사무소 앞 집회 개최
- 2019년 01월 07일 : 임금청구의 소 제기
- 2019년 01월 16일 : 수원지방법원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인용
- 2019년 02월 11일 ~ 03월 29일 : 교섭권 위임 중단 후 자체 교섭

(4) 현상황

- 2019년 3월 29일 노사 합의
- 노조 위원장 4월 1일자 복직, 타임오프 조합원수 비례하여 인정
- 조합원 기본급 최저 160만원 이상으로 조정, 상여금 생산장려수당으로 명칭 및 지급 방법 변경

라. 일본해사협회

(1) 노조개요

- 명　칭 : 일본해사협회 노동조합
- 대표자명 : 이창원
- 조합원수 : 51명
- 지역본부 : 부산지역본부

(2) 주요쟁점

- 신규조직으로 2018년도 단체협약 체결 및 임금인상

(3) 진행상황

-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 총 12차례 단체교섭 진행
- 2018년 5월 11일 : 교섭부진에 따른 상급단체(금속노련) 가맹 결정 및 쟁의행위

찬반 투표 실시, 조합원 50명중 32명 투표, 찬성 31명

- 2018년 8월 14일 :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에 위임
- 2018년 08월 24일 : 부산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1차), 조정 쟁점일부에 대한 합의로 조정신청 취하 후 위임교섭 실시
- 2018년 10월 05일 : 부산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2차), 조정중지 결정
- 2018년 11월 01일 : 파업, 회사앞 총파업 출정식
- 2018년 11월 08일~09일 : 파업, 회사앞 총력투쟁 결의대회
- 2018년 11월 12일~2019년 01월 07일까지 위임 교섭 실시
- 2019년 01월 252일 : 단체협약(신규) 체결

(4) 현상황

- 단체협약 체결(신규) 및 임금인상 합의

마. SNNC

(1) 노조개요

- 명　칭 : SNNC 노동조합
- 대표자명 : 백성완
- 조합원수 : 66명
-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2) 주요쟁점

- 신규조직으로 2018년도 단체협약 체결 및 임금인상

(3) 진행상황

- 2017년 12월 5일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 총 5차례 단체교섭 진행하였으나 교섭렬로 노동쟁의 조정신청
- 2018년 02월 05일 : 근로시간면제자 및 시간 인정, 노조사무실 및 비품 제공, 징계철회 등 합의 후 조정 취하
- 2018년 02월 20일부터 04월20일까지 총 11차례 실무교섭, 2차례 본교섭(본교섭

7차) 진행하였으나 교섭결렬로 노동쟁의 조정 신청

- 2018년 05월 11일 : 근무형태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 등 합의 후 조정 취하
- 2018년 06월 21일 : 단체협약(신규) 체결
-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2018년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 결렬, 조정중지결정
- 2018년 10월 30일 : 쟁의행위 신고서 제출
- 2018년 11월 02일 : 파업, 회사앞 총파업 출정식
- 2018년 11월 03일 :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4) 현상황

- 단체협약 체결(신규) 및 임금인상 합의

바. 성암산업

(1) 노조개요

- 명　칭 : 광양지역기계운수노동조합
- 대표자명 : 박옥경
- 조합원수 : 150명
-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2) 주요쟁점

- 포스코 사업권 반납 및 임단협

(3) 진행상황

- 2017년 교섭시 사측 포스코에 사업권 반납 및 임금동결 주장, 노조측 집회 및 기자회견, 회사 정문앞 천막농성 및 쟁의행위(준법투쟁)로 대응

(4) 현상황

- 사업권 반납에 관한 포스코 중재 합의, 임단협 체결,
- 사측 사업권 반납을 이유로 2019년 임금교섭 분쟁

사. 아이아

(1) 노조개요

- 명　칭 : 아이아 노동조합
- 대표자명 : 김광섭
- 조합원수 : 217명
- 지역본부 : 안산시흥지역본부

(2) 주요쟁점

- 사업권(방진) 반납 및 정리해고

(3) 진행상황

- 2018년 6월 회사측 교섭과정에서 적자를 이유로 방진사업권 반납 및 50여명 구조조정(정리해고) 의사 피력
- 2018.06.09. : 노동동쟁의 조정 신청
- 2018.07.04. : 노동쟁의 조정회의(3차) 조정중지 결정
- 2018.07.07. : 총파업 출정식 및 쟁의행위(파업) 돌입
- 2018.07.11. : 장점합의안 찬반투표 가결, 총조합원수 217명, 투표자수 207명, 찬성 143, 반대54, 기권 10

(4) 현상황

- 방진사업권 반납 및 구조조정 철회, 2018년 임단협 체결

아. TRW

(1) 노조개요

- 명　칭 : TRW 노동조합
- 대표자명 : 강한구
- 조합원수 : 137명
- 지역본부 : 안산시흥지역본부

(2) 주요쟁점

- 2018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갱신) 체결

(3) 진행상황

- 2018년 임단협교섭에서 회사측 적자를 이유로 임금동결 주장, 노조 교섭결렬후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결정
- 2018년 9월 17일부터 9월19일까지 쟁의행위(부분 파업)
- 2018.09.20. :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총조합원수 137명, 총투표자수 122명, 찬성 82명, 반대 40명

(4) 현상황

- 2018년 임단협 체결

자. 오토리브

(1) 노조개요

- 명　칭 : 오토리브 노동조합
- 대표자명 : 엄태욱
- 조합원수 : 221명
- 지역본부 : 강원지역본부주요쟁점

(2) 중요쟁점

- 2018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갱신) 체결

(3) 진행상황

- 2018년 단체교섭중 조합원 167명 인력 감축 계획 발표, 3년내 정리해고를 포함한 인위적 구조조정 피력
- 노조 2018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면 파업

(4) 현상황

- 인력감축, 구조조정 철회, 임금 인상 합의

<2018년 10월 20일 노사합의 중요 내용>

- ✓ 원주공장 유지, 노조와 합의 없이 구조조정(인력감축) 할 수 없다
- ✓ 2022년 이후 신규 차종 수주에 노사 공동 노력, 수주 완제품 전량을 원주공장에서 생산한다.
- ✓ 신기술(신규 아이템) 적용 수주 및 원주공장 생산 전략을 추진한다.
- ✓ 원주공장의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가 긴밀히 협력한다.
- ✓ 원주공장 조합원의 기본급을 3% 인상한다.
- ✓ 일시금으로 조합원 1인당 350만원을 지급한다.(쟁의행위기간 임금 대체 포함) 등

국제연대활동

1. 국제회의 및 해외초청 ····· 313
가. 베트남 산업통상노조 교류회의 ····· 313
나. 일본 JCM정기대의원대회 참석 ····· 313
다. 한일금속노조 정기교류회의 ····· 314

2. 기타 국제 활동 ····· 316
가. 한국노총 회원조합 국제담당자 워크숍 ····· 316
나. ILERA 세계대회 한국노총 국제포럼 참석 ····· 316

평가 및 개선방향

2018년 8월에는 금속노련-베트남 산업통상노조 교류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양 조직은 2015년과 2016년에는 정식교류를 위한 준비단계를 거쳐 2017년 정식으로 교류를 진행한다는 MOU를 체결했다. 앞으로도 금속노련은 베트남 산업통상노조와의 교류를 통해 정치 경제 노동현황과 노동권 향상 등을 논의하고 국제 연대강화를 힘있게 모색할 계획이다.

2018년 9월에는 일본 JCM 정기대의원대회에 축하 참석했다. 양 조직간 축하 사절을 보냄으로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국제 노동분쟁에서 상호 연대할 수 있는 연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타조직이 대의원대회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떠한 주제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지 최신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2018년 11월에는 한일금속노조 정기교류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교류회의는 업종별을 제외한 고위급회담만 개최됐으며 양국의 정세전망과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에는 한일금속노조 정기교류회의가 한국에서 고위급회의와 업종별 회의로 나뉘어 개최될 예정이므로, 논의할 주제를 신중히 정하고 성공적인 교류회의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2019년 6월에는 베트남 산업통상노조와의 정기교류회의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다. 정기교류회의가 양국의 발전과 노동자의 기본권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아젠다를 설정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금속노련이 가맹한 국제통합제조노련 활동을 유심히 관찰하여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경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1. 국제회의 및 해외초청

가. 베트남 산업통상노조 교류회의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 일시 : 2018년 8월 27일 ~ 31일

❍ 장소 : 대한민국 서울

❍ 참석자

-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 김해광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
-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 김영미 금속노련 정책본부장
- 나병호 금속노련 노사대책부장
- 박강원 금속노련 홍보부장

2) 회의내용

- 양 국가의 정치 경제 노동현황
- 양 조직 소개
- 한국의 외국인 노동정책
- 베트남의 인력수급 베트남진출기업 현황

나. 일본 JCM정기대의원대회 참석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 일시 : 2018년 9월 3일~5일

❍ 장소 : 일본 도쿄

❍ 참석자 :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금속노련 박강원 홍보부장

2) 회의 일정

❍ 9월 3일 (수) 환영만찬

❍ 9월 4일 (목) JCM대회 참석

❍ 9월 5일 (금) 귀국

3) 방문 목적 및 논의사항

❍ 목적 :

- 한.일 양국간 노동조합간 상호 친선 도모와 노동운동 연대를 강화하여 양국 노동자의 권익수호와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57차 JCM 정기대회에 참석하고자 함

다. 한일금속노조 정기교류회의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 일시 : 2018년 10월 29일(월) ~ 31일(수)

❍ 장소 : 일본 도쿄

❍ 참석자

-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 김해광 금속노련 수석위원장
-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 김용안 금속노련 서울지역본부 의장
- 김영미 금속노련 정책본부장
- 나병호 금속노련 법규안전부장

- 박강원 금속노련 홍보부장
- 정란홍 금속노련 두올아산노동조합 위원장

2) 회의내용

- 양국의 정세와 전망
- 인더스트리올 가맹조직간 연대
- 한일 다국적기업 노동조합 간 연대 및 교류
-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과 교육계획/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

3) 회의 일정

❍ 2018년 10월 29일 (월)

- 12:10 한국대표단 김포공항 출국(하네다공항 도착 숙소로 이동)
- 18:00~21:00 환영만찬

❍ 2018년 10월 30일 (화)

- 07:00~09:00 조식(호텔 뷔페)
- 09:00~12:00 한일 금속 고위회의(장소: 일본 도쿄 자동차총련 회의실)
  의제1 : 양국의 정치 경제 노동정세 및 과제
- 12:00~14:00 점심식사
- 14:00~17:00 한일 금속 고위회의(장소: 일본 도쿄 자동차총련 회의실)
- 의제2 : 인더스트리올 가맹조직간 연대
- 의제3 : 한일 다국적기업 노동조합간 연대 및 교류
- 의제4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과 교육계획/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
- 18:00~22:00 환송만찬

❍ 2018년 10월 31일 (수)

- 19:45 한국대표단 하네다공항 출국

2. 기타 국제 활동

가. 한국노총 회원조합 국제담당자 워크숍

1) 개요

○ 일시 : 2018년 6월 20일~6월 23일

○ 장소 : 베트남 하노이

○ 참석자 : 박강원 홍보부장

2) 일정

○ 6월 20일(수) 공항출국

○ 6월 21일(목) 이주노동 관련 연구기관 간담회, 해외투자기업 노사 관계 발전방안 토론

○ 6월 22일(금) LG전자 하이퐁 캠퍼스 방문 및 노조 간담회

○ 6월 23일(토) 입국

3) 방문 목적

○ 회원조합 간 국제담당자 20여명은 조직별 국제사업을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베트남을 방문하여 간담회 등을 개최함

나. ILERA 세계대회 한국노총 국제포럼

1) 개요

○ 일시 : 2018년 7월 23일(월) 오후2시

○ 장소 : 서울 코엑스 2층 209AB호

○

○ 참석자 : 박강원 홍보부장

2) 포럼내용

○ <발제문1> 최저임금 : 경제발전 정책 도구 - 애널 버마 토론토대 교수

○ <발제문2> 독일과 유럽의 최저임금 - 토마스 에센대 선임연구원

○ <발제문3> 최저임금 제도와 개선 과제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토론문1> 최저임금 적정수준과 임금-고용효과 - 김유선 한노사연 이사장

○ <토론문2> 최저임금 제도 - 이상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법규활동

1. 규약·규정개정 소위원회 ····· 321
가. 규약·규정개정 소위원회 활동 ····· 321
나. 규약개정(안) ····· 322
다. 규정개정(안) ····· 328

2. 단위노조 질의회신 ····· 338
가. 에넥스노동조합 ····· 338
나. 대창단조노동조합 ····· 338
다. 한국항공우주산업노동조합 ····· 339
라. 핸즈코퍼레이션노동조합 ····· 340

3.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 341
가. 근로시간 단축 개정에 따른 연장근로 계산방법 ····· 341

4. 법률 행사 참석 ····· 343
가. 한국노총 법규담당자 워크숍 참석 ····· 343

평가 및 개선방향

최근 규약 및 규정의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규약규정 개정 소위원회가 운영됐다. 2019년 1~2월 회의가 집중적으로 운영됐으며 규약규정 개정 초안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했다. 대의원대회에서 개정안 통과 후 규약 규정집을 신규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에넥스노조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회사가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겠다고 밝혀 근속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대창단조노조는 이전수당, 직책수당, 지게차수당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노조는 국내, 국외 출장 중 발생하는 소요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노사간 이견이 발생했는데 회사는 출장을 위한 준비, 이동시간과 관련하여 노동부내에서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근로시간으로 불인정하며 초과근로수당 및 특근수당 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출장시 근로시간 해당 유무를 물었으며, 핸즈코퍼레이션노조는 창구단일화 관련 교섭대표노조 유지기간에 대해 질의하여 회신했다.

고용노동부에 주52시간 관련 연장노동 해석에 관해 질의를 요청하여 회시를 받았으며, 한국노총 법규담당자 워크숍에 참여하여 인적 교류와 법률적 교류를 하였다.

현재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안 등이 계류중으로 현장에서 법률적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질의회시와 더불어 해당이슈와 쟁점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가맹노조에 제공하여 가맹노조의 법률 지식 향상과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1. 규약·규정개정 소위원회

가. 규약·규정개정 소위원회 활동

1) 활동 목적

- 2014년 규약 및 규정 개정소위원회 운영 이후 규약 및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2018년 7월 개최된 지역본부의장·중집부서장 연석회의에서 규약 및 규정 개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의함
- 2019년 5월 정기대의원대회 제·개정을 목표로 규약 및 규정 개정소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2) 활동 계획

-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본부, 단위노조 등의 규약 및 규정 제·개정 의견 취합 후 중집 부서장들의 검토의견을 포함한 제·개정(안) 작성
- 2019년 1월부터 소위원회 개최 및 개정안 검토
- 2019.1.22 규약·규정개정 소위원회 워크샵 개최
- 2019년 2월까지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규약 및 규정 제·개정(안) 확정
- 2019.2.21 금속노련 중앙위원회에 규약·규정개정 검토안 부의

3) 소위원회 구성

번호	성 명	소 속	지 위	비 고
1	김용안	서울지역본부	의장	
2	남재환	울산·경주지역본부	의장	
3	윤동현	스태츠칩팩코리아	위원장	

4	장영기	PN풍년	위원장	
5	김해광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	
6	김성수	금속노련	조직강화본부장	
7	김영미	금속노련	정책기획본부장	
8	박선자	금속노련	총무실장	
9	나병호	금속노련	법규안전부장	

4) 의견 취합 결과

- 2019년 1월 8일 발송한 '금속노련 규약 및 규정 개정 의견 제출 요청의 건'에 공문에 대해 1개 노조(평화정공)의 의견 제출이 있었음.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56조 (회계연도)	금속노련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말까지로 한다.	금속노련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대의원대회가 개최되기 이전의 예산은 전년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다.	미기재

나. 규약개정(안)

1) 소위원회 검토 의견

- 현실에 맞게 문구수정 및 삭제

- 중앙위 관련 규약 제28조[임시소집]은 법에 맞게 정비
- 제43조[사무처]는 규정으로 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위해 탄력적 운영 보장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7조[사업] 금속노련은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한다. <생략> 7. 산업민주화 촉진에 관한 사항 8. 사용자단체와의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1.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사업] 금속노련은 - 진행한다. <생략> 7. 경제민주화 촉진에 관한 사항 8. 사용자단체와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1. 삭제 11.여성노동자 지위향상과 사회적평등 실현에 관한사항(신설)	용어 변경 노사협의회 삭제 공제사업 현실적 사업불가, 여성 사업전개 필요
제12조[가맹의 절차] 금속노련에 가맹하고자 하는 노조는 소정의 양식의 가맹원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도 가맹절차에 준한다	제12조[가맹] 금속노련에 가맹하고자 하는 노조는 소정양식의 가맹인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탈퇴 절차는 제14조에서 정함
제14조[탈퇴의 효력] 금속노련에서의 탈퇴는 위원장이 승인하며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탈퇴] 금속노련을 탈퇴하고자 하는 가맹노조는 결의기구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탈퇴 절차와 효력 통합
제16조[권리] 가맹노조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 5. <생략> 단,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는 규정에 의거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권리] 가맹노조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단,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는 규정에 의거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 5.<생략>	단서조항을 호 앞으로 위치 바꿈
제17조[의무] 가맹노조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제17조[의무] 가맹노조는 - - - - - - - - 있다.	3호 업무집행 부분을 좀 더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1~2.<생략> 3. 금속노련의 지시.명령에 따르며 업무집행에 있어서는 금속노련에 보고한다.	1~2.<생략> 3. 금속노련의 지침에 따르며 대의원대회(총회) 및 주요활동, 행사, 조합원수 등에 대하여 금속노련에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명시
제25조[대의원대회 기능] <생략>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및 선거인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가맹노조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선거인이 선거를 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역본부와 가맹노조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거인을 변경하고, 그에 한에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14. 5. 20>	제25조[대의원대회 기능] <생략> ② 항삭제	법과 노총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적용키로 한 개정 내용이었으나 부합하지 않아 삭제.
제27조[중앙위원회 임기]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선출당시 소속노조 및 지역본부의 직위를 사퇴하고 해당사업장의 현업으로 복귀한 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 5. 18>	제27조[중앙위원 임기]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선출당시 소속노조 및 지역본부의 직위를 상실하고 해당사업장의 현업으로 복귀한 때는 중앙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문구 변경
제28조[임시소집] <생략> 2. 중앙위원 과반수이상의 명의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제28조[임시소집] <생략> 2.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명의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
제29조[기능]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3.<생략>	제29조[기능] 중앙위원회는 - - - - - - - - 결의한다 1~3.<생략>	중앙위원회 기능과 부합하지 않아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4. 가맹노조의 합병, 분할 및 해산, 명칭개칭의 인준 5~11.<생략>	4. 삭제 5~11.호를 4~10호로 변경	삭제
제30조[소집절차] 중앙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의 통지 및 토의안건은 중앙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가맹노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소집절차] 중앙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의 통지 및 토의안건은 중앙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당 가맹노조에만 통지
제41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이 사퇴서를 제출했을 때 2. 선출당시 소속노조 및 지역본부의 직위를 사퇴하고 해당 사업장의 현업으로 복귀한때 3.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41조[임원의 임기] <생략> 2. 선출당시 소속노조 및 지역본부의 직위를 상실하고 해당 사업장의 현업으로 복귀한때 <생략>	자구정리
제43조[사무처] 중앙본부의 사무처에 다음의 부서를 설치하며 업무담당자를 사무처장이 정한다 1. 정책기획본부 가.기획연구실 :기획연구부, 조사통계부, 국제부 나. 홍보선전국: 홍보선전부 다. 총무국 : 총무부, 재정부	제43조[사무처] 금속노련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중앙본부에 사무처를 둔다. 1~4호 삭제	사무처의 업무량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처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이관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2~4.<생략>		
제44조[구성 및 운영] 사무처의 본부, 실,국에는 본부장, 실장, 국장, 부서부장, 차장 및 직원을 둘수 있으며 그 임무와 보수는 따로 정하는 처무 및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44조[구성 및 운영] 사무처의 조직 구성, 운영, 인사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조와 동일
제56조[회계년도] 금속노련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말까지로 한다.	제56조[회계년도] 금속노련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말까지로 한다. 단, 4월1일~대의원대회까지의 예산은 전년도 예·결산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 집행할 수 있다.	현재 운영방식과 평화전공 의견 반영

2) 소위원회 집행부 위임

- 신규노조 대의원 배정기준 의무금 납부 6개월에서 3개월 축소
- 현행 : 1년 미만 의무금 납부는 12로 1년이상은 36으로 나누어 배정

  개정 : 12개월 미만은 납부한 의무금을 12로, 12-24개월은 24로, 24개월 이상은 36으로 나눠 배정
- 임시대의원대회 대의원구성에 관한건 신설
- 회의 성립과 의결과 관련 전자투표 도입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3조[대의원 배정 및 선출] <생략> ②대의원 배정은 가맹노조의 조합원 중에서 연맹	제23조[대의원배정 및 선출] <생략> ②대의원 배정기준은 연맹 회계연도 종료일 전 3년간	가입기간, 대의원배정기준 변경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회계연도 전 3년간의 월 평균의무금을 납부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노조의 경우 가입기간과 의무금 납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월평균의무금을 기준1)으로 배정한다. 주석:1) 연맹에 가입한지 7개월(210일)을 초과했고, 의무금 납부를 7개월 이상한 신규노조를 말하며 이 경우 대의원배정은 당해 회기년도 대의원대회는 7/12, 차기회계년도 대의원대회는 (7+12)/36로 함.	의 월 평균의무금 납부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신규 가맹노조의 경우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대의원을 배정한다. 1.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납부한 의무금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 의무금으로 하여 배정 2.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고 2년 미만인 경우는 납부한 의무금 총액을 24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 의무금으로 하여 배정 3.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납부한 의무금 총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 의무금으로 하여 배정	
제21조[구성 및 소집] ①~③ <생략>	제21조[구성 및 소집] <생략> ④임시대의원대회의 대의원구성은 전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참가한 대의원으로 하다. 단, 가맹노조 규약에 따라 파견대의원이 변경 선출된 때에는 대회공고	임시대의원대회 대의원구성에 관한 명시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후 3일 이내에 교체할 대의원명단을 금속노련에 문서로 통보하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제35조[회의 성립과 결의]금속노련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써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그러나 대의원대회를 제외한 각종회의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35조[회의 성립과 결의] ①금속노련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써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그러나 대의원대회를 제외한 각종회의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의결권 행사 방법으로 전자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로 결의 할 수 있다.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전자투표를 임시대의원대회 등이 원활한 의결을 위해 도입

다. 규정개정(안)

1) 처무규정

- 사무처 본부별 부서를 탄력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부서 삭제
- 각 부서의 업무에 맞게 정비 및 삭제
- 문서의 접수, 처리, 기안, 발송관련 내용 및 문구 정비, 문서편찬 및 보존을 현실에 맞게 정비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6조[사무처] 중앙본부의 사무처에 다음의 부서를 설치하며 업무 담	제6조[사무처] 규약 제6조의 목적과 제7조의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	부서의 중요성보다는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사람따라 가던 부서를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당자를 사무처장이 정한다. 1. 정책기획본부 가. 기획연구실: 기획연구부, 조사통계부, 국제부 나.홍보선전국:홍보선전부 다.총무국:총무부,재정부 2. 조직강화본부 가.조직국:조직부 나.교육국:교육부 다.정치국:정치부,대외협력부,통일사업부 3. 노사대책본부 가.노사대책국:노사대책부,법규부,쟁의지도부 나.산업안전국:산업안전부 4. 여성복지사업본부 가.여성국:여성부,문화부 나.복지국:복지사업부,협동사업부	의 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책기획본부 가.(삭제) 나.(삭제) 다.(삭제) 2. 조직강화본부 가.(삭제) 나.(삭제) 다.(삭제) 3. 노사대책본부 가.(삭제) 나.(삭제) 4. 여성본부 가.(삭제) 나.(삭제)	업무위주의 부서를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함.
제7조[각 부서의 업무]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생략> 4. 기획연구부 <생략>	제7조[각부서의 업무] 각 부서는 본부에 배속되고, 실장, 국장, 부장, 차장을 둘 수 있다. 단,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부서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4.정책기획부 <생략>	복지사업과 협동사업부는 부서를 삭제하고 필요한 업무는 다른부서로 이동. 용어 및 부서별 업무를 현실적으로 배치 정리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라.사회보장제도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5. 총무부	마.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생략>	5.총무부	
7. 조직부	사.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생략>	아.노동조합의 복지사업에 관한사항	
사. 유관단체와의 제휴 및 정보교류에 관한사항	7.조직부	
12.복지부	<생략>	
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확충에 관한 사항	사.<삭제>	
나. 주택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2.<삭제>	
다. 재산형성대책에 관한 사항		
라. 기업내 노동복지증진에 관한사항		
마. 협동조합 활동의 촉진에 관한 사항		
바.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사. 노동조합의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아.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3.<삭제>	
자. 유관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차. 기타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12. 산업안전부	
13. 협동사업부	<생략>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가. 협동조합운용개발 나. 현행 협동사업에 관한 정보 수집 다. 협동사업에 관한 교육, 홍보 라. 협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안전부 <생략> 나. 문제점의 홍보 및 조치방안강구 다. 안전보건에 관한 예방활동 <생략> 15~19.<생략>	나. 산업안전보건 문제점의 홍보 및 조치방안 강구 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적극활용방안 활동 15~19. 13~17.로 수정	
제13조[의견제시]① 사무처 요원은 본부장, 실장, 및 국장, 부서장에게 업무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제시] ① 사무처 간부는 업무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용어 정리
제24조[문서의 접수] ② 모든 도착문서는 총무부에서 개봉하여 접수인, 날인,접수부에 기재한 후 분류하여 해당부서장의 영수인을 받고 인계한다.	제24조[문서의 접수] ② 모든 도착문서는 문서(양식2호)에 기재한 후 분류하여 해당부서에서 처리한다.	현실에 맞게 수정
제25조[문서처리] <생략> ② 성안에 있어서는 특	제25조[문서처리] <생략> ② 기안에 있어서는 특정	현실에 맞게 정정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정한 양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안용지를 사용하며(양식제3호) 2행마다 1행을 공백으로 한다 ③ 기안은 정자로 명백히 기재하며 개정 또는 정정을 가하였을시는 날인을 한다 ④ 가맹노조 질의사항은 7일내에 회시하되 동 사항을 관계기관에 재차 질의한 경우는 동 기관으로부터 회시가 도착한 3일이내에 동회시문을 발송한다.	한 양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안용지를 사용한다. ③ 삭제 ④ 가맹노조 질의사항은 신속하게 회시하되 동 사항을 관계기관에 재차 질의한 경우는 동 기관으로부터 회시가 도착한 즉시 동회시문을 발송한다.	
제28조[문서발송] ② 각 부서는 결재를 필한 성안문서를 타자하여 원안과 같이 총무부에 회송한다. ③ 총무부는 원안과 대조, 상위없음을 확인한 후 문서발송부에 발송번호를 기입, 직인을 찍어 발송한다. ④ 문서 발송번호에는 “금속노련”과 소관부서의 첫글자를 머리에 기록하며 발송이 끝난 성안문서는 문서발송부에 소관부서장의 영수인을	제28조[문서발송] ②삭제 ③삭제 ④->② 문서발송번호에는 “금속노련”을 머리에 기록하며 발송이 끝난 기안문서는 소관부서에 보관한다. ⑤삭제	불필요한 절차는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받은 후 반려한다. ⑤ 발송을 요하지 아니하는 문서는 성안문서 등록부에 결재일자와 품의번호를 기입한 후 소관부서장의 영수인을 받은후 반려한다. ⑥ 모든 공문발송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⑦ 다음의 문서는 직인날인을 생략하여 발송할 수 있다(기관지, 홍보물, 교재, 조사보고서, 조사서)	⑥->③ 모든 공문발송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⑦->④ 다음의 문서는 직인날인을 생략하여 발송할 수 있다(기관지, 홍보물, 교재, 조사보고서, 조사서)	
제29조[전보]<조 삭제>	제29조[품의] ① 각 부서는 업무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 품의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품의는 품의문서철에 기입 후 결재를 득한 후 시행 보관한다.	전보는 사용을 안 함 품의로 변경함.
제30조[전화통신] 각 부서의 전화통신 중 중요한 사항은 처리후 대장을 비치하고 업무에 관한보고 및 통화내용을 기입한 후 일반문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0조[전화통신] 각 부서의 전화통신중 중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에게 보고 후 처리한다.	
제38조[문서편찬 및 보존] 1. 갑종 규약,선언, 강령, 연혁,	제38조[문서편찬 및 보존] 1.갑종 규약,선언, 강령, 연혁, 규정집,예.결산서. 회의록, 사	보관연수에 따른 종류이므로 갑,을,병종 현실적으로 조정함.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규정집,예.결산서. 도서대장, 회의록, 사업보고서, 통계서류, 품의서류, 임직원사령부,이력서, 상벌대장, 교육대장, 교육수강자 대장, 등록서류, 신고증, 협정서, 조직관계서류, 부동산대장, 비품대장, 간행물 원본, 매매계약서, 노동조합인준서류, 건물의 공사설계도 2. 을종 기안문서, 발신문서,건의서,진정서,신원보증서류,사업계획서,사무인계서, 소송서류, 건물 및 차량취득 처분서류 3. 병종 출근부, 출장명령부, 수입 및 지출전표,증빙서, 잡문서, 기타서류, 물품청구서, 감사서류, 업무일지, 재정관계장부	업보고서, 등록서류, 신고증, 협정서, 조직관계서류, 부동산대장, 비품대장, 간행물 원본, 매매계약서, 노동조합인준서류, 건물의 공사설계도 2. 을종 기안문서, 발신문서,건의서, 진정서,신원보증서류,사업계획서,사무인계서, 소송서류,건물 및 차량취득 처분서류, 통계서류,품의서류, 임직원사령부, 이력서, 상벌대장, 수입 및 지출전표, 감사서류, 재정관계장부 3. 병종 출근부, 출장명령부, 증빙서, 잡문서, 기타서류, 물품청구서, 업무일지, 도서대장, 교육대장, 교육수강자 대장	
제54조[임면] 사무처 직원은 규약 제 39조 1항에 의거 사무처장의 임면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54조[임면] 사무처 직원은 규약 제39조 제1호에 의거 사무처장의 임면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	오타수정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56조[서류제출] ① <생략> 1. <생략> 2.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② <생략> 1.본적지 및 현주소의 변경	제56조[서류제출] ① 2. 가족관계증명서 ② 1. 현주소의변경	현실에 맞게 수정

2) 상벌규정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조[결정기관] <생략> ② <일부 생략> 지역본부 총회시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2조[결정기관] <생략> ② <일부생략>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시는 상패를 수여한다.	현실에 맞게 수정
제5조[구비서류] <생략> 1. 포상대상자의 이력서 및 명함판 사진 각 1통 2~3. <생략>	제5조[구비서류] <생략> 1. 삭제 2~3. 1~2로 호 조정	공적서와 추천서로 대신

3) 지역본부 운영규정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6조[기관]<생략> 1.총회(대의원대회) <생략>	제6조[기관]<생략> 1.대의원대회 <생략>	총회삭제
제7조[기관의 구성] <생략>	제7조[기관의 구성] <생략>	총회->대의원대회로 변경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1.총회 : 각 조합 총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일부생략> 2.운영위원회 :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단은 당연직으로 한다. 3~4. <생략> 5.회계감사위원회 : 총회에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으로 한다.	1.대의원대회 : 각 조합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일부생략> 2.운영위원회 :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단은 당연직으로 한다. 3~4. <생략> 5.회계감사위원회 :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으로 한다.	
제10조[임원] <생략> ③<일부생략>임원의 피선권이 없다.	제10조[임원] <생략> ③<일부생략>임원의 피선거권이 없다.	오타수정

4) 선거관리규정

- 추천서 단서조항과 입후보 등록접수증교부에 대한 내용추가
- 선거홍보물에 현수막에 대한 내용추가
- 양식 제1호 : 첨부서류를 규정과 동일하게 수정,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양식 제1-1호(등록접수증), 제1-2호(영수증) 생성
- 양식 제2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삭제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0조[등록] <생략> 5.추천서(소속노조 대표자 30명이상)	제10조[등록] <생략> 5.추천서(소속노조 대표자 30명이상) 단) 중복 추천할	단서조항 추가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수 있다.	
제11조[등록확정 및 무효]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 등록신청서를 심사하여 입후보등록을 확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고 심사결과 본 규정제4조 및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 결정으로 48시간이내에 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확정 및 무효]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이 있을시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단) 선관위는 등록신청서를 심사하여 제4조 및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결함이 있을때에는 48시간이내에 보완하도록 요청한다.	등록접수증 교부 내용추가
제16조[홍보물의 규격 및 종류] ① 선거에 사용하는 각 후보의 선거 홍보물은 2항의 규격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② A3용지 6쪽이하(표지포함) 유인물 2종이내	제16조[홍보물 및 현수막의 규격 및 종류] ① 선거에 사용하는 각 후보의 선거 홍보물 및 현수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작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득한 후 지정한 방법과 장소에 배포, 게시한다. 1.A3용지 6쪽이하(표지포함) 유인물 2종이내 2.현수막은 2종이내. 단, 규격은 장소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현수막 추가

2. 단위노조 질의회신

가. 에넥스노동조합

1) 질의내용 요약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회사가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해 노조도 검토 후 기본급화하기로 동의하였지만 근속수당(기 근속수당은 만 3년 이상 재직자들을 2년 단위로 구분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음)에 대해서는 노사간 이견이 있었지만 일단 기본급화 하였으며, 추후 산입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을 경우 복원하기로 한 바 근속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시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네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당해 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을 지급된다 하더라도 귀 노동조합의 근속수당 지급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은 '1년에 대한 계속근로'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포1의 요건에 해당됨
-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나. 대창단조노동조합

1) 질의내용 요약

- 이전수당은 본사를 이전하며 2001년 3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노사합의로 계속 지급하고 있음. 신규입사자 8만 5천원부터 15년 이상 11만 5천원까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음
- 직책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할 경우 직책이 없는 조합원의 일급이 직책이 있는 조합원의 일급보다 많아져 상여금이 오히려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함(상여금 지급기준:사무직 사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장직 사원은 제수당 포함+일당x35일을 기준으로 한다)

- 지게차수당은 2016년부터 지게차자격 취득 시 월 1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되 계속 지게차 운행이 필요할 경우 지급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음
- 위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시

- 이전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며, 특별한 요건없이 출근만 하면 지급되고 있으며,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을 보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사료됨
- 직책수당과 지게차 운전 수당이 직책의 획득 및 지게차 운전 자격 획득을 요건으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사료됨

다. 한국항공우주산업노동조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국외 출장 중 발생하는 소요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노사간 이견이 발생했는데 회사는 출장을 위한 준비, 이동시간과 관련하여 노동부 내에서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근로시간으로 불인정하며 초과근로수당 및 특근수당 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출장시 근로시간 해당 유무

2) 회시

- 출장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이동시간은 업무 전날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
-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출장을 위한 장거리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업무 일정상 그 전날에 미리 출발하는 경우도 다르지 않을 것임
- 해외 출장을 위한 공한 환승 대기시간 및 이동시간 등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등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됨
-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휴일 출장임이 명확할 경우 휴일근로로 볼 수 있음

라. 핸즈코퍼레이션노동조합

1) 질의내용 요약

- 핸즈코퍼레이션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최초 체결일은 14.11.20이고 유효기간은 2년인데 이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시작하여 16.9.20에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되었고 단체교섭을 진행함
- 그러나 16.9.20 이후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17.9.20에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시작하여 17.10.25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음
- 17.11.30에 유효기간을 18.10.31까지로 하는 단협을 체결하였는데 17.10.25 교섭대표노조 확정 결과 향후 2년 동안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교섭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인 18.10.31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창구단일화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회시

- 핸즈코퍼레이션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이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1개월임
- 그러므로 노조법 제14조의10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일인 2017.11.30을 기준으로 2019.11.29까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함

3.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가. 근로시간 단축 개정에 따른 연장근로 계산방법

1) 질의내용

(사례1) 월·화·수(3일) 매일 12시간(소정근로 8시간+연장근로 4시간)을 근로하고 목요일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 금요일에 12시간(소정근로 8시간+연장근로 4시간)의 근로가 가능한지?
(사례2) 월·화·수(3일) 매일 12시간(소정근로 8시간+연장근로 4시간)을 근로하고 목요일에 오전 4시간 휴가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하여 8시간 근로가 가능한지, 목요일 8시간 근로 중 4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회신

* 근로시간 단축 개정에 따른 연장근로 계산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85)

사례1)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소정근로시간	8	8	8	휴가	8	-	-	32
연장근로시간	4	4	4	-	4			16
실 근로시간	12	12	12	-	12	-	-	48

- 월·화·수 3일간 매일 4시간씩 총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금요일에 12시간을 근무하면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임.

사례2)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소정근로시간	8	8	8	8	-	-	-	32
연장근로시간	4	4	4	-	-			12
실 근로시간	12	12	12	8	-	-	-	44

- 월·화·수 3일간 매일 4시간씩 총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목요일에 오전 4시간 휴가를 사용하고 오후에 8시간을 근로하더라도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님.

- 아울러 목요일에 오전 4시간 휴가를 사용하고 오후에 8시간을 근로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다만 목요일 오후 8시간의 근로 중 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에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참조) 과거 고용노동부는 휴일(일반적으로 토·일)에 근로한 경우 이 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봤습니다(월~금 52시간+토·일 16시간).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명확해졌지만, 연장근로 적용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준을 원칙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4. 법률 행사 참석

가. 한국노총 법규담당자 워크숍 참석

1) 목적

- 2018년 노동자법률구조사업 성과 공유
- 최신 노동판례 학습
- 산별 주요 이슈 사업 공유

2) 일시

- 2018년 12월 17일~12월 19일

3) 장소

- 매종글래드제주

4) 참석자

- 금속노련 법규담당자 외 35명

5) 평가

- 노동자 법률구조사업의 전략을 공유함
- 노총 법률원 및 산별 법규담당자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됨
- 일방적 교육이 아닌 토론이 배치되어 참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됨
- 워크숍을 바탕으로 법규담당자들이 월 1회 정도의 판례 학습 모임을 결의함

산업안전보건활동

1. 연구 및 조사 활동 ····· 347
가. 재해예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정신건강 예방사업 ··· 347
2. 산업안전보건 교육 집행 ····· 349
가. 제1차 산업안전보건교육 ····· 349
나. 제2차 산업안전보건 교육 ····· 350
3. 대한산업보건협회 업무협약 ····· 352
가. 대한산업보건협회 업무협약 체결식 ····· 352
4. 산업안전보건교육 참여 ····· 355
가. 한국노총 참여형 산업안전보건 교육 ····· 355
5. 산업안전보건 행사 참석 ····· 357
가. 제18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 357
나. 한국노총 산업안전교육위원회 회의 ····· 358
다.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힐링토크콘서트 ·· 359

평가 및 개선방향

2018년에는 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정신건강 예방사업이 진행됐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경우 재해의 후유증으로 작업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해를 목격한 동료 노동자들의 경우 트라우마로 인해 재해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로 인해 2차 산업재해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업장의 정신건강 요인에 대한 안전문화 평가를 실시해 안전문화 의식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K-MEC노조 조합원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심리적 안정을 느끼게 되어 만족도가 높았다.

제조연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안전보건공단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 기본적으로 가장 더울 때와 추울 때 일정을 잡게 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으며, 울산이라는 위치상 조합원들이 거리상 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교육생들의 뜨거운 열기로 교육이 잘 진행되었다.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에서도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각 교육에 결합하여 산업안전보건 지식을 함양함과 더불어 안전보건담당자들과의 교류와 연대의 장이 되었다.

또한 한국노총에서 주관하는 각종 세미나와 회의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교류하고 견문을 넓혔다.

2019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발맞춰 미조직, 취약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등과 더불어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함양을 바탕으로 현장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확대하고자 한다.

1. 연구 및 조사 활동

가. 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정신건강 예방사업

1) 목적

- 중대 산업재해로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재해를 당하고 있음.
-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경우 재해의 후유증으로 작업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해를 목격한 동료 노동자들의 경우 트라우마로 인해 재해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로 인해 2차 산업재해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산재발생 사업장 및 장시간노동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신적인 안정을 통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업장의 정신건강 요인에 대한 안전문화 평가를 실시해 안전문화 의식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기간

- 2018. 2. ~ 11.

3) 금속노련 참여조직

- K-MEC노동조합

4) 내용 및 경과

- 문헌조사
- 전문가 회의
- 회원조합 간담회
- K-MEC노동조합 등 산재발생 사업장 조합원 심리상담

- 정신건강예방 포스터, 전단지 제작
- 토론회 개최
- 사업보고서 발간

5) 결과

- 간담회를 통해 산재발생 사업장 또는 장시간노동사업장 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총 28명의 노동자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상담일지 분석을 통해 5개 상위구성요소, 33개의 하위구성요소, 110개 개념 도출함.
- 분석 결과 전문직과 서비스직, 실무직 3가지 직업으로 구분되었음. 전문직의 경우,위험한 공정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장 폭발 사건으로 동료들의 사망을 직접 목격하거나 간접 목격하여 안전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경험으로 인해 불면증을 호소함.
- 실무직의 경우, 신체적 부상과 의사의 진찰이 반복되며 외상이 누적되었음. 작업현장이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힘든 부분을 표현하지 않고 견디고 있으므로 직무스트레스로 연결되는 상황임.
- 서비스직의 경우 지속적인 민원들의 심리적 공격이 가장 컸음. 자심감을 상실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며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표현하고 있음.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요인도 다양하게 나타남. 개인적인 문제라고 외면하거나 알아서 처리하기를 바라는 상황임.
- K-MEC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과 산재예방 기여도가 큼.

2. 산업안전보건 교육

가. 제1차 산업안전보건교육

(1) 취지

전 세계적으로 매년 22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한 해 약 10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약 2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여전히 안전보건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통계는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고 쟁취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련은 안전보건에 대한 일상 활동이 더욱 공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화학노련과 공동으로 2018년도 제1차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개최합니다. 금번 교육을 통해 조합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산업안전보건 활동가를 양성하고, 노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일 정 : 2018년 8월 22일(수) ~ 8월 24(금), 2박 3일

(3) 장 소 : 안전보건공단교육원(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4) 참가자 : K-MEC노동조합 위원장외 64명

(5) 일정표

<table>
<tr><th rowspan="2">시간</th><th>1일차</th><th>2일차</th><th>3일차</th></tr>
<tr><th>8 / 22 (수)</th><th>8 / 23 (목)</th><th>8 / 24 (금)</th></tr>
<tr><td>07:00 ~ 08:00</td><td rowspan="5"></td><td colspan="2">아 침 식 사</td></tr>
<tr><td>08:00 ~ 09:00</td><td colspan="2">교 육 준 비</td></tr>
<tr><td>09:00 ~ 10:00</td><td rowspan="2">노동정세 대응방안
(화학노련
심재호 정책실장)</td><td rowspan="2">산재 예방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토의</td></tr>
<tr><td>10:00 ~ 11:00</td></tr>
<tr><td>11:00 ~ 12:00</td><td>평가 및 종강</td></tr>
<tr><td>12:00 ~ 13:00</td><td colspan="2">점 심 식 사</td><td rowspan="3"></td></tr>
<tr><td>13:00 ~ 14:00</td><td>등록 및 개강식</td><td rowspan="2">화공안전 개선사례
(김덕호 기술사)</td></tr>
<tr><td>14:00 ~ 15:00</td><td>산재보상 실무</td></tr>
</table>

15:00 ~ 16:00	(이선이 노무사)		
16:00 ~ 17:00	근골격계 예방 체조 (울산근로자건강센터)	작업환경 개선사례 (안전보건공단교육원 김종길 교수)	
17:00 ~ 18:00			
18:00 ~ 19:00	단 결 의 밤	저 녁 식 사	
19:00 ~		휴 식	

(6) 평가 및 과제

- 교육 참가생 중 기 참석했던 간부들보다 처음 참석하는 간부들이 많았음
-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례에 대한 이론적 강의가 진행되어 만족도가 높았음
- 차기 교육에서는 산재관련 교육, 안전 교육, 실습 교육 등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었음
- 추후 교육에서는 중간 휴식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과정 구성에 있어 교육생들의 요구를 검토하여 구성함

가. 제2차 산업안전보건교육

(1) 취지

전 세계적으로 매년 22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한 해 약 10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약 2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여전히 안전보건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통계는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고 쟁취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련은 안전보건에 대한 일상 활동이 더욱 공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화학노련과 공동으로 2018년도 제2차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개최합니다. 금번 교육을 통해 조합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산업안전보건 활동가를 양성하고, 노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일정 : 2018년 12월 12일(수) ~ 12월 14(금), 2박 3일

(3) 장소 : 안전보건공단교육원(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4) 참가자 : 일진전기전선사업부노조 위원장외 65명

(5) 일정표

<table>
<tr><th rowspan="2">시간</th><th>1일차</th><th>2일차</th><th>3일차</th></tr>
<tr><th>12/12(수)</th><th>12/13(목)</th><th>12/14(금)</th></tr>
<tr><td>07:00 ~ 08:00</td><td rowspan="4"></td><td colspan="2">아 침 식 사</td></tr>
<tr><td>08:00 ~ 09:00</td><td colspan="2">교 육 준 비</td></tr>
<tr><td>09:00 ~ 10:00</td><td rowspan="2"><노동조합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사람과 산재 노무법인</td><td rowspan="2"><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토의></td></tr>
<tr><td>10:00 ~ 11:00</td></tr>
<tr><td>11:00 ~ 12:00</td><td rowspan="2"></td><td rowspan="2">평가 및 종강</td></tr>
<tr><td>12:00 ~ 13:00</td><td colspan="2">점 심 식 사</td></tr>
<tr><td>13:00 ~ 14:00</td><td>등록 및 조직소개</td><td rowspan="4"><산재보상
이론 및 실무>
사람과 산재 노무법인</td><td rowspan="6"></td></tr>
<tr><td>14:00 ~ 15:00</td><td rowspan="2"><노동자와 노동정세>
금속노련
곽상욱 정책부장</td></tr>
<tr><td>15:00 ~ 16:00</td></tr>
<tr><td>16:00 ~ 17:00</td><td rowspan="2"><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갑을녹산산업보건센터
임재범 기술사</td></tr>
<tr><td>17:00 ~ 18:00</td><td rowspan="2">단 결 의 밤</td></tr>
<tr><td>18:00 ~ 19:00</td><td>저 녁 식 사</td></tr>
<tr><td>19:00 ~</td><td>휴 식</td></tr>
</table>

(6) 평가 및 과제

- 현장에서 잘 파악하지 못 했던 작업환경측정에 대해 알기 쉽게 강의되어 만족도가 높았음.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노동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 1차 교육 때 많은 요구가 있었던 산안법, 산재 보상 관련하여 충분한 강의가 이뤄져 만족도가 높았음.
- 울산이 너무 멀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숙소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음.

3. 대한산업보건협회 업무협약

가. 대합산업보건협회 업무협약 체결식

1) 개요

(1) 일시 : 2019. 2. 18(월) 11:00 ~11:30

(2) 장소 : 한국노총 6층 소회의실

(3) 목적 :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함으로써 금속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여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함

(4) 주요 내용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협력
2.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및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산업보건서비스 지원
3.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4. 국가 헌혈사업에 대한 지원
5. 학술정보의 상호교환 및 연구
6.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5) 참석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7명) : 김만재(위원장), 김해광(수석부위원장), 김준영(사무처장), 김영미(정책기획본부장), 박선자(총무실장)

  ☞ 사회:나병호(법규안전부장), 촬영:박강원(홍보부장)

- 대한산업보건협회(6명) : 정영숙(사업총괄이사), 김훈철(사업지원본부장), 한찬영(건강진단팀장), 김효진(대외홍보팀 과장), 정정희(노동조합 위원장),서갑순(노동조합 사무처장)

2) 업무협약서

업 무 협 약 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대한산업보건협회**(이하 "양 기관"라 한다)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양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여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 내용)

본 협약에 따른 양 기관의 협력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협력
2.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및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산업보건서비스 지원
3.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4. 국가 헌혈사업에 대한 지원
5. 학술정보의 상호교환 및 연구
6.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 (협력 방법)

제2조에 의해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매 사업추진 시 양 기관이 상호형평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다.

제4조 (효력 기간)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양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어느 일방으로부터 기한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는 한 만료일로부터 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

제5조(해지)

이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은 서면으로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보관)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7조(기타)

기타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4.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교육 참여

가. 참여형 산업안전보건교육

1) 목적

- 노동조합 안전보건 간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참여형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점 및 개선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이를 통해 조합원의 안전보건 의식 향상 및 노동조합의 산재예방활동 강화

2) 제1차 참여형 산업안전보건교육

- 일시 : 2018. 5. 30(수) ~ 6. 1(금)
- 장소 : 동강시스타 리브라홀
- 참가대상 : 단위 노조 산안간부 및 조합원, 금속노련 산안담당자 등
- 참가인원 : 100여명
- 교육내용
  - 한국노총의 현황과 과제
  - 안전보건 북콘서트
  -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상 실무
  -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3) 제 2차 참여형 산업안전보건교육

- 일시 : 2018. 10. 24(수) ~ 26(금)

- 장소 : 한화리조트 평창 세미나실4
- 참가대상 : 단위 노조 산안간부 및 조합원, 금속노련 산안담당자 등
- 참가인원 : 80명
- 교육내용
  - 무위험 사업장 만듭시다
  - 노동조합의 작업환경측정 알아가기
  - 산업안전보건과 산재보상 실무
  - 건강한 삶을 위한 노동자 구강건강
  - 미디어를 활용한 위험성 평가
  -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5. 산업안전보건 행사 참석

가. 제18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1) 목적

- 산재사망 노동자의 넋을 추모하고 산재노동자의 권익을 향상
- 한국노총 및 산하조직의 산업안전보건활동 확대와 노동건강권 쟁취를 위한 노조 역량 강화
- 정부와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재 근절을 촉구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ITUC(국제노총) 가맹 조직과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

2) 내용 및 경과

(1) 슬로건 및 정책목표

- 더 이상 죽거나 다치고 싶지 않다. 노동건강권 쟁취하자
-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저지하자
- 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 사법부를 규탄한다
-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기업살인법 제정하라
-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현장의 힘으로!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2) 주요내용

- 2018. 4. 27(금), 11:00, 서울 보라매공원 내 산재희생자위령탑
- 식전행사 : 산재희생자 추모 사진전시회(한국노총, 마필관리사노조, 원진산업재
- 해자협회, 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
- 경과보고
- 모범산재노동자표창 및 정부표창 시상
- 산재단체 지원금전달 및 산재환자 나눔 행사(4개 산재단체)

- 추모사 및 추념사
- 진혼의 행사
-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
- 헌화 및 분향

나. 2018년도 산업안전보건교육위원회 회의

(1) 목적

2018년도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교육사업에 대한 평가' 및 '2019년도 산업안전보건 교육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 및 외부 안전보건관련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2)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15:00

(3) 장소

- 노총 6층 대회의실

(4) 회의내용

- 2018년도 1,2차 참여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간부의 역량강화를 통한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 활성화 및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
- 안전보건 북 콘서트를 통해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노동자 사례를 통해 직업병 발생으로 인한 노동자의 아픔과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상기함.
- 미디어를 통한 위험성 평가와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교육에 있어서 교육생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
- 산재 예방과 더불어 산재 보상에 대한 교육을 요청함.

다.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힐링 토크콘서트

(1) 목적

- 감정노동자 직무스트레스 예방에 대한 주제로 힐링 토크콘서트를 실시함으로써 참가자들과 소통하며,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 마련

(2) 일시

- 2018년 7월 4일(수) 13:30

(3)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

(4) 참석

- 금속노련 노조간부,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등 200여명

(5) 출연자

- 진행 : 문화예술기획 소릿길 윤미진 대표
- 연사 :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영화배우 박철민

(6) 내용

- 안전문화와 산업재해 예방
- 감정노동, 방송문화예술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 위험의 외주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대외협력활동

1. 남북연대교류사업 ····· 363
가. 남북노동자 산별 상봉모임 ····· 363
나. 남북민화협연대모임 ····· 364
다.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회의 ····· 364

2. 통일사업 참여 ····· 367
가. 한국노총 평화학교 ····· 367
나.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 367
다. 일제강제징용조선인노동자합동추모행사 ····· 368
라.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 368

3. 추모행사 참석 ····· 370
가. 김태환열사 13주기 추모제 ····· 370
나. 전태일열사 48주기 추도식 ····· 370
다. 장진수동지 11주기 추모제 ····· 370

4. 제5회 김태환노동상 ····· 372
가. 핸즈식스노동조합 수상 ····· 372

5. 대외연대 활동 ····· 373
가. 4.16재단 설립위원 참여 ····· 373
나. 노회찬재단 설립위원 참여 ····· 373

평가 및 개선방향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의 평화분위기 및 교류사업 활성화로 통일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남북노동자 산별 상봉모임에서 김만재 위원장이 대표발언을 했으며, 금강산에서 진행된 남북민화협연대모임에는 김해광 수석부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회의에서는 남북제조노동자 상봉행사를 북측에 제안했다.

한국노총 차원에서도 다양한 통일사업이 진행됐다. 평화학교, 통일선봉대,일제강제징용노동자합동추모행사 등의 사업에 금속노련 조합원, 사무처가 적극 결합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의 뒷받침이 되었다.

또한 김태환열사, 전태일열사, 장진수동지 추모제에 금속노련 조합원 및 사무처가 참석하여 열사의 뜻을 기리고 받들겠다는 의지를 되새겼다.

제5회 김태환노동상은 임단협에 앞서 사내 불법 파견 문제 지적,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고 핸즈식스&고암에이스화성지역노조 설립하여 2017년 9월 비정규 사내하청 노동자 219명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전환한 공을 인정받아 만장일치로 핸즈식스노동조합이 수상했다.

4.16재단과 노회찬재단에 설립위원으로 참여하여 안정적인 재단의 안정적인 출발에 이바지했다.

그 동안 연대활동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조직과 함께 활동해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1. 남북연대교류사업

가. 남북노동자 산별 상봉모임

1)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11일(토) 오전 11시 30분, 워커힐호텔

2) 금속, 운수, 건설부문 상봉모임 (남측 16명, 북측 30명)

3) 참석 조직

- 금속, 항운, 선원, 건설산업, 자동차, 연합, 공공노련

4) 대표 발언

- 금속노련, 항운노련

5)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발언문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 지난 2015년 평양에서 개최했던 통일축구대회의 기억과 당시의 감격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저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만재입니다.

먼저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참석을 위해 남측을 방문해주신 조선금속 및 기계직업동맹위원회를 비롯한 조선직업총동맹 여러분들을 금속노련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역사적인 4.27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는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4.27남북정상회담은 대립과 반목의 세월을 걷어내고 우리민족의 힘으로 통일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민족의 선언이자 첫 걸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오늘의 상봉을 계기로 남과 북의 노동자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만나야 통일입니다! 북과남 남과북 노동자들의 교류사업이 바로 통일입니다!

남측의 양대노총 제조연대에서 제안드린 제조업노동자 교류사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4.27 판문점 선언의 완전한 실현과 이행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남측제조노동자들의 마음을 담아 환영패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만재

나. 남북민화협연대모임

1) 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3일(토)~4일(일), 금강산

2) 참가 규모

-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금속노련 김해광 수석부위원장 외 노동계 28명 참가 (민주노총 대표단 방북 불허로 한국노총만 참석), 총 260명 참가

다.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회의

1) 일시 및 장소

- 2019년 2월 12일~13일, 금강산

2) 참가자

- 김만재 위원장 등 양대노총 각 7명

3) 의제

- 2019년 남북노동자 3단체 연대교류사업

4) 논의 내용

- 남북노동자통일대회 2019년 5월~9월 사이 개최
- 평양 또는 금강산 또는 개성
- 금속 및 공공부문 독자 행사 2019년 남북노동자통일대회 이전에 개최

5) 제조연대 제안서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제조노동자 상봉행사' 제안서

조선직업총동맹에 제안합니다.

남북 노동자의 연대와 발전, 한반도의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조직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이하 화섬연맹), 한국노총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하 화학노련)이 '양대노총 제조연대'로 결성되어 단결과 연대를 실현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 목소리로 매진해 왔습니다.

한반도는 지난 단절과 분단의 역사를 뒤로하고,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2018년 우리민족이 이뤄낸 민족적인 성과들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각계각층, 전민족적 통일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측의 제조업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지난 2018년 노동자통일축구대회 기간에 진행되었던 남북노동자 상봉모임 공간을 통하여 남북제조노동자 교류사업(남측-양대노총 제조연대, 북측-조선금속기계직업동맹, 조선경공업및화학직업동맹)을 처음으로 제안한바 있었습니다.

그 교류사업의 첫 시작으로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제조노동자 상봉행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제조노동자 상봉행사'

- 취지 :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의 결의를 다지고 교류협력 사업의 확대를 논의
- 시기 : 11월 심양 실무협의 합의사항에 따라 남북노동자통일대회 이전에 개최
- 장소 : 평양
- 규모 : 남측 제조부문 노동자 대표단 200여명
- 방북경로 : 육로 또는 직항 (현황에 따라 추후 확정)
- 상봉행사 사전에 실무협의 추진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북녘 제조노동자들과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귀조직의 긍정적인 답신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양대노총 제조연대

(금속노련 · 금속노조 · 화섬연맹 · 화학노련)

2. 통일사업 참여

가. 제7회 한국노총 평화학교

1) 일시

- 2018년 5월29일~31일

2) 장소

- 제주

3) 참가

- 금속노련 핸즈코퍼레이션노조 여성부장 등 53명

나.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1) 일시

- 2018년 8월 9일(목) ~ 12일(일)

2) 장소

- 상암월드컵경기장, 워커힐호텔 등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행사 위주로 일정 추진)

3) 참가

- 우영산업노조 위원장 등 51명

다. 일제강제징용조선인노동자합동추모행사

1) 일시

- 일시 : 2018년 8월 23일(목) ~ 25일(토)

2) 장소

- 일본 교토 (마이주루 등)

3) 참가

- 남양공업노조 사무국장 등 25인

라.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1) 구성

- 금속노련 김해광 수석부위원장외 17개 산별, 4개 지역본부에 통일위원회 구성

2) 운영

- 제1차 통일위원회 회의(6/26) : 남북노동자 3단체 사업 협의 결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추진 계획, 제11차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추진계획
- 제2차 통일위원회 회의(7/20) :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추진 현황,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주요 일정 참여 계획
- 제3차 통일위원회 회의(8/7) :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참석 지침
- 제4차 통일위원회 회의(8/29) :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보고, 향후사업논의, 각 연맹별, 지역별 통일위원회 건설 요청,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유관기관 및 조직·개인 감사패 전달

- 제5차 통일위원회 회의(10/30) : <제2차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 추진계획, 하반기 통일사업계획 논의

3. 추모행사 참석

가. 김태환열사 13주기 추모제

1) 일시 및 장소

- 2018. 6. 14(목), 11:00,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

2) 참석

- 금속노련 사무처, 조합원 및 김주영 위원장 및 충주음성지역지부 등

3) 제5회 김태환 노동상 시상

- 핸즈식스노동조합 수상

나. 전태일열사 48주기 추도식

1) 일시 및 장소

- 2018. 11. 13(화), 11:00,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

2) 참석

- 금속노련 사무처, 조합원 및 문현군 부위원장 등

다. 장진수동지 11주기 추모제

1) 일시 및 장소

- 2018. 12. 4(화), 11:00,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

2) 참석

- 금속노련 사무처, 조합원 및 문현군 부위원장 등

4. 제5회 김태환노동상

1) 의의

- 김태환열사의 정신은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의 상징

2)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 2018.6.4. 오후 2시

3) 심의위원

- 전태일재단 박계현 사무총장, 한국비정규센터 이남신 소장,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정민환 의장, 백대진 조직본부장, 권재석 대외협력본부장

4) 심의결과

- 금속노련 핸즈식스노동조합(위원장 윤영인)

5) 주요 활동 내용

- 2017년 7월 노조 설립

- 임단협에 앞서 사내 불법 파견 문제 지적,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 정규직 채용 요구

- 핸즈식스&고암에이스화성지역노조 설립

- 2017년 9월 비정규 사내하청 노동자 219명 전원 정규직 전환(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핸즈식스노동조합 수상 선정

5. 대외연대 활동

가. 4.16재단 설립위원 참여

1) 사업목적

-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

2) 설립위원 참여

- 금속노련 설립위원 참여, 재단 창립 준비, 지원 등

3) 창립대회

- 2018년 5월 12일(토) 15: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나. 노회찬재단 설립위원 참여

1) 사업목적

- 노회찬의원의 뜻을 기리고 정치 발전에 이바지함

2) 설립위원 참여

- 금속노련 설립위원 참여, 재단 창립 준비, 지원 등

3) 창립기념대회

- 2019년 1월 24일(목) 19:30 서울시청 다목적홀

홍보선전활동

1. 홍보사업 ····· 377
가. 소식지 ····· 377
나. 기타선전활동 ····· 379
2. 홈페이지 및 SNS 관리 업무 ····· 381
3. 교육 ····· 384
가.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교육 ····· 384
4. 부 록 ····· 385
가. 소식지 ····· 385
나. 임단투 포스터 ····· 424
다. 성명서 ····· 425
라. 보도자료 ····· 433
마. 금속노련 활동 동영상 ····· 441

평가 및 개선과제

2018년에는 금속노련의 사업과 현장의 최신이슈들을 최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또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금속노련의 목소리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지만 발표 타이밍을 놓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금속노련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가 전 세계적 추세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 중이다. 홈페이지를 금속노련 소식 전달과 방대한 양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데 이용하는 반면에,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실시간으로 활동 소식을 알려내는데 이용하고 있다.

금속노련은 앞으로도 노동조합이 일반 시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벌이도록 하겠다.

금속노련 유튜브에는 금속노련 활동영상과 노동문화 활동 영상이 게시되어있다. 특히 금속노련 공통율동이 업로드 되어있어, 금속동지들이 언제든 배울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되어 있다. 유튜브가 금속노련을 더욱 강하게 연대하고 단결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금속노련은 2,000만 임금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의 선봉에서 활동하겠다. 또한 다양한 언론 매체와 건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동조합이 시민들에 가깝게 다가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조합 가입률을 높여 노동운동이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다시금 다짐해 본다.

1. 홍보사업

가. 소식지

2018년은 썬코어 고용생존권 사수투쟁, 20만 금속조합원 시대를 열기위한 조직화 사업, 한국노총 제조연대 확대 출범 등으로 바쁜 한해였다. 특히 활발한 조직화로 포스코노조, 충주협력사노조 등을 조직화하는 성과를 이룩한 해였다.

홍보부에서는 소식지 발행을 통해 금속노련 활동 성과를 알리고 금속 동지들이 자부심을 갖고 건강한 노조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시도 등을 저지하기 위해 금속노련이 어떻게 대응하고 투쟁하는지를 조합원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다.

더불어 금속노련이 개최하는 각종 교육과 세미나 등을 홍보하여 금속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고 이를 통해 연대과 단결의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했다. (금속소식지 36회 작성, 배포)

❍ <소식지 목록>

[제348호]2018 금속노련 노동문화 교육 개최	18-04-03
[제349호]2018 금속노련 상반기 지역순회 완료	18-04-10
[제350호]썬코어 고용생존권 사수투쟁 1차보고 대회	18-04-17
[제351호]이번에 불공정 갑질행위 근절 못하면 제조업의 미래없다	18-04-24
[제352호]정기대의원대회 성공적 개최에 전력 다하기로	18-05-04
[제353호]15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만 금속 조직화 본격 시동!	18-05-11
[제354호]20만 조합원시대 힘차게 열기로	18-05-16
[제355호]한국노총 제조연대 확대 출범식 개최	18-05-30
[제356호]재벌.대기업만을 위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강력히 규탄한다	18-06-08
[제357호]포항지역 철강노동자 조직화 활동 본격 가동	18-06-19
[제358호]한일제관 노동조합, 자본의 횡포를 정면 돌파한다	18-06-26
[제359호]노동자 외면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즉각 해산하라!	18-07-03

[제360호]구조조정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	18-07-10
[제361호]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820원, 10.9%인상) 결정	18-07-17
[제362호]금속노련, 20만 조합원 시대를 위한 조직화에 박차	18-07-24
[제363호]양대노총 제조연대, 오는 11월 '남북제조노동자대표자회의 개최' 제의	18-08-14
[제364호]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 개최	18-09-14
[제365호]포스코노조 재건추진위 발족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	18-09-18
[제366호]오토리브노동조합 총파업투쟁 출정식 개최	18-10-04
[제367호]2018년 금속노련 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 반환점 돌아	18-10-24
[제368호]20만 금속조합원 시대 멀지않았다.	18-11-07
[제369호]금속노련 조직화 사업 박차	18-11-15
[제370호]금속노련,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석	18-11-21
[제371호]금속노련 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 성공적으로 마쳐	18-11-29
[제372호]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일방적 외주화 추진 중단하라!	18-12-06
[제373호]포스코노동조합,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보	18-12-12
[제374호]불법 카풀 영업 방치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18-12-21
[제375호]포스코노조, 불통경영 포스코 규탄 기습시위 개최	18-12-28
[제376호]포스코노동조합 현판식 개최	19-01-08
[제377호]볼보건설기계코리아노조, 서비스부문 외주화 규탄집회 개최	19-01-17
[제378호]김만재 위원장, 최임위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개편안 폐기 촉구	19-01-23
[제379호]금속노련 제184차 중앙위원회, 2월 21일 개최	19-01-28
[제380호]김만재 위원장, 금강산 개최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 참석	19-02-13
[제381호]금속노련 제184차 중앙위원회 개최	19-02-22
[제382호]2019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 돌입	19-03-06
[제383호]2019년 상반기 임단투 지역순회	19-03-29

※ 소식지 상세내용은 부록 별첨

나. 기타선전활동

1) 임단투 포스터

임단투 포스터는 금속연맹의 총체적 사업과 투쟁을 일목요연하게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시각적 효과와 핵심 사업으로의 홍보기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특정 사안마다 발행하여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적정 시기에 발마추지 못하여 현안 문제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여 제작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

※ 임단투 포스터는 부록 별첨

2) 성명서

성명서는 총8회에 걸쳐 발표했다. 금속노련은 다양한 주제와 강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유지하여 사회에 부조리와 노동자 권리 하락에 항상 주시하고 있으며, 언제든 투쟁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주었다.

❍ <성명서 목록>

[성명서]노동자는 최저임금법 개악하라고 촛불을 들지 않았다.	18-05-29
[성명서]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라!	18-06-01
[성명서]경제단체의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에 대한 금속노련의 입장	18-07-27
[성명서]노동존중사회 역행하는 노동개악 논의 즉각 중단하라	18-11-06
[성명서]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기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8-11-07
[성명서]LG전자 협력사인 서비스센터 3,900여명 직고용 결정을 환영한다	18-11-26
[성명서]누구를 위한 처벌유예 연장인가?	18-12-28
[성명서]박근혜 시절 노동개악 노사정 야합과 다른게 무엇이냐?	19-02-20

※ 성명서 상세내용은 부록 별첨

3) 보도자료

[보도자료]한국노총 제조연대 확대출범식 개최	18-05-30
[보도자료]포스코 사내협력사 노동자 임금인상 촉구 기자회견 개최	18-11-01
[보도자료]김만재 위원장, 금강산 개최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에서 '남북제조노동자 상봉행사' 정식 제안	19-02-12

※ 보도자료 상세내용은 부록 별첨

4) 금속노련 활동 영상

금소노련은 지난 1년간의 금속노련 활동 영상을 제작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영하고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다. 활동영상을 통해 금속노련은 지난사업년도의 활동과 성과를 재조명하여 연맹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더욱 결속하게 하여 연맹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 자료는 부록별첨

2. 홈페이지 및 SNS 관리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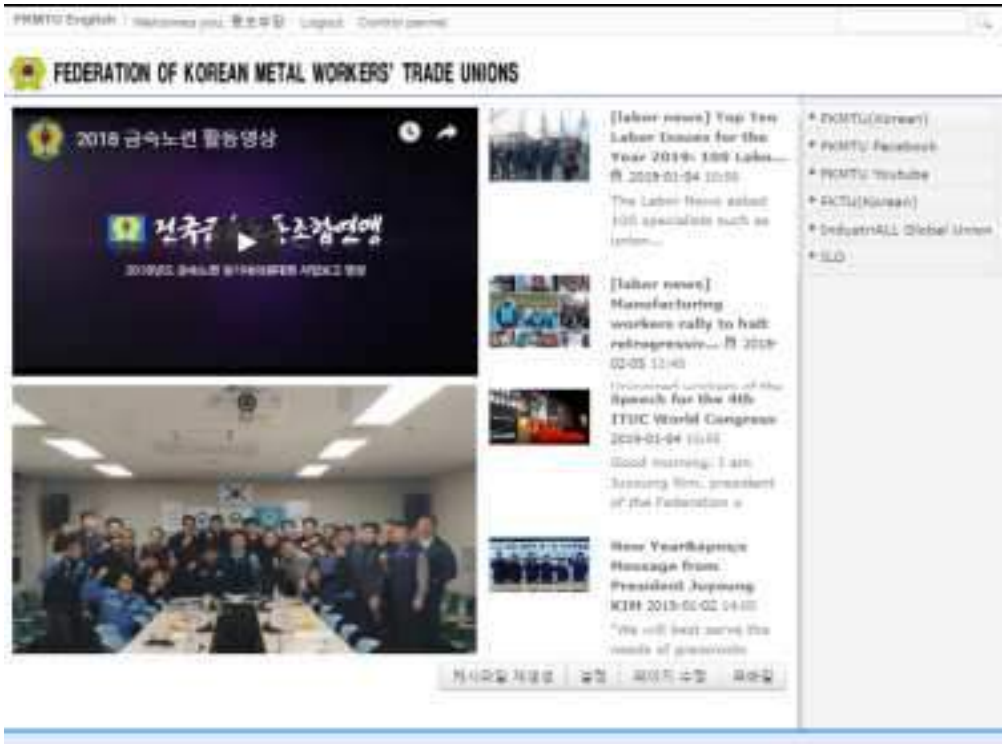
금속연맹은 홈페이지에 금속소식과 노동관련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외국 단체에 금속노련을 알리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SNS가 정보전달의 주요 매체로 바뀌고 있음에 따라 금속노련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금속 소식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현재 페이스북 팬은 321여 명이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팬 숫자를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금속활동영상, 노동문화 활동영상, 금속 공통율동 영상 등을 미디어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 <금속노련 홈페이지>

○ <금속노련 영문 홈페이지>



○ <금속노련 페이스북 페이지>

○ <금속노련 유튜브>

3. 교육

가.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교육

1) 개요

- 금속노련의 홍보선전 활동을 강화하고 조직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노동조합 활동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와 조합 활동을 알려낼 수 있도록 전문적인 홍보선전 활동가 교육 마련

2) 사업개요

- 일시 : 12월 10일(월) ~ 11일(화) < 1박 2일 합숙교육 >
- 장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 수녀원
- 대상 및 인원 : 지역본부, 단위노조 홍보 담당 및 조합간부, 30명

3) 강의 시간표

일자 / 시간	1일차(12.10)	2일차(12.11)
07:30~08:40		조 식
08:40~09:00		교육준비
09:00~10:00		강의3)노동조합 주장의 글쓰기 <강사: 이지현 한국노총 홍보실장> 2H
10:00~11:00		
11:00~11:30		
11:30~12:00		점심식사
12:00~12:30	등록	
12:30~13:00		강의4)사진촬영 기법 <강사: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차장> 2H
13:00~14:00	안내 및 개강식	
14:00~14:30	강의1)노동정세와 노동이슈 <강사: 곽상욱 금속노련 정책부장> 2H	
14:30~15:00		교육 평가 및 마무리
15:00~16:00		
16:00~18:00	강의2) 노동조합 글쓰기 <강사: 이영재 연합뉴스기자> 2H	
18:00~21:00	저녁식사 및 단결의 밤	

4. 부 록

가. 소식지

노동적폐 정산!
제조산업발전법 정비
2010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4월 3일(화) 제348호

2018 금속노련 노동문화 교육 개최

- 노동문화는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활동! -

금속노련은 3월 28일(수)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화성 하내수련원에서 노동문화교육을 개최하고, 노동조합 활동의 핵심인 노동몸짓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는 110명의 금속노련 동지들이 함께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체훈련(유정임·양향숙 일하는 여성아카데미 연구원) ▲몸짓배우기(문예창작단 들꽃) ▲노동자와 정치(노회찬 국회의원) ▲2018년 예상쟁점 노동관계법(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금속노련 임단투지침 및 노동쟁점해설(박상욱 금속노련 정책부장) 등 노조활동에 필수적인 강의들로 진행했다.

교육에 앞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개강사를 통해 "율동은 노동조합을 강하게 단결시키는 핵심활동"이라며, "이번 교육이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련은 20만 조직확대를 목표로 포스코 협력사가 집중된 포항·광양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500만 제조노동자를 선도하는 책임있는 금속노련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은 "노동자들이 혈연과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노동자를 위해 노력하는 인물에 투표를 한다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멀지 않아 실현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6.13 선거에서 신중히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몸짓배우기 시간에는 문예창작단 들꽃의 지도와 금속노련 몸짓패 동지들이 참여하여 노동가 3곡(철의 노동가, 파업가, 단결투쟁가)에 맞춰 금속노련 공통율동을 제작했다. 제작한 금속노련 공통율동은 편집을 거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단위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할 예정이다.

금속노련, 2018 상반기 지역순회 이번주 완료 예정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금속노련 상반기 지역순회가 4월 5일(목요일) 충남본부를 마지막으로 완료된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3월 8일 대전본부를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16개 지역본부 중에서 대전, 충북, 경기, 포항, 울산·경주, 경남, 광주·전남, 전북, 서울, 구미, 강원, 인천, 대구·경북, 부산, 인산·시흥 15개 지역본부와의 간담회를 완료했다.

금속노련은 이번 순회를 통해 2018년 금속노련 목표와 임금인상 지침, 교섭쟁점 및 지침, 단체교섭쟁점과 대책, 정세전망 등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속노련은 순회 현장의 의견을 정리하여 향후 투쟁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금속노련, 비정규연대기금 58,233,000원 한국노총에 전달

금속노련은 130여 조직, 28,233,000원(3월 30일 기준)과 노련 자체예산 30,000,000원을 더한 58,233,000원을 한국노총에 전달했다.

금속노련은 20만 조직화를 위해 비정규직·영세노동자 조직화와 사내하청 조직화에 전념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3월 27일(화) 제41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모금기간을 5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련도 5월말까지 모금을 이어간다.

■모금계좌: 농협 1107-01-01000 (예금주: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문의: 정태교 조직부장(02-6277-2007)

■입금시 반드시 [조직명]기재 요망)

금속노련 상반기 교육 안내

교육명	일시	장소	주관
교섭위원교육2차	4/2-4	노총중앙교육원	금속노련
선전선동교육	4/9-11	노총중앙교육원	금속노련
[illegible]학교	4/16-18	노총중앙교육원	금속노련
※ 문의: 곽상록 정책부장 (02-6277-2004)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 개최

1. 대회일시 및 장소: 2018.5.1.(화) 10시, 상암 평화공원 평화광장
2. 마라톤 종류: 하프코스, 10km, 5km(가족걷기)
3. 신청방법: 한국노총 마라톤 홈페이지 (www.maydaymarathon.org)에서 신청
4. 문의: 나병호 노사대책부장(02-6277-2008)

2018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1. 일시: 2018년 5월 15일(화) 13시 30분
2. 장소: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3. 문의: 정태교 조직부장(02-6277-2007)

한국노총 비정규연대기금 모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속노련 [illegible]본부	금속노련 [illegible]본부	A.F.T
GM코리아	[illegible]	E-MEC
KG모터스	KUM	LS-Nikko동제련
LS산전	MOBICOREA	[illegible]
[illegible]	SKF코리아	SK하이닉스이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YK Steel	경남	경신전선
광명전기	교세라커넥터	국일인토트
국제종합기계	귀뚜라미범양냉방	극동전선
넥상스코리아	노벨리스코리아	니콘코리아
다이후쿠코리아	대경기계기술서울	대경기계기술여수
대덕전자	대동도어	대동하이렉스
대한제강	대원강업	대성엘텍[illegible]
대원전선	대유글로벌	대한전선
대한제강	[illegible]	도루코
대우전자[illegible]	동부인천스틸	동성금속
동양철관	[illegible]	[illegible]
동화기업	동화크라운	[illegible]
[illegible]	두산전자	두올아산
두원공조	두원중공업	리헨
린나이코리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삼아알미늄	삼양[illegible]
삼영전자	삼화[illegible]	삼우금속
삼진정공	새화신	서진오토모티브
신성EG	성일산업	세방전지
세방전지 광주지부	세아제강	세아특수강
세일철강	세진전자	[illegible]
수일테크	신원	신한일전기
아산성우하이텍	[illegible]코리아	[illegible]코리아
[illegible]	에어텍스	[illegible]
엘에스엠트론	영진	영풍기계
[illegible]	오토리브	우영산업
우영산업 [illegible]지부	[illegible]코리아	유니크
유성	이수페타시스	이엠텍
인팩코리아	인지AMT	인팩
[illegible]시스템	일진	[illegible]코리아
진성공업	조선선재(포항)	[illegible]
[illegible]코리아	[illegible]지부	코아필드
타이코AMP	태양금속	[illegible]
[illegible]	포스코엠텍	포스코플랜텍
풍산 울산지부	풍산홀딩스	프라코
[illegible]	[illegible]	한국야금
[illegible]	[illegible]	한국특수형강
한국항공우주산업	한라스택폴	한일제관 울산지부
[illegible]	[illegible]코리아	현대모비스
현대성우메탈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종합금속
화천기공	[illegible]	대우전자서비스
삼신		(4월 3일 기준, 정정)

『금속노련』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4월 10일(수) 제349호

[illegible]

2018 금속노련 상반기 지역순회 완료

- 김만재 위원장,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대응지침 마련하겠다 -

2018년 임단투 승리와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금속노련 상반기 지역순회 간담회가 4월 5일(목) 충남지역본부를 끝으로 완료됐다.

김만재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대전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지역본부에 금속노련 목표와 임금인상, 교섭쟁점 및 지침 등을 설명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들어가는 메시지로 "올해는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며 "노련은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보전 모범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전조직에 전파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또한 "최근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며 "노련은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노동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지침 마련과 대정부 투쟁을 병행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이어 "금속노련은 20만 조직확대를 목표로 포항·광양지역 등을 중심으로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면서 "제조노동자를 선도하는 책임감으로 노동운동을 펼쳐가겠다." 고 밝혔다.

금속노련은 순회 현장의 의견을 정리하여 향후 투쟁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제조연대 2차 교섭위원 교육 성료리 종료

제조연대(금속노련, 화학노련)는 4월 2일(수)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단체교섭 2차 교육을 개최하여, 2018 단체교섭 승리를위해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단체교섭에 임하는 전략과 전술 ▲단체교섭 요구안 작성법 ▲사례로 살펴보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등 임단투에 돌입한 노조에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강의들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은 개강사에서 "이번 교육이 임단투 승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조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제조연대가 더욱 연대하고 투쟁하겠다" 고 밝혔다.

금속노련 위원장 선거일정 확정

금속노련 위원장 선거일정이 4월 9일 진행된 금속노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인상) 1차 회의에서 결정됐다. 금속노련 선관위는 11일 위원장 선거를 공고하고, 선거일정에 돌입한다.

■위원장 입후보 등록 마감일: 4월 17일 09시~19일 12시00분
■선거홍보물: 1600부, 제출은 4월 23일 ■합동유세: 1회(여주)
■선거비용: 입후보자 공탁금은 후보당 300만원 현금납부, 부족분 연맹출연, 잔액 연맹 일반회계 귀속
■선거운동기간: 2차 선관위 재논의(4월 19일, 11시)
■연맹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홍보 4월 19일부터 선거일까지

한국노총 비정규연대기금 모금(5월말까지)

1. 모금계좌: 농협1197-01-010305 (예금주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2. 문의: 정해교 조직부장(02-6277-2007)

※ 입금시 반드시 [조직명] 기재 요망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4월 17일(화) 제350호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법률연금단체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8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홈페이지:

썬코어 고용생존권 사수투쟁 1차보고 대회

- 기업회생에 집중하기 위해 투쟁을 잠시 중단하기로 -

1년간 투쟁을 이어온 금속노련 썬코어노동조합(위원장 김주훈)은 13일(금)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썬코어 고용생존권 사수투쟁 1차 보고대회를 열고, "기업회생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투쟁을 잠시중단하고 공장 재가동을 위한 준비에 집중하겠다." 고 발표했다.

이번 집회에는 썬코어동지를 비롯하여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오유진 한국노총 경기본부 서북부지부의장, 파주 인천·인산·충북 등 전국에서 모인 대표자 및 간부, 약탈경제 반대행동 김재율대표 등 총 100여명이 함께했다.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썬코어를 살리는데 무관심했지만, 썬코어는 금속노련과 썬코어노조의 투쟁으로 법원으로부터 3월 21일 MSA를 전제로한 회생결정을 받아낸다.

김주훈 썬코어노조 위원장은 그 동안의 연대에 감사를 표하며 "지난 1년간의 투쟁 중에 어느 누구도 썬코어의 승리를 예측하지 않았지만, 보란듯이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결정을 받아낸다" 며 "동지들이 보여준 연대의 기운으로 기업회생도 탈출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모든 힘을 다해 썬코어를 정상화시킨 후 이 자리에 다시 서겠다" 고 다짐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썬코어의 투쟁은 금속노련과 한국노총,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동지들의 투쟁이다." 고 강조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내팽개친 작은 기업 "썬코어"를 노동자의 단결과 노력으로 살려냈다는 승리의 역사, 투쟁의 역사를 우리가 써가는 중이다. 반드시 썬코어를 정상화시켜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을 내팽개친 산업은행의 반성문을 반드시 쓰도록 만들자" 고 역설했다.

현장에 모인 동지들은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썬코어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하여 산업은행의 부실대출과 직무유기, 졸속행정 등을 규명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고 결의했다.

제조연대 선전선동교육 실시

제조연대(금속노련, 화학노련)는 4월 9일(월)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선전·선동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금속노련 140명과 화학노련 60명 등 총 200여명의 동지들이 함께했다.

교육은 ▲선전·선동개념과 실습 ▲선전·선동 실습발표 ▲간부의 자세와 역할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단체행동 법리해설 ▲한국사회 다시보기 등 선전과 선동의 핵심강의로 진행됐다.

2018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및 제25대 금속노련 위원장 선거

1. 일시: 2018년 5월 15일(화) 13시 30분
2. 장소: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한국노총 비정규연대기금 모금(5월말까지)

1. 모금계좌: 농협1107-01-010305 (서울 한국금속노총조합연맹)
2. 문의: 장태교 조직부장(02-6277-2007)
※ 입금시 반드시 [조직명] 기재 요망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협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4월 24일(화) 제351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김만재 편집인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4층 T.02-6277-2000 F.02-6277-2011

이번에 불공정 갑질행위 근절 못하면 제조업의 미래없다

- 김만재 위원장, 자동차업종 노조대표자 간담회에서 불공정 관행 개선위한 행동에 나서겠다 선언 -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23일(월) 15시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노조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원·하청불공정거래 현황과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의 갑질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아직까지도 원·하청불공정거래의 핵심인 제조산업에는 손을 대지 못한 채 서비스업종 등 주변부만 맴돌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현 정부의 공정한 사회로의 전진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제조업의 원하청불공정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게 제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없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임금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허상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원청의 지나친 갑질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하청업체에 대한 낮은 납품단가 요구는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 인사 노무 문제까지 결부되어 노사관계를 파탄나게 한다"면서 "원하청 거래시 하청업체에 적정 이윤을 보장해서 하청 노동자가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된 감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노련이 강하게 투쟁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련은 간담회에서 모아진 실태와 의견들을 정리하여 4월 3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제25대 금속노련 위원장 후보등록 마감

오는 5월 15일(화) 실시되는 제25대 금속노련 위원장 선거에 김만재 후보가 단독 입후보 했다.

금속노련 선관위(위원장 오인석)는 4월 19일(목) 위원장 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입후보 자격심사를 거쳐 김만재(SK하이닉스이천노동조합 지도위원, 현 금속노련 위원장)후보를 단독 후보로 확정한다고 4월 20일(금) 공고했다.

선관위는 4월 25일(수)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 운동 일정과 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조연대 법률교육 실시

제조연대(금속노련, 화학노련)는 4월 16일(월)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법률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금속노련 140명과 화학노련 70명 등 총210여명의 대표자 및 간부 동지들이 함께했다.

교육은 ▲부당노동행위사례 및 대응방안 ▲징계 및 해고의 대응 ▲임금산재보상근로시간 실무 ▲2018년 정세 및 노조의 대응방안 등 노조간부가 알아야하는 핵심강의들로 진행됐다.

2018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및 제25대 금속노련 위원장 선거

1. 일시: 2018년 5월 15일(화) 13시 30분
2. 장소: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개혁 정산!
제조산업발전형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5월 4일(금) 제[illegible]호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빌딩 4층 T02-6277-2000 F02-6277-2011 [illegible]

정기대의원대회 성공적 개최에 전력 다하기로

- 183차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 확정, 안건 심의 마쳐 -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5월 3일(목)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18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5일(화)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되는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준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금속노련 조직 갈등과 분쟁 조정을 위한 '가맹인준 절차 및 분쟁 조정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 앞서 김만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노련과 지역본부 단위노조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내자"고 강조하고 "앞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입법안 저지와 타임오프 노사자율결정 등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해 금속노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원·하청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련이 적극 투쟁하겠다."고 밝힌 후,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정기대의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위원들은 한국노총 제조연대 활동 보고와 정기대의원대회에 관련 △회순심의 건 △대의원 자격심사 건 △표창자 확정 건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금속노련 가맹인준 절차 및 분쟁 조정 규정 제정 건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했다.

회의결과 총 740명의 대의원 명단을 확정했으며, 김만재 위원장을 추진 단장으로 하는 '20만 금속노련 조직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2020년 20만 금속 조직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조직분쟁 발생시 '조직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금속노련 가맹인준 절차 및 분쟁 조정 규정'을 제정했다.

김만재 위원장, 제조업 불공정거래 현황 노사정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전달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4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사정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개최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연대임금 실현' 토론회에 참석하여 제조업 원·하청 불공정거래 현황과 피해사례를 노사정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실태와 임금격차 현황과 개선방안'등을 토론하고, 해법마련을 논의했으며, 금속노련에서는 김준영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018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및 제25대 금속노련 위원장 선거

1. 일시: 2018년 5월 15일(화) 13시 30분
2. 장소: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3. 문의: 정해교 조직부장(02-6277-2007)

※참석 예정인 대의원께서는 본인이 금속노련 대의원인지 확인 후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석 바랍니다.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별연맹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5월 11일(금)

15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만 금속 조직화 본격 시동!

- 제25대 금속노련 위원장 선거 함께 실시 -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가 5월 15일 오후 1시 30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2017년 사업 및 결산보고와 함께 2018년 사업계획(안), 2018년 예산(안)과 2018년 금속노련 투쟁 방향 및 핵심 사업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속노련 제25대 위원장과 부위원장·사무처장·회계감사를 선출한다.

위원장 후보로는 4월 19일 후보 마감한 결과 김만재(SK하이닉스이천노동조합 지도위원, 현 금속노련 위원장) 후보가 단독 후보로 나섰다.

금속노련은 △20만 금속노련 조직화 추진단 구성을 통한 2020년 20만 금속조직화 △부당노동행위 대응 매뉴얼 제작 △자동차산업 원·하청거래의 실태와 개선과제 연구 △모범 단체협약집 발간 및 단협 비교사이트 구축 △사회적 대화 추진사업 △제조노동자 남북교류 사업을 2018년 핵심 사업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금속노련 대의원 동지들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한국노총 제조연대 완전체 30일 출범

금속노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이하 "한국노총 제조연대")가 확대 출범한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글로벌 제조업위기와 구조조정 등 제조업 노동현안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01년 5개 제조부문 산별연맹(금속노련, 고무산업노련, 섬유유통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이 모여 출범 한 바 있다.

김준영 한국노총 제조연대 집행위원장은 "기존 5개 연맹에 광산노련과 식품노련이 참여하여 한국노총 제조부문 산별이 완전체로 활동하게 됐다." 며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마련, 사회적 대화기구인 제조산업협의회 구성 등 제조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낼 계획이다." 고 밝혔다.

출범식은 5월 30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 5층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통과!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6월 18일(수) 제94호

20만 조합원시대 힘차게 열기로

- 참석대의원 97.5% 지지, 김만재 후보 제25대 위원장 당선 -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5월 15일 오후 1시 30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2018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박인상 전 금속노련 위원장 등 많은 선배동지들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산별노련 위원장 등 50여명의 내외빈이 참의하여 대회를 축하했다.

대회는 재적대의원 740명 중 630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는 표창수여, 대회사, 격려사, 경로패, 감사패, 조직확대 우수본부상(경남지역본부) 시상이 진행됐으며, 2부는 2017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8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심의, 금속노련 위원장 선거,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중앙위원, 노총파견대의원, 노총선거인단 선출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우리 노련을 3년간 이끌어 갈 제25대 금속노련 위원장 선거가 있었으며, 김만재 현 위원장이 단독 출마하여 대의원 97.5%(참석대의원 630명이 투표하여 595표 득표)의 압도적 지지로 재선출했다. 더불어 부위원장은 김해광 수석부위원장(상근, LG전자)외 4명, 사무처장(부위원장)은 김준영, 회계감사는 김삼두(에스엘라이팅간산)외 4명이 선출됐다.(자세한 내용은 노련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바람).

김만재 위원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재신임해 준 동지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5월 15일을 20만 금속노련 조합원시대를 여는 첫날로 선언하고 비정규, 사내하청, 무노조 사업장을 적극 조직화하여 2020년 3만 금속시대를 열겠다." 고 말했다.

또한 "제조현장의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과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참석 대의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20만 조직화 ▲임금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차별 감시 근절 ▲ "제조산업발전법" 등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요구 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5월 30일(수)

한국노총 제조연대 확대 출범식 개최

- 제조산업협의회 구성 요구 및 최저임금법 개악 철회 투쟁 선포 -

금속노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제조연대회의(의장 오명봉, 이하 제조연대)는 5월 30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 5층 대강당에서 제조연대 공동대표자 및 노조간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산별노련 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 제조연대 확대 출범식' 을 개최했다.

제조연대는 2001년 1월 16일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금속노련, 고무산업노련, 광산노련, 섬유유통노련, 화학노련 총 5개 조직으로 활동을 이어오다 이번에 식품노련과 출판노련이 추가 참여하여 기존 보다 한 단계 발전적으로 계승한 명실상부한 제조연대로 확대 출범한다고 선포했다.

제조연대 공동대표자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부활과 제조노동자들의 생존을 건 투쟁의 길에 서 있다." 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춧돌인 제조산업의 위기는 필연적 국가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 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제조현장은 정부주도의 일방적 구조조정, 무분별한 아웃소싱, 원·하청간의 불공정거래 등에 시달려 왔다." 면서 "이에 제조연대는 국가의 제조산업정책에 노동조합의 참여와 개입을 선언하고 노동중심 산업정책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시간, 최저임금, 비정규직, 4차 산업혁명 등당면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 고 천명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악을 규탄하고 당면한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출범식 참가자 일동은 △최저임금법 개악 철회 투쟁 전개 △제조산업협의회 구성요구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재벌기업 갑질 근절 △한국노총 200만 조직화 방침에 따른 미조직, 비정규직, 사내하청노동자 조직화 등을 위해서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최저임금법 개악안 철회하라!

최저임금법 개악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및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 위원 사퇴 기자회견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5월 29일(화)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개악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및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 위원 사퇴 기자회견" 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만재 위원장을 포함하여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산별노련 위원장 등 30여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버팀목이 되어야할 최저임금 제도가 재벌대기업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변질됐다"고 비판하고,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력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시각부터 한국노총 소속 최임위 위원 전원이 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하고, "대통령은 노동계와 면담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부익부빈익빈을 야기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거두하라" 고 요구했다.

금속노련 공동을동 제작 및 배포

금속노련은 금속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금속노련 공동을동' 을 제작했다.

금속노련 공동을동은 "철의 노동자, 파업가, 단결투쟁가" 총 3곡의 노동가에 맞춰 제작했으며, 금속노련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에서 etkbtu 금속노련 검색)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한국노총 제조연대회의 공동 성명> 노동자는 최저임금법 개악하라고 촛불을 든 게 아니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에 분노한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을 여당이 주도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의 의지를 의심하게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노동존중 국정 기조를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이 기급 여력이 충분한 재벌·대기업에게만 유익한 법이라는 것을 다하기 빠기 몇 번만 허비도 알 수 있음에도 "영세 중소사업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호도하지 말라.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피해가 없다는 궤변도 늘어놓지 말라.

자본주의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개인은 결코 평등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에 노동자의 집단적 의사표시를 존중해 온 노동법을 무력화시킨 죄가를 거기르고 노동존중을 이야기하지 말라. 노동을 배제하고 철저히 무시한 의사결정을 하고 사회적 대화를 언급하지 말라.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긴 호흡이 필요함을 모르고 시작한 것이라면 차라리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재벌과 보수언론의 호들갑에 굴복한 것이라 고백하라. 상·하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진 현실을 외면하고 "가계소득은 그래도 조금 올랐다." 라는 통계만 보면서 위안 삼기 마라.

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길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산의 정상이 보일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순탄치 않은 길을 헤치고 가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꾸벅꾸벅 가야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지지율 고공행진에 취해 있는 정부·여당은 참여정부의 실패를 곱씹어 보라. 국민적지지 없는 정책 결정은 그림의 떡이고, 국민적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제조노동자는 일부 재벌·대기업 호들갑에 굴복하는 정권을 위해 촛불을 들지 않았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더는 정부·여당에 기대하지 않는다. 투쟁을 통해 스스로 쟁취해 온 노동자의 역사를 곱씹고 반성하며 그 투쟁의 길을 가고자 한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 해소를 위한 제대로 된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한국노총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노총의 조직방침에 따라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악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전 조직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그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발한다.

최저임금법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6월 8일(금) 제356호

재벌 · 대기업만을 위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강력히 규탄한다

- 1천여명의 조합원 동지들,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 위한 투쟁 결의 -

금속노련은 6월 5일 오전, 광화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한국노총 긴급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한국노총 및 산별노련 간부, 조합원 동지 1천여명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과 최저임금법 개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노동존중사회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부정하는 일체의 세력에 맞서, 개악 최저임금법을 폐기하고 합리적 제도개선과 지속적 최저임금 인상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 ▲ 노동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정치권의 오만과 독선을 응징하고, 노동권 강화와 참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치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실천 할 것 등을 결의한 후, 청와대 방향으로 항의의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4일 청와대 앞 노숙농성진행 후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만재 위원장은 행진 대오가 청와대 앞에 도달한 후 발언을 통해 "노련은 최저임금법 개악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전 조직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그 투쟁의 선봉에 설 것" 이라고 밝혔다.

금속노련, 비정규연대기금 60,190,000원 한국노총에 전달

금속노련은 6월 4일 비정규연대기금 2차 모금액 10,957,000원을 한국노총에 전달했다. 지난 4월 58,233,000을 전달한데 이어 두 번째다. 금속노련은 20만 조직화를 위해 비정규직 · 영세노동자 조직화와 사내하청 조직화에 전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청주노조, SK건설 노동자 투표권 쟁취에 해결 나서

SK하이닉스청주노조(위원장 강국모)는 SK건설이 시공하는 SK하이닉스 청주 M15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만명이 6.13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

SK건설 노동자들은 오전 6시 일을 시작하며 오후 7시 넘어서 일이 끝난다. 이에 노조는 사측에 SK계열사인 SK건설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의 적극적인 대응에 SK건설은 노동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근시간을 조정하고 공사현장과 사전투표소 간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투표권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례는 조직된 노동자들이 미조직 노동자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매일노동뉴스에 기사화 됐다.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재조산업발전법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8월 15일(화) 제357호

포항지역 철강노동자 조직화 활동 본격 가동

- 포항지역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는 노동조합이 될 것 -

금속노련 포항지역철강노동조합(이하 철강노조, 위원장 이장언)은 8월 10일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포항 형산강 로터리와 포스코 3문 앞에서 포스코 출퇴근 노동자들과 포항시민을 상대로 '포항에도 노조바람이 분다' 라는 주제로 조직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철강노조는 지난 6월 5일 설립총회를 거쳐 6월 8일 포항시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수령했다. 그리고 이번 캠페인이 노조 설립이후 첫 번째 사업이다.

철강노조 위원장은 "포항지역은 포스코 제철 노동자 이외에도 철강 공단에 1만명 이상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조직화되지 않았다." 며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조를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조직화로 철강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철강노조는 포항지역 철강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조직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입문의: 포항지역 철강노동조합 (054-281-7476)

김태환 열사 제13주기 추모제 열려

- 김태환 노동상에 핸즈식스 노동조합 -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14일 오전 11시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개최된 '김태환 열사 제13주기 추모제' 에 참석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김만재 위원장을 포함하여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산별노련 위원장 등 60여 명이 함께 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추모제에 앞서 제5회 김태환 노동상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금속노련 소속 핸즈식스노동조합이 수상했다. 핸즈식스노동조합은 사내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초기업노조를 설립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219명 전원을 정규직화란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충주지부 의장이었던 김태환 열사는 2005년 레미콘노동자 노동 3권 인정 등을 위해 투쟁 하던 중 복숨을 잃었다.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6월 26일(화) 제9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김진재 편집인 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위로 26 전국노동회관 4층 TEL 02-6277-2000 FAX 02-6277-2011 제작지역/Jellenka

한일제관 노동조합, 자본의 횡포를 정면 돌파한다

- 사측은 일방적 아웃소싱 시도 즉시 철회하라! -

경남 양산에 위치한 금속노련 한일제관노동조합(위원장, 박한규)은 6월 25일 10시 30분, 아웃소싱 저지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 열고 '사측의 일방적 아웃소싱 추진 철회와 조합원 생존권 사수'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한일제관노조 동지 80여명, 금속노련 산하 단위노조 대표자 20여명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박한규 한일제관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노동자들은 한일제관을 가족이라 생각하고 평생을 일했는데, 사측은 노조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측의 행태를 강력한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김만재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한일제관은 작년 당기순이익이 270억에 달하는 우량 기업임에도 노동자들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노동의 대가를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아웃소싱 추진 철회와 노조의 투쟁 승리를 위해 금속노련이 끝까지 지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련 여성간부 워크숍 개최

금속노련은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 샤인빌 리조트에서 '여성간부 역량강화와 조직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금속노련 산하 노동조합 여성간부 35명이 참석했다.

첫째날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대한민국에서 여성 노동자로 살아가기' 특강과 나병호 노사대책부장의 '주요노동이슈' 강의가 진행됐다. 둘째날은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장소를 기행하며 희생자에 대한 위로와 사건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금속노련 철강노조 조직화 캠페인 실시

금속노련 포항지역철강노동조합(이하 철강노조, 위원장 이창언)은 6월 21일, 26일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포항 형산강 로터리와 포스코 정문에서 포스코 출퇴근 노동자들과 포항시민을 상대로 조직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철강노조는 포항지역 철강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조직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가입문의: 포항지역 철강노조 054-281-7476)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7월 3일(화) 제358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합 발행인·김진재 편집인·김준형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8호 4층 TEL 02-6277-2000 FAX 02-6277-2011 페이스북/ellenku

노동자 외면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즉각 해산하라!

- 노동자 없는 보건의료정책계획 즉각 철회하라 -

금속노련은 7월 3일 오전 11시, 서울 충정로에 소재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열린 '일방적 보건의료정책 강행 보건복지부 규탄! 한국노총 결의대회' 에 함께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해방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과 한국노총 및 산별노련 상근간부 150여명은 "보건복지부가 보건 의료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에서 양대노총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했다." 며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과거 정권이 행하던 전형적인 반노동 행정적폐" 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이 전국민에게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만큼 위원회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제대로된 감시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에 함께 해야한다." 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전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제도가 발견하고 안착되는데 필요한 조직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할 것 ▲보건복지부의 폐쇄적·일방적 행정적폐를 분쇄하고 사회안전망 전반의 강화를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전조직적 역량을 집중할 것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가입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보건복지부가 양대노총에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포항지역 철강 노동자에게 희망을!

- 금속노련 포항지역철강노동조합 조직화 캠페인 -

7월 3일 오전 7시, 금속노련 포항지역철강노동조합(이하 철강노조, 위원장 이창언)은 비가오는 궂은 날씨에도 포항 형산강 로터리와 포스코 정문 일대에서 조직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철강노조는 포항지역 철강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간 차별해소와 권리 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가입문의: 포항지역 철강노조 054-281-7476)

제26회 전태일 노동상 후보 9월 30일까지 공모

전태일재단과 매일노동뉴스가 전태일 노동상 후보를 공모한다.

올해로 26회를 맞는 '전태일 노동상' 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모범적으로 노동운동을 한 단체나 개인에게 주는 상이다. 수상자는 노동운동과 전체 민중에게 끼친 기여도 등 전태일 정신을 올바르게 실천했는가를 평가하여 선정한다.

후보 추천은 재단 홈페이지(chuntaeil.org)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이나 팩스(02-3672-4139), 이메일(chuntaeil@chuntaeil.org)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02-3672-4138)로 문의하면 된다.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7월 16일(월) 제40호

구조조정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

- 아이아 노동조합 총파업 투쟁 출정식 개최 -

안산에 위치한 금속노련 아이아노조(위원장 김광섭)는 7월 9일(월) 오전 11시,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분쇄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 출정식을 개최하여 조합원 고용 생존권 사수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김해광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 아이아노조 조합원 등지 200여명, 방준제 금속노련 안산지역본부 의장, 금속노련 관하 단위노조 대표자 80여명 등 300여명이 함께했다.

김광섭 아이아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사측은 6년간 흑자를 내고도 한두해 힘들다고 80여명을 구조조정하고 주력사업인 방산사업을 매각 또는 사업권을 임청에 반납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며 "경영 위기의 원인은 경영진에게 있는데 사측은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김해광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아이아 사측이 사원들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라 인데 사측은 경영 상황이 조금 나쁘다고 가족들을 5개월치 위로금만 주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통보했다" 며 "결과 속이 다른 사측의 행태에 분노하며, 13만 금속 동지들이 연대하여 아이아노조 투쟁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김민재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으로서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각오다져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김민재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11차까지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이 10,790원을 제시한 반면에 사용자위원들은 7,530원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4일이 최저임금 최종결정일로 예상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7월 17일(화) 제361호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820원, 10.9%인상) 결정

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시간당 820원(10.9%) 오른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5,150원(월 209시간 기준), 연봉으로는 20,941,80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14일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 인상률이 많이 낮아져 아쉽다"면서 "앞으로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 최종결정 전날인 13일 오후 2시 30분 금속노련은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 에 합계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잠식됐다" 고 강조하고 "경영계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한 경제구조 때문이다" 며 "근로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대회 마지막에는 참가자 전원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고용노동부 주위를 행진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금속노련 인천본부 '노사 상생문화 구축 위한 노사민정 토론회' 개최

금속노련 인천지역본부가 18일 오전 인천 남동구 본부 소강당에서 '노사 상생문화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토론회' 를 개최했다.

'최저임금법,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개선방안' 을 주제발표한 곽상욱 금속노련 정책부장은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 상한제로 장시간 노동이 일부 근절되는 효과가 있지만 생산 불량과 임금감소 문제가 발생되어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까지 산입범위에 포함한 개정 최저임금법은 노조의 힘이 강한 사업장에서는 방어가 가능하지만 무노조 사업장이나 노조 힘이 약한 사업장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상여금 호개기 행위가 예상된다" 며 "노련에서 관련 사항을 모니터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가겠다" 고 밝혔다.

로얄앤컴퍼니노조 위원장,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

부당하게 해고됐던 로얄앤컴퍼니노조 문재식위원장이 금속노련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경기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다.

로얄앤컴퍼니에 입사한 문위원장은 관계회사인 로얄아이도스로 견적했고 2017년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그런데 회사는 문위원장이 로얄앤컴퍼니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며 자격을 문제삼았다. 또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며 직무복귀를 요구하고 문위원장이 응하지 이에 않자 해고했다.

노조는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7월 16일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노련은 향후 노조가 활발한 활동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7월 24일(화) 제[illegible]호

[illegible]

금속노련, 20만 조합원 시대를 위한 조직화에 박차

20만 금속 조합원 시대를 열기위한 조직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금속노련 서울반도체노조(위원장 박정환)는 7월 23일 오전 7시 안산에 위치한 서울반도체 정문에서 조직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 함께한 안산지역 금속조직 대표자 30여명은 서울반도체 노동자들에게 노조 선전지를 배포하고 가입을 독려했다.

서울반도체는 LED칩을 생산하는 업체로 1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때문에 7월 16일 노조를 설립했다. 금속노련에는 최근 서울반도체노조를 포함한 16개 신생노조가 가입했고, 조합원은 1천여 명에 이른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2020년 20만 금속 조합원 달성을 위해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 무노조 사업장 조직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금속노련 포항지역철강노동조합(이하 "철강노조", 위원장 이창민)과 한국노총 포항지역지부(의장 경한균)는 7월 18일 오전 10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포스코는 국민연금이 1대 주주인 국민기업이고 선조들의 피의 대가인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기업인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을 먹고 자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최정우 포스코 회장 내정자가 얼마 전 포스코의 새로운 50년을 위해 주주, 고객사, 공급사, 지역주민, 국민들에게 리브레터를 받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최후보자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러브레터가 아닌 노동자의 혈서"라며 "포스코가 ▲노동조합 활동 가로막는 불리 평가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2018년 임금인상은 적어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결의로 선출한 대표자와 직접 협상으로 결정할 것 ▲진정성 있는 자세로 사내하청 노동조합과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요구사항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철강노조는 포항지역 철강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조직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련 중집부서장 임명장 수여식 및 지역본부의장 회의 개최

노련은 오는 30일 오후 1시 한국노총 13층 회의실에서 중집부서장 임명장 수여식 및 지역본부의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정책기획본부, 조직강화본부, 노사대책본부, 여성복지본부로 나누어 18명의 동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본부의장 회의에서는 금속노련 조직화사업, 교육사업, 제조연대활동 등을 보고하고 노동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노동자 통일 촉구 대회

☑ 일시 : 2018년 8월 11일(토) 오후3시
☑ 장소 :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
☑ 문의 : [illegible] 정책부장 02-6277-2004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8월 14일(화) 제[illegible]호

[illegible]

양대노총 제조연대, 오는 11월 '남북제조노동자대표자회의 개최' 제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8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참가를 위해 방한한 북측 노동자들과의 상봉 모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대노총제조연대(금속노련, 화학노련 / 금속노조,화섬연맹)는 북측 대표단에게 '조선금속 및 기계직업동맹', '조선경공업 및 화학직업동맹'과 11월초 북한에서 남북제조노동자대표자회의를 개최할 것을 정식 제안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참석을 위해 방한한 조선 금속 및 기계 직업동맹위원회 동지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넨 후 "4.27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고 밝히고 "오늘 만남을 계기로 남북한 노동자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금속노련은 4.27 판문점 선언의 완전한 실현과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면서 "이를 위해 양대노총 제조연대가 제안한 남북제조노동자 교류 협력사업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개최됐다. 경기는 한국노총-조선직총 건설로동자, 민주노총-조선직총 경공업로동자로 나눠 치러졌다.

전후반 각각 30분씩 이어진 한국노총-조선직총 경기는 1:3으로 조선직총팀이 승리했고, 민주노총-조선직총 경기는 0:2으로 조선직총팀이 승리했다.

경기를 관람한 양대노총 조합원과 시민 등 총 3만 여명은 축구경기의 승패를 떠나 남과 북 선수들의 선전과 통일을 기원하는 응원을 펼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10일 도라산 CIQ를 통해 입경한 북측 선수단과 대표단은 환영식과 만찬, 양대노총 방문, 남북 노동자 3단체 공동 기자회견, 용산역 강제 강용노동자상 참배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12일 오후 북한으로 돌아갔다.

20만 금속 조합원 시대를 열기 위한 조직화 사업 박차

20만 금속노련 조합원 시대를 열기위한 조직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노조(위원장 박정훈)는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회사 정문에서 안산지역 노조 대표자 30여명과 함께 회사 정문에서 조합원 가입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포항지역철강노동조합(위원장 이창언)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포스코 정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올해 4월 8개 업체 하청노동자들이 하나의 노조를 만든 현대모비스충주협력사노동조합(위원장 원종민)에서도 조직화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노조는 "하나 된 노조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을 해소하자" 며 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금속노련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최우선 과제로 더욱 공세적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9월 14일(금) 제164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만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4층 (02)-6277-2000 (02)-6277-2011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 개최
– 개정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 –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9월 13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하여 개정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 김만재 위원장은 "개정 최저임금법으로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되면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경우마저 발생할 수 있다"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등의 통상임금 역전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 최저임금법에서 노동자 동의 없이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을 취업규칙만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헌법 제32조 3항 '근로조건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논란 뒤에는 결국 자본의 갑이 숨어 있다"면서 "을들이 재벌 뒤에 숨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려는 갑들의 횡포에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공조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소속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해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 구성에서 공익위원을 노사정 각 3인씩 추천하고, 사용자위원 구성에서도 을을 대표하는 영세소상공인의 발언권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이동주 한국중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임영재 한국경총 경제조사팀장, 전수찬 이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ASE코리아노조 조합원 1,200명 넘어서

노련이 20만 금속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파주에 위치한 ASE코리아노조(위원장 마용태) 조합원수가 1,200명을 넘어섰다. 당초 200명 이었던 조합원수는 노련과 노조의 적극적 조직화로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

김해정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은 "노련은 향후 노조가 건강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막무가내 '최저임금 흔들기', 도 넘어

자유한국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자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서 유급휴일을 제외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미적용과 월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 제외는 노동자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며 "자한당의 행태를 강하게 경고하고 추가적 개악 시도를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9월 18일(화) 제366호

뼈를 깍는 혁신으로 완전히 새로운 포스코노조 건설할 것

- 포스코노조 재건추진위 발족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금속노련은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비상대책 위원회와 함께 17일 오후 12시 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노조 재건추진위원회 발족을 선언했다.

김만재 금속노련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스코노조가 사측에게 빼앗긴 노동3권을 쟁취하고, 정경유착부실경영의 고리를 끊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포스코를 되찾기 위해서는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며 "**한국노총과 금속노련, 포스코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재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포스코노조를 건설함과 동시에 '포스코 무노조 경영 50년' 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릴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노조에 대한 사측의 어떠한 지배개입 행위도 허락하지 않을 것" 이라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금속노련 나아가 한국노총 전체 조합원을 상대해야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비대위는 "금속노련 지도하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만 역할을 하고 해산할 것" 이라고 밝힌 후 "조합원 뜻에 따른 규약변경, 모든 임원 조합원 직접선출, 임단협 체결시 조합원 찬반투표로 결정 등 **노사 간 모든 합의에 조합원 의사를 묻는 것을 제도화 하겠다**" 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포스코의 경영 비리 척결과 민주적 경영을 위해 감시를 넘어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 등 노조의 역할을 다할 것**" 이라면서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추진과 불공정거래로 고통받고 있는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연대 투쟁에도 주저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앞으로 한국노총과 금속노련은 조직화를 위한 홍보, 언론홍보, 법률지원 등을 통해 노조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만기 포스코노조 비대위 위원장 및 비대위원, 권오탁 한국노총 경북본부 의장, 정천균 한국노총 포항지부 의장, 정상준 금속노련 포항본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오토리브노동조합, 사측의 일방적 구조조정정보 강력히 분쇄한다

오토리브노동조합(위원장 엄바목)이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계획 통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측은 작년 노사합의를 깨고 신제품 생산을 일방적으로 태국공장에 배치한데 이어, 올해는 2000여명의 조합원을 2022년까지 5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노조에 일방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17일 조합원 94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고, 지노위도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김만재 위원장은 "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 사측의 일방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분쇄하겠다" 고 밝혔다.

OTIS엘리베이터노동조합, 파업 돌입

OTIS엘리베이터노동조합(위원장 이창호)이 19일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9월 4일부터 5일에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인원 89.8%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조는 총 10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결국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노련은 OTIS노조 투쟁 승리를 위해 적극 연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풍요로운 한가위 연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광스러운 금속노련 동지들께 위원장 김만재 인사드립니다.

대체 휴일이 있다고는 하지만 고향 가는 길,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 뒤에 맞이하는 가을이라 그 선선함이 더 기분 좋은 추석을 기대하게 합니다. 폭염과 비 피해로 어려운 지역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 전하는 추석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최저임금위원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인 3년 내 1만원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이름으로 과기되었고,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통상임금보다 많은 최저임금이라는 모순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할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복지의 확대를 통한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질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노동운동 전체가 힘을 모아 더 강력한 정책수단을 갖추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조직화라 생각합니다. 30만 금속노련을 목표로 포항, 충북, 안산 등 전국적으로 조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이 결실을 맺고 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라는 깃에 어깨 걸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청 불공정거래에 기인한 양극화 해결을 위해 더 뛰겠습니다.

10월에는 하반기 지역순회를 통해 직접 찾아뵙고 조직화 사업을 비롯한 연맹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더 좋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장에 고충과 지혜가 담긴 사업을 통해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습니다. 명절에도 투쟁할 수밖에 없는 많은 동지도 있습니다. 주변에 동지들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한가위 되시고 한가위 보름달처럼 차고 넘치는 연휴가 되길 기원합니다.

금속노련 위원장 김만재 올림

여성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일일교육

1. **일시 및 장소:** 2018.10.12.(금) 09:30-17:00 한국노총 중북지역본부 강당
2. **대상:** 여성간부 및 산안담당자
3. **교육내용:** 여성노동자의 직업건강,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방안, 여성간부 육성과 역할
4. **신청방법:** 10월 5일까지 팩스(02-6077-2011)접수
5. **문의:** 김명미 정책본부장(02-6077-2005)

최기사소식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10월 4일(목) 제86호

[illegible]

오토리브노동조합 총파업투쟁 출정식 개최
-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방적 구조조정 반드시 저지한다 -

원주에 위치한 금속노련 오토리브노조(위원장 엄태욱)는 10월 1일 오후 2시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총파업투쟁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김해광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 오토리브노조 조합원 동지 200여명, 박승희 금속노련 강원지역본부 의장, 금속노련 산하 단위노조 대표자 40여명 등 250여명이 함께했다.

회사는 2013년 수익성이 높은 에어백을 화성공장에서, 수익성이 없는 자동차 안전벨트는 원주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고 고용안정을 위해 한국공장 전체이익 공유와 원주공장의 생산 물량 확보를 노조에 약속했다. 하지만 회사는 올해 초 원주공장의 수익성을 문제 삼아 조합원 230여명 중 167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일방 통보했다.

엄태욱 오토리브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사측은 경영악화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노동자들을 몰아 내려한다"며 "고용안정에 힘쓰겠다는 약속도 헌신짝 버린 셈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신규 수주물량도 원주공장이 아닌 해외공장으로 배치하여 경영상황을 더 악화시켰는데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한다"며 "노조는 더 이상 물러서면 죽는다는 자세로 총파업투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광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노련은 스웨덴에 있는 오토리브 본사를 압박하기 위해 스웨덴노총과 전세계 5천만명이 가입한 국제통합제조노련에 연대를 요청한 상태"라며 "하반기 국정감사에서도 오토리브 문제가 다뤄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엄태욱 위원장을 중심으로 13만 금속노련, 100만 한국노총이 함께 승리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20만 금속 조합원 시대를 열기 위한 조직화 사업 박차

20만 금속노련 조합원 시대를 열기위한 조직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노련은 포스코 포항공장과 광양공장 조직화를 비롯하여 포항지역철강노조, 현대모비스줄 주협력사노조, 서울반도체노조, 서울코리아노조 등의 조직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만재 위원장은 10월 2일 포스코 광양공장 앞에서 전개한 포스코노조 가입독려 캠페인에 함께하며 "노련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최우선 과제로 더욱 공세적 활동을 펼치겠다고" 고 밝혔다.

금속노련 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 10월 16일 돌입

노련은 10월 16일 당진시흥본부를 시작으로 16개 지역본부와 임단투 승리를 위한 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에 돌입한다. 이번 순회 간담회에서는 2018년 조직현황과 하반기 투쟁계획을 설명하고 노동이슈와 대응방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여성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일일교육

1. 일시 및 장소: 2018.10.12.(금) 09:30-17:00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강당
2. 대상: 여성간부 및 산안담당자
3. 교육내용: 여성노동자의 직업건강,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방안, 여성간부 자세와 역할
4. 신청방법: 팩스(02-6277-2011)접수
5. 문의: 김영미 정책본부장(02-6277-2006)

"중단 없는 사회개혁입법! 노조할 권리 쟁취! 근로기준법 개악저지!"를 위한

2018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장소: 2018.11.17.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도로)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10월 24일(수)

2018년 금속노련 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 반환점 돌아

김만재 위원장, "20만 금속 시대 열기위해 조직화 역량 집중할 것"

노동정세를 공유하고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금속노련 2018년 하반기 지역순회 대표자 간담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지난 10월 16일 안산 시흥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구미, 서울, 대전, 경기 지역본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16개 중 8개 지역본부와의 간담회를 완료했다.

금속노련은 이번 간담회에서 2018년 금속노련 조직현황과 투쟁사업 경현황, 20만 금속조직화, 금속노련 모바일 대표자수첩 제작 등을 보고하고,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10월 24일(화) 경기지역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며 "금속노련이 제시하는 대응방안을 활용하여 올해 임단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이어 "20만 금속 조합원 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적인 조직화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면서 "포항, 광양, 안산지역 등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고, 지역에서부터 힘을 모아 조직확대에 총력을 다하자" 고 당부했다.

금속노련은 순회 현장의 의견을 정리하여 향후 투쟁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금속일반노동조합 1호 가입 노동조합 탄생

석유화학 섬유를 생산하는 태광산업 노동자들이 금속일반노동조합(위원장 김만재) 설립 후 1호 노조로 이름을 올렸다.

태광산업지회(지회장 강호성)는 지난해 6월 노조를 설립하여 올해 21차례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어려움을 겪다가 10월 15일 금속일반노조에 가입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금속노련은 올해 7월 업종을 뛰어넘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일반노조를 설립했다" 며 "일반노조에 직가입한 지부와 지회는 향후 지역본부 산하 일반노조로 편입될 것" 이라고 밝혔다.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 조직화 캠페인 전개

금속노련과 포스코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인기)는 23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조직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포스코는 그 동안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지난 50년 동안 무노조 사업장이었다. 이에 포스코 노동자들은 9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속노련과 함께 포스코노조 재건추진위원회 발족한다고 선언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노조 비대위가 건강한 노조로 전환할 수 있을 때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단 없는 사회개혁 실현! 노조법 전면개정 쟁취!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를 위한

2018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2018년 11월 17일(토) 13시 30분
-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도로)
- 문의 : 노총별 조직국장, 02-6277-2008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업일방전범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11월 7일(수) 제368호

[illegible]

20만 금속조합원 시대 멀지않았다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를 최우선 과제로 공세적 활동 전개할 것"

2018년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만 금속 조직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한 후 가시적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11월 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 6,285명의 선거인단 중 5,23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이 중 2,682명(50.1 7%)의 지지로 기호 2번 김인철 후보를 제 17대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포스코노동조합은 그동안 휴면 노동조합 상태였지만,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조직화 노력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노동조합뿐 아니라, KB노동조합을 기존 200명에서 1,200명으로 조직화한데 이어 유주현대모비스협력사노동조합 300명 조직화, 서울랜드도예노동조합 조직화 등 눈에 띄는 결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노련은 20만 금속 시대를 열기위해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를 최우선 과제로 공세적 활동을 벌이겠다" 고 말했다.

임단투 승리를 위한 현장의 투쟁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 현장조직들의 투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남 광양에 있는 SNNC노동조합(위원장 박성민)은 11월 2일 포스코 광양공장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노조는 수십 년을 일해도 포스코 정규직의 5년차 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임금인상과 함께 근무시간 전 조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3차례 임금협상 후 2차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금속노련은 사측을 강하게 압박했고 결국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부산에 위치한 태양금속노동조합(위원장 최만욱) 역시 임금교섭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노련에 교섭권을 위임했고 노련의 지원으로 기본급 총액 10만원 인상으로 교섭이 타결됐다.

부산에 있는 일본해사협회한국노동조합(위원장 이활원)은 수차례의 교섭과 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노조의 입장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일본 본사의 의견을 확인해야한다며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11월 1일 파업출정식을 시작으로 8일과 9일 전면 파업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만재 위원장은 "노동의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사측의 어떠한 행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며 "강하게 단결하고 당당하게 투쟁하여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자" 고 밝혔다.

공짜 없는 사회책임실현! 노조법 관련제개정 쟁취!
근로기준법 제개정! '을 위한

2018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2018년 11월 17일(토) 13시 30분
☑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도로)
☑ 문의 : 노총별 조직국장, 02-6277-2000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11월 15일(목) 제385호

금속노련 조직화 사업 박차

"포스코 노동조합, 금속노련 가입"

포스코노동조합(위원장 김인철, 조합원 7천여 명)이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에 가입했다. 이는 올해 5월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만 조직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한 이후 7개월 만에 나온 큰 성과물이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포스코노조 조직화를 기점으로 포스코 협력사를 비롯한 전체 제조분야 조직화가 속도를 낼 것" 이라며 "앞으로 노련은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를 최우선 과제로 더욱 공세적 활동을 이어가겠다" 고 밝혔다.

금속일반노조 태광산업지회 조정신청

금속일반노조(위원장 김만재)가 태광산업지회를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속일반노조 태광산업지회(지회장 강호성)는 올해에만 25차례(금속일반노조 가입이후 3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에서 아무 권한이 없는 자를 교섭위원으로 참가시켜 소모적인 교섭으로 흘러왔다. 이에 노조는 11월 12일 서울지노위에 조정 신청했고, 오는 20일 1차 조정을 앞두고 있다. 노련은 금속일반노조의 첫 번째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속일반노조 조직화, 폭풍처럼 진행 중

지난 10월 15일 태광산업지회가 금속일반노조 1호로 가입한데 이어, 네오아이오티지회와 비에스마케팅지부가 연달아 금속일반노조에 가입했다.

네오아이오티지회(ATM 서비스)는 중앙일반노조에서 활동하다가 지난 10월 30일 전조합원 투표를 통해 금속일반노조로 조직 변경했다.

비에스마케팅지부(통신기기 영업)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고통을 받다가 금속일반노조에 가입했다.

노련은 금속일반노조에 직가입한 지부와 지회를 향후 지역본부산하 일반노조로 편입할 계획이다.

제조연대, 탄력근무제 확대 논의 규탄 성명서 발표

한국노총 제조연대와 양대노총제조연대는 지난 5일 청와대와 여야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제조연대는 성명서에서 "노동적폐 청산과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켜 노동시간 단축효과를 반감케 하려고 하고 있다" 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정부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정책이다" 고 비판했다.

이어 "OECD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에서 탄력근무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할 의지가 없음을 표명하는 것" 이라며 "제조노동자들이 책임을 집중하여 근기법 개악을 저지하겠다" 고 경고했다.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교육 개최

1. 일시: 2018년 12월 10일(월)~11일(화), 1박2일
2. 장소: 서울 마리스타 수녀원 교육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86-4 ☎02-333-4277)
3. 대상 : 노동조합 홍보담당자
4. 교육참가비: 3만원
5. 교육내용: 노동조합 글쓰기, 노동정세와 노동이슈, 사진촬영 기법
6. 보내실 곳: 팩스 02-6277-2011으로 신청서 발송
7. 문의: 박장현 홍보부장(02-6277-2000)

2018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2018년 11월 17일(토) 13시 30분
☑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도로)
☑ 문의 : 노총 조직국, 02-6277-2008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11월 21일(수) 제370호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4층 T02-6277-2000 F02-6277-2011 페이스북/kfmu

금속노련,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석
김만재 위원장 "노동개악 저지하게 투쟁의 깃발 올려야"

금속노련은 11월 17일(토) 13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했다.

한국노총 조합원 및 간부 등 3만 여명은 이날 집회에서 중단없는 사회개혁실현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 쟁취, 근로기준법 개악저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투쟁사를 이어간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얼마 전 청와대와 여야원내대표들이 탄력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를 합의했다"며 "자본이 바라던 초장시간 노동정책이 노동존중사회로 가겠다던 청와대의 테이블에서 나왔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력근로시간제 기간확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추진 등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 참가를 재고하고 투쟁의 깃발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마전 금속노련에 가입한 포스코노동조합(위원장 김인철)도 현장 투쟁발언자로 무대에 올라 7천 조합원을 넘어 1만명 이상을 조직화하여 강하고 투쟁력 있는 당당한 노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대회 마지막에는 현장에 있는 동지들의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결정을 비롯한 노조법 전면 재개정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등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제조연대 대표자 및 상근간부 기본교육 실시

한국노총제조연대(금속노련, 고무산업노련, 광산노련, 섬유유통노련, 식품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는 11월 19일(월)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여주에 위치한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2018년 하반기 제조연대 대표자 및 상근간부 기본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은 ▲노동자와 노동운동 ▲한국노총 위원장 특강 ▲노동조합 운영 실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원리 ▲단체교섭의 실무 ▲[illegible] 실천 사례 ▲제조연대의 방향과 목표 등 노동조합활동에 필요한 핵심 강의들로 진행됐다.

금속 경기지역본부, 안산시흥지역본부 새의장 선출

금속노련 경기지역본부는 11월 20일(화) 경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원필서 동지를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했다.

금속노련 안산시흥지역본부 역시 11월 21일(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의장 선거를 실시하여 백선진 동지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원필서 경기본부 의장은 현재 에이엔씨 위원장을 맡고 있고, 백선진 안산시흥본부 의장은 현재 명화공업 안산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다.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교육 개최

1.일시: 2018년 12월 10일(월)~11일(화), 1박2일
2.장소: 서울 마리스타 수녀원 교육관
3.대상 : 노동조합 홍보담당자
4.교육참가비: 3만원
5.교육내용: 노동조합 글쓰기, 노동정세와 노동이슈, 사진촬영 기법
6.보내실 곳: 팩스 02-6277-2011 (11월 30일 마감)
7.문의: 박강[illegible] 홍보부장(02-6277-2000)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11월 21일(목) 제17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일행연금전재 연금연금문제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지원회 26 전국노동회관 4층 TEL:02-6277-2000 FAX:02-6277-2011 페이스북/ellenbu

금속노련 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 성공적으로 마쳐
김만재 위원장 "노동개악 저지위해 적극 투쟁할 것"

10월 16일부터 시작한 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가 11월 29일 포항지역본부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노련 조직현황과 투쟁사업장현황, 20만 금속조직화, 금속모바일 대표자수첩,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만재 위원장은 29일 포항지역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와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등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들을 배양 끝으로 몰고 있다" 면서 "노련은 제조노동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응지침 마련과 대정부 투쟁을 병행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이어 "노련은 얼마 전 7,000명의 포스코노조 조직화에 성공하는 등 20만 금속조직화를 향한 총력투쟁이 결실을 맺고 있다" 면서 "이에 대해서도 동지들의 많은 관심 부탁한다" 고 당부했다.

금속노련은 순회 현장의 의견을 정리하여 향후 투쟁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LG전자노조, 3,900 협력사 직원 직고용 이끌어

LG전자노동조합(위원장 배상호)의 조직화 투쟁이 협력사 직원 3,900여명 직고용을 이끌어냈다.

LG전자노조는 지난 5월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사내비정규직, 협력사 조직화 총력투쟁 방침에 따라 조직화를 진행했다. 노조가 회사에 협력사인 LG전자 서비스센터 노동자를 직고용할 것을 요구했고 그 결과, 11월 22일 LG전자가 전국 130여 개의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협력사 노동자 3,9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해광 수석부위원장은 "노련은 LG전자 서비스센터 노동자 조직화와 차별시정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불보건설기계코리아노동조합, 본사 앞 출퇴근투쟁
- 사측의 일방적 외주화 추진 분쇄하자 -

불보건설기계코리아노동조합(위원장 조승구)은 한남동 본사 앞에서 사측의 일방적 외주화 추진을 분쇄하기 위한 4일차 출퇴근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사측은 작년부터 서비스 외주화, 레일즈 외주화를 추진하고 강제 전환배치를 실행하는 등 노조와의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출퇴근투쟁을 개최하여 사측의 일방적 외주화 추진 중단과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노련은 불보건설기계코리아노동조합 투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교육 개최

1. **일시:** 2018년 12월 10일(월)~11일(화), 1박2일
2. **장소:** 서울 마리스타 수녀원 교육관
3. **대상 :** 노동조합 홍보담당자
4. **교육참가비:** 3만원
5. **교육내용:** 노동조합 글쓰기, 노동정세와 노동이슈, 사진촬영 기법
6. **보내실 곳:** 팩스 02-6277-2011 (11월 30일 마감)
7. **문의:** 박강진 홍보부장(02-6277-2000)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별연맹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12월 06일(목) 제372호

[illegible]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일방적 외주화 추진 중단하라!
- 노조, 스웨덴 대사관 앞 규탄 결의대회 개최 -

볼보건설기계코리아노동조합(위원장 조승구)은 12월 6일 오전 11시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사측의 일방적 외주화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볼보는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자동차, 자동부품, 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외투기업이다.

사측은 작년부터 서비스 외주화, 세일즈 외주화를 추진하고 강제 전환배치를 실행하는 등 노조와의 공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출퇴근 투쟁을 통해 사측의 일방적 외주화 추진 중단과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조승구 볼보노조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스웨덴 대사관에 볼보노조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한다" 면서 "만일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사측이 또다시 무시한다면 한국노총과 함께 반 스웨덴 및 스웨덴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 고 경고했다.

금속노련은 볼보노조가 투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로얄앤컴퍼니노조 파업출정식 개최
- 사측은 정당한 노동대가 지급하라 -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로얄앤컴퍼니노조(위원장 문상식)는 12월 4일 오후 1시 30분 '임단투승리를 위한 파업출정식' 을 열고 조합원 실질임금 쟁취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파업출정식에는 로얄앤컴퍼니노조 조합원 동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일월시 금속노련 경기본부 의장, 김용복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 김덕수 한국노총 화성지부 의장 등 200여명이 함께했다.

문상식 로얄앤컴퍼니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근속 30년차 노동자 임금이 35,900원이고, 조합원 100명 중 95명이 이주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며 "노조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때까지 강력 투쟁하겠다" 고 밝혔다.

김만재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사측은 수익이 나면 경영진 노력이라 자랑하고 손실이 나면 노동자 탓이라 변명하고 있다" 며 "노련은 로얄앤컴퍼니노조 투쟁에 적극 연대하겠다" 고 강조했다.

금속 전·현직 여성대표자 및 여성간부 간담회 개최
- 여성위원회 재건으로 여성활동 활성화 및 소통강화 취지로 -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12월 3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9층 회의실에서 금속노련 전·현직 여성대표자 및 여성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성들의 노조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성위원회를 재건하기로 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경제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해 우리사회의 성차별 장벽은 여전히 공고하다" 며 여성노동의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금속노련은 여성, 비정규직, 청년 등을 조직화하는데 좀 더 집중해야 한다" 며 "열정과 참여심, 소통강화를 통해 여성간부들이 조직화에 힘써달라" 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지들은 여성조합원 활성화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간담회 결과, 활동이 중단된 금속노련 여성위원회를 재건하기로 결의하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허혜정 한국공정노조 위원장을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금속노련은 여성위원회 임시총회를 내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12월 12일(수) 제73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김만재 편집인 [illegible]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illegible] 한국노총회관 [illegible] T.02-6277-2008 F.02-6277-2011 [illegible]

포스코노동조합,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보

포스코노동조합(위원장 김인철)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12월 1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제기한 교섭대표노조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회사 측과 교섭할 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다.

김인철 위원장은 "묵묵하게 포스코노동조합을 지원한 동지들께 감사드린다" 며 "노조는 서울지원 전환배치 철회와 임금삭감없는 정년연장 등 조합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투쟁하겠다" 고 밝혔다.

금속노련은 포스코노동조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포알엔컴퍼니에 체불임금 지급명령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12월 6일 포알엔컴퍼니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계약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고 조합원 임금을 비조합원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노조는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사측을 임금체불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금속노련은 포알엔컴퍼니 동지들이 정당한 노동대가를 받을 때까지 투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교육실시

금속노련은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 마리스타 수녀원 교육관에서 홍보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동조합 글쓰기 ▲사진촬영 기법 ▲노동정세와 노동이슈 등 홍보활동에 필요한 핵심 강의들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김만재 위원장은 개강사를 통해 "홍보활동은 노동조합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고 언급한 뒤 "아무리 열심히 활동해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오해할 수 있다" 며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이 현장 홍보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면서 "노련은 조합원과 함께 현장중심 노동운동을 펼쳐가겠다" 고 말했다.

제조연대 제2차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최

제조연대(금속노련, 화학노련)는 12월 12일 울산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조연대 제2차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에 참가한 60여명의 동지들은 2박 3일간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강의를 듣고 노동조합의 책임자 산재대응방안 등을 토론하게 된다.

강의는 세상속 정해투장의 노동자와 노동정세를 시작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노동조합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산재보상 이론 및 실무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조합 역할 등으로 진행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10만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약 2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는 등 안전보건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속노련은 매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조합이 산재예방에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12월 21일(금) 제174호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불법안전관리 원천안전공학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8 한국노총8층 4층 TEL02-6277-2006 FAX02-6277-2011 페이스북/wfkmtu

불보건설기계코리아노조 본사 앞 출퇴근투쟁 30일차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불보건설기계코리아노동조합(위원장 조승구, 이하 "불보건설노조")은 12월 21일 서울 한남동 사옥 앞에서 출퇴근 투쟁 30일차를 이어가고 있다.

사측은 지난부터 서비스 외주화, 세일즈 외주화를 추진하고 강제 전환배치를 실행하는 등 노조와 해 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에 노조는 비대위를 구성하여 투쟁방향을 논의하고 출퇴근 투쟁을 통해 조합원 투쟁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불보건설노조 조승구 위원장은 "사측은 서비스 부문에 이어서 영업부문 딜러화를 강요하고 있다"며 "노조는 후퇴는 죽음이라는 각오로 투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노련은 불보건설노조가 투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불법 카풀 영업 방치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 금속노련,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참석 -

금속노련은 12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노총 및 산별노련 간부, 조합원 동지 10만여 명은 정부가 기존일자리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카풀서비스 시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 카풀앱 등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근절 ▲ 카풀 금지 여객법 국회 통과 ▲ 택시의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 등을 결의하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마포대교를 지나 공덕동 로터리까지 가두 행진을 진행했다.

금속노련 서울지역본부, 김용안 의장 선출

금속노련 서울지역본부는 12월 10일 제2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김용안 동지를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했다.

김용안 서울지역본부 의장은 현재 대우전자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조연대 제2차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최

제조연대(금속노련, 화학노련)는 12월 12일 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울산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조연대 제2차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에 참가한 60여명의 동지들은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강의를 듣고 노동조합의 책임과 산재 대응방안 등을 토론했다.

강의는 하상욱 금속노련 정책부장이 노동자와 노동정세를 시작으로 ▲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 노동조합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산재보상 이론 및 실무 ▲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조합 역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임재범 기술사는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교육'에서 현장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제시하여 교육생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별연맹 강화!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12월 28일(금) 제175호

[illegible]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김만재 편집인 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 4층 T.02-6277-2006 F.02-6277-2011 [illegible]

포스코노조, 불통경영 포스코 규탄 기습 시위 개최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 포스코노조는 12월 28일(금) 오전 11시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최정우 회장을 규탄하는 기습 시위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김인철 포스코노조 위원장과 상집간부 등 60여명이 함께 했다.

김인철 위원장은 "지난 12월 1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금속노련 포스코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공식 인정했음에도 사측은 아직도 노조의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지금까지 좋은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다."고 강력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기습 시위 이후 포스코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측의 포스코센터 근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전환배치 철회 ▲단체협약준수 촉구 ▲사업장 안전 등 조합원 권익보호 ▲사업장 내 다중 위원회 노동조합 참여보장 ▲ 노동조합 권익 쟁취 등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했다.

로얄앤컴퍼니노조 서울 상경투쟁
- 사측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 지불하라 -

로얄앤컴퍼니노조(위원장 문성식)는 12월 26일(수)오후 1시 30분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로얄앤컴퍼니 서울사무소 앞에서 '임단투승리를 위한 상경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로얄앤컴퍼니노조 조합원동지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 금속노련 산하조직 대표자 동지 등 150여명은 조합원 실질임금 쟁취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문성식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조합원 100명 중 85명이 이주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연장근무를 해도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서 "사측은 지금 당장 체불임금을 지불하라"고 밝혔다.

김만재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사측은 노동부로부터 12월 26일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로얄 동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수령하고 투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결의대회 이후 참가자들은 서울 사무소 주위를 가두행진하고 사측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태광산업지회,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 개최

금속일반노조(위원장 김만재) 태광산업지회는 12월 26일(수) 서울 중구에 위치한 태광산업 본사 앞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는 사측을 규탄하는 연대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태광산업지회(지회장 장효성)는 올해에만 30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에서 아무 권한이 없는 자를 교섭위원으로 참가시켜 신설 단체협약 78개 조항 중 23여개만 합의한 상태다.

노조는 사측에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수 차례 경고했지만 묵묵부답이라는 얘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

노조는 투쟁의 강도를 점차 높이면서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1월 9일(수) 제376호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정명안전관리원 관리안전공동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6층 4층 TEL02-6277-2000 FAX02-6277-2011 페이스북/wfkmtu

포스코노동조합 현판식 개최

포스코노동조합(위원장 김인철)은 1월 7일 오후 2시 포스코 포항공장에서 노동조합 현판식을 개최했다.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 금속노련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맞이했다. 현판식에는 김인철 포스코노조 위원장과 김해부, 정천균 한국노총 포항지역지부 의장, 정상준 금속노련 포항지역본부 의장, 포스코 정영진 등이 참석했다.

김인철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키고 내실을 다지는 노동조합이 되겠다"고 강조하고 "7천을 넘어 1만 조합원을 조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월 10일에는 포스코광양지부 현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ASE코리아노조, 사측의 연차사용 강요에 즉각 대응
- 노동조건 후퇴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던 ASE코리아가 노조(위원장 박용락)의 강한 반발에 꼬리를 내렸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사내게시판을 통해, 오는 1월 8일 전기안전시설 점검을 이유로 개인휴가를 사용하라고 공고했다.

이뿐 아니라 공고문에는 점검일 난방물가, 식당 미운영, 셔틀버스 미운행, 무단 결근처리 엄포 등의 내용도 담고 있었다.

이에 노조는 사측에 공문을 발송하여 전기안전점검일에는 휴업을 해야함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조합원 휴가대체로 전가하려한다며 사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노조의 압박으로 사측은 점검일 근무를 교육으로 대체했다.

노련은 ASE노조가 건강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노조, 서비스 외주화 분쇄 투쟁

볼보건설기계코리아노조(위원장 조승구)가 "사측의 서비스부문 일방적 외주화 정책 중단을 분쇄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위원장은 "사측은 올 초에 포항남부·경주, 거제·통영, 거창·함안 지역의 서비스 권한을 외주 업체에 넘겼다"며 "판매량 급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서비스부문을 외주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련은 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스웨덴 볼보 본사노조에 연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제조연대, '단체협약 해설집' 출간 예정

한국노총제조연대(금속노련, 고무산업노련, 광산노련, 섬유·유통노련, 식품산업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가 '단체협약 해설집' 2월 출간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단체협약 해설집은 모범단체협약과 각 조합별 해설, 관련법률, 행정해석, 법원판례 등 노동이슈를 총 망라하여 노동현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노련은 해설집이 완료 되는대로 전 조직에 배포할 예정이다.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1월 18일(금) 제377호

[illegible]

볼보건설기계코리아노조, 서비스부문 외주화 규탄집회 개최

볼보건설기계코리아노조(위원장 조승구)는 1월 16일 11시, 포항 삼성중기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볼보의 서비스부문 외주화 전환을 강력 규탄했다.

조승구 위원장은 "사측은 올해 초에 포항·경주, 거제·통영, 거창·함안 지역의 서비스부문을 외주 업체에 넘겼다" 며 "판매량 급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외주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볼보와 외주화 계약을 맺은 삼성중기에 계약파기를 요구한 후, "후퇴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투쟁에 임하겠다" 고 강조했다.

노련은 볼보건설노조 투쟁을 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포스코노조 '포항MBC 허위사실유포 중단촉구' 집회
- 모든 조직적 역량 동원하여 포항MBC 단죄할 것 -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위원장 김인철, 이하 포스코노조)은 11일 오후 4시, 포항MBC 사옥 앞에서 편파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는 포스코 상집간부, 금속노련 포항지역 대표자 동지 등 200여명이 함께했다.

포항MBC는 지난 9일 "포스코 민주노총노조에 무슨일이?" 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 권 모변호사를 출연시켜 민주노총 노조를 옹호하고, 한국노총 노조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김인철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방송 내용을 보면 포항MBC가 공영방송인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교신본부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며 "포항MBC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편파방송 금지 약속,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 고 밝혔다.

이어 "만약 포항MBC가 포스코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또다시 편파적으로 방송한다면 모든 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단죄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2019년 임단투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1. 보내실곳: 팩스(02-6277-2011) 또는 이메일(giwooksa@naver.com)
2. 문의: 곽상옥 정책부장(02-6277-2004)

※설문지는 금속노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www.metall.or.kr) 다운로드 가능

2019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1. 일시: 2019년 2월 27일(수) 13시 30분
2. 장소: 한국교총 컨벤션홀(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3. 문의: 정태교 조직부장(02-6277-2007)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1월 24일(목) 제378호

[illegible]

김만재 위원장, 최임위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개편안 폐기 촉구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이스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개편안에 대해 최임위 위원들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 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개선 추진 규탄과 재논의" 를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최임위 결정구조 개편안은 노사자율원칙을 위배하고 을과 을들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 며 "정부의 일방통행은 사회적대화 참여에 대한 진정성을 훼손시킬 뿐이다" 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 이견만 확인한 채 종료됐고, 최저임금 개편 재논의 여부는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금속노련 규약·규정개정 소위원회 개최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될 규약·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1월 22일-23일 천안 대명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중앙본부 사무처에 본부와 부서를 두도록 한 규약을 규정으로 정하여 유연하게 운영하고, 기타 규약·규정도 현실에 맞게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안이 논의됐다.

노련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여 2월 개최 예정인 중앙위원회와 5월 정기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이다.

김만재 위원장, 포스코노조 광양지부 특강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노동기본권 지켜내야"

김만재 위원장은 1월 17일 오후 4시, 포스코노조 광양지부에서 열린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의 역할 특강' 에서 "집행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을 당부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현재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문제 등이 노동계의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시기" 라며 "포스코노조는 집행간부를 중심으로 노동이슈에 관심을 갖고 공세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 고 말했다.

특히 "조합원들이 노조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만큼 현장의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하고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고 강조하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에서 위기감을 갖고 노동운동에 임하자" 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포스코노조 광양지부 집행간부 및 대의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노조의 조직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속노련 문화패 현황조사

1.보내실곳: 팩스(02-6277-2011) 또는
이메일(ghostpak@hanmail.net)
2.문의: 박장현 홍보부장(02-6277-2009)
※ 조사서는 노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가능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개혁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정!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1월 28일(월)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김만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한국노총 4층 (02-6277-2000 (02-6277-2011

금속노련 제184차 중앙위원회, 2월 21일 개최

금속노련은 오는 2월 21일(목)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184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도 임단투지침 확정 △제조연대 활동보고 △2019년도 상반기 교육계획 △2019정기대의원대회 △가예산 승인 △규약·규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일본해사협회 노동조합 임금협상 합의

금속노련이 위임받은 일본해사협회노조(위원장 이창원)의 임금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노조는 지난해 8월 사측과의 임금협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노련에 교섭권을 위임했다.

이에 노련은 김성수 조직본부장과 전종덕 조직실장을 교섭단으로 꾸려 수차례의 교섭을 진행했고, 1월 25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타결 내용으로는 기본급 총액대비 3.6%인상, 기본급의 600% 상여금 지급 등이다. 노련은 향후 노조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속노련이 참여하는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
"자동차산업에 대한 인식 공유로 미래비전 제시할 것"

금속노련이 노사정 8개 조직과 함께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을 출범했다.

금속노련을 포함하여 금속노조,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8개 조직은 1월 24일(목) 오후 3시 30분 자동차산업협동조합 5층 회의실에서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이하 '포럼')'을 공식 출범한다고 선포했다.

포럼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노동계·산업계·정부는 자동차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와 상호협력을 위하여 포럼을 운영하기로 했다" 며 "포럼은 국내외 자동차산업 동향 및 전망, 자동차산업 경쟁력강화, 미래 환경변화가 자동차산업 생태계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 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노·사가 생산적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 이라며 "산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전문지식을 지원하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산업정책을 수립하는데 노조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 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자" 고 말했다.

포럼은 향후 1년 간 운영하고, 필요시 연장가능하다.

2019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1.일시: 2019년 2월 27일(수) 13시 30분
2.장소: 한국교총 컨벤션홀(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3.문의: 정태교 조직부장(02-6277-2007)

금속노련 문화예 현황조사

1.보내실곳: 팩스(02-6277-2011) 또는 이메일(ghostpak@hanmail.net)
2.문의: 박광현 홍보부장(02-6277-2000)
※ 조사서는 노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가능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적폐 청산!
재조산법발전방 쟁취!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2월 15일(금) 제80호

김만재 위원장, 금강산 계최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 참석
'남북제조노동자 상봉행사' 정식 제안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이 2월 12일부터 14박 2일간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이하 '연대모임')에 참석하여 북측에 남북제조노동자 상봉행사 개최를 정식 제안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12일 오후 연대모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회의에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에게 남북노동자통일대회 개최건 평양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제조노동자 상봉행사 개최제안서' 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만재 위원장은 북한 대표단에게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대노총 제조연대가 제안한 남북제조노동자 교류사업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기위해 북녘 제조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싶다" 고 밝혔다.

이번 방북 행사에는 양대노총, 불교·개신교·천주교 등 7대 종단 수장들과 시민단체, 여성·청년·농민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 210여명을 비롯해 취재진 등 총 260여명이 합류했다.

행사는 첫날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연대모임과 남북·해외 대표단회의를 시작으로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 민화협·종교계·시민·여성·청년단체 모임, 둘째 날 해맞이 결의모임, 농민·교육·지역별 모임 등으로 진행됐다.

포스코의 산재 은폐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故 김선진 동지의 산재사고 인정하라

지난 2월 2일 오후 5시경 포스코 포항제철소 작업장에서 금속노련 포스코노조(위원장 김인철) 소속 김선진 동지가 작업 중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측은 사망한 김 동지가 심장마비로 화를 당한 것 같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지휘 하에 진행된 부검결과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김인철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산재사고를 개인적 책임으로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최정우 회장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노조는 장례절차와는 별도로 사태의 원인규명과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본항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후 "사건 조사과정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故 김선진 동지의 분향소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1문과 광양제철소 복지센터에 마련됐다.

제184차 금속노련 중앙위원회
1. 일시: 2019년 2월 21일(목) 13시 30분
2. 장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3. 문의: 박선자 총무실장(02-6277-2010)

2019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1. 일시: 2019년 2월 27일(수) 13시 30분
2. 장소: 한국교총 컨벤션홀(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3. 문의: 정책교 조직부장(02-6277-2007)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며,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개혁!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2월 22일(금) 제381호

[illegible]

금속노련 제184차 중앙위원회 개최

임금인상 요구율 8.3%(168,050원) / 2019임단투순회 동업

금속노련은 2월 21일(목) 오후 1시 30분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184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재적 71명 중 48명이 참석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노련은 포스코, 모비스충주협력사, LG전자서비스 등을 조직화하여 20만 금속조합원시대에 다가서고 있다"며 "올해는 삼성전자 등 조직화 저변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원하청 불공정거래,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노련은 노동적폐청산으로 노동존중사회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제조연대 활동보고 △2019년도 상반기 교육계획 △20만 조직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했으며, △2019년도 임단투지침 확정 △2019정기대의원대회 △지역순회 일정 △가예산 승인 △규정 및 규약 개정안 △조직화 홍보차량 구입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019년 금속노련 임금인상 요구율은 작년 12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임단투실태조사 결과와 2019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물가상승율에 근거하여 기본급대비 8.3%(168,050원)로 확정했다.

또한 조직화사업을 위해 방송차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한국노총 비정규연대기금 4천만원과 특별회계 2천만원을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규약 및 규정 개정 건'에서는 신규노조 대의원 배정 의무금 납부기준을 3개월 이상으로 축소하고, 임시대의원대회 참가대의원을 변경하는 경우 대회공고 후 3일 이내에 노련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회의 성립과 의결권 행사에 전자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5월 14일(화), '2019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는 5월 14일(화) 13시 30분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정기대의원대회에 앞서 4월 5일(금) 맹비납부를 마감하고, 5월 3일(금) 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개최한다.

제10회 위원장기 전국대표자 체육대회는 10월 15일(화) 부터 18일(수)까지 양일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금속노련 지역순회 간담회 일정

일 시	지역본부	장소
3월 06일(수) 10:30	충북	충북본부 회의실
3월 07일(목) 15:30	경주경남, 포항	여수
3월 12일(화) 15:30	울산, 경주	울경본부 회의실
3월 13일(수) 10:30	부산	부산본부 회의실
3월 13일(수) 15:30	경남	경남본부 회의실
3월 14일(목) 10:30	대구, 경북	대경본부 회의실
3월 14일(목) 15:30	충남	충남본부 회의실
3월 15일(금) 10:30	구미	구미본부 회의실
3월 19일(화) 10:30	강원	강원본부 회의실
3월 20일(수) 10:30	대전	대전본부 회의실
3월 26일(화) 15:30	인천	미정
3월 27일(수) 10:30	서울	서울본부 회의실
3월 28일(목) 15:30	안산, 시흥	군산(선유도)
3월 29일(금) 10:30	전북	미정
4월 16일(화) 10:30	경기	경기본부 회의실

2019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1. 일시: 2019년 2월 27일(수) 13시 30분
2. 장소: 한국교총 컨벤션홀(서울시 서초구 태릉로 114)
3. 문의: 정태교 조직부장(02-6277-2007)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노동자 건강보호와 안전한 일터 만들어 갈 것

금속노련은 2월 16일(월)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산업보건서비스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프로그램과 관련 자료 등을 금속노련에 지원한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한국은 매년 10만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천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금속동지들의 건강증진과 산재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체결식에는 김만재 위원장과 김해광 수석부위원장 등 연맹 지도부와 정영숙 사업총괄이사 등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속노련 상반기 교육일정 안내

교육명	일시	장소	주관
제조연대 경영분석교육	3/11-13	노동공방교육원	제조연대
제조연대 조성위원교육1차	3/18-21	노동공방교육원	제조연대
금속노련 노동문화교육	3/27-29	하나마이마크	금속노련
제조연대 조성위원교육2차	4/1-3	노동공방교육원	제조연대
제조연대 신진신동교육	4/9-10	노동공방교육원	제조연대
제조연대 법률학교	4/16-17	노동공방교육원	제조연대
금속노련 여성간부교육	6-7월중	미정	금속노련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정	울산 안전보건교육원	금속노련

※ 교육생 모집은 추후 별송 예정임.
※ 문의 : 곽상욱 정책부장 (02-6277-2004)

양대노총 제조연대,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 공동성명

박근혜 시절 노동개악 노사정 야합과 다른게 무엇이냐?

- 2.19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은 무효다! -

"우려했지만 차마 그럴 일 없겠지"

설마 했던 실낱같은 모두의 심정이 경사노위 야합으로 무너졌다.

-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로 늘려 개악했다.

-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일별에서 주별로 정하도록 했다. 그나마 2주전 통보된 주별 노동시간도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항목에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주별 노동시간도 사용자 맘대로 변경 가능하도록 하였다.

- 건강권을 위해 신설했다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는 "불가피한 경우" 서면합의 조항으로 자본의 입맛대로 쓸 수 있도록 열어주었다.

-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놓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예외를 두어 그나마 신고도 면제해 주었다. 임금보전 방안 또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금액이 없어 실질적 임금보전 방안이 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는 단위기간 확대, 주별 근로시간 확정, 안 해도 되는 임금보전 등을 얻게 되었고 노동자는 자기 주도 일할 권리, 건강권, 임금을 내주게 되었다.

이번 야합은 작년 11월 정화대에서 있었던 일방적인 여야정협의체 합의가 경사노위를 돌리기 세워 현실화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경시 재벌세상으로 역주행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증거이다.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2.19 경사노위 야합을 규탄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개악을 위한 "2015년의 노사정위 야합" 과 다른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2015년, 2016년 노동개악을 제지하기 위해 양대노총제조공투론을 결성하여 박근혜 노동개악을 결사항전으로 막아 낸바 있다. 당시 9.15 노사정위 야합이 철회되었으며 박근혜 노동개악은 성공하지 못하고 처절한 말로의 길로 직행했다.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2천만 노동자의 기본권을 흔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야합하지 않을 것이며, 온 몸으로 막실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전개 될 양대노총 제조연대의 투쟁은 당면 경사노위 야합 무효화 투쟁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를 촉불 초심으로 돌려놓는 정의로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엄중하게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경사노위는 2.19 야합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여당 또한 이를 제기하거나 다시 돌려 보내야 한다.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2]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9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9년 3월 29일(금) 제[illegible]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illegible] 서울시 영등포구 [illegible]

2019년 상반기 임단투 지역순회
성공적인 임단협이 되도록 힘찬 포 전진 하자!

2019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금속노련 상반기 지역순회가 힘차게 진행 중이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3월 6일 충북본부를 시작으로 29일까지 16개 지역본부 중에서 대전, 포항, 울산·경주, 부산, 경남, 대구·경북, 충남, 구미,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전북 14개 지역본부와의 간담회를 완료했다.

금속노련은 이번 순회를 통해 2019년 금속노련 목표와 임금인상 지침, 교섭 쟁점 및 지침, 단체교섭 쟁점과 대책, 정세전망 등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만재 위원장은 현장순회에서 "최저임금 상승과 탄력근로시간제확대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지만 금속노련이 마련한 전략 전술을 활용한다면 2019년 임단협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금속노련은 순회 현장의 의견을 정리하여 향후 투쟁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금속노련 노동문화교육 개최
노동문화는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활동!

금속노련은 3월 27일(수)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화성 하나수련원에서 노동문화교육을 개최하고, 노동조합 활동의 핵심인 노동몸짓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는 124명의 금속노련 동지들이 함께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체훈련(이경희 더드림교육센터 대표) ▲몸짓배우기(문예창작단 몸꽃) ▲노동자와 정치(장하나 전국회의원) ▲2019년 주요 노동이슈(나병호 금속노련 법규산안부장) ▲조직활동을 위한 SNS활용(이기삼 PD) 등 노조활동에 필수적인 강의들로 진행됐다.

김만재 위원장은 교육에서 인사말을 통해 "문화활동은 노동조합을 강하게 단결시키는 핵심활동"이라며, "이번 교육이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련은 지난해 적극적인 활동으로 1만 4천명의 조합원이 증가했다"며 "올해는 난공불락이었던 삼성을 조직화하여 20만 금속노련에 한발 더 다가서겠다"고 강조했다.

장하나 전 의원은 "노동자들이 혈연과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노동자를 위해 노력하는 인물에 투표를 한다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멀지 않아 실현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보선과 내년도 총선에서 신중히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몸짓배우기 시간에는 문예창작단 몸꽃의 지도하에 노동가 2곡(단결투쟁가, 동지가 있기에)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금속노련 상반기 교육일정 안내

교육명	일시	장소	주관
교섭위원교육2차	4/1~3	노총중앙교육원	제조연대
선전선동교육	4/8~10	노총중앙교육원	제조연대
법률교육	4/15~17	노총중앙교육원	제조연대

※문의 : 화상옥 정책부장 (02-6277-3004)
※교육참가 신청서 제출 : 팩스 02-6277-3011

조합비 실제 인원 납부하여, 제조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1]

나. 임단투 포스터

2019 돌파!
승리하는
제조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와 장시간
노동 방치하는 노동개악 돌파!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조할 권리 및
노동기본권 확대!
2019년 통일의 시대와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전진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다. 성명서

성명서

한국노총제조부문
노동조합연대회의

발행 : 제조연대 전화 : 3665-3117 팩스 : 3662-4373 인터넷 http://www.tex-inochong.org/
담당 : 집행위원장 김준성(010-9005-6865) / 대변인 정대중(010-2808-3523)

노동자는 최저임금법 개악하라고 촛불을 들지 않았다

한국노총 제조연대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 투쟁 선언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 폭거에 분노한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을 여당이 주도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의 의지를 의심하게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노동존중 국정 기조를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이 지금 여력이 충분한 재벌·대기업에게만 유익한 법이라는 것을 더하기 빼기 몇 번만 해봐도 알 수 있음에도 "영세 중소사업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호도하지 말라.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피해가 없다는 궤변도 늘어놓지 말라.
자본주의에서 사동자와 노동자 개인은 절대 평등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에 노동자의 집단적 의사표시를 존중해 온 노동법을 무력화시킨 폭거를 저지르고 노동존중을 이야기하지 말라. 노동을 배제하고 철저히 무시한 의사결정을 하고 사회적 대화를 언급하지 말라.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긴 호흡이 필요함을 모르고 시작한 것이라면 차라리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재벌과 보수언론의 호들갑에 굴복한 것이라 고백하라. 상·하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진 현실을 외면하고 "기계소득은 그래도 조금 올랐다."라는 통계만 보면서 위안 삼지 마라.

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길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산의 정상이 보일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순탄치 않은 길을 헤치고 가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투벅투벅 가야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지지율 고공행진에 취해 있는 정부·여당은 참여정부의 실패를 곱씹어 보라. 국민적지지 없는 정책 결정은 그림의 떡이고, 국민적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제조노동자는 일부 재벌·대기업 호들갑에 굴복하는 청권을 위해 촛불을 들지 않았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더는 정부·여당에 기대하지 않는다. 투쟁을 통해 스스로 쟁취해 온 노동자의 역사를 곱씹고 반성하며 그 투쟁의 길을 가고자 한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 해소를 위한 제대로 된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한국노총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노총의 조직방침에 따라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악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전 조직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그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밝힌다.

2018. 05. 29.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연대회의
(고무산업노련, 광산노련, 금속노련, 섬유 유통노련, 식품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

양대노총 제조연대

성명서

2018년 06월 01일(금)

문의: 송보석 금속노조 정책국장(010-5551-2617) / 좌상욱 금속노련 정책부장(010-4408-4791)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라!

-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개악안 폐기를 위해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

양대노총제조연대는 현시기 최저임금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야말로 노동존중 공약 실천을 위한 확실한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것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야말로 노정관계의 갈라진 틈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을 정화대가 깨닫길 바란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2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고 그 영향으로 여당의 지지율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이 민심의 흐름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국노동위원회와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게 성사된 노사정 사회적대화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대화 파트너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와 지난 정권의 노동개악 추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조직노동운동에 대한 멸시가 민주당 주요 인사에 의해 자행된 것에 대해 격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다.

양대노총제조연대는 최저임금 개악안 폐기 요구와 투쟁이 200만 소수 조직노동자의 이기적인 욕심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고통받는 저임금 여성 청년 노동자와 연대하여 개악안 저지투쟁에 온 조직의 역량을 투여할 것이다. 먼저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정화대 앞 농성투쟁과 전국노동자대회 등 공동개최에 대한 협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당의 후보들에게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찬반여부를 양대노총이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투쟁을 전개해 주길 요청한다.

양대노총제조연대는 4월 7일 정화대 농성장에서 긴급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공동행동과 집중시기 강력한 공동투쟁 계획을 논의할 것이다. 최저임금 개악 저지 과업과 투쟁 과정에서 쇄도한 국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잊지 않고 개악안이 폐기될 때까지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다.

2018. 06. 01

양대노총 제조연대	금속노련/금속노조/화학노련/화섬연맹

성명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8,FAX 02)6277-2011 http://www.metall.or.kr

경제단체의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에 대한 금속노련의 입장

-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영세소상공인을 이용해 갑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

최근 경총과 중기중앙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다는 등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두 경제단체의 이의제기서 제출 행위가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의 횡포와 불공정 행태를 을간의 갈등으로 유발시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시도라 판단하고 깊은 분노를 느낀다.

최저임금 상승은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에서 벌어진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총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하여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경제 체질을 만드는 첫 출발이며 최근 선진국에도 도입하고 있는 정책이다.

특히, 경제단체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적용되는 업종에 속한 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뿐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애초에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의 부당한 하도급 남품단가 인하, 프랜차이즈 본점의 과도한 로열티, 카드 수수료, 높은 임대료, 대기업의 골목상권 입점 등이 근본 원인이다. 갑의 횡포와 불공정 행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세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하청불공정거래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여 뿌리 뽑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사회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갑들의 횡포를 해결하는데 진심어린 마음으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금속노련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 해소를 위한 제대로 된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하청업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뿌리 뽑고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땀흘린 사람이 과실을 가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임을 밝힌다.

2018. 07. 27.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성명서

한국노총제조부문 노동조합연대회의

발행 : 제조연대 전화 : 3665-3117 팩스 : 3662-4373 인터넷 http://www.tec-inochong.org/
담당 : 집행위원장 김준명(010-9005-6865) / 대변인 정대환(010-2808-3523)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기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 제조연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폐기 투쟁 선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또 다시 노동자들을 배신했다.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입법에 합의했다. 사실상 노동존중·소득주도의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창출 등 노동공약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개악시키고 비정규직은 자회사 전환 말고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삼립을 등 사상 최악의 고용치욕 악화로 수구야당과 족벌언론의 집중포화를 맞더니 자본의 대변인임을 자임하고 나섰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는 단순히 노동자에게 임금 손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시간단축 효과를 완전히 없애 버려 위법을 합법화시킬 것이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취지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최장 노동시간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특히, 우리 제조업은 주야 맞교대, 휴일근로가 버젓히 돌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낡은 교대제와 함께 왜곡된 저임금 체계가 연장노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산재사망률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합의는 정치적 야합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실현의 의지가 더 이상 없음을 대내외에 표명한 것이라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역대정부의 노동정책 실패를 답습하고 자본의 수구 기득권에 굴복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고 수백만 촛불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을 또 다시 배신하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오로지 자본을 달래기 위한 정책은 사회적 대화를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임은 자명하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이러한 정치야합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해 한국노총의 조직방침에 따라 전국노동자대회 등 앞으로의 총력투쟁에 30만 제조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그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8. 11. 07.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
(교무산업노련, 광산노련, 금속노련, 섬유·유통노련, 식품산업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

성명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illegible]-2008,FAX 02[illegible]-2011 http://www.metall.or.kr

LG전자의 서비스센터 협력사 3,900여명 정규직 전환 결정을 환영한다

- 이번 사례가 정규직 노동조합이 보여줘야 할 모범 사례로 전파되길 희망한다 -

지난 10월 22일 LG전자가 전국 130여 개의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협력사 직원 3,9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속노련은 LG전자의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 결정을 환영하며, 이 결정이 LG전자 노동조합의 결연한 투쟁의 성과임을 밝히는 바이다.

LG전자 노동조합은 사측에 서비스센터 협력사 직원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함과 동시에 투쟁계획을 마련하여 회사를 압박함으로써 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을 이끌어 냈다.

특히 노동조합의 단결과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정규직 노동조합이 협력사 동지들을 조직화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LG전자 노동조합이 비조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 활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조직확대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이에 금속노련은 LG전자의 통큰 결정을 환영하며 LG전자 노동조합의 투쟁에 큰 지지를 보낸다.

앞으로 LG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 전환 사례가 정규직 노동조합이 보여줘야 할 모범 사례로 타사업장에 전파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금속노련은 LG전자 노동조합의 활동에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 11. 26.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성명서

한국노총제조부문
노동조합연대회의

발행 : 제조연대 전화 : 3665-3117 팩스 : 3662-4373 인터넷 http://www.kcx-inochong.org/
담당 : 집행위원장 김준영(010-9005-6005) / 대변인 정대경(010-2800-3523)

누구를 위한 처벌유예 연장인가?

장시간 노동 조장하는 계도기간 연장 계획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12월 24일 주52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또다시 발표했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주52시간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 계획 철회와 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1주일의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은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해 현장에서 멀어지고 있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이미 법 시행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법 시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법을 집행해야 될 행정부의 직무유기이며 행정권 남용이다.

또한, 정부가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법 시행 시점 또는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시점을 설정한 것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생략한 졸속적인 합의를 요구하는 협박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더불어, 정부는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임금 체계 개편을 협의하는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처벌 유예도 함께 발표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정기상여금의 복리후생수당 등이 순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며, 통업급칙 용어의 변경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 절차도 무시된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협의를 이유로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무제한의 권한과 특혜를 부여한 것일 뿐이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사용자에게는 무제한의 특혜를 부여하고, 노동자에게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계도기간 연장 계획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주52시간 위반 및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노동계와 합의 없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30만 제조노동자의 이름으로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이다.

2018. 12. 28.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

(고무산업노련, 광산노련, 금속노련, 섬유·유통노련, 식품산업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

양대노총 제조연대

성명서
2019년 02월 20일(수)

문의 : 송보석 금속노조 정책국장(010-6661-2617) / 곽상옥 금속노련 정책부장(010-4408-4791)

박근혜 시절 노동개악 노사정 야합과 다른게 무엇이냐?

- 2.19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은 무효다! -

"우려했지만 차마 그럴 일 없겠지"
설마 했던 심남같은 모두의 심정이 경사노위 야합으로 무너졌다.

-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로 늘려 개악했다.
-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일별에서 주별로 정하도록 했다. 그나마 2주전 통보된 주별 노동시간도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항목에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주별 노동시간도 사용자 양대로 변경 가능하도록 하였다.
- 건강권을 위해 신설했다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처부는 "불가피한 경우" 서면합의 조항으로 자본의 입맛대로 쓸 수 있도록 열어주었다.
-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어김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놓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예외를 두어 그나마 신고도 면제해 주었다. 임금보전 방안 또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금액이 없어 실질적 임금보전 방안이 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는 단위기간 확대, 주별 근로시간 확정, 안 해도 되는 임금보전 등을 얻게 되었고 노동자는 자기 주도 일할 권리, 건강권, 임금을 내주게 되었다.

이번 야합은 작년 11월 정화대에서 있었던 일방적인 여야정협의체 합의가 경사노위를 들러리 세워 현실화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경시 개별세상으로 역수행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증거이다.

양대노총제조연대는 2.19 경사노위 야합을 규탄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개악을 위한 "2015년식 노사정위 야합"과 다른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2015년, 2016년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양대노총제조공투본을 결성하여 박근혜 노동개악을 결사항전으로 막아 낸바 있다. 당시 9.15 노사정위 야합이 철회되었으며 박근혜 노동개악은 성공하지 못하고 처절한 말로의 길로 직행했다.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설령이 바뀌었어도 2천만 노동자의 기본권을 훔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랑하지 않을 것이며, 손 끝으로 맞설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전개 될 양대노총 제조연대의 투쟁은 당연 정사노위 아랍 무효화 투쟁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를 초월 조심으로 돌려놓는 정의로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엄중하게 경고한다. 작금이라도 정사노위는 2.19 아랍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여당 또한 이를 폐기하거나 다시 돌려 보내야 한다.

2019년 2월 20일

양대노총 제조연대	금속노연/금속노조/화학노연/화섬연맹

라.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노총제조부문
노동조합연대회의

발행 : 제조연대 전화 : 3665-3117 팩스 : 3662-4373 인터넷 http://www.ter-inochong.org/
담당 : 집행위원장 김준영(010-9005-6865) / 대변인 정대중(010-2808-3523)

도약하는 제조노동자! 현장과 함께! 전진 또 전진!

한국노총 제조연대 확대출범식 개최

제조산업협의회 구성 요구 및 최저임금법 개악 철회 투쟁 선포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의장 오영봉, 이하 제조연대)는 5월 30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국노총 5층 대강당(웨딩 여울리)에서 7개 산별연맹 단위노조 대표자 및 노조간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 제조연대 확대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제조연대는 2001년 1월 16일 공식출범한 이후 최초로 상징마크의 공개식을 가졌다.

김준영 집행위원장은 "상징마크의 횃불은 제조노동자가 한국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의 등불이며 꺼지지 않는 희망과 도약임을 표현했고, 제조연대의 하나 된 지향과 실천까지를 담고 있는 동시에 촛불혁명처럼 저항과 투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형상은 7개 제조업 산별연맹의 노동자들이 손을 맞잡고 각 지역, 업종 간 상호협력 및 유대의 모습을 상징 하며 파란색은 청신을 의미하며 마음으로 하나 된 제조연대를 상징하고, 촛불로 향할수록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의미의 연대정신을 그래데이션으로 나타낸 것"고 말했다.

오영봉 의장은 출범사를 통해 "제조연대는 소중한 연대를 바탕으로 제조부문 산별연맹의 공통 현안을 모색하고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개별 산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조노동자들의 권익신장은 물론 노동자연대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출범선언문에서 제조연대 공동대표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부활과 제조노동자들의 생존을 건 거대한 투쟁의 길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추춧돌인 제조산업의 위기는 필연적 국가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제조산업 현장은 정부주도의 일방적 구조조정, 무분별한 아웃소싱, 원·하청간의 불공정거래 등에 시달려 왔다"면서 이에 "제조연대는 국가의 제조산업정책에 노동조합의 참여와 개입을 선언하고 노동중심 산업정책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거침없는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특히 "우리 앞에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 비정규직,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된 고용위기 등 산적한 현안들이 놓여져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투쟁의 역사 속에서 알고 있다" 말했다. 이에 "제조연대는 하나 된 조직과 투쟁을 통하여 결연한 연대를 실현하고 당면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날 확대출범식은 지난 29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악 규탄하고 당면한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조연대 확대출범식 참가자 일동은 △최저임금법 개악 철회 투쟁 천개 △제조산업협의회 구성요구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재벌기업 갑질 근절 △한국노총 200만 조직화 방침에 따른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시내하청노동자의 조직화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확대출범식은 최저임금법 개악 폭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정부, 여야 국회의원의 초청을 취소한 가운데 한국노총 김주명 위원장, 박종근 선배(전 한국노총위원장), 18개 산별연맹(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8년 5월 30일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연대회의

(고무산업노련, 광산노련, 금속노련, 섬유유통노련, 식품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

※ 첨부 : 출범선언문, 특별결의문 각 1부

한국노총 제조연대 확대출범선언문

한국노총 제조산업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쳤다.

오늘 한국노총 소속 제조산업 7개 산별연맹은 2001년 1월 16일 시작된 제조부문 산업연맹들의 상설적 연대와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단결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노총 제조연대의 확대출범을 선언한다.

이명박·박근혜의 비즈니스프렌들리 9년은 대한민국 제조업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전 세계가 '다시 제조업'을 외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 제조업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생존권을 빼앗기고 있다.

비단 제조노동자만의 문제이겠는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는 무엇을 말하는가!
800조가 넘는 재벌들의 곳간에 쌓인 돈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13년간의 OECD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불러야 하는가!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나라, 그것을 근면한 민족성이라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여도 그것은 그저 자본의 요구대로 올려온 저임금·장시간노동 이라는 이름의 착취일 뿐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에 시달리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그 곳엔 노동자를 위한 대한민국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척박한 땅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는 민중들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였다. 촛불혁명! 134일간의 광화문 광장, 연인원 1700만명의 '이게 나라냐'라는 부르짖음 속에 스스로 주인임을 선언하는 위대한 민중의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시대의 요구 앞에 단결을 선언하고 노동이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을 선언하며, 언제나 그러했듯 투쟁의 선두에 제조노동자의 깃발을 세울 것을 결의한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부활과 제조노동자들의 생존을 건 거대한 투쟁의 길에 서있다.

특 별 결 의 문

오늘 우리는 한국 제조업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의 구심체인 한국노총 제조연대의 확대출범을 대내외에 선언하였다.

한국 제조업의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사였다. 또한,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우리 제조노동자의 땀과 피눈물이 새겨져있는 역사이다.

오늘 우리는 제조업 노동운동의 도약과 전진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에,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오늘 역사적인 출범을 맞이하며 대한민국 제조업 부흥과 제조업 노동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자 한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하나.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대한민국 제조업노동자의 일터와 삶을 책임지는 연대활동과 강고한 투쟁에 나설 것을 엄차게 결의한다.

하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후진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등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하나. 한국노총의 2020년 조직화 방침에 따라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사내하청노동자의 조직화에 박차를 기하여 노동조합 하기 쉬운 대한민국의 실현에 적극 발창섰다.

하나.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온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재벌기업의 갑질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하나. 제조업이 없는 대한민국 경제는 상상할 수 없다. 이에 강한 제조업 정책 추진과 제조노동자의 산업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조산업협의회'구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최저임금 개악안을 통과시킨 국회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최저임금법 개악 철회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2018년 5월 30일

한국노총 제조연대 확대출범식 참석자 일동

제조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춧돌이다. 제조산업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국가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 지난 시간 제조산업 현장은 정부주도의 일방적 구조조정, 무분별한 아웃소싱, 원·하청간의 불공정거래,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차별 등에 시달려 왔다. 이는 제조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이에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국가의 제조산업정책에 노동조합의 참여와 개입을 선언하고 노동중심 산업정책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기침없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당면한 노동현안들을 해결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현장으로부터의 연대와 투쟁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 앞에는 노동시간, 최저임금, 비정규직,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된 고용위기 등 산적한 현안들이 놓여서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투쟁의 역사속에서 알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하나 된 조직과 투쟁을 통하여 광범위한 노동자연대를 실현하고, 당면한 노동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끝으로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연대의 정신과 동지애에 기초한 상호토론과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모범적 노동운동상을 정립하기 위한 자기노력을 다함으로써 한국노총을 강화하고 한국노동운동을 강화하는데 복무해 나갈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한국노총 제조연대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현장과 함께! 힘차! 또 전진! 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8년 5월 30일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

고무산업노련/광산노련/금속노련/섬유·유통노련/식품산업노련/출판노련/화학노련

보도자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금융로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0 / FAX 02)6277-2011 http://www.metal1.or.kr

담당부서 금속노련 정책국

첨부파일 보도자료 매수 : 1매

문의			
	조직부장	정태교	02-6277-2007
	홍보부장	박강원	02-6277-2009

포스코 사내협력사 노동자 임금인상 촉구 기자회견 개최

포스코 정규직 대비 사내협력사 노동자 임금 80% 약속 이행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이하 '금속노련')에서 활동하는 포항·광양 포스코 사내협력사 노조대표자 협의회는(이하 '노조협의회')는 11월 1일(목) 오전 11시 40분포스코 본사가 위치한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가 약속한 사내협력사 노동자 임금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옥경 노조협의회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포스코는 외주비 인상과 임금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사내협력사 노동자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7년만에 최대 실적 달성이라는 소식에 협력사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가 임금 인상 약속을 지키려면 예년 10% 넘게 5년간 인상해야 한다"며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만 매달리지 말고 사내협력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향상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협력사 노동자들이 더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만큼 보상차원에서 부실한 복지혜택을 항상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김혜랑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노동자들의 희생 없이 오늘의 포스코는 존재할 수 없었다"면서 "약속한 임금인상을 신속히 이행하여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투쟁에는 15만 금속노련과 100만 한국노총이 함께 하고 있다"며 "금속노련은 노조협의회의 투쟁을 강하게 연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집회에 참석한 금속노련과 노조협의회 동지 50여명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항의 서한을 포스코 관련자에게 전달했다.

2018. 11. 01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8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0 FAX 02)6277-2011 http://www.metal1.or.kr

담당부서 금속노련 정책국

문의	법규부장	나병호	02-6277-2008
	종교부장	박강진	02-6277-2009

첨부파일 보도자료 매수 : 1매

김만재 위원장, 금강산 개최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에서 '남북제조노동자 상봉행사' 정식 제안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2월 12일부터 1박 2일간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에 참석하여 북측에 남북제조노동자 상봉행사 개최를 정식 제안한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후 연대모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회의에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에게 남북노동자통일대회 개최 전 평양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제조노동자 상봉행사 개최 제안서'를 전달한다. 더불어 '2019년 남북노동자 통일대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남북노동자 자주교류 사업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연대교류 확대를 통해 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이번 방북에는 양대노총, 불교·개신교·천주교 등 7대 종단 수장들과 시민단체, 여성·청년·농민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된 대표단 210여명을 비롯해 취재진과 지원인력 등 총 260여명이 함께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방북 전 메시지를 통해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대노총 제조연대가 제안한 남북제조노동자 교류사업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북녘 제조노동자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밝혔다.

상봉행사는 첫날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연대모임과 남·북·해외 대표단회의를 시작으로 6·15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단회의, 남북 민화협·종교계·시민·여성·청년단체 상봉모임 갖고, 둘째 날 해금강에서 해맞이 결의모임, 농민·교육·지역별 상봉모임 등을 진행한 뒤 공식 마무리 된다.

2019. 2. 12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마. 금속노련 활동 동영상

여성문화활동

1. 조직활동 및 교육활동 ····· 445
가. 금속노련 임원 및 중앙위원선출 ····· 445
나. 금속노련 여성간부워크샵 및 일일교육 ····· 446
나. 금속노련 전.현직 여성대표자 및 간부간담회 ····· 448
다. 한국노총 중앙위원 명단 ····· 449
라.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및 기타활동 ····· 450

2. 3.8세계여성의 날 ····· 457
가. 3.8 세계여성의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 457

3. 노동문화활동 ····· 460
가. 문화패 현황조사 ····· 460
나. 노동문화교육 ····· 461

1. 조직활동 및 교육활동

가. 금속노련 임원 및 중앙위원선출

1) 여성의 참여 확대

노총파견 여성대의원	노총파견 여성중앙위원	금속노련 여성대의원	금속노련 여성중앙위원
22명	2명	77 명	6명

2) 임원현황

이 름	소속사업장	직책	비 고
윤복현	세진전자	위원장	부위원장
윤자심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
최해경	한국중천	위원장	“
한명선	대동모벨시스템	위원장	“
정란홍	두올아산	위원장	“
권윤미	LG디스플레이	여성부장	
이가현	LG디스플레이	여성부장	회계감사

3) 중앙위원현황

이 름	소속사업장	직 책	비 고
정혜영	LG전자	여성부장	
심일순	이젠텍	사무국장	
김귀녀	한국보그워너T/S	사무국장	
한주연	SK하이닉스청주	부위원장	
이정희	삼성공조	위원장	
공지순	우영산업	지부장	

나. 금속노련 여성간부 워크샵 및 일일교육

1) 여성간부 워크샵

가) 목적

- 여성간부의 효율적인 조직 활동과 사업 강화를 위한 역할 모색
- 여성간부로서 알아야 할 노동운동정세
- 여성간부의 발굴과 네트워크강화를 위함.
-

나) 일정 및 장소

- 교육일정 : 2018년 6월 20일(수) - 22일(금) (2 박 3 일)
- 교육장소 : 제주도 샤인빌 리조트
- 참석인원 : 모경임 부위원장 외 34명

다) 교육내용

- 금속노련 사무처장 특강
- 주요노동이슈
- 제주의 아픈 역사인 4.3의 역사에 대한 고찰

라) 기대효과

- 여성간부 발굴 및 양성을 통한 여성노동운동 활성화
- 여성간부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공유
- 여성간부로서 리더십 진단 및 활동토론
- 지난 역사에 대한 고찰과 우리의 자세 정립

마) 성과

- 현장에서의 여성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생각하는 계기가 됨.
- 여성간의 교육을 워크샵으로 처음 집행함으로 보이지 않던 여성간의 많은 참여로

발굴의 효과가 많았음.

- 여성간부들의 제주도 워크샵에 대한 지속적 계획 요청

2) 여성일일교육

가) 목적

연맹에서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 일일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육의 접근성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자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찾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일정 및 장소

- 교육일정 : 2018년 10월 12일(금) 09:30~17:00
- 교육장소 :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대강당
- 참석인원 : 정난홍 위원장 외 31명

다) 교육내용

- 여성노동자의 직업건강
-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 여성간부의 자세와 역할

라) 기대효과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여성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교육
- 장시간근로와 고령화가 맞물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및 대책
- 여성간부로서 역할과 자세에 대한 교육을 사례발표형식을 빌어 공감을 얻음

다. 금속노련 전.현직 여성대표자 및 간부간담회

1) 목적

- 금속노련은 여성활동의 활성화와 전.현직 간부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방안으로 연맹 상근하였던 선배님과 현진대표자, 선출된 비상근 부위원장, 중앙위원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8년 12월 3일(월) 11:00
- 장 소 : 금속노련 회의실

3) 참석자 명단

연맹 선배			
정영숙 이사	대한산업보건협회	문광주 본부장	군포시노인복지관
현직 대표자 및 부위원장, 중앙위원			
성 명	소속사업장	성 명	소속사업장
김영미 본부장	금속노련	윤복현 위원장	세진전자
한명선 위원장	대동모벨시스템	한주연 부위원장	SK하이닉스청주
최해경 위원장	한국중천	김귀녀 사무국장	한국보그워너T/S
정란홍 위원장	두올아산	정혜영 여성부장	LG전자
이정희 위원장	삼성공조	김지영 위원장	한전금속
황경숙 위원장	S.P일레멕	김숙화 위원장	금화소재
이경희 문화실장	SK하이닉스이천	한승연 부위원장	SK하이닉스이천

4) 진행순서

- 노동의례
- 위원장 인사말
- 취지설명
- 선배님 소개 및 인사말
- 참가자소개
- 자유로운 대화
- 오찬 및 간담회

5) 간담회 결과

선배님과 현직 간부들의 처음 한자리에 모여 여성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자리로서 선배님들의 경험과 후배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이후 활동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여성활동을 키워보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위원회를 재결성하고 새로운 위원장으로 한국중천 최해경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여 선출하였다.

라. 한국노총 중앙위원 명단

1) 선출일시 및 장소

- 선출기관 :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 일 시 : 2018년 2월 27(수) 13:00
- 장 소 : 교총회관

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비고
1	세진전자	위원장	윤복현	중앙위원
2	두올아산	위원장	정난홍	중앙위원
3	한국중천	위원장	최해경	후보

마.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및 기타활동

1) 정기총회

가) 목적

-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규정 제9조(회의)에 따라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노총과 각급 조직 여성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과제 논의
- 여성대표 참여를 통한 여성노동자의 단결 및 연대를 도모하고 각급조직 여성위원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한국노총 여성위원회의 활성화와 위상 제고
- 노조 내 여성노동자의 조직력 강화를 통한 성평등한 노조활동 및 여성노동운동 활성화 기여

2) 일정 및 장소

- 일 정 : 2018년 11월 22일(목) (14:00)
- 장 소 : 한국노총 5층 웨딩여울리
- 참석인원 : 정난홍위원외 10명

3) 프로그램

❍ 오프닝 공연(아카펠라 'MTM')

❍ 개회식

- 노동의례
- 활동영상 상영
- 개회사
- 격려사
- 공로패 수여
- 내외빈 소개
- 기념사진 촬영

❍ 본회의

- 성원보고

-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구성 및 임원 임명
- 2017년 여성위원회 총회 결과보고
- 2018년 여성활동 공유
- 회원조합/지역본부 여성위원회 활동사례(철도사회산업노조, 경기지역본부)
- 2019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의안 제출 논의
. 한국노총 여성할당제 추진 현황과 과제
. 성희롱.성폭력 없는 평등 일터 선언 건
- 기타 토의
- 결의문 채택
- 딸들아 일어나라 제창
- 폐회

4) 여성위원회 명단

번호	조 직 명	직 위	성 명	비 고
1	한국중천	위원장	최해경	임원
2	금속노련	본부장	김영미	담당자
3	현대모비스	부위원장	모경임	담당자
4	세진전자	위원장	윤복현	임원
5	대동모벨시스템	위원장	한명선	임원
6	두올아산	위원장	정란홍	임원
7	LG디스플레이구미지부	여성부장	권윤미	임원
8	SK하이닉스청주	부위원장	한주연	추천
9	삼성공조	위원장	이정희	추천
10	한국보그워너T/S	사무국장	김귀녀	추천
11	LG디스플레이	여성부장	이가현	추천
12	위어인터내셔널	사무국장	김현진	추천

5) 결의문 채택

오늘날 우리 사회를 휩쓴 미투운동과 여성혐오주의 확산은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 차별과 불평등의 산물이다. 여성 인권과 평등노동권을 위협하는 위계적인 불평등 구조와 경계 없는 여성에 대한 혐오를 철폐하기 위한 우리의 분노와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친화적 행보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는 노동정책을 후퇴시키는 반노동정책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일-생활 균형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여성에게 이중노동을 가중시키고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로 대체시켰다. 노동시간단축 법제화는 일자리 증가는커녕 노동 강도는 높이고 실질임금을 하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를 시도하려는 국회와 정부의 작금의 정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더 이상 경제성장의 최우선주의와 경제위기 논리를 앞세워 최저임금 인상의 발목 잡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국민임금이 되어버린 최저임금의 착취와 굴레에 갇혀 빈곤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받고 노조활동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조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2018년도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를 맞이하여 강력한 연대와 하나 된 조직의 힘을 모아 다음과 같이 굳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존중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노동정책을 후퇴시키는 최저임금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를 서슴치 않는 국회와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하는 시간제 노동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안정된 여성일자리를 확대하라.

하나, 우리는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평등노동권을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거부한다. 정부는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조약을 비준하고 모든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우리는 노조 내 민주주의와 실현과 평등 실현을 위해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여성대표성과 발언권을 강화하고 여성조직화를 통한 세력화와 조직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조직 내 여성참여 확대와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함과 동시에 여성할당제의 정착을 위한 단계적 이행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직면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여성의 힘을 구축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며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미조직 여성 조직화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18년 11월 22일

2018년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참가자 일동

바. 기타활동

1) 여성사업담당 활동가 소통 및 역량강화 워크샵

가) 목적

- 노조운동 내 여성활동 활성화를 위해 현장 기반의 여성사업 발굴과 체계적인 조직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함.
- 각급조직 여성사업담당 활동가의 리더십과 동기부여 고취, 조직 간 원활한 소통을 강화하여 조직적인 결합력을 높이고자 했음.

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7년 5월 29일(월)

- 장 소 : 서울시청 시민청 동그라미방
- 참석자 : 김영미 여성본부장

다) 프로그램

- 2018년 상반기 여성활동 보고 및 하반기 여성사업 계획(안) 논의
- 여성주의 리더십의 이해와 실천(양민석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교수)
- 여성노동영화 상영
- 마음치유 영상(고미송 서울불교대학원 부설 심리상담센터 교수)

2) 직장내 성희롱예방강사 양성교육

가) 목적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전문지식, 성평등 가치관, 직장 내 성희롱의 해결절차 및 방법을 교육함으로 조직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성희롱 업무담당자로서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함.
-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및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은 외부기관 위탁을 통해 진행하며 이수 후 여성 간부들이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각급 조직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했음.

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8 년 9월 11일 ~ 12일(1박 2일)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2층
- 참석자 : 두올아산 정란홍 위원장,SK하이닉스청주 한주연부위원장

다) 주요내용

- 성희롱 관련 법령 및 판례
- 성인지 관점에서 본 성희롱의 개념과 원인
- 성희롱 문제의 외부기관 처리 실무
- 성희롱의 사내 자율적 해결의 절차 및 방법

- 성희롱과 조직문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기법

3) 한국노총 리더십 교육

가) 목적

- 한국노총의 노동현안을 공유하고 여성활동 강화와 여성조직화에 기여
- 성인지적 관점의 균형적 여성리더십 개발
- 여성간부의 위상 강화 및 노동조합 여성활동 역량강화
- 조직 내 실천적 역할 강화와 각급조직 여성간부들의 네트워크 구축

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8년 10월 31일 ~ 11월 2일 (2박 3일)
- 장 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 참석자 : 김영미 본부장

다) 주요내용

- 한국노총의 운동방향과 과제
- 노조간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 (개정 여성관련법)
- 한국노총 여성활동과 과제
- 여성노동자 조직화와 노동시장에서의 성 평등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 소통을 통한 갈등관리
- 민중가요 및 율동

4) 한국노총 여성담당자회의

(1) 일 시 : 2018년 6월 14일 (10:30)

(2) 장 소 : 한국노총 6층회의실

(3) 참석자 : 김영미 본부장

(4) 안건 : - 상반기 여성사업결과보고

- 하반기 여성사업 계획(안)

5) 한국노총 여성담당자회의

(1) 일 시 : 2018년 10월 24일 (10:00)

(2) 장 소 : 한국노총 6층회의실

(3) 참석자 : 김영미 본부장

(4) 안건 : - 3/4분기 여성사업결과보고

- 3/4분기 여성사업계획(안)

6) 한국노총 여성담당자회의

(1) 일 시 : 2019년 1월 31일 (10:00)

(2) 장 소 : 한국노총 6층회의실

(3) 참석자 : 김영미 본부장

(4) 안건 : - 2018년 여성활동보고

- 2019년 여성사업계획(안)
-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안)

7) 한국노총 여성담당자회의

(1) 일 시 : 2019년 2월 21일 (10:00)

(2) 장 소 : 한국노총 6층회의실

(3) 참석자 : 김영미 본부장

(4) 안건 : - 2019년 여성사업계획(안)

-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안)

2. 제111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가. 3.8 세계여성의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1) 대회 목표

- 111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현실을 이슈화하고 정부와 국회에 여성노동의 당면과제를 촉구하는 장이자,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축제의 공간임.
- 조직된 여성노동자의 연대와 결속을 통한 세력화와 일하는 모든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 평등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행동과 힘을 결집하는 자리임.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년 3월 8일, 14:00

❍ 장 소 : 마포구청 대강당

3) 슬로건 : 성평등, 노동존중의 약속

4) 식순

- 오프닝 영상
- 깃발 입장
- 노동의례
- 대회사
- 격려사

- 축사
- 내빈 소개
- 여성노동자상 시상(19명)
- 평등상 시상(한국마사회경마직노조)
- 노래공연
- 현장발언×문자 퍼포먼스
- 결의문 채택
- 딸들아 일어나라 제창
- 폐회선언

5) 여성노동자상 수상

- 금속노련 ASE코리아 부위원장 김정수

6) 결의문 낭독 (SK하이닉스청주 한주연 부위원장)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구조적인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 고통 받아왔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는 주장은 111년이 넘도록 계속되었지만,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임금, 채용, 승진, 3대 차별은 여성들이 다른 노동자들과 동등한 권리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을 좌절시킨다.

여성들의 노동을 평가절하 하고, 여성들을 주된 생계부양자보다는 돌봄제공자로 간주하는 사회는 여성들을 계속해서 낮은 임금, 불안한 고용지위, 빈곤한 삶을 감내하게 만들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회를 향해 여성노동자는 그 자체로 노동자이며 인간으로서의 권리,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요구한다.

노동존중사회는 모든 노동자들이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받고 누릴 때 완성되는 것이며,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에서 시작됨을 천명한다. 우리 조직된 여성노동자들은 이 사회의 모든 종류의 억압과 차별, 폭력이 철폐되어 노동존중사회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연대와 결속을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111주년 세계여성의 날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자대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관련한 개악 강행시도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저임금 고용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시간제일자리 정책을 중단하고, 여성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 고용안정과 좋은 여성일자리를 확대하라!

하나, 우리는 임금, 채용, 승진의 구조적인 3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조치의 이행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쟁취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 근절을 위한 ILO 기준 제정을 적극 지지하며,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위해 조직적 노력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운동의 여성 참여 확대를 통해 평등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조직 확대, 의사결정기구 내 30% 이상의 여성할당제를 정착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200만 조직화 실현과 30만 여성조직화 실현을 위해 전 조직이 총력을 다 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19년 3월 8일

제 111 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2019 한국노총
국여성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3. 노동문화활동

가. 문화패 현황조사

1) 목적

사업장내의 문화패 구성과 현황을 조사하여 조직활동에 문화활동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조직강화의 일환으로 문화패를 구성하고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년 문화패 구성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2) 조사결과

번호	노동조합명	문화패명	종류(율동/노래/풍물등)	비 고
1	LS산전	깃발	율동패	
2	새론오토모티브	어울림	율동패	
3		날개	풍물패	
4		창조	노래패	
5	영신정공	서평풍물단	풍물패	
6	대덕GDS	가온	율동패	
7		천재일우	풍물패	
8	남양넥스모	외침	율동패	
9	명화공업	울산노동자몸짓패	율동패	
10	세아베스틸	불꽃	율동패	
11		개벽	풍물패	
12	쏠라이트	쏠라이트 율동패	율동패	
13	매그나칩반도체	초야	율동패	
14	스태츠칩팩코리아	화살	율동패	
15	한국보그워너T/S	한우리	율동패	
16	대동하이렉스	은혼	율동.풍물	
17	명화공업&TRW	안산노동자몸짓패	율동패	
18	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예	풍물패	
19	풍산	울림과어울림	풍물패	
20	SK하이닉스청주	하율	율동패	
21		하울림	풍물패	

나. 노동문화교육

1) 목적

노동존중사회를 기치로 들어선 문재인정부이지만 노동자에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등 모든부분에서 노동자의 편은 아닌듯하다. 우리의 상황은 현상유지 조차 힘든상황이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자로서 좀 더 나은 삶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문화패의 활동은 가장 큰 근간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노련도 노동문화교육을 통해 문화일꾼들의 역량강화와 연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교육을 집행하고 끝나지 않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

2) 교육실시 및 장소

❍ 일 시 : 2019 년 3 월 27 일 - 3 월 29 일(2박 3일)

❍ 장 소 : 하내테마파크

3) 대 상 : 노동문화일꾼 남녀 동지 124명

4) 교육내용

① 노동자와 정치(장하나 활동가(전국회의원))
② 주요노동이슈(금속노련 나병호 법규안전부장)
③ 공동체 놀이(더드림교육센터 이정희 대표)
④ 몸짓배우기(들꽃)
⑤ 조직활동을 위한 SNS활용방법 (이기삼 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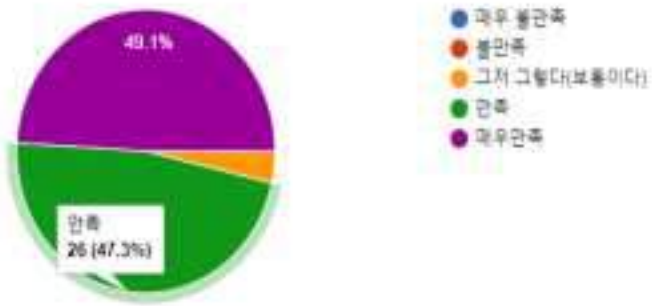
5) 교육평가

① 많은 사업장에서 온 동지들을 만나 정보공유을 하게되어 좋았다.
② 휴식시간을 늘려 줬으면 좋겠다
③ 몸짓배우기 시간을 확대해 주면 된다.
④ 숙소에 냉장고를 배치해주면 좋겠다.
⑤ 조합원 의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교육 평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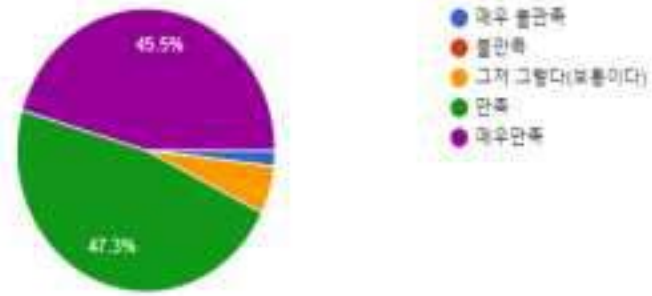
이번 교육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향상되었나요?

응답 5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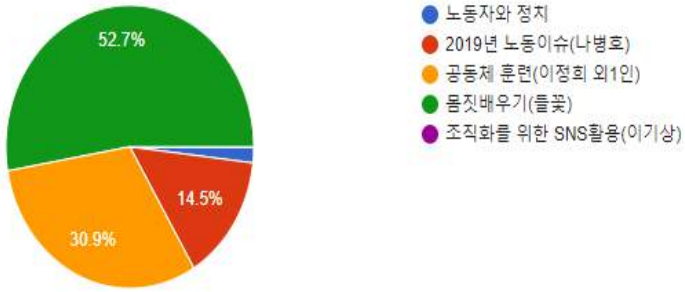
이번 교육이 노동조합활동과 조합원권리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5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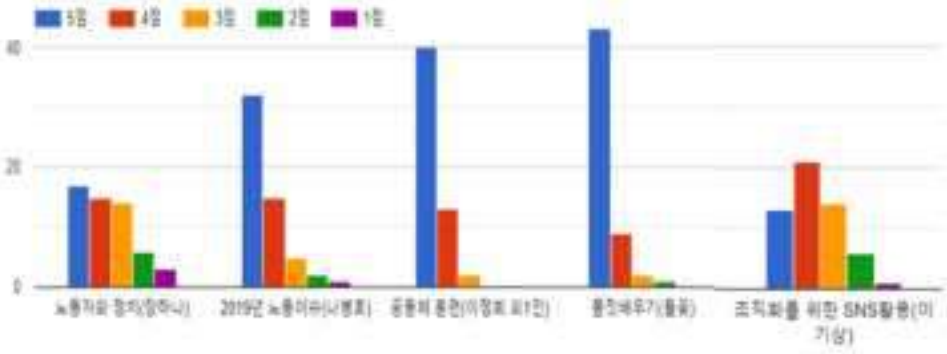


이번 교육에 가장 핵심과정은 어떤것입니까?

응답 55개



아래는 이번 교육 강의내용입니다. 교육과목에 대한 개별 평가 부탁합니다.



다. 각 조직 율동패 연대활동

1) 취지

- 노동자의 권리쟁취와 투쟁의 현장에 금속노련에 소속된 단위노조 율동패들은 연대의 정신으로 어느곳에서나 늘 함께 하고 있음.

2) 몸짓패 지원현황

① 명칭: 한국노총 상근간부 몸짓 교육

- 일시 및 장소 : 2018년 5월 23일
- 지원한 몸짓패 : 한국보그워너티에스노조 한우리

② 명칭: KB국민은행지부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8일
- 지원한 몸짓패 : 대동하이렉스노조 은혼